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 진로준비

- ▶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강영배(대구한의대학교 · 교수)
송민경(경기대학교 · 교수)

발 간 사 ■ ■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세계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고용불안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과 관리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적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내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원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기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와 일상이 대학진학 준비에 불균형적으로 치우쳐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폭넓은 삶의 전망이 요구되는 진로준비에 소홀하게 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의 한국청소년들 간 비교는 이들의 생활실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실태를 비교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진로준비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청소년들이 미래의 진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 걸쳐 이들이 진로준비에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구체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마다하지 않은 일본청소년연구원, 중국아동청소년연구센터,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청소년들의 상대적 입지를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진로지도경험, 직업생활 관련 가치관, 진로·직업태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역량,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취업전망 등이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며, 조사방법은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교 재학 시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지도 방식에 국가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 일본청소년은 진로상담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는 중국과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한·중·미 청소년 모두 부모의 학력이 높고 직업지위가 높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 경우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가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직업 태도 중 진로 결정성은 한·중 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부모의 학력, 직업지위, 경제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교육수준과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교재학 시 다양한 진로지도를 경험한 청소년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한국청소년이 가장 낮았으며,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직업태도 중 준비성과 독립성,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직업 역량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일본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고, 중국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이내 희망일자리에 취업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한·중·일 청소년은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미국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서 주목할 만한 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이 진로준비 정도에 있어서 중·고생들에 비해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한 예로 2009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태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대상인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이 진로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에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진로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던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가 비교적 분명하며, 목표가 구체적인 만큼 이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높았던 것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중요도가 높은 진로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하는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진로·직업태도 수준에서 후퇴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직업역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자기이해 수준과 합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중·고등학생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지도 유형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타 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검사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직업체험을 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진로 검사는 시간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지만, 노동시장 이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에는 직업세계의 치열함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진로 결정의 복잡성을 스스로 경험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인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 진로교육에서 직업체험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도 청소년의 진로준비 수준과 관련성을 보이지만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는 이보다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수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의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수준은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넷째, 학업성적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진로준비 수준 전반에 관련성을 보였는데, 그 상관관계가 한국과 중국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함께 가정의 경제수준도 청소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진로준비 정도에 일관성 있게 관련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중국청소년들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의 진로지도 강화, 부모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 학업성취수준이 낮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소년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진로준비, 진로지도경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진로·직업태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역량, 취업관련 경험, 취업전망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생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조사를 통하여 한국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진로준비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의 비교연구를 통해 각 국가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현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전문가 의견조사, 해외연구기관(중국, 일본, 미국)과의 협의회를 통해 2012년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의 연구 주제는 ‘진로준비’로 결정되었음. 고학력화와 청년노동시장의 약화 등 사회경제적인 맥락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이행 시기의 지연 현상은 4개국에서 모두 관찰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가 주요 사회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 최우선적인 연구 주제로 선정되었음.
-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만 19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온라인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조사의 대상 연령인 만19세-24세의 경우 가구나 학교를 통한 접촉에 많은 한계가 있고, 특정성향의 표본이 조사될 가능성이 온라인 조사보다 오프라인 조사에서 더 높아질 수 있음.
- 조사대상은 각 국가별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성, 연령별 균등 배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지역별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세부 지역 및 도시 층화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할당 변수로 도시규모를 추가하여 결과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의 할당을 적용하였음.

- 번역의 정확성을 검토하는데 주목적을 둔 1차 예비조사와 설문 이해도, 무응답률, 응답의 일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예비조사를 걸쳐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조사는 2012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실시되었음.
-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진로지도경험, 직업생활 관련 가치관, 진로·직업태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역량, 취업관련 경험, 취업전망 등임.

3. 주요결과

1) 사회심리적 요인

- 한·중·일·미 청소년 중 중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미국, 한국, 일본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과 일본은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미국은 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4개국 모두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음.
- 자아통제감도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미국, 일본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과 일본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자아통제감이 더 높았고, 한·중·일 청소년은 교육수준과 고교 재학 시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높았음.
-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는 ‘진로·진학문제’였으며,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었음. ‘진로·진학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자청소년,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청소년, 또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일수록 고민이 가장 컸음.
-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여자청소년, 그리고 4개국 청소년 모두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청소년의 고민정도가 가장 높았음.

2) 진로지도 경험

- 고교 재학 시 한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 경험이(96.5%),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96.8%, 91.4%), 일본청소년은 진로상담(94.8%)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한국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 시 경험한 진로지도의 만족도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진로관련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약 3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한국과 미국청소년

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진로지도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아,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진로지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중국·미국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한·중·미 청소년 모두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경영/관리직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직업이고,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일 때,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음.

3)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및 성공요인

- 직업생활 가치관 중 한국청소년들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85.5%),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에는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임(37.1%).
- 한국청소년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5가지 범주 중 ‘내적보상’과 ‘환경적 보상’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외적 보상’, ‘사회적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
- 진로관련 강연과 직업체험,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한국청소년은 ‘외적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고,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내적 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았음. 또한 ‘자율·창조적 보상’과 ‘사회적보상’은 진로관련 강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임.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는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중 구체적으로 직업, 진학 등 진로와 관련한 대화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가 많을수록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중요도가 더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에 대한 중요도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 한국청소년이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능력’과 ‘근면함과 성실성’이었고, ‘가정배경’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임.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으로 한·일청소년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중국청소년은 ‘인맥’, 미국청소년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

4) 진로·직업태도

- 진로·직업 태도에 있어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에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 결정성은 한·중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높은 부·모학력 및 직업, 경제수준일 때 더 높았음.

- 확신성에 대한 평균값은 일본의 여자청소년이 높아, 실제로는 향후 직업에 대한 성공 확신이나 자신감이 가장 낮았음.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을 때 직업세계의 성공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이 낮게 나타남.
- 진로에 대한 준비성은 한국·일본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한·중·일 청소년에게서 더 높았음. 한·일·미 청소년 중에는 남자청소년이 진로·직업선택 시 타인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교 재학 시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은 향후 진로·직업 선택의 결정성이 더 높았고, 특히 한국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진로지도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확신성이 더 낮았음.
- 가정의 진로지도 정도는 진로·직업 태도 중 ‘결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대화 정도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관련 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진로·직업 태도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직업 역량

- 한국청소년들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나 책, 동영상, TV프로그램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 받거나 관심 있는 직종의 종사자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음.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교육수준과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교재학 시 다양한 진로지도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값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았음.
-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 진로지도의 만족도와는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대화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음.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진로·직업 역량 중 ‘자기이해’와 ‘진로·직업 지식’ 보다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4개국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직업 역량이 높았음.
- 진로·지도 역량 중 ‘진로·직업 지식’은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지도 경험(진로관련 강연,

학교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을 한 청소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은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

6)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한국청소년이 가장 낮았으며,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는 한국·일본청소년은 ‘용돈이 부족해서’, 중국청소년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미국청소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였음.
-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직업 태도 중 준비성과 독립성에서, 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직업 역량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음.
- 한국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은 32.6%로, 미국청소년 70.3%, 중국청소년 63%, 일본청소년 40.2%인데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한국청소년은 구직 및 취업 시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았음.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에 대해 더 높은 응답수준을 보였음.
- 한·중·일 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취업비용이 높았고, 반대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비용이 높게 나타났음. 한국청소년 중 현재 취업준비·무직인 청소년은 현재 학생인 청소년에 비해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낮게 나타남.
- 한·중·일·미 청소년의 부모들은 모두 자녀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고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자녀가 4년제 대학이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도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이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을 선호하였음.
-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일본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고, 중국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5년 이내 희망일자리에 취업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한·중·일 청소년은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미국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한·중·일 청소년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는 응답이, 미국청소년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특히 한국청소년 중에는 여자청소년, 학업성적이 중·하위권인 청소년,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이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는 응답이 많았음.

4. 정책제언

- 후기청소년의 진로교육 요구 파악 및 진로교육 강화
-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 강화
- 의미 있는 진로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 대상 창업교육 강화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1)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	6
2) 설문도구 구축 및 설문조사 실시	8
3. 연구방법	9
1) 비교 국가 선정	9
2) 설문조사	10
3) 전문가 의견조사	12
4)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의회	12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7
1. 청소년 관련 대규모 국제비교조사 현황	19
1) 세계청소년의식조사	19
2) 세계가치관조사	26
3) 국제시민교육연구	30
4) 국제학업성취도조사	32
5) 생활시간조사	33
6) 성인직업기초능력조사와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	34
7) 종합사회조사	35
2. 국내 청소년생활실태 국제비교 관련 선행연구	37
3. 온라인 설문조사의 가능성	40
4. 진로준비	42
1) 진로의 개념	42
2) 진로발달 vs 진로개발	43

3) 진로준비행동	48
4) 청소년기 진로준비의 중요성	51
5) 청소년기 진로준비의 당면문제	55
6) 청소년 진로관련 국내조사연구 결과	59
7) 청소년 진로준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결과	62
제 3 장 연구방법	67
1. 전문가 의견조사	69
1) 조사목적	69
2) 조사방법 및 내용	69
3) 조사결과	73
2. 설문조사	78
1) 조사영역과 설문문항	78
2) 예비조사	80
3) 본조사	81
4) 분석방법	90
제 4 장 연구결과	9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93
2. 사회심리적 요인	97
1) 자아존중감 수준	97
2) 자아통제감 수준	104
3) 청소년의 고민과 걱정거리	110
3. 진로지도 경험	117
1)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117
2)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125

4.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및 성공요인	129
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129
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45
5. 진로 · 직업태도	152
1) 청소년의 진로 · 직업 태도	152
2) 청소년의 진로 · 직업태도와 진로지도/심리적 요인	160
6. 진로준비행동	167
1)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167
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지도/심리적 요인	173
7. 진로 · 직업 역량	177
1) 청소년의 진로 · 직업역량	177
2) 청소년의 진로 · 직업역량과 진로지도/심리적 요인	182
8.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187
1)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유	187
2) 구직 · 취업 경험 및 어려움	195
3) 기대교육수준 및 희망 일자리 취업 가능성	201
9. 조사결과 요약	216
1)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요인	216
2) 진로지도 경험	216
3)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및 성공요인	217
4) 진로 · 직업태도	218
5)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 · 직업 역량	218
6)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219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1
1. 결론	223
1) 후기 청소년의 진로 준비 수준의 후퇴 현상	223

2)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4
2. 정책제언	229
1)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요구 파악 및 진로교육 강화	229
2)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229
3)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230
4)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 강화	230
5) 의미 있는 진로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 대상 창업교육 강화	231
참고문헌	233
부 록	247
부록1. 한국 설문지	249
부록2. 중국 설문지	260
부록3. 일본 설문지	271
부록4. 미국 설문지	283
부록5. 아동·청소년 통계자료 구축 현황(2011년 5월 기준)	295
부록6. 설문조사 결과 부표	296
보 론	339
보론 1. 한·중·일·미 고등학생 진로준비 설문조사 결과	341
1) 조사개요	341
2) 조사결과	342
보론 2.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의 데이터 비교	350

표 목 차

〈표 I-1〉 설문조사 영역 및 하위 조사 내용	11
〈표 I-2〉 전문가의견조사 - 국제비교 연구주제 및 조사영역 도출	12
〈표 II-1〉 세부 조사항목	20
〈표 II-2〉 조사대상국의 추이(제1회-제8회)	22
〈표 II-3〉 표본추출방법(제8회)	23
〈표 II-4〉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일본)	24
〈표 II-5〉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미국)	24
〈표 II-6〉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한국)	25
〈표 II-7〉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영국)	25
〈표 II-8〉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프랑스)	26
〈표 II-9〉 세계가치관조사의 개요	27
〈표 II-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II-11〉 조사방법의 개요(일본)	29
〈표 II-12〉 조사내용	31
〈표 II-13〉 ALL 조사 도구 하위 영역별 내용	34
〈표 II-14〉 해외 사회조사 사례	35
〈표 II-15〉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	53
〈표 II-16〉 청소년 진로 관련 조사연구	59
〈표 II-17〉 한국 청소년 직로·직업 영역에 대한 지표체계 및 조사내용	62
〈표 II-18〉 OECD 국가에서의 진로지도	64
〈표 II-19〉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	65
〈표 III-1〉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 영역체계	70
〈표 III-2〉 해외 청소년/성인대상 사회조사 주요 영역 요약	71
〈표 III-3〉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72
〈표 III-4〉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선정 결과(8개 조사영역)	74

〈표 Ⅲ-5〉 설문조사 문항 및 출처	78
〈표 Ⅲ-6〉 예비조사 개요	80
〈표 Ⅲ-7〉 조사대상과 표본크기	81
〈표 Ⅲ-8〉 표본구성	82
〈표 Ⅲ-9〉 각 국가별 세부 표본 할당	82
〈표 Ⅲ-10〉 한국의 도시구분	83
〈표 Ⅲ-11〉 중국의 도시구분	84
〈표 Ⅲ-12〉 일본의 도시구분	85
〈표 Ⅲ-13〉 미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85
〈표 Ⅲ-14〉 설문지 확정을 위한 2단계 파일럿 테스트	89
〈표 Ⅲ-15〉 본 조사 절차	90
〈표 Ⅳ-1〉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특징	95
〈표 Ⅳ-2〉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별 응답	98
〈표 Ⅳ-3〉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일부)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99
〈표 Ⅳ-4〉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별 비교	101
〈표 Ⅳ-5〉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 배경변인별 비교	103
〈표 Ⅳ-6〉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응답	105
〈표 Ⅳ-7〉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 : 배경변인별 비교	106
〈표 Ⅳ-8〉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비교	108
〈표 Ⅳ-9〉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 : 배경변인별 비교	109
〈표 Ⅳ-10〉 한국청소년의 현재의 고민·걱정거리	111
〈표 Ⅳ-11〉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항목별 비교	113
〈표 Ⅳ-12〉 청소년의 현재의 고민·걱정거리에 대한 국가별 응답 순위	114
〈표 Ⅳ-13〉 한·중·일·미 청소년의 걱정/고민거리 : 배경변인별 비교	116
〈표 Ⅳ-14〉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비교	118

〈표 IV-15〉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 국가별·배경변인별 비교	119
〈표 IV-16〉	한국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121
〈표 IV-17〉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비교	123
〈표 IV-18〉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 배경변인별 비교	124
〈표 IV-19〉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125
〈표 IV-20〉	한·중·일·미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비교	126
〈표 IV-21〉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 배경변인별 비교	128
〈표 IV-22〉	한국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130
〈표 IV-2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비교	132
〈표 IV-24〉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133
〈표 IV-25〉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134
〈표 IV-26〉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규칙적인 출퇴근시간·휴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기	135
〈표 IV-27〉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한·중·일·미 청소년 비교	137
〈표 IV-28〉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5가지 범주 : 배경변인별 비교	138
〈표 IV-29〉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5가지 범주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141
〈표 IV-30〉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	142
〈표 IV-31〉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143
〈표 IV-32〉	상관분석 :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	144
〈표 IV-33〉	한국청소년이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46
〈표 IV-34〉	직업성공요인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중요도 비교	147

〈표 IV-35〉 직업성공요인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중요도 순위 비교	148
〈표 IV-36〉 직업성공요인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전체 중요도 순위	149
〈표 IV-37〉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	151
〈표 IV-38〉 진로·직업태도에 대한 한국청소년의 동의 정도	153
〈표 IV-39〉 진로·직업태도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동의 정도 비교	155
〈표 IV-40〉 진로·직업태도/결정성 : 배경변인별 비교	156
〈표 IV-41〉 진로·직업태도/확신성 : 배경변인별 비교	158
〈표 IV-42〉 진로·직업태도/준비성 : 배경변인별 비교	159
〈표 IV-43〉 진로·직업태도/독립성 : 배경변인별 비교	160
〈표 IV-44〉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결정성 : 학교진로지도에 따른 차이 ...	161
〈표 IV-45〉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확신성 : 학교진로지도에 따른 차이 ...	162
〈표 IV-46〉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준비성 : 학교진로지도에 따른 차이 ...	163
〈표 IV-47〉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독립성 : 학교진로지도에 따른 차이 ...	163
〈표 IV-48〉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164
〈표 IV-49〉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165
〈표 IV-50〉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	166
〈표 IV-51〉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세부항목별 응답	168
〈표 IV-5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비교	169
〈표 IV-53〉 진로준비행동 세부항목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 비교	170
〈표 IV-54〉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 배경변인별 비교	172

〈표 IV-55〉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174
〈표 IV-56〉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175
〈표 IV-57〉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175
〈표 IV-58〉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	176
〈표 IV-59〉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세부항목별 응답	178
〈표 IV-60〉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비교	179
〈표 IV-61〉 진로·직업역량/합리적 의사결정 : 배경변인별 비교	181
〈표 IV-62〉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183
〈표 IV-63〉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184
〈표 IV-64〉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185
〈표 IV-65〉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	186
〈표 IV-66〉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188
〈표 IV-67〉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이유	189
〈표 IV-68〉 주요 아르바이트 이유 : 배경변인별 비교	190
〈표 IV-69〉 아르바이트 경험의 현재·미래의 직업 도움 여부	191
〈표 IV-70〉 아르바이트 여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진로·직업태도/ 진로준비행동/진로·직업역량 비교	194
〈표 IV-71〉 구직 및 취업 경험 여부	196
〈표 IV-72〉 구직 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	197
〈표 IV-73〉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취업 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 비교	199

〈표 IV-74〉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취업 시 어려움 : 배경변인별 비교	200
〈표 IV-75〉 한·중·일·미 청소년의 현재 취업/학생 상황	202
〈표 IV-76〉 한·중·일·미 청소년의 현재 취업/학생 상황 : 배경변인별 비교	202
〈표 IV-77〉 현재 상황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역량 비교	203
〈표 IV-78〉 부모가 기대하는 청소년의 교육 수준	205
〈표 IV-79〉 부모가 기대하는 청소년의 교육수준 : 배경변인별 비교	206
〈표 IV-80〉 청소년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208
〈표 IV-81〉 청소년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 배경변인별 비교	208
〈표 IV-82〉 상관분석 : 한·중·일·미 부모의 기대교육수준과 청소년의 기대교육수준	209
〈표 IV-83〉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210
〈표 IV-84〉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 배경변인별 비교	211
〈표 IV-85〉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이 불가능한 이유 비교	212
〈표 IV-86〉 한국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불가능 이유 : 배경변인별 비교	213
〈표 IV-87〉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대책	214
〈표 IV-88〉 한국청소년의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주요 대책 : 배경변인별 비교	215

부표 · 보론표 목차

〈부표 1〉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 : 배경변인별 비교	296
〈부표 2〉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 배경변인별 비교	296
〈부표 3〉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 배경변인별 비교(1)	298
〈부표 4〉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 배경변인별 비교(2)	298
〈부표 5〉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 배경변인별 비교	299
〈부표 6〉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	
배경변인별 비교	300
〈부표 7〉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	
배경변인별 비교	301
〈부표 8〉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	
배경변인별 비교	302
〈부표 9〉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세부항목별 비교 ..	303
〈부표 10〉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 배경변인별 비교(1)	304
〈부표 1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 배경변인별 비교(2)	305
〈부표 12〉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07
〈부표 13〉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많은 돈을 버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08
〈부표 14〉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09
〈부표 15〉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10
〈부표 16〉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11
〈부표 17〉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12

〈부표 18〉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13
〈부표 19〉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14
〈부표 20〉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15
〈부표 2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316
〈부표 2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외적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317
〈부표 2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내적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317
〈부표 24〉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환경적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318
〈부표 25〉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자율·창조적 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318
〈부표 26〉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사회적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319
〈부표 27〉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외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319
〈부표 28〉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내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320
〈부표 29〉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환경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320
〈부표 30〉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자율·창조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320

〈부표 3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사회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321
〈부표 32〉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321
〈부표 33〉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322
〈부표 34〉 상관분석 :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자아존중감	322
〈부표 35〉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1)	322
〈부표 36〉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2)	323
〈부표 37〉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3)	324
〈부표 38〉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4)	325
〈부표 39〉 진로 · 직업태도/결정성 : 배경변인별 비교	325
〈부표 40〉 진로 · 직업태도/준비성 · 독립성 : 배경변인별 비교	326
〈부표 41〉 청소년의 진로 · 직업태도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327
〈부표 42〉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진로 · 직업태도와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	328
〈부표 43〉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진로 · 직업태도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진로 관련 대화	328
〈부표 44〉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일부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329
〈부표 45〉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일부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330
〈부표 46〉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일부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331

〈부표 47〉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진로 관련 강연	332
〈부표 48〉 진로 · 직업역량/합리적 의사결정 : 배경변인별 비교	332
〈부표 49〉 진로 · 직업역량/자기이해 : 배경변인별 비교	333
〈부표 50〉 진로 · 직업역량/진로직업지식 : 배경변인별 비교	334
〈부표 51〉 청소년의 진로 · 직업역량/자기이해 · 합리적 의사결정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335
〈부표 52〉 상관분석 : 한 · 중 · 일 · 미 청소년의 진로 · 직업역량과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335
〈부표 53〉 아르바이트 여부 :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비교	336
〈부표 54〉 현재 상황 : 진로직업태도 비교	336
〈부표 55〉 중 · 일 · 미 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불가능 이유 : 배경변인별 비교	337
〈부표 56〉 중 · 일 · 미 청소년의 구직 시 학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 배경변인별 비교	338
〈보론표 1〉 조사개요	341
〈보론표 2〉 고등학교 졸업 후의 계획	342
〈보론표 3〉 부모님과 진로관련 대화 정도	343
〈보론표 4〉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 경험 여부	344
〈보론표 5〉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 경험 만족도	345
〈보론표 6〉 진로 · 직업 태도	346
〈보론표 7〉 직업선택 요인	347
〈보론표 8〉 진로와 관련한 가치관	348
〈보론표 9〉 조사방법에 따른 현재 상황(취업, 학생, 취업준비/무직)	351
〈보론표 10〉 조사방법/부모님의 최종학력	351
〈보론표 11〉 조사방법/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	352

〈보론표 12〉 조사방법/가정의 경제수준	352
〈보론표 13〉 조사방법/부모님의 교육기대수준	352
〈보론표 14〉 조사방법/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353
〈보론표 15〉 조사방법/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353
〈보론표 16〉 조사방법/구직·취업 여부	353
〈보론표 17〉 조사방법/구직 시 경험한 어려움	354

그림 목 차

【그림 I-1】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	7
【그림 I-2】 1차년도 설문조사 수행 과정	8
【그림 III-1】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 과정	73
【그림 IV-1】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 항목별 비교	97
【그림 IV-2】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 항목별 비교	98
【그림 IV-3】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 항목의 평균값 비교 ·	100
【그림 IV-4】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평균값) 비교	102
【그림 IV-5】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비교	104
【그림 IV-6】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비교	107
【그림 IV-7】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평균값) 비교	109
【그림 IV-8】 한국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110
【그림 IV-9】 한국청소년에게 가장 걱정거리로 나타난 항목	111
【그림 IV-10】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112
【그림 IV-11】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117
【그림 IV-12】 한국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121
【그림 IV-13】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122
【그림 IV-14】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125
【그림 IV-15】 한·중·일·미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126
【그림 IV-16】 한국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129
【그림 IV-17】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주요 항목 비교	131
【그림 IV-18】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범주별 비교(1)	136
【그림 IV-19】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범주별 비교(2)	136

【그림 IV-20】 한국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결정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1)	140
【그림 IV-21】 한국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결정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2)	141
【그림 IV-22】 한국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	145
【그림 IV-23】 한 · 중 · 일 · 미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 성공요인	147
【그림 IV-24】 직업생활 성공요인 중 '원만한 대인관계'에 대한 성별비교 ····	150
【그림 IV-25】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 태도 중 가장 높은/ 낮은 응답률 보인 항목	152
【그림 IV-26】 한 · 중 · 일 · 미 청소년의 진로 · 직업 태도/준비성과 결정성 (평균값) 비교	154
【그림 IV-27】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 태도/결정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161
【그림 IV-28】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 태도/확신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162
【그림 IV-29】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167
【그림 IV-30】 한 · 중 · 일 · 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평균값) 비교	169
【그림 IV-31】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171
【그림 IV-32】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173
【그림 IV-33】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 역량	177
【그림 IV-34】 한 · 중 · 일 · 미 청소년의 진로 · 직업 역량(평균값) 비교 ····	179
【그림 IV-35】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 역량/합리적 의사결정 : 교육성적, 학업성적, 경제수준별 비교	180

【그림 IV-36】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182
【그림 IV-37】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긍정 응답	187
【그림 IV-38】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188
【그림 IV-39】 한국청소년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189
【그림 IV-40】 한·중·일·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직업 도움 여부 ..	191
【그림 IV-41】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진로·직업태도/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역량 차이	192
【그림 IV-42】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진로·직업태도/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역량 차이	193
【그림 IV-43】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 여부	195
【그림 IV-44】 한국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시 겪는 어려움 이유	196
【그림 IV-45】 한국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시 겪는 어려움 이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	197
【그림 IV-46】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 시 어려움 이유 ...	198
【그림 IV-47】 한·중·일·미 조사대상 청소년의 현재 상황	201
【그림 IV-48】 한·중·일·미 부모의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	204
【그림 IV-49】 한·중·일·미 청소년이 기대하는 본인의 교육수준	207
【그림 IV-50】 한·중·일·미 청소년과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 비교 ...	209
【그림 IV-51】 한·중·일·미 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	210
【그림 IV-52】 한·중·일·미 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에 대한 어려움 이유	212
【그림 IV-53】 한국청소년의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대책	214

【그림 IV-54】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대책	215
【보론그림 1】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342
【보론그림 2】 한국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34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 1 장
서론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책결정과정은 단순히 과학적인 데이터에만 의거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당 사회에서 선호되는 가치, 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정당성에 관한 현실적 판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된다(Head, 2009: 13). 하지만 엄밀한 연구를 통해 생산된 양질의 데이터는 근거기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Banks, 2009; Segone & Pron, 2008). 청소년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분야에서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그들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딜레마에 대한 최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시의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다(Nico, 2009).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 사회가 상정하는 바람직한 청소년의 모습에 대한 기대 범위에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벗어난다는 뜻인 동시에 다른 사회 청소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보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청소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타당한 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시간의 변화나 하위 집단 별 양상을 읽을 수 있는 국내 데이터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서 외국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은 대학입시를 위한 무한경쟁 구도에 의해 상당 부분 규정되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과열된 학업경쟁은 더 이상 바꾸기 어려운 “정상(norm)”으로 받아들인다고

1) 1장은 안선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기 경험이 대학진학 준비에 불균형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로 인해 간과되는 부분들이 이후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일한 코드에 종속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의 한국청소년들 간 비교는 이들의 생활실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 그 안에서 청소년들의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작업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청소년 관련 부처, 학계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기현, 홍세희, 설현수, 유성렬, 정익중, 2009; 김형주, 최인재, 임지연, 2008). 청소년관련 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김기현, 김창환, 2011), 설문도구 구축과 표본선정 등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다양한 영역의 사회조사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청소년의 상대적 입지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 간 비교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생산하여 공개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OECD이며,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조사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조사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이 데이터 수집과 공개를 위한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시의성 있는 연구에 활용하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정보 수집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를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OECD, 2009).

또한 참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조사가 가능한 영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조사 내용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렇듯, 어느 특정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 요구로 대두되는 영역에 대한 조사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아우를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관에서 제공하는 2차 데이터(secondary data)를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우, 연령대 선정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된 연령대를 상정해야 하는 정책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제비교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는 장점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 특히 청소년의 행동과 문화는 그 사회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의 전반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학업경쟁의 과열화, 학교폭력, 유해매체 사용,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이질적 집단에 대한 배척 등 청소년들의 문제행동들이 뜨거운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사회 전체의 병리현상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가 변화해 나갈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Nico, 2009). 이와 같이 청소년생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성인기 이행의 지연과 자살의 증가를 비롯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사회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 표출과 저항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초고속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강화의 필요성도 모든 국가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개발은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생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조사를 통하여 한국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한다. 본 청소년생활실태 조사는 청소년생활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영역 중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더불어 국제비교연구 주제로써 타당하고 또한, 시의적절한 조사영역을 도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다. 조사영역은 국내·외 학계, 현장,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의견조사와 비교조사 대상 국가의 청소년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학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관련 영역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모든 국가의 당면 과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유용한 주제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현재 10개국(일본, 중국, 미국, 핀란드, 호주, 영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독일), 12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연구네트워크(WARDY, 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Youth)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WARDY 회원 기관들은 외국의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점차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연구교류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발전하면서 한국의 청소년정책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본원의 국제연구교류네트워크 소속 기관의 연구교류 제의가 많아진 것은 국제연구교류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국제비교연구가 제안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3년부터 일본청소년연구소와 매년 공동설문도구를 사용하여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2011년에는 핀란드의 청소년연구네트워크(안선영, 김희진, 2011)와 공동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체계적인 국제비교연구 수행 체제 구축과 실질적인 국제연구교류 협력에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2년 7월에 중국, 일본, 미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협의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를 통해 국제비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출판물 공동발간,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청소년생활실태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매개로 청소년연구와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인 국제컨퍼런스 개최로 발전시킴으로써 청소년분야의 연구 및 정책 부분에서 지속성 있는 국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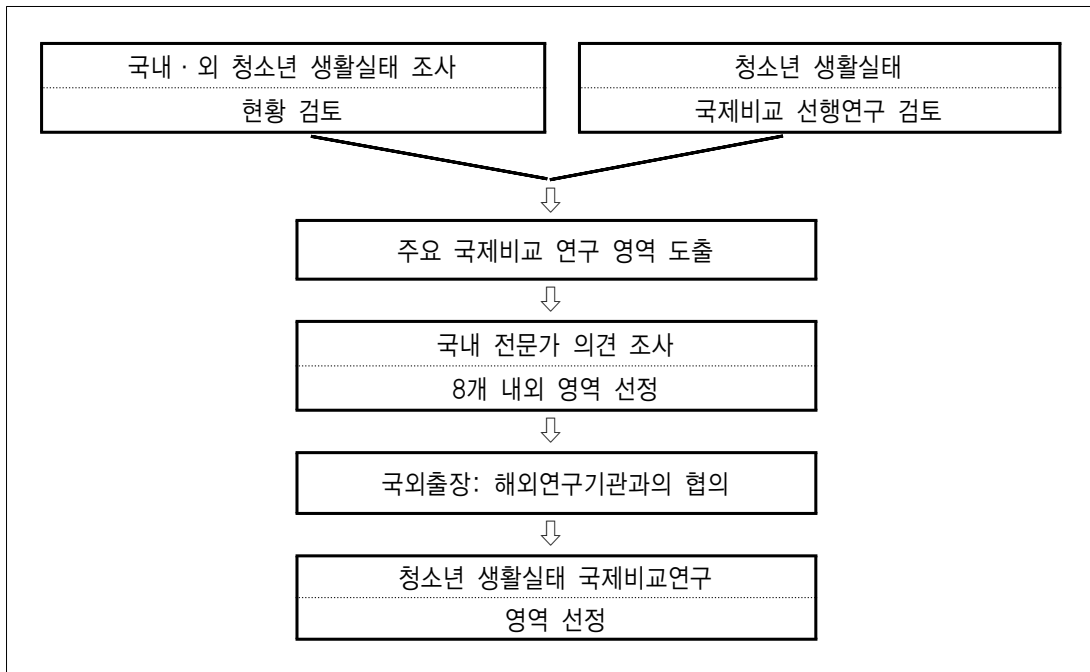
2. 연구내용

1)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한 부분은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의 영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청소년 생활실태와 관련하여 국제비교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영역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1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국제비교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서 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이 작업은 의미를 지닌다. 비교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한국의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은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비교 대상 국가에서 데이터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조사비용을 분담하며, 연구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사 영역 도출을 위해 먼저 기존의 청소년 관련 국내·외 통계조사 현황을 고찰하고, 조사영역과 문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의 영역 도출을 위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그동안 국내의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데이터를 생산한 실태조사를 총망라하여 아동청소년의 통계자료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핵심지표 영역체계를 구축한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 영역체계」(김기현, 김창환, 2011)이다. 이 영역체계는 청소년 관련 조사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여 줌으로써 국제비교조사 영역 선정 시 내용의 중요도와 시의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는데 있어 균형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록 5>는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통계자료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 통계 조사영역을 참고하여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더욱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제비교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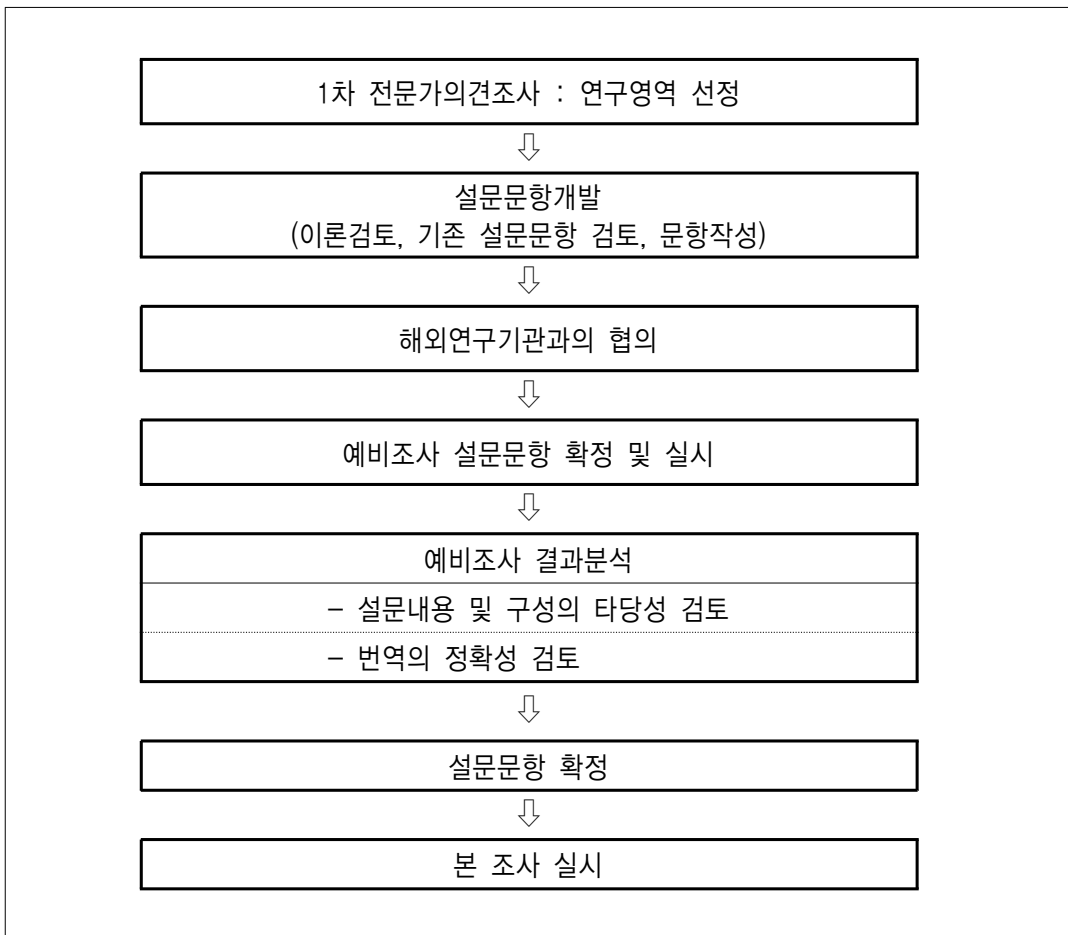
이와 함께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주제를 검토하여 주요 연구 영역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국내 학계 및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8개 영역으로 좁힌 다음,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은 조사 영역을 선정하였다.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은 【그림 I-1】에 나타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림 I-1】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

2) 설문도구 구축 및 설문조사 실시

국제청소년생활실태조사의 비교연구 영역을 ‘진로준비’ 로 확정하고 【그림 I-2】에 제시된 절차와 같이 조사영역에 대한 설문도구를 구축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특히 번역과정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설문문항이 각 국가의 여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I-2】 1차년도 설문조사 수행 과정

3. 연구방법

1) 비교 국가 선정

현대 경험 사회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그 인과적 경로를 밝히며,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는 것’ 으로 가정할 때, 비교분석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김웅진, 김지희, 2000: 12). 청소년 정책에서도 외국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청소년들의 상대적인 입지를 알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방식과 당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다.

국제비교조사에서 어떤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하지 않다. 먼저 연구 측면에서 볼 때에는 비교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비교 대상 국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국가에서 비교조사가 가능한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려사항도 간과될 수 없다. 본 연구의 1차년도 비교조사 대상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이다.²⁾ 먼저 여러 기준에서 비춰볼 때 미국과 일본은 서구와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주요 선진국이며 청소년영역을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연구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 고학력화, 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청소년의 현재와 앞으로의 삶의 모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두 국가 청소년의 모습은 우리 청소년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경제발전 수준이 낮지만 1970년대 후반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왔고, 글로벌 파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중국사회의 개방이 시작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사회조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공개하는 공적 정보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홍준, 2005).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에도 급격한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현재 국제연구네트워크(WARDY)에 회원 기관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 핀란드, 호주, 영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독일와의 연구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국제비교조사 참여 국가 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중국청소년의 생활실태에도 큰 격차가 예상된다(Fu, 2005; Luo, Yang, Lei, Wang, Papasoam & Deng, 2009).³⁾ 교육기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교육-노동시장 수요공급의 불일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농촌의 해체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혼란과 도농 간 격차 등 한국이 과거에 심각하게 경험했거나 현재까지도 숙제로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과의 비교대상으로서 가치를 높인다.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통해 많은 혼란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사례가 현재 중국의 상황에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중국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남북통일 후 북한청소년들의 모습에 대한 예측과 준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2) 설문조사⁴⁾

(1) 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해외연구기관과의 협의회,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국제비교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를 1차년도 조사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 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청소년들의 상대적 입지를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관련 정책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 국제비교 조사는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제비교조사는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진다. 온라인조사는 비용과 시간 절감 측면에서 이러한 국제비교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변화하는 조사 여건에서 면접조사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조사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조사방법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는 온라인조사

3) Luo 외(2009)는 중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키와 BMI(Body Mass Index)에서 도농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밝혔고, 이는 전반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과 건강 상태가 지역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학령기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Fu(2005)는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초등교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도농 간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초등교육 수준에서의 상이한 경험은 이후 삶의 경로에서 더 큰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4)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와 더불어 4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의 조사는 해당 국가가 부담하였고, 미국조사의 비용은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 부담하였다. 본 보고서의 본문에는 온라인조사 결과만 제시하였고, 오프라인조사의 결과는 본 보고서의 보론에서 제시하였다.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며, 청소년연구 분야에서 온라인조사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조사 내용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영역 및 하위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 - 1 설문조사 영역 및 하위 조사 내용

영역	하위 조사 내용	
진로 · 직업의식	진로 · 직업 가치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진로 · 직업태도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 · 직업경험	진로 · 직업교육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진로 · 직업준비	진로준비행동	
진로 · 직업역량	자기이해	
	진로 · 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이유	
	아르바이트 경험의 도움 여부	
구직 및 취업 경험	구직 및 취업경험 여부	
	구직 시 어려움 경험 이유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전망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이유	
	학력수준에 맞는 구직이 어려울 경우 대처 행동	
사회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현재 고민거리	

영역	하위 조사 내용
기타	현재 상황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본인의 기대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 직업
	고등학교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3)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실태 국제비교 조사를 위한 연구주제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2 전문가의견조사 - 국제비교 연구주제 및 조사영역 도출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전문가	○ 관련전문가 26명 - 학계전문가 24명 - 정부부처 공무원(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2명
선정방법	○ 관련전공, 기관특성, 정부부처 등 고려하여 선정
조사내용	○ 국제비교 조사영역 도출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방법	○ 서면 의견 조사
조사시기	○ 2012년 5월

4)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의회

본 연구는 청소년 생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체계적인 국제비교연구 수행 체제 구축과 실질적인 국제연구교류 협력을 창출해 나가는 것을 또 하나의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체계적인 국제비교연구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연구기관 연구진과의 전문가협의회를 가졌다. 2012년 7월 24일에서 26일에 걸쳐 한·중·일 국제비교조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로드아일랜드 대학(University of Rhode Island) 인간발달가족학과(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의 후원으로 로드아일랜드 대학 교수진을 비롯하여 본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국아동청소년연구센터(China Youth and Children Research Center), 일본청소년연구원(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진들이 향후 국제비교조사 연구 방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에서 공동 설문조사지 구축과 공동 설문조사 실시 방안 모색, 조사결과를 활용한 출판물 공동발간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가능성 타진을 주로 논의하였다.

이 협의회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본원에서 외국기관과 수행해온 국제비교연구는 조사내용, 조사방법, 설문문항 구성, 측정방법(scale) 등에 대해 참여 국가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생산된 데이터는 국제비교가능성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번 4개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조사의 계획 및 과학적인 수행체계 수립이다. 지금까지 본원이 일본, 중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수행한 국제비교조사는 국제비교를 위한 엄밀한 데이터 생산의 목적 보다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교류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격은 연구주제 선정과정에서 잘 볼 수 있는데, 한·중·일 연구기관이 1년 단위로 결정권을 번갈아가며 갖는 방식을 통해 연구주제를 선정함으로써 국가별 관심 영역을 고르게 반영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비교조사 영역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이 매해 조사 내용에 대한 결정권 소재가 바뀔에 따라 국제비교조사 내용이 체계적인 흐름을 갖추지 못하는 약점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체계적인 국제비교조사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2012년 7월에 열린 협의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국제비교조사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조사 영역, 설문지 구축 절차, 조사비용 분담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방법 및 표집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방법은 공통적으로 학교를 통한 집단질문지법을 취해왔다. 그런데 국가별로 조사지역 선정과 학교 수, 표본 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국가 간 비교를 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우 국가 규모가 커서 전국단위 조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조사가 되어 데이터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 학교의 조사 협조를 얻기 쉽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섭의를 해야 하는 점도 데이터 수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협의회를 통해 학교 섭의를 통한 집단질문지법과 지금까지의 표집방식을 평가하고 비용이나 데이터품질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데이터 수집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미국과 중국처럼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표성을 대도시 거주 청소년 대상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학교를 통한 집단질문지법과 온라인패널조사의 장단점에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셋째, 1차 전문가의견조사결과 도출된 8가지의 조사영역 중 참여한 개국 연구기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사 영역을 논의하였다. 4개국 연구기관 모두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를 국제비교조사의 최우선 주제로 선정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2차년도 국제비교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SNS 활용 실태’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2차년도 조사뿐만 아니라 3,4차년도 조사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국가마다 청소년 정책의 관심 영역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국제비교조사에 대한 예산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여 2차년도 이후의 조사 주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넷째, 4개국 간 협의회 준비과정에서 1차년도 조사 영역으로 잠정 논의가 된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career preparation)’에 관한 세부 설문 영역을 결정하였다. 본원에서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조사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에 관한 공동설문조사 내용에 1차적인 합의에 기반하여 문항을 구축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설문내용에 대한 조정 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학문적 논의 활성화에 기여
- 국제연구교류 대상 다양화를 통한 청소년관련 국제적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 국제비교 연구방법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국제비교연구의 질적, 양적 개선에 기여

-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국가 간 핵심 이슈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정책 관련 국제 협력을 모색할 영역 구체화
-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
- 청소년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방향성 모색
- 청소년연구 분야의 온라인 조사 노하우 축적 및 활용 가능성 모색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관련 대규모 국제비교조사
현황
2. 국내 청소년생활실태 국제비교
관련 선행연구
3. 온라인 설문조사의 가능성
4. 진로준비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관련 대규모 국제비교조사 현황⁵⁾

국제비교조사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조사내용과 표집방식의 조율을 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는 입장을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리더십을 가진 구심점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대규모 국제비교조사의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세계청소년의식조사

(1) 조사의 목적

이 조사는 일본 정부가 자국 청소년들의 의식의 특징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정책수립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1972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국제비교조사이다. 현재까지 8회(2008년-2009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매회 조사마다 약간씩 달라지는데, 가장 최근 조사인 제8회 조사(2008년-2009년)에서는 가정관련항목, 학교관련항목, 직업관련항목, 친구관련항목,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관련항목, 국가 및 사회관련항목, 정보통신관련항목, 인생관관련항목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질문항목들은 다음의 <표 II-1>과 같다.

5) 이 부분은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가 집필하였음.

표 II-1 세부 조사항목

영역		세부내용
가족	가족형태	결혼 여부(미혼, 기혼)
		동거인
	부자관계	부자관계에 관한 의식
		자신의 노후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식(食)생활	가족생활만족내용 식생활 주의사항	
학교	학력	학교 재학 여부
		학교유형
	학교 통학의 의의와 평가	학교 재학의 의의
		사회성공요인 학교생활만족도
직업	직업	직업 유무
		직종
		취업방법
	직업체험활동(진로교육)	진로교육의 효과
		진로교육 수강 의사
		전일제 취업 의사
	직장에 대한 귀속의식 · 만족도	전직경험
직장생활 만족도		
직업의식	직업선택 시 중시내용	
	승진, 승급방법	
지역사회 · 자원봉사	지역사회	지역사회 애착정도
		애착을 가지게 된 이유
		지역의 영주(永住)의식
	여가	휴일을 보내는 방법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흥미		
자원봉사활동에 흥미 이유		
국가 · 사회	국가관	국가의 자랑거리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국가에 대한 봉사
		정치에 대한 관심도

영역		세부내용
	사회관	사회에 대한 만족도
		사회문제
	국제적 시야	국민들의 국제적 시야
		국제적인 시야를 몸에 익히기 위해 필요한 정책
	일본관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
		일본에 대한 이미지
정보통신	휴대전화	휴대전화 소유 유무
	인터넷 이용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이용
		인터넷 이용 전후의 변화
		인터넷 이용으로 체험한 문제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규제
인생관	생활방식	충실감
	고민 및 걱정	고민, 걱정 유무
		고민, 걱정 상담상대
	사회규범	사회규범
	종교관	종교관
	남녀관계	남녀의 역할관
		결혼관
		결혼하면 좋은 이유
		결혼하지 않으면 좋은 이유
		희망하는 자녀수
	이혼관	

(3) 조사대상국 및 조사대상자

1972년 제1회 조사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총 11개국이 조사대상국가에 포함되었으며, 1998년 제6회 조사까지 11개국 체계를 유지하다가 2003년의 제7회 조사부터는 일본,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5개국 체계로 참여 국가수가 크게 줄었다. 아울러, 가장 최근의 조사인 제8회(2008년-2009년) 조사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II-2>참조). 조사대상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만 18-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2 조사대상국의 추이(제1회-제8회)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1972년	1977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일본	○	○	○	○	○	○	○	○
미국	○	○	○	○	○	○	○	○
영국	○	○	○	○	○	○		○
독일					○	○	○	
서독	○	○	○	○				
프랑스	○	○	○	○	○	○		○
스웨덴	○	○	○	○	○	○	○	
브라질	○	○	○	○	○	○		
한국			○	○	○	○	○	○
필리핀	○	○	○		○	○		
태국					○	○		
러시아					○	○		
중국				○				
싱가폴				○				
호주		○		○				
유고슬라비아	○		○					
인도	○	○						
스위스	○	○	○					
참가국수	11개국	11개국	11개국	11개국	11개국	11개국	5개국	5개국

(4) 조사방법

원칙적으로 각 국가별로 1,000개 표본을 회수하는 것으로 하며,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조사원에 의한 개별면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본추출방법, 회수부수, 사용언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II-3>과 같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2003년 제7회 조사에서 전국을 15개 지역과 3개 도시 규모로 총화하고, 각 층 내에서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2008년 제8회 조사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8개 도를 23개로 총화한 후, 이 지역 가운데 101개 지점을 추출하여 성별, 연령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수를 설정하였다.

표 II-3 표본추출방법(제8회)

구분	표본추출방법	회수부수	사용언어
일본	2단계총화무작위표본추출방식	1,090	일본어
한국	대도시(7개 도시)와 8개 지역을 23개층으로 설정하여, 101개 지점을 추출한 후, 각 지점에서 모집단의 성별, 연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수를 설정.	1,002	한국어
미국	전국을 9개 지역과 3개 도시규모로 총화하여, 101개 지점을 추출, 각 지점에서 모집단의 성별, 연령(18-19세, 20-21세, 22-24세로 구분), 인종의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수를 지정	1,011	영어
영국	전국을 35개 행정단위와 7개 도시규모로 총화하여, 103개 지점을 추출. 모집단의 성별, 연령(18-19세, 20-21세, 22-23세, 24세의 4단계로 구분), 취업형태의 비율에 따라 할당수를 설정	1,012	영어
프랑스	전국을 9개 지역, 5개 도시 규모로 총화하여, 103개 지점을 추출. 모집단의 성별, 연령, 세대주의 직업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할당수 설정	1,039	프랑스어

표 II-4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일본) (단위: %)

구 분		모집단 비율	회수된 표본비율
성별	남성	51.3	49.4
	여성	48.7	50.6
연령	18세	13.6	12.3
	19세	13.9	14.5
	20세	14.3	13.6
	21세	14.6	13.9
	22세	14.6	15.1
	23세	14.4	15.5
	24세	14.6	15.0
합계		100.0	100.0

표 II-5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미국) (단위: %)

구 분		모집단 비율	회수된 표본비율
성별	남성	51.1	50.0
	여성	48.9	50.0
연령	18세	29.7	30.3
	19세		
	20세	29.2	30.1
	21세		
	22세	41.1	39.7
	23세		
	24세		
합계		100.0	100.0

표 II-6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한국) (단위: %)

구 분		모집단비율	회수된 표본비율
성별	남성	51.7	52.5
	여성	48.3	47.5
연령	18세	12.4	11.9
	19세	12.6	12.4
	20세	13.1	12.8
	21세	13.3	13.3
	22세	15.1	15.5
	23세	16.5	16.8
	24세	16.9	17.5
합계		100.0	100.0

표 II-7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영국) (단위: %)

구 분		모집단비율	회수된 표본비율
성별	남성	50.0	48.2
	여성	50.0	51.8
연령	18세	14.3	22.3
	19세	14.3	13.7
	20세	15.0	14.4
	21세	14.9	14.4
	22세	14.2	11.2
	23세	13.6	12.1
	24세	13.7	11.9
합계		100.0	100.0

표 II-8 각 국가별 모집단 비율 및 회수된 표본비율(프랑스) (단위: %)

구 분		모집단비율	회수된 표본비율
성별	남성	50.4	50.3
	여성	49.6	49.7
연령	18세	15.4	16.2
	19세	14.4	14.3
	20세	13.9	14.1
	21세	13.9	13.7
	22세	13.6	13.4
	23세	13.8	13.5
	24세	15.0	14.9
합계		100.0	100.0

각 국가별 조사기관으로 일본은 일본리서치센터, 한국은 한국갤럽, 미국은 Kane, Parsons and Associates, Inc., 영국은 ICM Research, 프랑스는 Ipos France 이다.

2) 세계가치관조사

(1) 조사의 개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는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와 가치관의 시계열별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로, 총 80개국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조사는 유럽가치관조사(EVS, European Values Study)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후 198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6차례(wave)에 걸쳐 진행되었고, 미국 미시건대학의 잉겔하트(Ronald Inglehart) 교수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며, 제1차 조사에는 21개국, 제2차 조사에는 43개국, 제3차 조사에는 54개국이 참여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6차 조사에는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표 II-9 세계가치관조사의 개요

회차	연도	국가수	인구	응답자수
1	1981년-1984년	20	4,700,000,000	25,000
2	1989년-1993년	42	5,300,000,000	61,000
3	1994년-1998년	52	5,700,000,000	75,000
4	1999년-2004년	67	6,100,000,000	96,000
5	2005년-2008년	54	6,700,000,000	77,000
6	2010년-2012년	34	-	257,000

※ 출처: WVS 홈페이지(www.worldvaluessurvey.org)

(2)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인 자이며, 각 국가별로 1,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 조사대상 인원은 3만-4만명 정도이다. 한국은 제5차 조사(2005년-2008년)에서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이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제6차 조사에서도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이 참여했다.

표 II-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성	598	49.8
	여성	602	50.2
연령	20-39세	573	47.8
	40-59세	433	36.1
	60세 이상	194	16.2
학력	중졸 이하	188	15.7
	고졸 이하	372	31.0
	전문대졸 이상	640	53.3
계층의식	하위계층	68	5.7
	근로계층	189	15.8
	중하위계층	650	54.2

구분		빈도(명)	%
	중상위계층	284	23.7
	상위계층	8	0.7
소득수준	1 하위	124	10.4
	2	328	27.4
	3	523	43.7
	4	209	17.4
	5 상위	14	1.2
합계		1,200	100.0

※ 출처 : 이미숙(2011),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자료를 중심으로, pp. 51-54.

(3) 조사방법

한국은 제2차(1989년-1993년) 조사부터 가장 최근의 조사인 제6차(2010년-2012년) 조사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은 동아일보부설 화정평화재단 21C 평화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유의할당표본추출방식(Purposive Quota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며, 대인면접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⁶⁾ 참고로 <표 II-11>은 일본의 WVS 조사대상자, 표본추출방식, 조사방법 등에 관한 자료이며, 조사는 문부과학성의 지원을 받아 동경(東京)대학과 덴츠총연(電通総研)이 수행하였다.

6) 조사비용을 화정평화재단에 확인한 결과(2012년 10월 24일), 화정평화재단이 전액을 부담하며, 제6회 조사에서는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표 II-11 조사방법의 개요(일본)

시기		대상자	추출방법	방법	유효회수	실시기관
제1회	1981년 3월	18세 이상 성인 남녀	다단계화무작위추출 방식	방문면접법	1,204	(주)일본 리서치 센터
제2회	1990년 9월	18세 이상 성인 남녀	다단계화무작위추출 방식	방문면접법	1,011	
제3회	1995년 11월	18세 이상 성인 남녀	다단계화무작위추출 방식	방문면접법	1,054	
제4회	2000년 7월	18세 이상 성인 남녀	국세조사결과에 기초한 성별, 연령별 할당방식	우송법	1,362	
제5회	2005년 7월	18세-79세 성인 남녀	국세조사결과에 기초한 성별, 연령별 할당방식	우송법	1,096	
제6회	2010년 11-12월	18세-79세 성인 남녀	다단계화무작위추출 방식	방문유치(留置)법	2,443	

※ 출처 : 電通홈페이지(www.dentsu.co.jp)

(4) 조사내용

질문지는 총 250문항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행복감, 생활만족도, 가계만족도,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인생에서의 자율성 정도,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참여행동, 국민으로서의 안정과 국가의 역할, 복지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경쟁 및 평등의식,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국민의식,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에 대한 의식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국제시민교육연구⁷⁾

(1) 조사목적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의 조사 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역할 수행을 위한 능력과 준비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시민사회 및 시민의식(citizenship)의 함양에 필요한 역량과 이해 정도를 조사하며, 또한 청소년들의 시민사회 및 시민의식 교육과 관련된 태도, 특성, 활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분석 결과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촉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2) 조사대상

ICCS 조사 대상 학생의 평균연령은 13.5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사대상자들은 국가별로 그에 상응하는 학년에 해당된다. ICCS에는 38개국⁸⁾에서 총 5,215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각 학교의 학교장 5,215명을 비롯하여 교사 60,588명, 학생 140,650명이 설문과정에 참여하였다.

(3) 표집방법

표집방법은 유층화된 2단계 군집표집(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층변수는 지역(서울·경기, 충청·강원, 호남·제주, 영남)과 도시화 정도(도시와 농촌)였다. 일단 유층을 구성한 후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학교를 표집하였다. 다음으로 표집된 학교에서 1개의 학급을 무선적으로 표본 추출하였으며, 표집된 학급의 학생들은 모두 표집대상이었다. 이렇게 하여 총 150개교의 중학생 5,251명, 2,340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조사비용은 참가국들의 국가 분담금으로 충당되며, 각 국가별로 USD 120,000(원화 1억 3천만원 정도)씩 부담한다.

7)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해승, 반재천, 조영하(2010). 「한국 청소년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와 김태준, 설규주, 조영향, 이기홍, 한송희, 김정민, 박정애(2011), 세계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시사점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8) 참여 국가는 주로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5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4) 조사내용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시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1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는 내용영역, 인지영역, 정의 및 행동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내용영역(content domains)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와 원리, 시민참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영역(cognitive domains)은 아는 것, 분석과 추론으로, 정의 및 행동영역(affective-behavioral domains)은 가치신념, 태도, 행동 의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12

조사내용

단위 : 항목

		내용영역				합계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와 원리	시민참여	시민적 정체성	
인지 영역	아는 것	15	3	1	0	19
	분석과 추론	17	22	17	5	61
합계		32	25	18	5	80
정의 · 행동 영역	가치 신념	12	12	0	0	24
	태도	12	18	18	14	62
	행동 의도	·	·	21	·	21
	행동	·	·	14	·	14
합계		24	30	53	14	121

4) 국제학업성취도조사

(1) 조사의 개요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교육 종료시점에 있는 학생들(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력, 수학지식, 과학지식, 문제해결능력 등을 조사한다. 또한 이 조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참여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평가하고 학교 교육방법의 개선과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회 조사마다 주요주제(main theme)가 있으며, 독해력, 수학지식, 과학지식의 순서대로 주요조사항목이 이동한다. 때문에 2000년 조사에서는 독해력이 주요주제였으며, 2003년에는 수학지식, 2006년에는 과학지식, 2009년에는 독해력, 2012년에는 수학지식이 주요주제였다.

(2)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

PISA는 2000년에 제1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3년 주기로 조사가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다. 2009년 조사가 제4주기에 해당하며, 2012년 조사는 제5주기에 해당한다. 매회 조사에서는 조사시간의 2/3을 주요주제에 대해 조사하며, 나머지 2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조사한다. 참고로 2003년 조사에서는 독해력, 수학지식, 과학지식에 더해 문제해결능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으나, 2006년, 2009년 조사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은 본 조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만 15세 학생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조사의 참가국은 2000년 조사에는 32개국(OECD가맹국 28개국, 비가맹국 4개국), 2003년 조사에서는 41개국(OECD가맹국 30개국, 비가맹국 11개국), 2006년 조사에서는 57개국(OECD가맹국 30개국, 비가맹국 및 지역 27개국), 2009년 조사에서는 65개국(OECD가맹국 34개국, 비가맹국 및 지역 31개국)이 참여했으며, 총 참여인원은 약 47만명이다.

(3) 조사방법

한국의 경우 표집오차와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확률표본방식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며, 2009년 조사에서는 157개 학교(고등학교 137개교, 중학교 20개교) 5,12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조사는 2시간의 지필 검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조사내용

2009년도 조사에서는 독해력을 주요주제로 설정하여 수학지식, 과학지식의 3분야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주로 만 15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사결과는 참여 학생의 평균점수를 500점, 약 2/3의 학생이 400점에서 600점 사이에 포함되도록(OECD가맹국 평균이 500점, 표준편차가 100점) 계산한다. 조사분야별로 조사문제의 난이도에 기초하여 점수를 척도화한 것을 습득정도 또는 습득수준이라고 부른다. 2009년 조사에서는 독해력의 습득정도에 대하여 종전의 6단계 분류에서 8단계 분류로 바꾸었으며, 수학지식과 과학지식은 7단계로 구성하였다.

5) 생활시간조사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생활영역별 시간배분 양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가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주 목적은 국민들이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있다.⁹⁾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1999년부터 5년을 주기로 우리나라 국민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전국단위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5년부터 미시건대학과 메릴랜드대학에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왔고, 2003년부터는 연방정부차원에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¹⁰⁾, 일본은 1976년부터 시작하여 5년마다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Statistics Bureau, www.stat.go.jp). 중국은 2008년에 첫 번째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였다.¹¹⁾

9)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survey/lifestyle/l5_sm/1/index.static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10) Bureau of Labor Statistics 웹사이트 www.bls.gov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1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웹사이트 <http://www.stats.gov.cn>에서 2012년 5월 12일 인출. 중국이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중국통계청은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통계가 생산된 적이 없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생활시간사용 측면에서 중국인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 성인직업기초능력조사와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

성인직업기초능력조사(AL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은 PISA와 마찬가지로 OECD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만 16세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성인의 기초역량인 기초직업능력, 문해력, 생활능력을 측정한다. 한국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ALL은 국가별 인적자원의 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기초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 및 훈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임언, 2006). 한국의 ALL 조사를 위한 표본구성은 다단계지역추출법을 활용하였다. 2004년 조사에서는 총5,50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임언, 최동선, 오은진, 2005). ALL 조사의 조사내용은 <표 II-13>과 같다.

표 II-13 ALL 조사 도구 하위 영역별 내용

조사요소		대상자
배경설문지		일반 기초배경 정보, 직업활동 정보, 교육 및 학습 참여 경험, 소득 및 경제 수준, 문해력 활용 정도, ICT 활용능력, 건강과 복지, 사회적 자본 등의 개인적 특성
필수문항지		직업기초능력 측정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검사 문항지	독해력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 시, 소설 등의 텍스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측정
	문서이해력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정보원(예: 입사지원서, 급여명세서, 버스 또는 지하철 시간표, 지도 도표, 그림 자료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측정
	수리력	인쇄 매체에 들어 있는 숫자에 단독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수리적 연산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측정함. 예를 들면 은행잔고 계산하기, 적절한 팁 계산하여 지불하기,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출금의 이자 결정하기 등이 해당됨.
	문제해결력	운동경기 준비, 자동차 구입, 아파트 구하기, 외국합창단 초대라는 문제상황에서 분석적 추리를 통하여 합리적 일의 절차를 발견하도록 하는 문제로 구성됨.

출처: 임언·최동선·오은진(2005). 한국의 성인직업기초능력.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4.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는 2008년에 착수된 성인능력 국제비교 프로젝트로 2010년 예비조사를 거쳐 2011년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27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영역은 문해력, 수리력, 테크놀로지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 기초 읽기능력이다(이수영 외, 2009).

7) 종합사회조사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 조사 중 하나는 국제 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인데,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후기청소년기에 속한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84년에 시작된 이래 2012년 현재 48개국이 회원국으로 ISSP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¹²⁾ ISSP의 조사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배경변수에 대한 조사와 연도별 특정 주제모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나라에서 특정주제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표준 배경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거지역, 고용지위, 소득 등 20여개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연도별 특정주제들로는 정부의 역할, 사회연결망, 사회불평등,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노동지향, 종교, 환경, 국가정체성, 시민권, 여가와 스포츠 등의 주제들이 조사되어 왔다(심수진, 이희길, 2009: 8). <표 II-14>는 주요국 종합사회조사의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 II-14 해외 사회조사 사례

국가/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부문
캐나다 (General Social Survey)	Statistics Canada	표본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보건/ 생활시간/ 가족/ 범죄피해/ 고용/ 교육/ 사회적지지/ 사회적 계약 등
미국 (General Social Survey)	시카고 대학 (NORC)	18세 이상	개인적 특성/ 정서적 특성/ 소득활동/ 직장생활 등/ ISSP 선정주제

12) ISSP 홈페이지 www.issp.org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국가/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부문
스웨덴 (Living Condition)	Statistics Sweden	16~84세	주거환경/ 건강/ 고용/ 여가/ 경제/ 교육/ 안전/ 사회관계/ 아동 등
호주 (General Social Survey)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8세 이상	인구/ 교육/ 직업/ 교통/ 건강/ 가족,공동체/ 범죄/ 운동/ 소득/ 문화 여가/ 정보기술/ 금전문제
일본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오사카 대학	20세 이상	직업/ 매일의 삶/ 건강/ 정치/ 생활형편/ 가족과 사회적 삶/ ISSP 선정주제
독일 German General Social Survey (ALLBUS)	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urvey	성인인구	사회적 불평등/ 건강/ 가족/ 시민권, 국가정체성/ 환경/ 사회네트워크/ 정치참여와 태도/ 미디어이용/ 라이프스타일 등/ ISSP 선정주제
대만 (Taiwan Social Change Survey)	Academia Sinica	성인인구	종교/ 시민권/ 국가정체성/ 매스미디어/ 가족과 성/ 사회계층/ 실업/ 사회문제/ 국제관계/ 정신건강/ ISSP 선정주제
이스라엘 (Israel Social Survey)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세 이상	주거와 지역/ 건강과 출산/ 종교/ 교육/ 정보통신/ 직업/ 휴가/ 가족 친구관계/ 범죄/ 자원봉사활동/ 만족감/ 재정 등
유럽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Science Foundation	15세 이상	핵심주제: 미디어/ 사회신뢰/ 정치/ 주관적 웰빙, 사회적 배제/ 종교/ 차별/ 국가와 민족 정체성 추가주제: 생활시간, 건강, 가족과 일
영국 (General Household Surve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16세 이상	주거유형/ 소비/ 토지/ 이민/ 시민권/ 국가정체성/ 민족/ 고용/ 교육/ 건강/ 보육/ 재정/ 소득 추가주제: 사회이동/ 사회자본/ 구강건강/ 스포츠와 레저 등

※ 출처: 심수진 외(2009), 사회조사 항목개발. 대전: 통계개발원.

2. 국내 청소년생활실태 국제비교 관련 선행연구¹³⁾

국제비교조사는 조사과정과 비용 측면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비교 연구는 2차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문헌 분석을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직접 설문 조사를 수행한 연구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이 확보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경우가 안타깝게도 거의 없다. 본원이 지금까지 WARDY 회원 기관과 수행한 국제비교연구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대부분 예산의 규모가 작은 수시과제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국제비교연구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국제비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본원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국제비교연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생활실태 국제비교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WARDY 기관과 공동 설문도구를 통해 조사를 한 경우는 비교 대상이 대부분 중국, 일본, 미국이었으며, 2011년에는 한국과 핀란드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 WARDY 기관과 공동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한 청소년 관련 국제비교연구의 주제를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생활의식의 특성(이종원, 2003), 생활의식과 친구관계(김현철, 2006), 생활 및 의식(이종원, 임희진, 이경자, 2007),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김진숙, 김현철, 2007),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김진숙, 임희진, 김현철, 2010), 가치관(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이한나, 2011), 진로 및 유학의식(이경상, 임희진, 김진숙, 2011), 창업 및 기업가정신(안선영, 김희진, 2011) 등이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고교생들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를 비교한 연구(김현철, 2006)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비교 국가의 고교생들에 비해 고민거리가 더 많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더 낮았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4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한편, 학교폭력 문제 심각도는 비교 국가 중 한국 고등학생이 가장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원 외(2007) 연구 역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진로·직업관, 자아·인생관,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실태와 의식을 조사하였다. 고교생의 소비의식과 소비행동을 다룬 김진숙과 김현철(2007)의 연구는 한국 고교생들이 다른 국가의 고교생에 비해 배금주의적 의식이 더 높았으며,

13) 이 부분은 안선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친환경적인 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고등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업태도를 비교한 김진숙 외(2009)의 연구는 중국 고등학생이 한국이나 일본의 고등학생들보다 더 학구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와 동시에 학업과 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가장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최인재 외(2011)가 수행한 연구 역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계, 사회 및 국가관, 역사관, 다문화 의식 등 광범위한 영역의 가치관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감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가족생활 만족도,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에서도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 및 국가관에서도 중국은 한국, 일본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과 나라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은 중국청소년들에게의 월등히 높았다. 특히 본 연구의 1차년도에 국제비교조사 영역의 잠정 결정된 ‘진로준비’ 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진로 및 직업관’ 과 관련된 가치관 비교 결과에 따르면, 인생목표 설정 여부에 대해 중국 청소년이 한국, 일본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있어서도 중국 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청소년은 성역할 구분에 대한 편견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일본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집단주의적 사고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세 국가 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표집방식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각 국가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결론내리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상 본원에서 수행한 국제비교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먼저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으로 요약될 수 있는 주제들이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내용이 동질적이지 않아 시간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기적인 횡단조사로서의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연구 영역이 보다 다양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복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와 영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간 표집 방식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엄밀한 국제 비교와 연구 결과 해석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핀란드 청소년의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비교한 연구(안선영, 김희진, 2011)는 기존의 국제비교자료 수집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한국과 핀란드 연구진의 협의과정을 통해 두 국가 모두 할당표집(지역, 성별, 연령)과 온라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주요 이유는 예산의 규모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조사연령대였던 만15세~29세의 경우 학교를 통한 집단설문지법이나 가구방문조사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데 양국 연구진이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의 비교연구는 국가별로 조사방식의 차이가 많아 비교 결과를 정책개발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원에서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한 국제비교 연구로는 청소년 생활패턴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 2009)가 있는데, 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PISA, ALL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학업 중심의 생활 패턴으로 인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다른 국가 청소년에 비해 훨씬 긴 반면 수면, 운동, 자원봉사 시간 등이 현격하게 짧다는 결과를 밝히고, 한국청소년들의 삶의 패턴 균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국제비교에 사용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의 경우 수집된 시기가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¹⁴⁾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일 연구에서 사용된 PISA 데이터의 경우는 국가 간 데이터 수집 시기에 국가 간 차이가 없지만, 2003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가 수행된 시점이 2009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성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국제비교는 다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평균 점수의 비교를 통한 국가 순위를 산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찰하였다. 윤정일과 이범수(2006)는 PISA 2003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핀란드 등 5개국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학교의 위치와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대도시에 근접할수록) 수학소양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에 교육지원을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윤정일, 이범수, 2006: 544). 동일한 연구에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대도시에 근접할수록) 수학소양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반대로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윤정일, 이범수, 2006: 542). 남기곤(2008)도 PISA 2003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적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매우 긴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적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한국의 상관계수 값이 일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는 두 변인 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국내·외 통계자료와 국제비교연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엄밀한 국가 간 비교와 시의성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국제비교 데이터와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14)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는 2004년, 일본은 2001년, 영국은 2000년, 스웨덴은 2000-2001년, 독일은 2001-2002년, 핀란드는 1999-2000년으로 데이터 수집 시기에 격차가 있었다.

체계적인 국제비교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정책수립 기여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국제비교연구는 학업성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청소년 생활실태에 관한 국제비교는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제비교연구 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3. 온라인 설문조사의 가능성¹⁵⁾

인터넷의 등장은 사회전반에 변화를 가져왔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명승환, 최영훈, 2002).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설문응답 거절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면접원 모집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조사산업 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 대면조사 방식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온라인 조사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조사의 장점은 다양하다.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유연성과 면접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온라인 조사의 강점이다(이지영, 김진교, 2006; 장홍근, 오영훈, 최지희, 이동임, 정운경, 서우석, 이기홍, 2007). 또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입력오류나 착오에 의한 오류를 막을 수 있다(문시연, 2005).

온라인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자발적 조사 참여와 편의표본으로 인해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임경은, 2009). 이는 인터넷조사 응답자들이 자발표본이거나 편의 표집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온라인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과 데이터 신뢰성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온라인조사와 대인면접조사 간 비교를 통해 온라인 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이지영, 김진교, 2006; 전병우, 주영욱, 임병훈, 2011; Schillewaert & Meulemeester, 2005; Ryzin, 2008) 온라인 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Baim et al., 2009; Braunsberger, Wybenga & Gates, 2007; Galesic & Bosknak, 2009; Rivers, 2007)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온라인 패널 조사와 오프라인 대인면접 조사 간 데이터를 비교한 이지영

15) 이 부분은 안선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외(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측타당도와 내적일관성 신뢰도 측면에서는 온라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보다 우월하였고, 개념타당도와 동형검사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온라인조사와 오프라인 조사 간 차이가 없는 등 온라인 조사가 오프라인 조사와 대등하거나 평가차원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우 외(2011)의 연구는 대인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온라인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조사에서 접근이 어려운 고소득, 전문관리직이나 무직 또는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집단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계획의 조정을 통해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오프라인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온라인 조사 자료의 보정에 적용될 성향조정 기준변수를 찾고 평가변수를 다양하게 하며, 보다 일반적인 사회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성향조정 가중법(propensity adjustment weighting)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행되고 있다(이계오, 장덕현, 2009; 허명희, 조성겸, 2010; Schonlau, van Soest & Kapteyn, 2007; Lee & Valliant, 2009). 허명희와 조성겸의 연구(2010)에서는 2009년 통계청 온라인 사회조사 자료를 같은 해에 지역추출 면대면으로 실시된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맞도록 성향조정 가중치를 적용하였는데, 80% 정도의 문항에서 기본가중치 보정에 비해 향상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점을 밝혀 온라인 조사의 활용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계오 외(2009)는 인구통계학 변수와 공변량 변수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모형을 추정하고, 인터넷조사 데이터에 성향점수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인터넷조사데이터만으로 전화조사와 유사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chonlau 외(2007)의 연구는 생활방식과 관련된 변수(Webographic or lifestyle variables)를 이용하여 앞의 연구들과 유사한 방식의 보정 작업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온라인조사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조사방법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해왔다. 머지않은 미래에 온라인 조사가 기존의 조사 방식을 대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다(Baim et al., 2009). 이는 단순히 온라인조사의 편리함이나 비용절감 효과 측면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이며, 무엇보다 조사 성격에 맞는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 용이한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연구 분야에서 온라인조사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며, 기존에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연구 분야에서 온라인조사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진로준비¹⁶⁾

전문가 의견조사, 해외연구기관(중국, 일본, 미국)과의 협의회를 통해 2012년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의 연구 주제는 ‘진로준비’ 로 결정되었다. 고학력화와 청년노동시장의 약화 등 사회경제적인 맥락의 변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시기가 지연되고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현상이 4개국에서 모두 관찰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가 주요 사회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 최우선적인 연구 주제로 선정되었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 진로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1) 진로의 개념

청소년기의 주요발달과업은 자아정체성 발달이다. 청소년들은 자아상(self-image)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신의 감정, 신념, 가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성인으로서 정체성을 개념화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경향을 보인다(Gushue, Clarke, Pantzer & Scanlan, 2006).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지 탐색하게 되며(Dunkel, 2000),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청소년기의 주요발달과업이 자아정체성의 발달과 진로준비라고 한다면, 청소년기의 진로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하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진로(career)의 개념은 직업(occupation 또는 vocation)과 일(work)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영어의 career는 한국어로 ‘진로(進路)’, ‘경력(經歷)’, ‘생애(生涯)’ 등으로 번역되어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최동선, 2003: 13).

Super(1976)에 의하면, 진로(career)는 삶을 구성하는 사건(event)의 연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수행한 지위(보수가 수반된 지위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위까지 포함됨)의 연속으로 진로를 보고 있으며, 경제적인 의미에서 직업(occupation)은 이러한 진로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진로는 학생, 노동자, 연금수령자로서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역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가족, 시민으로서 수행하는 역할도 포함한다. 즉, 진로를 구성하는 것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하는 생계수단 또는 직업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16) 이 부분은 송민경 교수(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가 집필하였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 학생으로서 수행하는 일, 가정주부로서 수행하는 일 등의 모두를 진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진로는 일과 관련된 객관적인 경험뿐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Collin & Watts, 1996; Herr, 1992; Young & Collin, 2000). 여기에는 직업의 선택, 취업, 직장에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감정, 태도, 가치관, 자기개념 등의 정의적인 경험들, 그리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대인관계적·문화적·정치적 요인들이 모두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만의 독특한 진로경로(career path)가 형성된다고 간주한다. Arthur, Hall and Lawrence(1989)은 진로라는 개념을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일 경험(the evolving sequence of a person's work experience over time)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Herr and Cramer(1996)에 의하면 진로는 일생동안 수행하는 역할의 총체(total constellation of roles played over the course of a lifetime)라고 규정한다. 진로는 개인의 과거 경험, 현재 상황, 미래 기대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진로개발은 과거의 다양한 경험과 현재의 모습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진로 개념은 이러한 시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최동선, 2003: 20-23). 한편, 진로를 생애사 또는 생애발달적인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데, Gysbers and Moore(1981)는 이러한 의미에서 진로란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 주변의 환경,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들의 통합을 통한 전 생애 걸친 자기개발(self-development)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에 대한 개념 내지 정의를 요약하면, '개인이 일생에 걸쳐 갖게 되는 직업(occupation)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work)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활동과 역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동선, 2003: 14).

2) 진로발달 vs 진로개발

영어의 'career development'는 한국사회에서 '진로발달', '진로개발', '경력개발' 등의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학계 또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루고 있다. '진로발달'은 발달론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심리학적/심리사회학적 발달론에 초점을 둔 인간 발달 특수영역의 하나로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개발'은 청소년의 발달심리학적인 접근으로 국한되기보다는 사회적·정책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개념인 진로개발 용어를 사용될 권하고 있다. '경력개발'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론에 근거하여 진로의 의미를 직업이나 전문직 활동의 경로 개발의 차원에서 접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진로에 초점을 두어, 진로발달론적 관점과 진로개발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진로발달론적 관점

서구사회에서 진로발달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50년대 발달론적 관점에서 직업선택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Ginzberg, Ginsburg, Axelrad and Herma(1951)이 직업선택은 발달적인 과정이라 하였고, 수년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이론을 발표하면서 진로발달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Patton & McMahon, 1999).

구체적으로, Parsons(1909)의 특성요인이론에 의하면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자신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올바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적성, 기능, 역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특성과 직업 특성 간의 적절한 합일(matching)이 되었을 때 올바른 진로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Erikson(1963)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제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며, 진로의 선택과 한 직업에의 헌신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위기는 역할의 혼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진로발달론적 접근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직무의 성격과의 합일(matching)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요인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진로발달론적 접근의 초점은 개인주의적이며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격, 가치관, 적성, 흥미와 같은 특정한 개인 내적인 요인과 직업적 특성과 합일되는 점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발달론적 입장에서 Super(1953)가 제안한 진로발달단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는 환상기와 흥미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특징은 욕구가 지배적이고 아동의 취향이 개인의 목표와 활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탐색의 시기로서 직업에 대한 지식과 진로결정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즉,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발달, 의사결정능력의 향상, 직업정보 및 탐색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시기는 잠정기와 전환기에 해당하며, 각 개인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렇게 결정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진로탐색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정의하는 개념이 제시되었다(Arnett, 2000, 2001). Arnett(2004)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성인기와 구별하여 발현성인기라고 명명하면서, 청소년기는 지났지만 아직 성인기와는 구분되는 발달단계로 규정하고자 한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23).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아정체성 확립과 진로 탐색이 청소년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현성인기에도 유사한 특징이 여전히 나타난다. 다만 청소년기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발달이나 생리적 작용에 의한 정서적 불안정과 같은 요소들은 발현성인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양상을 보인다. Arnett(2004)이 제시하고 있는 발현성인기의 특성을 요약하면 ①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 ②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ed), ③ 불명확한(어중간한) 정체감(feeling “in-between”)로 제시하고 있다(안선영 외, 2011: 8). 즉, 발현성인기는 삶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 삶의 방향을 탐색하고 진로 계획을 수정해나가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어느 시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self-focused) 시기이며,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향후 진로에 대한 낙관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변화가능성을 탐색하며 진로방향을 모색하고 도전해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진로계획을 계속적으로 수정해나가는 시기이므로 고민과 방황, 어중간함(feeling-in-between)을 느끼며, 불명확한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부모나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이나 진로방향에 부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야하며 이에 대한 자기책임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청소년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안선영 외, 2011: 23-24). 결론적으로, 발현성인기에 해당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시기동안 진로에 대해 탐색과 도전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직업이나 일의 선택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표현방식으로 인식한다.

한편, Arnett(2000, 2001)이 주장한 발현성인기에 대한 비판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완전히 탈표준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발현성인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기까지 사회적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측면(Wiemer & Ritschard, 2009; 안선영 외, 2011: 13)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즉,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더불어 노동시장의 불안전함이 심화되면서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연장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Cote & Bynner, 2008). 오히려, 하층계급의 청소년들은 이전보다 일찍 졸업하여 저숙련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서(박기남, 2009), 진로발달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진로발달이론과 관련하여 기존의 생애발달단계나 사회적 경로로서 제안된 이론이나 관점은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진로개발론적 관점

진로개발론적 관점이 등장하게 된 주요 원인은 진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환경 변화는 세계화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용·근로조건 변화, 고용형태의 비정형화, 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이에 속한다(Arthur & Rousseau, 1996; Littleton, Arthur, & Rousseau, 2000). 특히, 단순노동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식과 정보의 집약적인 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지식정보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교육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용·근로조건 변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비정형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정형화된 ‘경력사다리(career ladder)’ 또는 공식화된 진로경로를 통한 진로개발이 사라지고 있고, 이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평생직장의 소멸, 노동시장의 유연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의 환경변화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로개발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강순희, 2001; 이무근, 2001; 최동선, 2003: 3).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은 강조되고 있는데, 진로개발역량이란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포함한 주변세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적응해가는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하는 진로개발에 필요한 능력’이다. 즉, 급격히 변하는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로개발을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생물학적 발달보다는 개인의 의지가 내포된 ‘개발’이라는 표현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연, 2004;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322).

한편, 기존의 발달론적 진로개념은 진로패턴이 안정적인 조직적·직업적 구조에 의해 직무와 지위 등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된 ‘경계가 지워진 진로(bounded career)’를 전제로 하였다면, 향후 21세기형 진로패턴은 불확실성과 유연성으로 인한 ‘경계가 없는 진로(boundaryless career)’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로의 개념을 ‘한 명의 고용주 아래에서 평생 꾸준히, 위로 향하는 승진을 전제로 한(steady, upward progression with a single employer)’ 개념에서 벗어나 생애활동에서 일과 관련한 경험의 연속이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Storey, 2000). 특히, 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기존의 경력사다리를 중심으로 더 높은 지위로 상승하기 위한 경력개발의 직업윤리라기보다는 진로개발 또는 직업경력이 수평적인 구조에서 개인 자신의 성장과 전문적인 개발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자기충족적인(self-fulfillment) 직업윤리 또는 직업가치관으로의 변화이다(Niles & Harris-Bolwsbey, 2002).

이러한 진로개발론적인 관점에서 진로 개념의 특징으로는 ① 진로는 개인적인 개념으로 개인별로 독특한 것이며, ② 일과 관련된 계속적인 경험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③ 전 생애에 걸쳐 형성하는 것이다(최동선, 2003: 20-23). 이와 관련하여, Watts(2002)은 진로개발을 평생학습과 지속적인 고용가능성(sustained employability)을 촉진하는 것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진로개발론적 관점의 핵심적인 개념구성의 요인은 ① 실행력/구현됨(enactment), ② 맥락주의(contextualism)에 기반 한 개인과 환경 간의 재고찰, ③ 유연성의 강조이다. 진로개발에서 실행력/구현됨(enactment)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의 직업세계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고, 이에 확고한 경력사다리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안정적인 로드맵(road map)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직해서 스스로의 직업환경을 만들어가고 조직화(organizing)해야 한다(Littleton et al., 2000; Weick, 1996). 즉,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 데 있어 환경, 특히 변화무쌍한 직업세계의 변화를 각 개인이 해석해나가야 한다. 각 개인은 자기 스스로 진로개발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 및 타인과의 교섭(communion)을 통해 향후 비전과 장기적인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지지와 총체적인 학습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진로설정과 진로탐색행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는, Arnold and Jackson(1997), Arthur, Inkson and Pringle (1999), Gothard, Mignot, Offer and Ruff(2001)가 지적했듯이, 진로개발에서 실행력/구현됨(enactment)의 강조를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피력하고 있으며, 진로개발과정에서 개인의 동기적인 요소를 역설하고 있다(최동선, 2003).

맥락주의(contextualism)적 관점에서는 개인과 환경을 별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 안에 함께 놓여 있다고 간주하고, 진로를 구축함(constructing of career)에 있어서 개인이 놓여있는 개인적, 환경적인 맥락들—가족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및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Collin, 1997). 즉,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관점을 토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미를 산출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최동선, 2003: 50; Collin, 1997). 이러한 맥락주의적 관점은 구성주의적 관점과도 연결되는데(Savickas, 2000), 진로에 대한 정의나 의미는 임의적일 수 있으며, 진로를 관찰하는 한 개인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진로의 개념이나 진로 환경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진로개발에 있어서 단편적인 직업정보나 개인정보의 제공, 교사 중심의 진로개발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청소년 스스로 진로에 대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최동선, 2003: 51-52).

진로개발의 관점에서는 진로개발의 주체가 조직보다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직업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강조한다(Hall, 1996). 진로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정체성과 적응성의 개발이며, 진로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과 책임감을 품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과 책임감의 향상은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가능하며, 정체성의 개발과 확장은 자신이 남과는 다르다는 개인차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협동/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타인과 함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응성 및 수행능력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Hall(1996)은 이를 ‘프로테안적 진로(protean career: 변화무쌍한 진로개발, 다변화적인 진로개발)’ 라고 칭하면서, 진로개발을 위해서 각 개인은 상위역량(meta-competency)이 요구되며, 이는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적응성을 길러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 진로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프로테안적 진로는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청소년 자신이 남과 다르며 또한 타인도 자신과 다른 진로경로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진로개발활동은 청소년 개개인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닌 부모, 교사, 동료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룹활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최동선, 2003: 55).

3)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은 효과적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행동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을 위하여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탐색하는 행동으로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개념은 개념적 접근에서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진로개발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요소이며, 본고에서는 청소년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을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진로탐색은 청소년들이 자기탐색과 더불어 잠재적인 향후 진로선택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Gati & Saka, 2001; Julien, 1999). 청소년의 진로개발은 청소년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 자신을 조율해가면서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이지연·윤형한·김나라, 2005; 최인재 외, 2009), 직업탐색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관련 활동들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흥미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로개발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Gushue et al., 2006). 즉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은 개인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능력 향상과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학교 만족감뿐 아니라

자기이해, 진로정보탐색, 그리고 진로계획 수립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이지연 외, 2005).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적인 노력으로 개념화하였는데,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진로 준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으로 정의하였다. Phillips and PaziENZA(1988)도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된 행동과 실천의 행동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진로준비과정으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실천적인 내용으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정보수집, 진로·취업 준비를 위한 필요 기자재 및 교재 구입과 같은 행동과 더불어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람들의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수행해야하는 활동도 포함시키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요인 분석한 박완성(2002)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심리적변인과 관련하여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조명실, 2007), 진로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완성, 2002).

한편, 진로준비행동의 대상으로 ① 진로탐색을 하는 행위자 자신에 대한 탐색과 ② 진로탐색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Taveira and Moreno(2003)가 지적했듯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이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탐색과정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인식될 뿐이라고 설명한다(최동선, 2003: 30). 이와 관련하여, Taveira and Moreno(2003)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접근으로 ①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② 개인의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진로발달단계의 하위단계, ③ 진로의사결정의 중요한 국면으로 간주하는 관점, ④ 인지적·정서적 행동을 수반하는 전 생애에 걸친 활동으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인재 등(2009)은 진로준비행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진로지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데, ① 자신에 관한 정확한 이해 증진, ②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③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④ 정보탐색 및 활용능력의 함양, ⑤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심리학자로서 Skorikov(2007)는 진로계획,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적 자아정체성, 진로에 대한 기대 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진로준비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선택준비하거나 취업한 후의 적응과 개선을 위하여 또는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수행하는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최동선, 2003: 26).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가치관, 성격적 특성, 흥미, 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세계에서의 선택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②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기회를 조사하거나, ③ 성인이 되었을 때 갖게 될 다양한 역할들을 실험해보거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려 하거나, ④ 자기 자신이나 직업세계에 관하여 갖고 있는 기대나 생각들을 검증하려는 활동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최동선, 2003: 26).

진로준비행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청소년기를 진로탐색/진로준비행동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Super, 1963). 그러나 최근 심리발달론적인 관점에서도 진로발달단계와 연령이 서로 관계가 없거나 느슨한 관계를 이룬다고 보고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나(Super, Savickas & Super, 1996), 진로준비행동의 시기를 어느 특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최동선, 2003)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로개발이 단순히 청소년기의 과업이 아닌 인생전반에 걸쳐 평생 동안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진로준비는 구체적으로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더욱 집중되는 과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중한 진로계획, 진로선택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확신감을 갖는 것 등은 성인기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기와 초기청년기동안 이루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이다(Stringer, Kerpelmana & Skorikov, 2011).

진로준비와 관련된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진로계획, 진로의사결정, 자아효능감을 주요 구성요소로 보고 있으며(Perry, Liu & Pabian, 2010), 이외에도 진로확신성(career confidence: 진로목표성취를 위한 확신정도)과 같은 개념도 추가되어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Stringer, Kerpelman, & Skorikov, 2011). 또 다른 연구에서 진로준비는 성인기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일반적인 청소년과업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기청소년의 경우 낮은 학업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탄력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준비가 오히려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Kenny, Blustein, Haase, Jackson & Perry, 2006).

4) 청소년기 진로준비의 중요성

(1) 청소년기 진로준비의 필요성

그동안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최근 국내연구들이 대부분 심리학적 변인에 초점을 두고, 진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태도, 진로성숙도, 진로탐색 및 진로발달 등을 주로 연구(예: 박완성, 2010; 송민정, 2011; 신효정, 이문희, 2011; 정주영, 2010; 최윤미, 이문희, 2011; 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등)를 한 반면, 청소년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진로준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준비가 매우 부족하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진로준비 지원 역시 매우 제한적인 것을 볼 때(최인재 외, 2009), 청소년들의 실효성 있는 진로준비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자신과 환경을 인식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원하는 진로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이지연 외, 2005),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에 자신이 만족할 만한 진로전환(진학 혹은 취업 등)을 위해서는 견고한 개인적 준비와 진로지도 등이 적절히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Peterson, 1998).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은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진로발달을 위한 역량함양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추진되기도 한다(이은아, 2007).

더 나아가 청소년의 자아형성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직업적 정체감의 형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직업적 정체성의 확립은 결국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선택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Super et al., 1996),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이은 직업적 정체감은 진로준비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통해 분명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아정체감 형성뿐 아니라 청소년의 부적응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최인재 외, 2009).

진로개발과정에서 진로탐색과 의사결정과정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Taveira, Silva, Rodriguez, & Maia, 1998). 따라서 전문가들은 진로계획 프로그램과 같이 진로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Witko, Bernes, Magnusson & Bardick, 2005).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자기이해에 기초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동기를 발달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Bouffard & Savitz-Romer, 2012). 선행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동기화를 위해서는 직업수준에 따른 급여 차이 등의 외재적 보상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재적인 보상을 통한 동기화가 결국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Deci, Koestner & Ryan, 2001; Ryan & Deci, 2000). 외재적 보상에만 의존한 동기화는 학생들이 목표를 쉽게 포기하게 하거나, 장기적인 성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특정 진로에 대한 내재적 혜택을 찾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Bouffard & Savitz-Romer, 2012).

특히, 자신이 원하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중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의식조사결과를 보면,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과 같은 다양한 직업선택 요인 중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등의 요인을 2002년에 비해 2006년에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2006).

또한 청소년진로와 관련한 최근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가치순위를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 ‘성취감을 갖는 일’, ‘높은 고용안정성’,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많은 돈을 버는 것’ 등이 높게 나타났다(최인재 외, 2009).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조건인 안정성 등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향후 직업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이러한 근로조건 역시 현실에서 더욱 쉽지 않은 구직과정을 겪게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현실과의 괴리는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

(2) 노동환경 변화와 청년노동시장의 악화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및 직업구조가 변화되어, 30~40년 전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이후 중화학공업 및 기계와 전자산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에 따른 첨단 전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박종찬, 2006). 서비스업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6년도에는 그 비중이 57.2%에 달하고 있는데(이재형, 2007),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II-15

직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

(단위: %)

구분	2004	2010	2015	비중차
전 직업	100.0	100.0	100.0	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5	2.6	2.7	0.2
전문가	7.5	8.6	8.9	1.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8	11.2	11.4	0.6
사무 종사자	12.7	12.4	11.9	-0.7
서비스 종사자	12.9	14.2	15.3	2.3
판매 종사자	11.9	11.3	10.3	-1.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8.3	6.5	5.4	-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0	11.2	11.0	-1.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7	10.9	11.1	0.4
단순 노무 종사자	10.6	11.2	12.1	1.5

※ 출처: 장창원, 이상돈, 황규희, 오호영, 전재식, 김미란, 윤여인, 강순희, 고상원, 박재민, 최영섭(200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 p. 96.

또한 직업세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1,000여 개의 새 직종이 생겨난 반면, 사라진 직종의 수도 300여 개에 이른다(최인재 외, 2009).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부분 발전된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과 이들의 부모 및 조부모세대가 희망하는 직업형태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Helwig, 2008). 이는 현재 직업세계가 과거에 비해 완전히 바뀌어서 부모나 조부모세대에 비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직업기회가 제공되기 때문(Isaacson & Brown, 2000)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가 충실히 준비되어야 할 이유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뿐 아니라 이미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청년실업자의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를 포함한 청년층이 1백만 명을 상회하여 체감 실업률이 더 높게 느껴지고 있다(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2008). 2007년 기준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 54.4%에 비해 낮은 수준인 42.6%로, 이러한 청년고용률 하락의 원인을 설명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비해 취업자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임정희, 강지원, 강경중, 2008). 취업양태는 학력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졸이상학력의 청년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 상태보다는 취업준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졸이하 학력인 경우는 청년 유휴 비경제활동 인구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과 비경제활동 및 임시직과 일용직을 반복하고 있다(임정희, 강지원, 강경중, 2008).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고학력화에 따라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반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낮다는 문제를 꼽고 있다. 고등교육의 양적팽창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고학력 소지자는 증가하였으나, 이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매우 한정되어 있어 높은 취업경쟁률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졸 취업자의 진로에서 이들이 희망하는 전문직과 대기업일자리의 감소, 서비스 판매직 및 비정규직 비중 증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임정희 외, 2008).

특히 2000년대 들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급속한 비정규직화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안정적인 취업 및 근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양극화 및 고용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계층별로 소득수준의 격차를 수반하고 있는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임정희 외, 2008).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OECD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청년실업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전반의 고용불안 요인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부터 체계적인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능력(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skill)을 함양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OECD, 2004). 특히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기술에 대한 강조를 기존의 학교나 진로 및 고용관련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진로나 고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과 같은 지원에 초점을 둔 반면, 스스로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기초하고 있다(OECD, 2004). 향후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노동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다.

5) 청소년기 진로준비의 당면문제

(1)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부족의 심각성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잘 적응하며, 양질의 성인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경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진로준비를 원활히 잘 수행하며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청소년들의 고민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은 진로로 나타나고 있으나(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현실의 노동환경 등을 고려한 진로준비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1994)은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위주의 진로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진로결정을 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국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진로·직업지표조사를 실시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최인재 외, 2009)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은 진로교육과 관련한 장애나 문제점으로 ‘진로교육에 대해 나의 관심이 부족하다’에 대한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준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직업가치에 대한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진로 및 직업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적인 측면(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등)에도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나, 쾌적한 근무환경, 높은 고용안정성,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 외적인 측면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청소년들이 현실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지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향후 직업생활과 사회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학교 등 외부에서의 관련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역시 동일한 조사에서 진로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교육에 대해 ‘스스로의 관심 부족’에 대한 대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진로교육에 따른 ‘교사의 관심 부족’, ‘교사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 ‘교과학습에 따른 진로교육 시간 부족’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직업세계로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일종의 진로를 준비하는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주로 보수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재 외, 2009). 이에 비해 자신의 미래에서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성탐색이나 취업경험 등의 이유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고(자신이 선호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 대한 인식, 직업선택에 대한 조건 등), 특히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소질과 적성 및 성격·흥미 적합성,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직업선택계획, 진로선택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숙고 성향 등)을 추구하는 성향도 높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이나 준비도와 같은 일부 조사영역에 대한 응답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정보 및 직업종류, 전망 등 직업에 대한 정보 이해, 관심 있는 직업종사자의 일이나 진로관련정보 출처, 직업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의 항목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진로준비를 위하여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 관련 동영상이나 TV 시청, 온오프라인을 통한 검사 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관심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남의 기회를 갖거나, 자발적인 진로상담 참여나 직업체험 참여 등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들에 대한 응답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인 직업준비 행동으로써 직업·진로체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고, 자신의 직업선호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일련의 일이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한다(Watts, 1991).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직접적이면서 적극적인 직업준비보다는 매체(인터넷, 도서, 동영상 등)나 타인 등의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에 의존하고 있다(최인재 외, 2009)

한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교육 및 연구 관련직’, ‘디자인 및 방송 관련직’, ‘의료 및 보건 관련직’, ‘문화예술 관련직’ 과 같은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부 ‘전문직’ 영역(예, 중등학교 교사, 음악가, 디자이너, 의사 및 한의사, 초등학교 교사, 간호사, 경찰관,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현장에서 이러한 전문직이 전체 직업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크지 않은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와 진로대안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최인재 외, 2009).

(2) 청소년 진로준비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서 부모의 높은 영향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부모들이 청소년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Witko et al., 2005).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부모가 청소년 개인의 진로선택 및 진로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81.3%이고, 또한 미래의 직업목표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도 84.7%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부모가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체이면서, 또 자녀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최인재 외, 2009).

서구사회에서도 진로지도 및 준비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해서(Middleton & Loughhead 1993; Turner & Lapan, 2002),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의 진로개발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Helwig, 2008).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을 거쳐 간접적으로 ‘진로탐색행동’ 에 영향을 주는데(이득연, 2004; Moore, 2004), 실제로 부모의 전폭적인지지 하에 진로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정체감’ 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규, 2006). 이렇게 부모와 청소년간의 유대감(connectedness)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들은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유의하며(Ketterson & Blustien, 1997), 특히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자녀와도 이러한 내용을 공감할 때 자녀가 긍정적인 근로가치를 배울 수 있다(Morrow, 1995). 부모의 기대를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교육적 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Mau, Hitchcock & Calvert, 1998), 부모의 교육적 직업적 위치, 자신과 타인의 직업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생각 역시 청소년들의 정보에 영향을 준다(Rainey & Borders, 1997; Young, 1997). 그러나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은 그들의 잠재적인 진로경로를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Rainey & Borders, 1997)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기 보다는 직업안정성과 보수, 사회적 위치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의 진로결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로선택과 성공을 위해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을 지우거나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어,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의 진로준비를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3) 진로지도-준비에 있어서의 학교환경과 교사의 한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꼽는 문제가 진로와 성적인 것을 볼 때(최인재 외,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준비에 있어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 청소년의 진로·직업지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최인재 외, 2009),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이 조사에서 청소년응답자들은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관련 교육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18.1%만이, 그리고 상담교사의 상담중심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32.8%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진로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각각 49.1%와 52.3%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직업관련 상담시설과 진로직업관련 기자재(컴퓨터, 진로관련 책자 등)가 부족하며, 진로교육 담당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0% 내외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진로교육의 문제점은 진로교육에 대해 교사의 관심 부족, 교사의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 교과학습으로 인한 진로교육 시간 부족 등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량과 여건에 많은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우리사회에서만 이슈는 아니며, 미국의 경우도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얻고 있고 학교의 진로교사나 상담가로부터 받은 조언이 상대적으로 유용하지 않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로교사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Alexitch & Page, 1997; Tomini & Page, 1992).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대학입학이나 위기상담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진로사정(career assessment)이나 진로계획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Feller, 2003; Niles & Harris-Bolwsbey, 2005; Rosenbaum & Person, 2003).

사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준비에 관련한 문제점 인식은 성인이 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더 깨닫게 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15년에 걸친 종단연구에서(Helwig, 2008),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에 자신들의 고교시절 진로방향 및 준비 등 진로관련 이슈에 대한 학교 대응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진로지도의 목표를 살펴보면, ① 자신에 관한 정확한 이해 증진, ②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 ③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 ④ 정보탐색 및 활용능력의 함양, ⑤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최인재 외, 2009),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진로지도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임정희 외, 2008; 최인재 외, 2009).

특히, 고등학교 이후 진로계획은 매우 중요한데(Hiebert, Collins & Robinson, 2001),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개인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직업포부, 경제적 여건, 중요한 타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진로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절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러한 직업에 대해 가능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임정희 외, 2008). 직업체험의 기회가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상급학교

와의 유기적인 협동하에 연계강화, 또는 취업을 대비한 현장실습 성격의 산학협동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최인재 외, 2009). 또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더불어 학교졸업 후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진로결정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청소년 진로관련 국내조사연구 결과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생산한 대표적인 선행 조사연구들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와 ‘한국청소년 진로·직업지표조사’를 살펴볼 수 있다. 각 조사들의 목적과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연령층 인구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산출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6>은 ‘청년패널조사’와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내용, 그리고 각 조사의 특징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 II-16 청소년 진로 관련 조사연구

구분	청년패널조사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조사주관 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상	만 15세~29세 청년층 (2006년 6차조사시 4,514명)	초·중·고·대 총16,778명	초 4년생 2,949명과 학부모, 중 2년생 3,697명과 학부모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용조사와 개인용조사로 나누어서 실시 면접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을 기록하는 면접 타개식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전수조사와 학생표본 조사 유형으로 구성 웹기반 설문조사로 학교조사일 경우 학교 진로교육 담당교사 1인이 응답하며, 학생조사는 선정된 학교의 1개 학급이 학교 내 컴퓨터실에서 조사에 응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경우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 조사 실시 부모대상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생(6차년도 내용) 학교생활 변화 관련 문항 아르바이트 경험 사교육, 해외연수 경험,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수준(학생) [투입] 학교 급별 학생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 4년생 패널(3차년도) [직업선택] 직업성숙도 장래 희망직업 선정 여부

구분	청년패널조사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로결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 취업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 경로 등) - 진로지도(상담)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 직업훈련 및 자격증 - 개인공통(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p>[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내용 - 진로정보 <p>[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내용 - 진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희망직업 -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직업 <p>[향후 진로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모 희망 교육수준 - 향후 진로 설정 관련 부모님과의 대화 여부 <p>[진로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학교 수업 참여 - 사교육 참여, 개인 공부 - 수상 및 자격증 취득 경력
	<p>■ 대학생, 대학원생 (6차년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변화 관련 문항 - 아르바이트 경험 - 교육평가(15개 능력의 중요 척도, 고등학교 교육의 각 능력별 도움 여부) - 사교육, 취업 사교육, 해외 연수 경험, 여가활동 - 진로(진로결정여부, 졸업 후 예상 진로, 희망직업, 직업선택기준) - 취업준비(준비시작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획득 경로 등) - 시험준비(고시, 자격증 등 시험 준비기간, 방법, 비용 등) - 진로지도(상담) 경험 - 5차 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 직업훈련 및 자격증 - 개인공통(부모님 현재 직업, 군복무 경험) 	<p>■ 학교수준 (각급학교 및 대학)</p> <p>[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시행계획수립 - 전문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확보 - 진로지도를 위한 시설, 예산, 시간확보 <p>[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 일 체험 지원 -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 정보 축적 지원 <p>[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및 취업 	<p>■ 중2년생 패널(4차년도)</p> <p>[직업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성숙도 - 장래 희망직업 선정 여부 - 장래 희망직업, 선택계기, 특성 - 희망직업 선택의 중요 요인 - 희망직업 생활의 성공 요인 - 희망직업 성취 요인, 필요 학력 - 희망직업의 주관적 성취 여부 -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직업 <p>[향후 진로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원인 - 전학, 휴학 및 중퇴 의사 - 향후 진로 설정, 관련 의식 - 진로성숙도 - 학생·부모 희망 교육수준 - 진로관련 부모와의 대화 여부 - 향후 진로 설정의 계기 <p>[진로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학교 수업 참여 - 사교육 참여, 개인 공부 - 수상 및 자격증 취득 경력 - 진로준비 활동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직종 -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이유 - 아르바이트 구직 기준

구분	청년패널조사	진로교육지표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관련 부당대우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아르바이트 참여시 부모동의서 작성 여부 ·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직업 생활 도움 여부, 효과
특징	청년패널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인프라 및 현황조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교육 인식수준과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되어 있음.	학교 및 각 기관의 진로지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대수준, 만족도와 부모의 자녀진로지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 관련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조사가 누락되어 있음.

※ 최인재 외(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직업지표)의 보고서 pp. 30~40 내용 요약·재정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지표 조사」(최인재 외, 2009)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직업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지표 조사」는 체계적인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또 각 지표와 조사내용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국 12개 시·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여 중고생 총 6,509명(중학생 3,010명, 고등학생 3,4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집을 위하여, 2008년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직업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17〉은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지표 조사」의 지표체계로서 각 조사영역과 하위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7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영역에 대한 지표체계 및 조사내용

관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하위요소
1 진로·직업 의식	1-1 진로·직업 가치	1-1-1	직업생활에 대한 전반적 가치
		1-1-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2 진로·직업 태도	1-2-1	결정성(진로방향의 확고한 정도)
		1-2-2	확신성(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
		1-2-3	준비성(진로결정에 대한 준비의 정도)
	1-2-4	독립성(진로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 정도)	
2 진로·직업 경험	2-1 진로·직업 교육	2-1-1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및 만족도
		2-1-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장애 및 요구도
		2-1-3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 및 만족도
		2-1-4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 관련 경험 및 만족도
	2-2 진로·직업 준비	2-2-1	진로준비행동(진로선택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실행 정도)
2-3 진로·직업 체험	2-3-1	아르바이트 체험(근로 경험 유무, 종류, 내용 및 일반적 사항 등)	
3 진로·직업 역량	3-1 자기이해	3-1-1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등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
	3-2 진로·직업 지식	3-2-1	진로·직업의 정보, 직무, 일의 특성, 직업전망 및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의 정도
	3-3 합리적 의사결정	3-3-1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 여부의 정도

※ 출처 : 최인재 외(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직업지표), p.87.

7) 청소년 진로준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결과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는(오호영, 이지연, 윤희한, 2007; 이지연, 최동선, 이혜숙, 2007; 임언, 장홍근, 윤희한, 2005)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내조사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임언, 2009). 한상근, 임언, 이지연, 이경상, 정윤경(2002)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계획수립, 직업선택, 이직 및 전직, 취업을 위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10대 및 20대 응답자 44%~66%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데 비해, 미국의 18~25세 청년들의 경우는 16%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5~19세의 7.8%만이 진로상담서비스를 받는데 비해, 미국의 18세~25세 청년들은 30%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에 비해,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임언, 2009).

지금까지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주제로 실시된 국제비교 보고서로서 2004년에 국내에 발간된 OECD의 ‘진로지도와 공공정책(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14개 OECD 회원국의 진로지도 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데, 올바른 진로지도가 국가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진로지도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04). 이 보고서는 진로지도가 학교 자체적으로만 제공될 경우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진로지도 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개인 상담이나 학습지도에만 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진학이나 취업 선택에 초점이 두었던 이전의 학교 진로지도정책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진로 관리 기술(career self-management skills)’ 배양에 초점을 맞추는 폭넓은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진로 지도를 학교나 학과 또는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상담 중심의 개인적인 서비스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진로관리기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과과정에 진로지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험을 통한 학습과 함께 진로지도에 대한 전학교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OECD, 2004).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또 다른 국제비교연구로서 OECD 국가의 직업교육의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을 비교한 임언(2009)의 연구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PISA 학교 설문에 포함된 진로지도 관련 문항을 분석하여 OECD 국가의 진로교육 실태를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진로지도 실태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관련 경험(직업 박람회 참여,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에 대해 국가간 비교를 하였는데, <표 I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는 세가지 진로관련 경험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인 반면 한국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표 II-18 OECD 국가에서의 진로지도(단위 : 1년에 한 번 이상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국가명	직업박람회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한국	38.4 (24)	51.8 (21)	44.1 (26)
호주	94.6 (2)	86.8 (3)	78.9 (12)
오스트리아	74.0 (10)	89.2 (1)	92.4 (4)
벨기에	17.5 (27)	24.8 (28)	58.5 (24)
캐나다	79.4 (7)	87.4 (2)	74.2 (17)
체코	76.3 (8)	74.6 (8)	84.1 (11)
덴마크	75.3 (9)	85.0 (5)	93.1 (3)
핀란드	69.8 (11)	80.6 (6)	94.0 (2)
프랑스	.	.	.
독일	89.4 (4)	78.9 (7)	94.5 (1)
그리스	65.4 (14)	38.9 (27)	76.8 (14)
헝가리	38.1 (25)	50.9 (24)	77.9 (13)
아이슬란드	50.9 (21)	64.5 (13)	71.9 (18)
아일랜드	43.6 (22)	51.6 (22)	43.4 (27)
이탈리아	58.3 (17)	62.3 (15)	66.7 (20)
일본	.	63.4 (14)	27.2 (28)
룩셈부르크	58.9 (16)	60.6 (16)	84.5 (9)
멕시코	17.7 (26)	46.3 (25)	57.5 (35)
네덜란드	69.3 (12)	57.5 (17)	71.6 (19)
뉴질랜드	80.2 (6)	70.0 (10)	58.7 (23)
노르웨이	97.6 (1)	69.0 (11)	84.9 (8)
폴란드	.	.	.
포르투갈	66.0 (13)	56.1 (18)	85.5 (6)
슬로바키아	41.7 (23)	65.1 (12)	75.5 (15)
스페인	51.0 (19)	54.9 (19)	75.1 (16)
스웨덴	61.0 (15)	51.0 (23)	87.3 (5)
스위스	82.9 (5)	54.1 (20)	85.2 (7)
터키	51.0 (20)	43.8 (26)	60.9 (21)
영국	94.0 (3)	85.0 (4)	84.4 (10)
미국	54.6 (18)	73.2 (9)	60.6 (22)

※ 출처 : 임연(2009),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p.10의 표 내용 일부 정리하여 제시.
/ 괄호 안은 국가별 순위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표 I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0%의 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2.7%에 그쳤다. 그러나 특정교사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핀란드(95.6%), 스웨덴(87.5%), 아일랜드(82.9%)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일수록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특정교사 또는 진로상담가가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을 지는 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진로교육의 책임이 많은 교사들에게 분산되는 현상은 오히려 진로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임연, 2009). 2012년부터 실시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제도를 통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에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19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

국가명	실시하지 않음	모든 교사	특정 교사	고용된 진로 상담가	방문 진로 상담가
한국	0.00	70.91	19.92	2.70	3.75
일본	0.69	37.04	61.45	0.00	0.00
이탈리아	26.93	16.41	50.50	0.52	0.79
독일	1.75	6.26	43.05	0.63	27.18
헝가리	6.21	44.02	42.27	1.23	1.79
벨기에	31.68	33.72	13.91	5.22	9.48
체코	0.86	4.81	78.52	10.27	2.32
터키	3.35	50.71	30.31	11.69	1.22
스위스	8.44	24.42	23.66	11.74	15.34
오스트리아	16.39	19.37	42.75	14.46	0.00
네덜란드	1.97	7.08	58.85	14.59	8.93
그리스	7.30	40.27	27.29	18.67	3.41
영국	0.00	1.34	30.16	19.90	40.74
멕시코	8.18	37.43	23.58	21.44	1.23
노르웨이	0.00	3.58	56.49	36.40	0.15
룩셈부르크	7.78	7.79	41.06	36.63	0.00
덴마크	0.00	0.98	10.53	41.00	45.70
호주	0.39	2.43	49.79	42.70	0.79
캐나다	0.71	7.36	27.79	52.68	2.40

국가명	실시하지 않음	모든 교사	특정 교사	고용된 진로 상담가	방문 진로 상담가
포르투갈	6.22	3.49	9.80	70.26	7.84
미국	2.90	14.20	6.02	70.40	1.33
아이슬란드	7.85	1.69	9.50	72.12	4.38
스페인	1.06	3.58	14.04	76.36	0.40
스로바키아	9.26	5.79	4.42	79.94	0.00
뉴질랜드	0.00	3.10	8.38	82.04	0.00
아일랜드	0.00	3.62	8.50	82.87	0.00
스웨덴	0.62	0.67	1.24	87.52	8.44
핀란드	0.00	0.00	0.00	95.62	0.00

※ 출처: 임언(2009).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p.14.

제 3 장

연구방법

1. 전문가 의견조사
2. 설문조사

제 3 장

연구방법¹⁷⁾

1.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목적

전문가 의견조사는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의 영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청소년 생활실태와 관련하여 국제비교 연구로서의 중요도, 시의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조사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조사영역들은 해외 연구 기관과 논의하여 최종적인 조사영역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 영역 도출을 위해 먼저 기존의 청소년 관련 국내·외 통계조사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그동안 국내의 아동·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아동·청소년의 통계자료 현황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핵심지표 영역체계를 구축한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 영역체계」(김기현·김창환, 2011)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조사인 General Social Survey의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표 Ⅲ-1>과 같이 주요 조사영역을 정리한 후 비교·검토하였다

17) 3장은 김희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I-1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 영역체계

영역체계	영역	세부영역	영역체계	영역	세부영역		
1. 인구 및 가족	1-1 인구	1-1-1 아동·청소년 인구 규모	5. 활동 및 문화	5-1 활동	5-1-1 청소년단체활동		
		1-2. 가족형태			5-1-2 동아리활동		
		1-3. 가족관계			5-1-3 자치활동		
	1-2 가족형태	1-2-1 가족형태별 아동·청소년			5-1-4 자원봉사활동		
		1-2-2 다문화 아동·청소년			5-1-5 청소년수련시설활동		
	1-3 가족관계	1-3-1 부모-자녀관계			5-1-6 국제교류활동		
		1-3-2 부부관계			5-1-7 방과후활동		
		1-3-3 형제자매 관계		5-2 문화	5-2-1 견학		
		2. 교육 및 역량			2-1 공교육	2-1-1 학생현황	5-2-2 공연/스포츠클럽
2-2. 사교육	2-2-1 사교육 규모					5-2-3 매체	
2-2-2 사교육 효과	2-2-2 사교육 효과					5-2-4 독서/도서관	
2-3 학교생활	2-3-1 학교생활	2-3-1 학교생활			5-2-5 여가생활	6. 복지 및 권리	6-1 복지
	2-3-2 교사관계	2-3-2 교사관계		6-1-2 복지시설 이용			
	2-3-3 친구관계	2-3-3 친구관계		6-1-3 복지서비스 이용			
2-4 핵심역량	2-4-1 지적 역량 (지적 도구 활용)	2-4-1 지적 역량 (지적 도구 활용)	6-1-4 복지인식	6-2 권리	6-2-1 권리 및 참여 의식		
	2-4-2 사회적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2-4-2 사회적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6-2-2 학생권리				
	2-4-3 자율적 역량 (자율적 행동)	2-4-3 자율적 역량 (자율적 행동)	6-2-3 인권인식				
3. 건강 및 심리	3-1 건강	3-1-1 신체건강	3-1-1 신체건강		6-2-4 인권교육	6-2-5 처벌, 징계처리	
		3-2. 심리	3-2. 심리		7. 비행 및 범죄	7-1 비행	7-1-1 음주/흡연/약물
		3-1-3 정신건강	3-1-3 정신건강	7-1-2 학교폭력			
		3-1-4 중독	3-1-4 중독	7-1-3 가출			
	3-2 심리	3-2-1 자기 이해	3-2-1 자기 이해	7-1-4. 성관련 경험	7-2 범죄	7-2-1. 소년범죄 경험	
		3-2-2 동기 및 정서	3-2-2 동기 및 정서	8. 진로 및 직업		8-1 진로	8-1-1 직업 의식 및 가치관
4. 보호 및 안전	4-1 보호	4-1-1 유해업소, 약물 및 유해행위	4-1-1 유해업소, 약물 및 유해행위		8-1-2 진로 준비		
		4-2. 안전	4-2. 안전		8-2 직업		8-2-1 청소년 경제활동
		4-1-3 성보호	4-1-3 성보호	8-2-2 청소년 아르바이트			
4-2 안전	4-2-1 학대경험	4-2-1 학대경험	4-2-1 학대경험	8-2-3 직업훈련 및 자격			
		4-2-2 안전인식	4-2-2 안전인식	9. 정책 및 인프라	9-1 정책	9-1-1 사업현황	
	4-2-3 사고 발생	4-2-3 사고 발생	9-1-2 재정현황				
	9-2 인프라	9-2-1 시설현황	9-2-2 단체현황	9-2-3 행정기관 현황	9-2-4 교육 및 연구기관 현황		

※ 출처: 김기현, 김창환(2011).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II-2 해외 청소년/성인대상 사회조사 주요 영역 요약

구분	조 사 영 역	
해외 청소년/성인대상 사회조사 주요 영역	General Social Survey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인구/ 보건/ 생활시간/ 가족/ 범죄피해/ 직업·고용/ 교육/ 사회적지지/ 사회적 계약 / 정서적 특성/ 소득활동/ 주거환경/ 건강/ 문화여가/ 경제/ 안전/ 교통/ 운동/ 정보기술/ 정치/ 사회적 불평등/ 시민권·국가정체성/ 환경/ 정치참여와 태도/ 미디어 등
	스웨덴, 영국 및 유럽의 기타 사회조사	주거환경/ 건강·출산/ 고용/ 여가/ 경제/ 교육/ 안전/ 사회관계·사회신뢰/ 아동/ 주거와 지역/ 종교/ 정보통신/ 가족 친구관계/ 범죄/ 자원봉사활동/ 만족감/ 미디어/ 정치/ 주관적 웰빙/ 사회적 배제/ 차별/ 시민권·국가·민족/ 소비 / 토지/ 이민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3> 참조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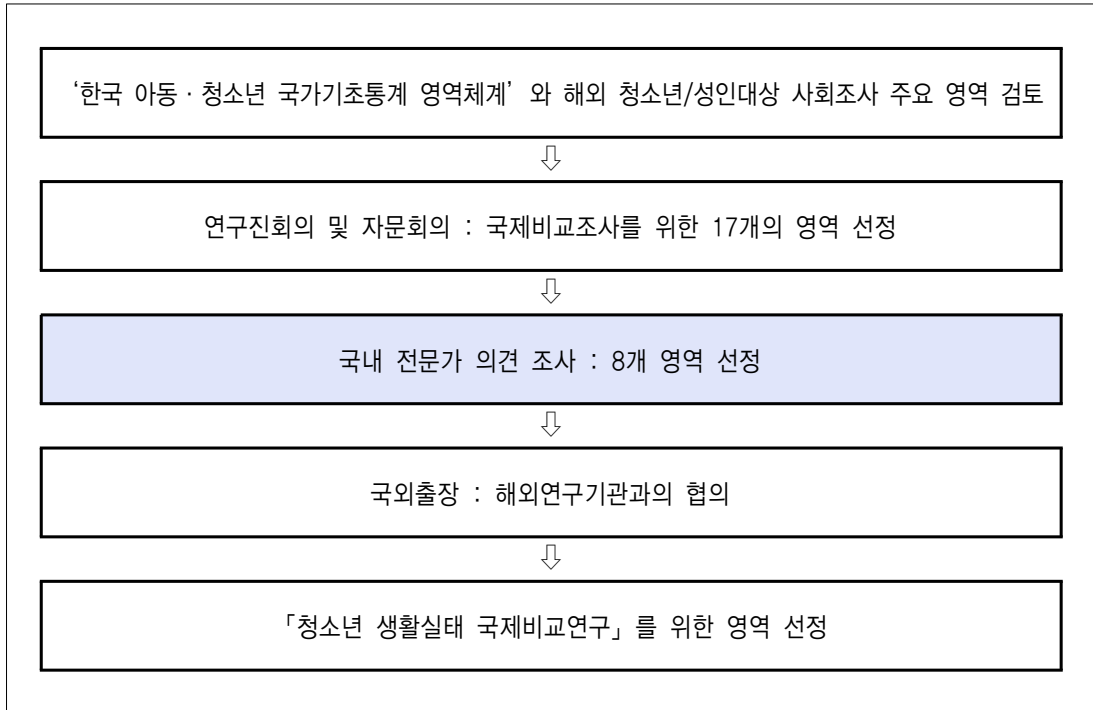
위의 국내·외 청소년관련 주요 조사주제 및 조사영역은 연구진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우리사회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보다 현실성 있는 조사영역을 중심으로 <표 III-3>와 같이 8개의 청소년생활실태 분야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한 총 17개의 조사영역으로 정리되었고, 이를 전문가의견조사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청소년관련 학계(청소년관련학과,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포함한 학계전문가 22명)와 정책전문가(정책담당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4명) 총 26인으로써 2012년 5월 14일~25일 동안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생활실태와 관련한 국제비교조사 영역으로서 중요도, 시의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조사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5가지의 조사영역을 선정하게 하였고, 그 이유도 함께 기술하도록 하였다.

표 III-3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구분	조사영역	주요 조사내용
1) 가족·사회적 관계	①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관계 등
	② 친구/사회적 관계	친구관계, 사회적지지
2) 교육	③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학교흥미도, 학교교육의 유용성
	④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시간 사용
3) 건강	⑤ 신체건강	운동, 신체적 건강관련
	⑥ 심리·정신건강	심리(자기이해, 정서), 정신건강, 중독 등
4) 보호	⑦ 유해환경	유해매체,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행위 경험 및 피해, 성보호 관련
	⑧ 학대, 안전	학대경험, 안전인식, 사고발생
5) 문화	⑨ 활동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⑩ 여가	여가에 관한 인식, 여가활용(공연/스포츠관람, 견학, 기타 여가생활)
	⑪ 정보통신	인터넷, 스마트폰, SNS 사용 관련
6) 권리	⑫ 권리	학생권리, 인권인식, 인권교육
	⑬ 참여	학교·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이슈·정치참여
7) 문제행동	⑭ 문제행동	음주·흡연, 가출 등 문제행동 경험
	⑮ 폭력	학교·사이버·지역사회 폭력 가해·피해 경험
8) 진로·경제 활동	⑯ 진로준비	직업의식 및 가치관,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⑰ 경제활동·소비생활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

본 전문가의견조사는 【그림 III-1】에서와 같이 8개의 조사영역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영역은 향후 WARDY를 중심으로 한 국제비교조사를 함께 실시할 외국의 조사기관과 협의 후 해당 국가의 연구와 정책 측면에서 높은 시의성과 중요성을 갖는 4개의 조사 영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4개의 조사영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동안 국제비교데이터가 생산되는 조사영역이다.



【그림 Ⅲ-1】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도출 과정

3) 조사결과

청소년생활실태와 관련하여 17개의 조사영역 중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좁혀진 8개의 조사영역은 ‘가족관계’, ‘친구/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심리·정신건강’, ‘정보통신’, ‘참여’, ‘폭력’, ‘진로준비’로 나타났다. 8개의 조사영역은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조사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응답한 전체빈도와 우선순위에 따른 빈도 등을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표 III-4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 영역 선정 결과(8개 조사영역)

세부조사영역	순위별 빈도					전체 빈도	선정된 조사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가족관계	5	7	-	-	1	13	○
② 친구/사회적 관계	1	5	1	2	-	9	○
③ 학교생활	4	2	4	2	2	14	○
④ 방과후 활동	-	2	2	-	1	5	-
⑤ 신체건강	-	-	-	1	-	1	-
⑥ 심리·정신건강	10	1	1	4	6	22	○
⑦ 유해환경	-	-	1	1	-	2	-
⑧ 학대, 안전	-	-	-	-	-	0	-
⑨ 활동	2	1	1	1	-	5	-
⑩ 여가	-	-	3	1	2	6	-
⑪ 정보통신	-	1	2	4	3	10	○
⑫ 권리	-	2	1	1	1	5	-
⑬ 참여	1	1	2	2	2	8	○
⑭ 문제행동	1	-	1	1	-	3	-
⑮ 폭력	-	2	2	3	3	10	○
⑯ 진로준비	1	2	4	3	3	13	○
⑰ 경제활동·소비생활	1	-	1	-	2	4	-

전문가들이 국제비교조사가 필요한 영역으로서 위의 8개 조사영역을 선정한 이유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선정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가족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인 미시체계변인으로 인류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행복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국제적인 비교조사 주제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한국의 가족관계가 아시아 국가로서의 특징인 공동체적인 성격과 함께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변형된 개인주의적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족관계(가족간 유대감, 기능적 해체 정도 등)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약해지고, 어머니의 맞벌이 증가로 인한 경제적 역할 증대 뿐 아니라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더 큰 책임을 갖는 구조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양육방식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어, 국제비교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관계의 변화양상을 볼 수 있음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2) 친구/사회적 관계

‘친구/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발달단계 특성상 또래집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족다음으로 매우 크며, 또래집단을 통한 사회적지지 역시 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렇게 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각 사회나 문화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국제비교연구로서 적합한 주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친구관계, 사회적지지 등의 관계망은 정신건강, 유해환경 접촉, 문제행동, 폭력 등 다양한 문제요인과의 관련성에서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취약하거나 유해한 환경 속에서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상대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조사영역으로 꼽았다.

(3) 학교생활

본 조사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화된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학교에서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교에서의 생활과 경험은 가족과 친구관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매우 근접한 환경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적인 실태와 비교를 위해 국제적인 비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학업과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학교문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식과 스트레스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 공교육의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국제비교를 통해 공교육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가치, 흥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행태에 대한 상대적 비교조사는 보다 개선된 학교생활 문화조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교육 및 사교육 증가 등의 교육적 특성과 학교의 역할(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유용성) 등에 대해 다른 나라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4) 심리·정신건강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상 이 시기의 안정된, 건강한 심리상태와 정신건강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의 주요한 발달측면을 국제 비교하는 것은 의미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OECD회원국 중 한국청소년의 자살률이 1위, 행복지수는 25위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나 정신건강이 다른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제비교를 통해 심리·정신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국의 입시교육과 경쟁적 분위기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의 증가는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에 기반한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는 유해매체중독과도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과 심리·정신건강과의 관계와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국제비교연구에서 청소년의 심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청소년의 심리 및 정신적 건강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수준과 또 청소년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객관적 데이터 산출은 향후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해결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5)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IT강국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과 사용자인 청소년들의 태도, 인식, 윤리 및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독특한 발달환경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SNS 활용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러한 높은 활용도와 이에 따른 생활방식의 특징이나 변화, 문제점들에 대한 국제비교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비교문화연구로도 가치 있게 보는 전문가의견도 있었다.

(6) 참여

전문가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참여는 시민활동으로써 중요한 영역이므로 향후 정책적으로 더 장려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비교를 통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민주시민의 형성과정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그 사회의 정치적 성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의식, 민주시민의식을 포함한 참여의식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상대적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기회 실태의 국제비교는 청소년의 민주 시민의식형성 등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아젠다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7) 폭력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행사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볼 때 국제비교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폭력기제와 폭력유형 및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폭력문화와 문제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의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 모색을 주장하는 전문가의견도 있었다. 일부전문가는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과 같은 정보사회로 인한 문제점역시 우리사회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으므로 국제비교조사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8) 진로준비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유로 국제비교조사 영역으로서 ‘진로준비’를 선택하였다. 청소년의 적절한 바른 진로준비는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에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입시와 취업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진로발달 및 적절한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과정과 이에 따른 의식 및 태도들에 대한 국제간 비교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 뒤에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선호 또는 무관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비교조사를 통해 국가별 직업가치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어, 직업에 대한 도구적 가치와 서열화, 미성숙한 진로의식 등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무엇보다 생애주기변화로 청소년기가 장기화되고 성인기 이행이 지체되는 것이 점점 세계적 추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국제비교와 더불어, 각 국가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개인적, 제도적 차원의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 설문조사

1) 조사영역과 설문문항

전문가 의견조사와 해외(중국, 일본, 미국) 협력연구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해 올해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의 연구주제가 ‘진로준비’로 결정됨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는 청소년의 진로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되었다. 본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진로·직업의식’, ‘진로·직업경험’, ‘진로·직업준비’, ‘진로·직업역량’, ‘아르바이트’, ‘구직 및 취업 경험’, ‘사회심리적 요인’의 7가지 영역이며, 이외에 다양한 개인 및 가족의 배경변인들이 포함되었다. 각 설문영역에 해당되는 세부문항들과 출처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설문조사 문항 및 출처

영역	문항	출처	
진로·직업의식	진로·직업 가치	○ 한국 청소년지표조사Ⅳ(2009)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 한국 청소년지표조사Ⅳ(2009)	
	진로·직업태도	결정성	○ 한국 청소년지표조사Ⅳ(2009)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진로·직업경험	진로·직업교육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 한국 청소년지표조사Ⅳ(2009)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 한국 청소년지표조사Ⅳ(2009)
진로·직업준비	진로준비행동	○ 한국 청소년지표조사Ⅳ(2009)	
진로·직업역량	자기이해	○ 한국 청소년지표조사Ⅳ(2009)	
	진로·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이유	○ 한국청소년패널조사Ⅵ(2008)	

영역	문항	출처
	아르바이트 경험의 도움 여부	
구직 및 취업 경험	구직 및 취업경험 여부	○한국노동패널 구직활동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2011) 문항 사용
	구직 시 어려움 경험 이유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전망	○연구진 신규작성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이유	○연구진 신규작성
	학력수준에 맞는 구직이 어려울 경우 대처 행동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0)
사회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통제감	○NLSY(2006) 설문문항 번안
	현재 고민거리	○통계청 사회조사(2010)
기타	현재 상황	○한국청소년패널조사Ⅵ(2008)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본인의 기대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 직업	
	고등학교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2) 예비조사

청소년진로준비에 대한 본 조사의 설문문항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만 1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 응답에 요구되는 시간의 적절성, 한·중·일·미 4개국 언어로의 설문지 번역의 정확성, 번역된 설문지에 대해 4개국 청소년 응답자가 내용을 동일하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는 표현, 설문내용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응답 저항이 나타나는 항목 등을 파악하였고, 설문 문항연결 구조와 전체 설문 진행과정(특히 온라인 조사의 특수성 감안)등을 점검하였다.

예비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된 사항은 설문지의 한·중·일·미 4개국 언어로의 정확한 번역으로, 일차적으로 현지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대해 시사담당기관의 연구원 검수 및 현지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본 연구의 연구진과 자문진의 최종 심의를 거쳤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총 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본 조사와 동일한 조사절차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설문지 번역의 정확성과 타당성, 그리고 설문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무응답률, 응답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최종 수정하였다.

표 III-6 예비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만19세~24세 이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
표본 크기	4개 국가별 50명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조사(Web Survey)
조사 기간	2012년 10월 8일~12일

3) 본조사

본 조사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만19세 이상 24세 이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설계와 표본추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표 III-7 조사대상과 표본크기

구분	내용
조사대상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만19세~24세 이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남녀 청소년
표본 크기	총 6,000명 - 한국 : 1,500명(대도시 : 1,200명 + 비대도시 : 300명) - 중국 : 1,500명(대도시 : 1,200명 + 비대도시 : 300명) - 미국 : 1,500명(대도시 : 1,200명 + 비대도시 : 300명) - 일본 : 1,500명(대도시 : 1,200명 + 비대도시 : 300명)
조사 방법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조사(Web Survey)
조사 기간	- 2012년 10월 19일(금) ~ 2012년 11월 2일(금)

(2) 표본 설계

① 표본 할당 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인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조사의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별 인터넷 보급률 및 모집단인 온라인 패널이 실제 인구비와 다르며,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온라인 패널의 거주지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미성년자 패널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어 대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설계 시 각 나라의 세부 인구비에 맞추어 성별, 연령, 지역별 층화를 세분화 하여 조사를 진행할 경우 층별로 온라인 패널의 모집단이 충분하지 않아 특정계층 및 특정 성향의 표본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의 목적이 국가 간 비교이므로 조사대상을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대상은 각 국가별 전체 해당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성, 연령별로

균등 배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지역별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세부 지역 및 도시 층화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할당 변수로 도시규모를 추가하여 결과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의 할당을 적용하였다.

표 III-8 표본구성

구분	내용
표본할당	국가별 만19세~24세 이하 남녀 성별/연령별 균등 배분
층화	1단계: 국가별 성*연령별 2단계: 도시규모별 임의할당(비대도시 20%로 한정)
표본 수	국가별 1,500명 * 4개국, 총 6,000명

도시규모는 대도시 및 비대도시 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임의할당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패널의 경우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비대도시권의 모집단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 인구비로 조사를 실시 할 경우 비대도시 지역의 특정 성향/계층의 표본이 추출될 경우를 우려하여 비대도시 표본은 전체 표본의 20%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9 각 국가별 세부 표본 할당

연령	성별	합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합계	남	750	125	125	125	125	125	125
	여	750	125	125	125	125	125	125
	총계	1500	250	250	250	250	250	250
대도시	남	600	100	100	100	100	100	100
	여	6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	1200	200	200	200	200	200	200
비대도시	남	150	25	25	25	25	25	25
	여	150	25	25	25	25	25	25
	계	300	50	50	50	50	50	50

② 도시 층화

○ 한국의 도시 구분

한국의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한국은 특별시인 서울과 6개의 광역시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을 대도시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은 비대도시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도 지역에서도 일부 대도시권과 규모나 인구가 비슷한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온라인 조사의 특성 및 국가별 비교를 위해 일괄적으로 행정 구역으로만 구분하였다.

표 III-10 **한국의 도시구분**

도시권 명	중심 도시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비대도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시),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중국의 도시 구분

중국을 행정구역별로 구분하면, 직할시, 성도, 도시·지급시 등 지급 이상의 도시가 총 287개이다. 중국의 경우 지역별 소득규모 및 인구수에 차이가 크며, 같은 행정 등급이라도 도시 간 인구 및 규모가 상이하다. 따라서 중국 전체를 도시의 경제수준과 인구 밀집규모에 따라 중국의 287개 이상의 도시를 1, 2, 3, 4, 5선으로 총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1, 2선도시를 대도시로, 3, 4, 5선도시를 비대도시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I-11 중국의 도시구분

도시권 명	중심 도시
1선 도시 (3개)	베이징(北京) · 광저우(廣州) · 상하이(上海)
2선 도시 (17개)	충칭 · 텐진 · 선양 · 난징 · 우한(武漢) · 청두 · 다롄(大連) · 우시(無錫) · 창저우(常州) · 쑤저우(蘇州) · 항저우(杭州) · Ning보우(寧波) · 칭다오(靑島) · 옌타이(煙臺) · 창사 · 선전 · 포산(佛山)
3선 도시 (98개)	다통(大同) · 옌청(鹽城) · 푸톈(莆田) · 자오좡(棗莊) · 타이안(泰安) · 상판(襄樊) · 하이커우(海口) · 구이양(貴陽) · 란저우 · 우루무치(烏魯木齊) · 시안 · 친황다오(秦皇島) · 한단(邯鄲) · 바오딩(保定) · 청더(承德) · 창저우(滄州) · 후허하오터(呼和浩特) · 통랴오(通遼) · 푸순(撫順) · 번시(本溪) · 진저우(錦州) · 잉커우(營口) · 라오양(遼陽) · 송위안(松原) · 련윈강(連雲港) · 양저우(揚州) · 전장(鎮江) · 타이저우(泰州) · 자싱(嘉興) · 후저우(湖州) · 소싱(紹興) · 진화(金華) · 저우산(舟山) · 우후 (蕪湖) · 취안저우(泉州) · 장저우(漳州) · 주장(九江) · 신위(新余) · 지닝(濟寧) · 르짜오(日照) · 라이우(萊蕪) · 더저우(德州) · 빈저우(濱州) · 핑딩(平頂) · 푸양(濮陽) · 황스(黃石) · 스옌(石堰) · 이창(宜昌) · 주저우(株洲) · 상탄(湘潭) · 웨양(岳陽) · 창더(常德) · 주하이(珠海) · 장먼(江文) · 잔장(湛江) · 자오칭(肇慶) · 후이저우(惠州) · 칭위안(淸遠) · 중산(中山) · 류저우(柳州) · 구이린(貴林) · 판즈화(攀枝花) · 취징(曲靖) · 스자좡 · 탕산(唐山) · 타이위안(太原) · 창춘(長春) · 지린(吉林) · 하얼빈(哈爾濱) · 쉬저우(徐州) · 타이저우(臺州) · 허페이(合肥) · 푸저우(福州) · 샤먼(廈門) · 난창(南昌) · 지난(濟南) · 쑤보(濰博) · 웨이팡(濰坊) · 린이(臨沂) · 정저우 · 뤼양(洛陽) · 둥관 · 난닝(南寧) · 쿤밍(昆明) · 어얼뒤쓰(鄂爾多斯) · 위시(玉溪) · 진창(金昌) · 커라마이(克拉瑪依) · 쉬저우(朔州) · 바오터우(包頭) · 안산(鞍山) · 판진(盤錦) · 다칭(大慶) · 난통(南通) · 윈저우(溫州) · 마안산(馬鞍山) · 둥잉(東營) · 웨이하이(威海)
4선 도시 (169+)	수이화(綏化) · 상뤄(商洛) · 룡난(隴南) · 류안(六安) · 우란(烏蘭) · 헤이허(黑河) · 황강(黃岡) · 허츠(河池) · 충취(崇左) · 다저우(達州) · 야안(雅安) · 리장(麗江) · 쓰마오(思茅) · 린창(臨滄) · 라싸(拉薩) · 핑량(平涼) · 주취안(酒泉) · 칭양(慶陽) · 우중(吳忠) · 구위안 · 중웨이(中衛) · 진중(晉中) · 윈청(運城) · 신저우(忻州) 등

○ 일본의 도시 구분

일본은 1도(都)1도(道)2부(府)43개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구분을 위하여 일본의 총무성 통계국이 전국의 도시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로 이용한 7대 도시권을 사용하여 도시를 구분하였다. 7대 도시권의 중심도시를 구분하는 것은 도쿄 도의 구지역과 정령지정도시를 지칭하며, 중심 도시가 서로 근접할 때에는 그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7대 도시권의 중심도시를 대도시, 이외의 도시를 비대도시로 구분하였다.

표 III-12 일본의 도시구분

도시권 명	중심 도시
간토 대도시권	도쿄도 구지역 · 요코하마 시 · 가와사키 시 · 지바 시 · 사이타마 시
게이한신 대도시권	교토 시 · 오사카 시 · 고베 시
주쿄 대도시권	나고야 시
기타큐슈 · 후쿠오카 대도시권	기타큐슈 시 · 후쿠오카 시
삿포르 대도시권	삿포르 시
센다이 대도시권	센다이 시
히로시마 대도시권	히로시마 시

○ 미국의 도시 구분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여 있는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주의 수도가 존재하지만 해당 주에서 인구, 경제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없다. 각 주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카운티(County), 시티(City), 타운(Town) 등이 있으며, 시티(City)의 경우 5,000개 이상이 있다. 따라서 도시 간 규모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며, 시티(City)의 수도 너무 많은 관계로 시티(City)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시를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인구밀도 500,000만 이상의 시티(City)를 대도시로 그 외의 시티(City)를 비대도시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I-13 미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순위	도시명	유형	주	인구
1	New York	city	New York	8,391,881[ny]
2	Los Angeles	city	California	3,831,868[ca]
3	Chicago	city	Illinois	2,851,268[il]
4	Houston	city	Texas	2,257,926[tx]
5	Phoenix	city	Arizona	1,593,659[az]
6	Philadelphia	city	Pennsylvania	1,547,297[pa]
7	San Antonio	city	Texas	1,373,668[tx]

순위	도시명	유형	주	인구
8	San Diego	city	California	1,306,300[ca]
9	Dallas	city	Texas	1,299,542[tx]
10	San Jose	city	California	964,695[ca]
11	Detroit	city	Michigan	910,921[mi]
12	San Francisco	city	California	815,358[ca]
13	Jacksonville	city	Florida	813,518[fl]
14	Indianapolis	city	Indiana	807,584[in]
15	Austin	city	Texas	786,386[tx]
16	Columbus	city	Ohio	769,332[oh]
17	Fort Worth	city	Texas	727,577[tx]
18	Charlotte	city	North Carolina	704,422[nc]
19	Memphis	city	Tennessee	676,640[tn]
20	Boston	city	Massachusetts	645,169[ma]
21	Baltimore	city	Maryland	637,418[md]
22	El Paso	city	Texas	620,456[tx]
23	Seattle	city	Washington	616,627[wa]
24	Denver	city	Colorado	610,345[co]
25	Nashville–Davidson	met gov	Tennessee	605,473[tn]
26	Milwaukee	city	Wisconsin	605,013[wi]
27	Washington	city	District of Columbia	599,657[dc]
28	Las Vegas	city	Nevada	567,641[nv]
29	Louisville	met gov	Kentucky	566,503[ky]
30	Portland	city	Oregon	566,143[or]
31	Oklahoma City	city	Oklahoma	560,333[ok]
32	Tucson	city	Arizona	543,910[az]
33	Atlanta	city	Georgia	540,922[ga]
34	Albuquerque	city	New Mexico	529,219[nm]

(3) 국가별 온라인 패널 선정

① 국가별 패널 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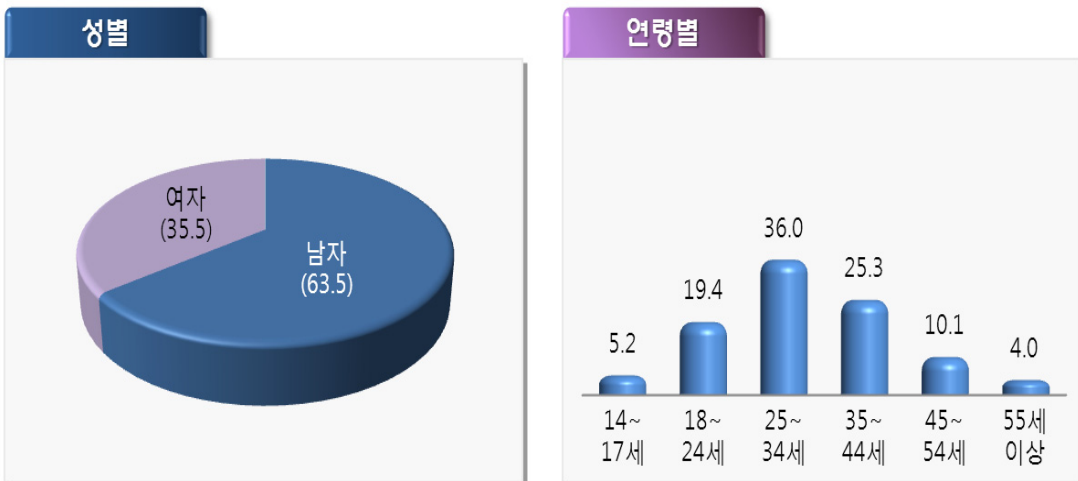
국가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국가별로 가장 온라인 패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 조사업체의 패널을 제공받아 한국에서 직접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국가에서 충분한 패널을 보유하여 대표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서의 실사 담당 기관이 동일한 관리를 통해 외국의 온라인 패널을 모집단으로 사용한 본 조사의 국가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② 국가별 패널 현황

온라인 패널규모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는 Active panel을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패널에 새롭게 등록한 패널”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국 패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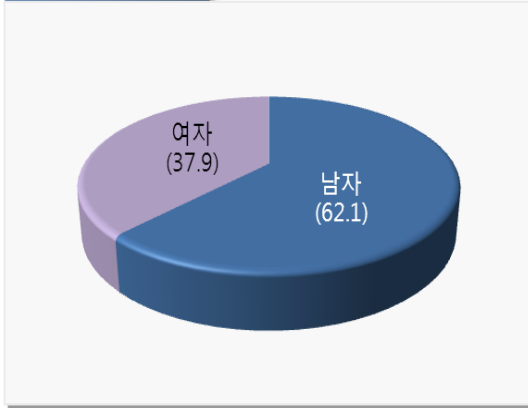
- 총 인구 수 : 50,851,082명
- 보유 패널 수 : 344,0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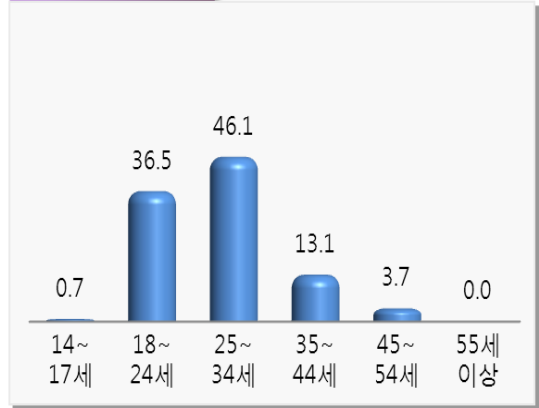
○ 중국 패널 현황

- 총 인구 수 : 1,336,718,015명
- 보유 패널 수 : 638,312명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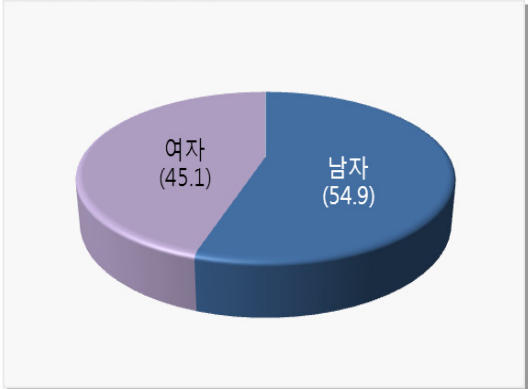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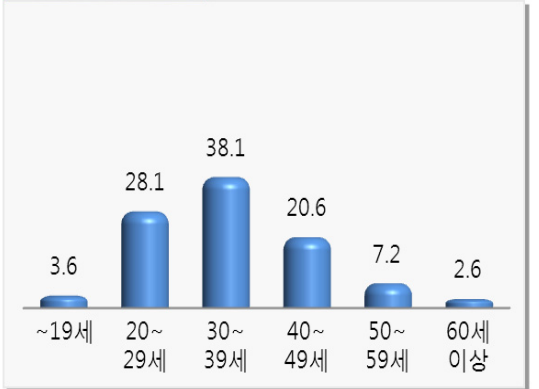
○ 일본 패널 현황

- 총 인구 수 : 126,475,664명
- 보유 패널 수 : 1,088,428명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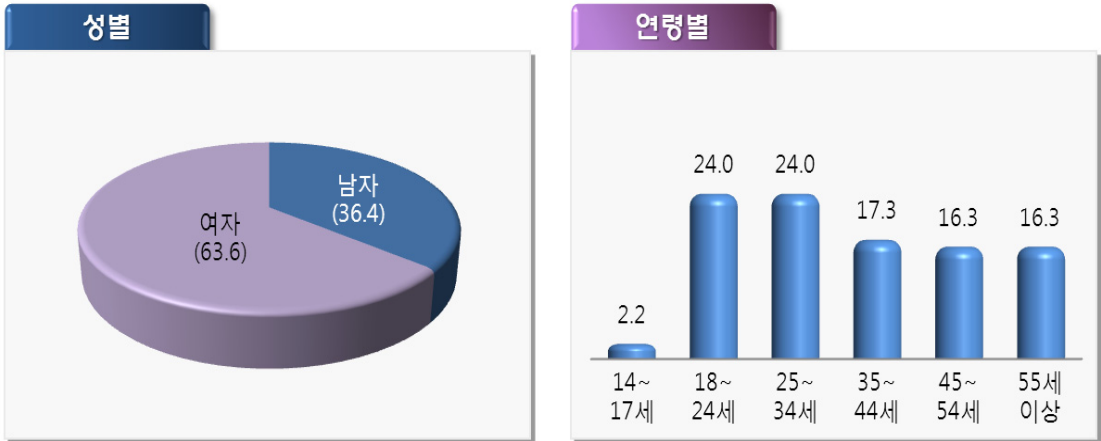
연령별



※ 일본의 경우, 18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패널 참여 가능. 실제 실시시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진행하게됨

○ 미국 패널 현황

- 총 인구 수 : 313,232,044명
- 보유 패널 수 : 3,609,338명



(4) 조사 진행 방법

① 설문지 확정

한·중·일·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2단계 파일럿 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4개국 청소년들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모두 동일하도록 최대한 번역작업에 노력을 기하였고, 조사업체의 현지연구원과 현지전문가 및 본 연구의 연구진과 공동연구원,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최대한 타당한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설문지가 되도록 하였다.

표 III-14 설문지 확정을 위한 2단계 파일럿 테스트

구분	내용
1차 파일럿 테스트 (현지 연구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국가의 현지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조사기관의 현지 연구원을 통해 설문지 검수(용어가 적절한가, 실시시기에 현지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가, 이해가 힘든 문항이 있는가,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예시가 제시 되었는가 등) 2. 현지 연구원이 응답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3. 설문지 검수와 파일럿 테스트를 마친 후 결과에 대한 feed-back

구분	내용
	4. 검토한 결과를 한국에서 최종 검토 후 확정
2차 파일럿 테스트 (온라인 패널)	1. 1차 파일럿 테스트 후 예비조사 설문지 확정 각 국가별 실제 온라인 패널(50명)에게 본 조사의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파일럿 테스트 실시(설문에 대한 이해도, 무응답률, 응답의 일관성 등 검토) 2. 테스트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결과 반영 후 최종 설문 확정

② 본 조사 절차

표 III-15 본 조사 절차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기획 및 실사준비 - Web 설문 제작 및 응답 D/B Logic 구축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panel 중 적합한 panel을 추출하여 조사안내 e-mail 발송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상의 설문 사이트 URL Click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사이트로 이동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기입식 설문지 작성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내용은 Web 서버의 DB에 저장

4) 분석방법

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청소년 조사응답자의 데이터는 각각 Frequency, T-test, ANOVA,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또한 각국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직업·진로태도, 직업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 등의 주요진로 관련 문항들에 대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고교재학 시 학업성적, 부모학력 및 직업,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른 각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ANOVA 분석 시에는 Scheffé 검증에 의한 다중비교방법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 또 위의 진로관련 가치 및 태도, 진로준비행동이나 역량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사회심리적 요인
3. 진로지도 경험
4.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5. 진로 · 직업태도
6. 진로준비행동
7. 진로 · 직업역량
8.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9. 조사 결과 요약

제 4 장

연구 결과¹⁸⁾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한·중·일·미 4개국의 만 19세~24세의 청소년 중 할당표집을 통해 성별, 지역규모별, 연령별 균등한 비율로 총 6,01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한국의 청소년 응답자 중 학생은 74.8%로 가장 많았고, 일본청소년 중 학생은 66.8%, 중국청소년 중 학생은 55.2%, 미국청소년 중 학생은 49.3%였음(나머지는 취업 및 취업준비/무직).
- 일본청소년 응답자의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비율은 72.1%로 가장 높았고, 한국청소년(69.8%)과 중국청소년(69.8%)은 유사한 수준인데 비해, 미국청소년은 42.1%로 가장 낮았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일본청소년이 39.4%로 가장 높았고,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한국청소년에게서 가장 높게(43.9%) 나타났음.

본 연구의 청소년 조사대상은 총 6,011명으로 한국에서 1,502명, 중국에서 1,503명, 일본에서 1,504명, 미국에서 1,502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별(남/여), 지역규모별(대도시/비대도시), 연령별(만19세~24세)로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당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국가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IV-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4개국 모두 남, 여 각각 50%의 비율로 각 성별당 약 750명~75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령별로도 만 19세부터 24세까지 거의 동일한 인원(250명~251명)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거주하고 있는 도시규모에 따라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준비를 위한 인프라와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사는 대도시와 비대도시(중·소도시, 농·산·어촌 포함)를

18) 4장은 김희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구분하여, 비대도시의 경우 최소한 20%의 응답자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4개국의 응답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약 80%, 비대도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20%의 비율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조사되었다.

현재 조사시점(2012년 10월)에서의 교육수준을 보면, 한국의 경우 고졸이하(중졸이하·고교재학·고졸)의 응답자가 165명으로 11%였고, 전문대 재학·졸업이 288명으로 19.2%, 4년제대학 재학이상(대학졸업·대학원 이상)인 조사응답자는 1,049명으로 69.8%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국과 일본도 유사한 교육수준 분포를 보였는데, 중국의 조사대상자 중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인 응답자는 134명으로 8.9%, 전문대 재학·졸업은 331명(22%), 4년제대학 재학이상은 한국보다는 조금 적은 1,038명으로 약 69%였다. 일본청소년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하인 경우가 324명으로 21.5%로 나타나 한·중·일 3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대 재학·졸업자는 96명으로 가장 낮은 인원수였으며, 4년제대학 재학이상인 응답자는 가장 많은 1,084명으로 약 72%에 달했다. 미국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한·중·일 3개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이하와 전문대재학·졸업이 각각 435명(29%), 434명(28.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인 경우는 633명(42%)에 불과해, 한·중·일 3개국과 비교했을 때 조사응답자의 현재 교육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 중 상위권이었다는 응답이 701명(46.8%), 중위권이 490명(32.7%), 하위권은 288명(19.2%)으로 나타났다. 중·일·미 3개국 중에서는 일본청소년의 응답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상위권이라는 응답은 744명(50.5%), 중위권은 375명(25.4%), 하위권은 346명(23.4%)으로 전반적인 분포가 비슷했다. 이에 비해, 중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상위권이라는 응답이 각각 1,080명(72.8%), 931명(70.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위권은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 각각 299명(20.1%), 296명(22.4%), 하위권이라는 응답은 중국청소년은 99명(6.7%), 미국청소년은 82명(6.2%)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면, 한·중·미 3개국은 65.8%~71.8%로 유사한 비율을 보인데 비해, 일본청소년은 83%인 1,248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4개국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사대상자가 학생인지 혹은 취업중인지를 살펴보면(일과 학업 병행 시 학생으로 응답), 한국청소년 중 1,124명이 학생이라고 응답해 전체 4개국가의 청소년 중 가장 높은 학생비율(74.8%)을 보였다. 한국청소년 중 취업중이라는 청소년은 204명(13.6%), 취업준비이거나 무직인 상태는 174명(11.6%)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 중에서는 584명인 38.9%가 취업상태였고, 절반이 약간 넘는 829명(55.2%)이 학생, 90명인 6%만이 취업준비중이거나 무직이었다.

표 IV-1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특징

단위: %(명)

구분		한국(1502)	중국(1503)	일본(1504)	미국(1502)	
개인적 특성	성별	남	50.0(751)	49.9(750)	49.9(751)	49.9(750)
		여	50.0(751)	50.1(753)	50.1(753)	50.1(752)
	연령	19세~21세	50.0(751)	50.0(752)	50.0(752)	50.0(751)
		22세~24세	50.0(751)	50.0(751)	50.0(752)	50.0(751)
	거주도시	대도시	80.0(1201)	80.0(1203)	79.9(1202)	80.0(1201)
		비대도시	20.0(301)	20.0(300)	20.1(302)	20.0(301)
	교육수준	고졸이하	11.0(165)	8.9(134)	21.5(324)	29.0(435)
		전문대재학·졸업	19.2(288)	22.0(331)	6.4(96)	28.9(434)
		4년제대 재학이상	69.8(1049)	69.1(1038)	72.1(1084)	42.1(633)
	고등학교 학업성적	상위권	46.8(701)	72.8(1080)	50.3(744)	70.6(931)
		중위권	32.7(490)	20.1(299)	25.4(375)	22.4(296)
		하위권	19.2(288)	6.7(99)	23.4(346)	6.2(82)
		해당 없음	1.3(19)	0.4(6)	0.9(14)	0.8(10)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65.8(988)	71.8(1079)	83.0(1248)	67.4(1013)
		없다	34.2(514)	28.2(424)	17.0(256)	32.6(489)
	현재 상황	취업	13.6(204)	38.9(584)	18.4(277)	27.5(413)
		학생	74.8(1124)	55.2(829)	66.8(1004)	49.3(740)
		취업준비/무직	11.6(174)	6.0(90)	14.8(223)	23.2(349)
가족 배경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50.5(758)	71.3(1071)	32.3(486)	46.5(698)
		대졸	41.0(616)	23.6(354)	55.2(830)	36.5(548)
		모름	8.5(128)	5.2(78)	12.5(188)	17.0(256)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65.3(981)	74.5(1120)	42.6(641)	50.1(752)
		대졸	26.6(399)	17.3(260)	45.0(677)	37.4(561)
		모름	8.1(122)	8.2(123)	12.4(186)	12.6(189)
	아버지 취업상태	직업 있음	90.8(1364)	93.3(1402)	93.2(1402)	75.0(1126)
		무직	7.2(108)	6.6(99)	5.0(75)	18.4(276)
		모름	2.0(30)	0.1(2)	1.8(27)	6.7(100)
	어머니 취업상태	직업 있음	51.3(771)	67.9(1021)	55.6(836)	62.1(932)
		가사	47.5(713)	31.9(480)	43.8(658)	35.9(539)
		모름	1.2(18)	0.1(2)	0.7(10)	2.1(31)
경제적 수준	높은편	32.5(288)	39.1(587)	39.4(592)	37.2(559)	
	중간	23.6(354)	27.8(418)	25.8(388)	28.0(421)	
	낮은편	43.9(660)	33.1(498)	34.8(524)	34.8(522)	

일본 청소년 중에서는 277명(18.4%)이 취업 중이었고, 학생이라는 응답은 1,004명으로 약 67%로 나타나 한국 다음으로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223명(14.8%)이 취업준비 중이거나 무직으로 응답했다. 미국 청소년 중에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50%미만인 740명이 학생이라고 응답했으며, 취업중인 청소년은 413명(27.5%), 취업준비이거나 무직인 청소년은 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3.2%(349명)이었다.

4개국 조사대상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가족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 및 취업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의 부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라는 응답은 절반정도로 758명이었고, 대졸은 이보다 약간 적은 616명(41%)였다. 중국 청소년의 부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4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고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71명(71.3%), 대졸은 354명(23.6%)였다. 일본 청소년의 부의 교육수준이 4개국 중 가장 높았는데 대졸이 55.2%(830명), 고졸이라는 응답이 32.3%(486명)이었다. 미국 청소년의 응답은 한국청소년의 경우와 가장 유사했는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는 46.5%(698명), 대졸은 36.5%(548명)이었다. 어머니 교육수준도 일본 청소년조사(대졸, 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미국(대졸, 37.4%), 한국(대졸, 26.6%), 중국(대졸, 17.3%)순이었다.

부·모의 취업 및 실업상태를 살펴보면, 한·중·일 3개 국가 청소년의 아버지 중 90% 이상이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은 75%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보면, 중국청소년의 경우 가장 높은 67.9%(1,021명)이었고, 그 다음은 미국 62.1%(932명), 일본 55.6%(836명), 한국 51.3%(771명) 순이었다. 가사(전업주부)비율은 한국 청소년의 어머니가 가장 높은 비율인 47.5%(713명)였고, 일본이 43.8%(658명), 미국이 35.9%(539명), 중국이 31.9%(480명)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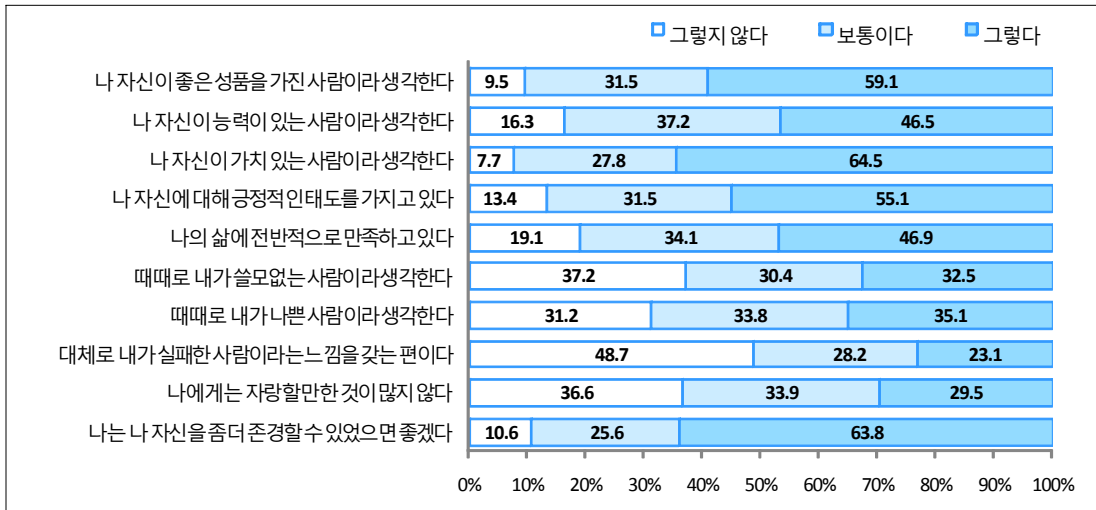
조사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청소년 중 ‘높은 편’ 이라는 응답은 288명으로 32.5%였고, ‘중간’ 이라는 응답은 354명(23.6%)였다. ‘낮은 편’ 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660명(43.9%)로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4개국 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일·미 3개 국가의 분포는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 이라는 응답은 대체로 37%~39% 수준, ‘중간’ 25.8%~28%, ‘낮은 편’ 이라는 응답은 33.1%~34.8%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사회심리적 요인

1) 자아존중감 수준

(1)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 한국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세부 항목 중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64.5%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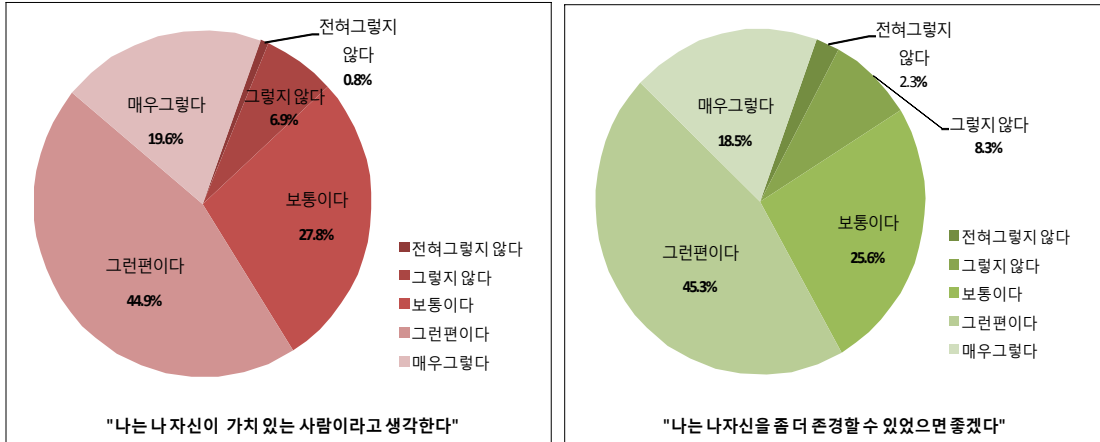
※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합친 응답률, ‘그렇다’는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응답률 기준

【그림 IV-1】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 항목별 비교

한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0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1】와 <표 IV-2>와 같다. 자아존중감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 중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을 보인 것은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64.5%)였으며,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삶이라고 생각한다’(59.1%)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을 능력있다고 생각하거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 보면,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3.8%)가 예외적으로 매우 높았고, 좀 더 부정적인 의미인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5%)와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5.1%)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인 항목 기준

【그림 IV-2】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 항목별 비교

표 IV-2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별 응답 단위: %(명)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①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8.5	31.5	48.4	10.7	100(1502)
②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	14.4	37.2	37.8	8.7	100(1502)
③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8	6.9	27.8	44.9	19.6	100(1502)
④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4	12.0	31.5	42.0	13.1	100(1502)
⑤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3.7	15.4	34.1	36.4	10.5	100(1502)
⑥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9.4	27.8	30.4	29.0	3.5	100(1502)
⑦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0	23.2	33.8	31.6	3.5	100(1502)
⑧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15.2	33.5	28.2	20.2	2.9	100(1502)
⑨ 나에게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8.3	28.3	33.9	26.0	3.5	100(1502)
⑩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3	8.3	25.6	45.3	18.5	100(1502)

※ 주 : ①~⑤항목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높은 비율이, ⑥~⑩항목은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낮은 비율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

(2)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한국청소년은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음.

높은 응답률을 보인 자아존중감 항목들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수준과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M=3.83>3.48>3.41),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수록(M=3.96>3.69>3.65) 자신에 대해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일부)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	M (SD)	전체 평균값 (SD)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남	여	고졸 이하	전문대 재·졸	4년제 대제이상	낮은편	중간	높은편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 (SD)	3.59 (.827)	3.66 (.861)	3.53 (.787)	3.41 (.883)	3.48 (.830)	3.65 (.810)	3.51 (.814)	3.55 (.857)	3.73 (.806)
	t/F(Scheffé)		2.940*		9.716***(ac, bc)			10.331***(df, ef)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 (SD)	3.37 (.900)	3.43 (.926)	3.31 (.870)	3.11 (1.000)	3.26 (.875)	3.44 (.880)	3.18 (.926)	3.38 (.857)	3.62 (.832)
	t/F(Scheffé)		2.470*		12.153***(ac, bc)			35.422***(de, df, ef)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 (SD)	2.89 (1.035)	2.77 (1.076)	3.01 (0.978)	2.98 (1.085)	2.94 (1.068)	2.86 (1.017)	3.06 (1.030)	2.87 (.986)	2.68 (1.039)
	t/F(Scheffé)		-4.542***		1.358			19.122***(de, df, ef)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 (SD)	2.99 (1.003)	2.83 (1.043)	3.15 (0.937)	3.02 (1.068)	2.98 (1.002)	2.99 (.994)	3.11 (1.004)	2.94 (.962)	2.88 (1.017)
	t/F(Scheffé)		-6.170***		.079			8.410***(de, df)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M (SD)	3.70 (0.941)	3.58 (0.953)	3.81 (0.914)	3.68 (1.012)	3.76 (0.913)	3.68 (0.936)	3.86 (.870)	3.59 (.897)	3.56 (1.028)
	t/F(Scheffé)		-4.920***		1.052			17.747***(de, df)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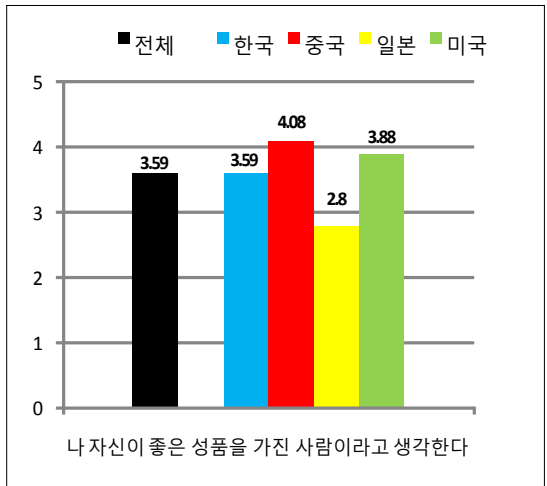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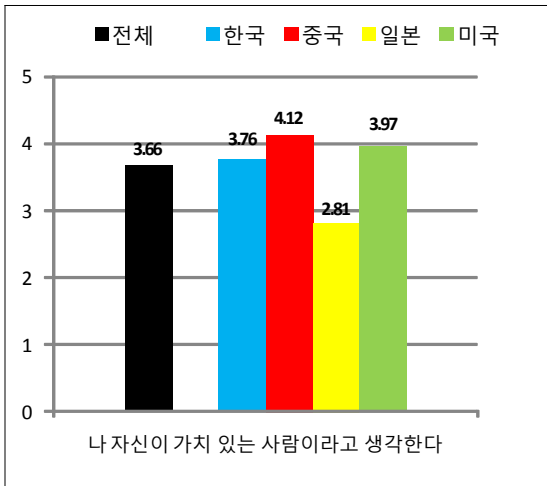
※ 주1 : 위의 표에 제시된 항목들은 그 중 높은 평균값을 보인 다섯 가지만 제시한 것으로, 위에서부터 두 항목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높은 평균값이, 나머지 세항목은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낮은 평균값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주2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제이상), 경제수준(d=낮은편, e=중간, f=높은편)

주3 : 기타 자아존중감 세부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는 <부표 1> 참조

(3)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별 비교

○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항목들 중에서 한국과 중국청소년은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서, 그리고 일본청소년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서, 미국청소년은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음.



※ 자아존중감 세부항목 중 전체응답자의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 평균값 기준

[그림 IV-3]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 항목의 평균값 비교

자아존중감을 구성하고 있는 10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한·중·일·미 청소년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긍정적인 내용의 자아존중감 항목들 중에서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한국청소년과 중국청소년의 경우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각각 M=3.76, M=4.12). 그러나 한국청소년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여준 미국청소년의 응답에(M=3.97)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10개 항목 중 일본청소년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M=3.01)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지만, 일본청소년은 전반적으로 각 세부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낮아, 이 항목도 한·중·미 3개 국가 청소년들의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청소년은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이 (M=4.04)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청소년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응답(M=3.87)을 보였고, 한국과 일본 청소년이 그 뒤를 이었다(각각 M=3.37, 2.72).

부정적인 내용의 자아존중감 항목 중에서는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항목 외에 한국청소년은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2.99)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인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가진 항목에서 한국청소년 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M=3.44). 중·일·미 3개국 청소년은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는 항목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으며, 일본청소년(M=3.56), 한국청소년(M=2.89), 중국청소년(2.52), 미국청소년(2.85) 순으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표 IV-4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①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59 (1.160)	3.59 (.827)	4.08 (1.229)	2.80 (.877)	3.88 (1.213)	429.359*** (ab, ac, ad, bc, bd, cd)
②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50 (1.084)	3.37 (.900)	3.87 (.891)	2.72 (.930)	4.04 (1.083)	582.593*** (ab, ac, ad, bc, bd, cd)
③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66 (1.081)	3.76 (.873)	4.12 (.901)	2.81 (.943)	3.97 (1.085)	571.464*** (ab, ac, ad, bc, bd, cd)
④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55 (1.032)	3.53 (.914)	3.94 (.846)	3.01 (1.062)	3.73 (1.050)	254.495*** (ab, ac, ad, bc, bd, cd)
⑤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3.43 (1.069)	3.34 (.983)	3.77 (.925)	2.89 (1.064)	3.71 (1.060)	242.471*** (ab, ac, ad, bc, cd)
⑥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96 (1.140)	2.89 (1.035)	2.52 (1.018)	3.56 (1.016)	2.85 (1.222)	248.485*** (ac, ad, bc, bd, cd)
⑦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85 (1.131)	2.99 (1.003)	2.25 (.966)	3.44 (.998)	2.70 (1.196)	345.727*** (ab, ac, ad, bc, bd, cd)
⑧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2.61 (1.154)	2.62 (1.058)	2.18 (.934)	3.35 (1.084)	2.31 (1.159)	363.459*** (ab, ac, ad, bc, bd, cd)
⑨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2.72 (1.114)	2.88 (1.001)	2.42 (.965)	3.27 (1.039)	2.32 (1.175)	263.269*** (ab, ac, ad, bc, cd)
⑩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34 (1.135)	3.70 (.941)	2.95 (1.084)	3.69 (.999)	3.03 (1.266)	212.431*** (ab, ad, bc, cd)

*p<.05, **p<.01, ***p<.001

※ 주1 : ①~⑤항목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높은 평균값이, ⑥~⑩항목은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낮은 평균값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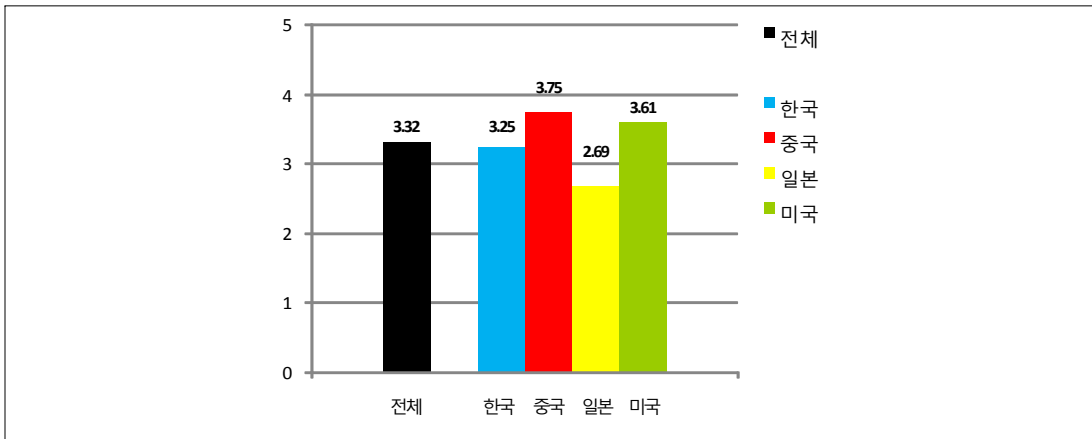
주2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3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4)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 조사대상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한국, 일본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남. 한·일·미 3개국 청소년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4개국 모두 교육수준과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음.

자아존중감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항목들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한 평균값에 대해 4개국 비교를 실시한 결과, 【그림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M=3.75), 미국청소년이 그 다음이었으며(M=3.61), 한국청소년이 세 번째(M=3.25), 그리고 일본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M=2.69)(〈표 IV-5〉참조).



【그림 IV-4】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평균값) 비교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각 국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대한 차이를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청소년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그러나 중국청소년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흥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과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4개 국가 청소년에게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러나 미국청소년의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인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과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전문대재·졸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교육수준의 청소년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p < .05$). 또한 미국청소년 중 경제수준이 중간인 청소년에게서 약간 더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실질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 청소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보였고, 미국청소년의 조사결과는 한·중·일 3개 국가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체평균(SD)		3.25(.635)	3.75(.558)	2.69(.618)	3.61(.731)	
성별	남	M (SD)	3.34(.640)	3.74(.587)	2.73(.617)	3.58(.734)
	여		3.17(.618)	3.75(.528)	2.65(.618)	3.65(.727)
	t/F(Scheffé)	5.167***	-.521	2.371**	-1.966*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3.09(.655)	3.52(.594)	2.47(.592)	3.54(.754)
	전문대재·졸		3.14(.601)	3.63(.551)	2.60(.561)	3.66(.746)
	4년제대재이상		3.31(.631)	3.81(.542)	2.77(.615)	3.63(.702)
	t/F(Scheffé)	13.519***(ac, bc)	26.890***(ac, bc)	30.010***(ac, bc)	3.174*	
학업성적	하위권	M (SD)	3.03(.631)	3.38(.634)	2.59(.616)	3.35(.768)
	중위권		3.20(.591)	3.64(.519)	2.60(.543)	3.50(.714)
	상위권		3.38(.641)	3.82(.535)	2.79(.640)	3.70(.719)
	t/F(Scheffé)	34.044***(de, df, ef)	39.055***(de, df, ef)	17.032***(df, ef)	14.520***(df, ef)	
경제수준	낮은편	M (SD)	3.08(.613)	3.59(.544)	2.53(.626)	3.48(.757)
	중간		3.27(.610)	3.75(.536)	2.72(.557)	3.69(.702)
	높은편		3.46(.615)	3.88(.551)	2.82(.619)	3.67(.713)
	t/F(Scheffé)	54.783***(gh, gi, hi)	38.080***(gh, gi, hi)	31.903***(gh, gi, hi)	12.723***(gh, gi)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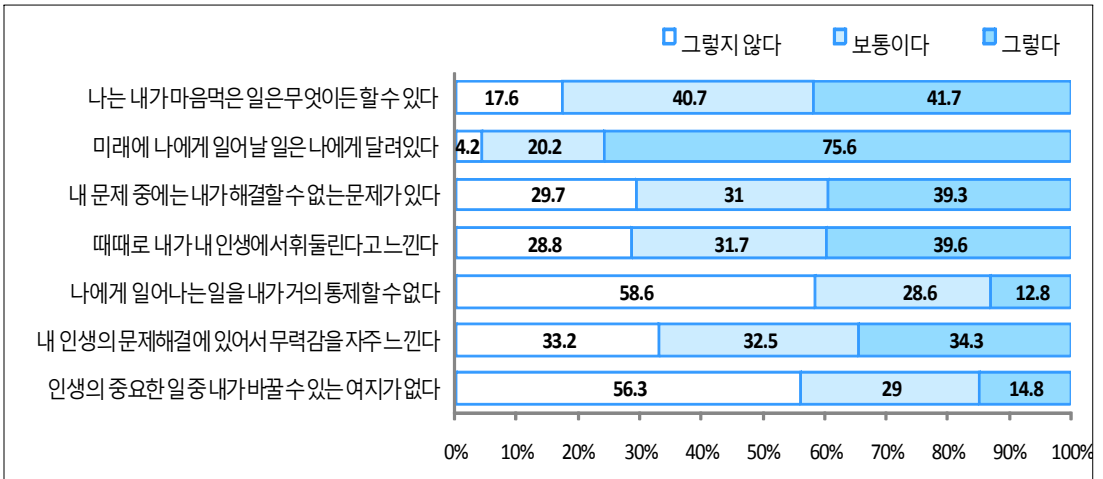
※ 주1 : 부정적인 의미의 자아존중감 항목은 역코딩하여 전체 자아존중감 평균값을 계산하였음.

주2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하위권, e=중위권, f=상위권), 경제수준(g=낮은편, h=중간, i=높은편)

2) 자아통제감 수준

(1)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수준

○ 한국청소년들 중 약 76%에 달하는 상당수가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약 40%의 청소년들이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합친 응답률, ‘그렇다’는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응답률 기준

【그림 IV-5】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비교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세부항목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75.6%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약 42%의 청소년들이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일들,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낮은 통제수준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의미의 자아통제감 항목들 중에서는 특히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 항목들이 각각 40%에 육박하는 응답을 보였다.

표 IV-6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응답

단위: %(명)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①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1.6	16.0	40.7	34.0	7.7	100(1502)
②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	0.7	3.5	20.2	52.5	23.1	100(1502)
③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5.3	24.4	31.0	32.2	7.1	100(1502)
④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	5.2	23.6	31.7	33.4	6.2	100(1502)
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	13.1	45.5	28.6	11.3	1.5	100(1502)
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5.1	28.1	32.5	29.8	4.5	100(1502)
⑦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11.9	44.4	29.0	12.5	2.3	100(1502)

※ 주: ①~② 항목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높은 비율이, ③~⑦ 항목은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낮은 비율이 높은 자아통제감을 의미함.

(2)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한국의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거나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자아통제감의 세부항목들에 대해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높은 평균값을 보인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에 대해서는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V-7〉참조). 그러나 또 다른 자아통제감의 세부항목인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M=3.24<3.36),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할수록 평균값이 낮았다(M=3.18<3.30<3.47).

자아통제감 중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항목들 중에는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성별로, 그리고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청소년이(M=3.23) 남자청소년(M=3.01)보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M=3.35>3.02>2.88) 자신의 인생에서 휘둘린다는 느낌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자청소년이(M=3.23) 남자청소년(M=3.00)보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M=3.29)>3.00>2.95) 자신의 문제 중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더 느끼고 있었다.

표 IV-7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 :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남	여	고졸이하	전문대 재·졸	4년제 대재이상	낮은편	중간	높은편	
①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M (SD)	3.30 (.883)	3.36 (.895)	3.24 (.867)	3.24 (.925)	3.25 (.854)	3.33 (.884)	3.18 (.893)	3.30 (.852)	3.47 (.864)
	t/F (Scheffé)		2.606**		1.333			16.259***(df, ef)		
②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	M (SD)	3.94 (.796)	3.94 (.829)	3.94 (.763)	3.94 (.853)	3.97 (.867)	3.93 (.767)	3.95 (.803)	3.86 (.813)	3.97 (.774)
	t/F (Scheffé)		.065		.229			2.036		
③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M (SD)	3.11 (1.026)	3.00 (1.047)	3.23 (.992)	3.07 (1.102)	3.07 (1.022)	3.13 (1.014)	3.29 (1.024)	3.00 (.965)	2.95 (1.034)
	t/F (Scheffé)		-4.302***		.619			18.581***(de, df)		
④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	M (SD)	3.12 (1.006)	3.01 (1.005)	3.23 (.995)	3.29 (.956)	3.11 (1.045)	3.09 (1.001)	3.35 (.979)	3.02 (.959)	2.88 (1.010)
	t/F (Scheffé)		-4.257***		2.811			33.492***(de, df)		
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	M (SD)	2.43 (.906)	2.39 (.948)	2.46 (.862)	2.60 (1.005)	2.45 (.943)	2.39 (.877)	2.55 (.902)	2.45 (.912)	2.25 (.882)
	t/F (Scheffé)		-1.681		3.957*(ac)			15.785***(df, ef)		
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M (SD)	3.00 (.981)	2.89 (1.012)	3.12 (.936)	3.14 (.987)	3.12 (.989)	2.95 (.975)	3.23 (.924)	2.95 (.978)	2.72 (.987)
	t/F (Scheffé)		-4.712***		5.226**(bc)			38.719***(de, df, ef)		
⑦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M (SD)	2.49 (.936)	2.52 (.998)	2.46 (.869)	2.59 (1.035)	2.65 (.980)	2.43 (.901)	2.57 (.933)	2.54 (.903)	2.34 (.948)
	t/F (Scheffé)		1.103		7.157***(bc)			9.255***(df, ef)		

*p<.05, **p<.01, ***p<.001

※ 주1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낮은편, e=중간, f=높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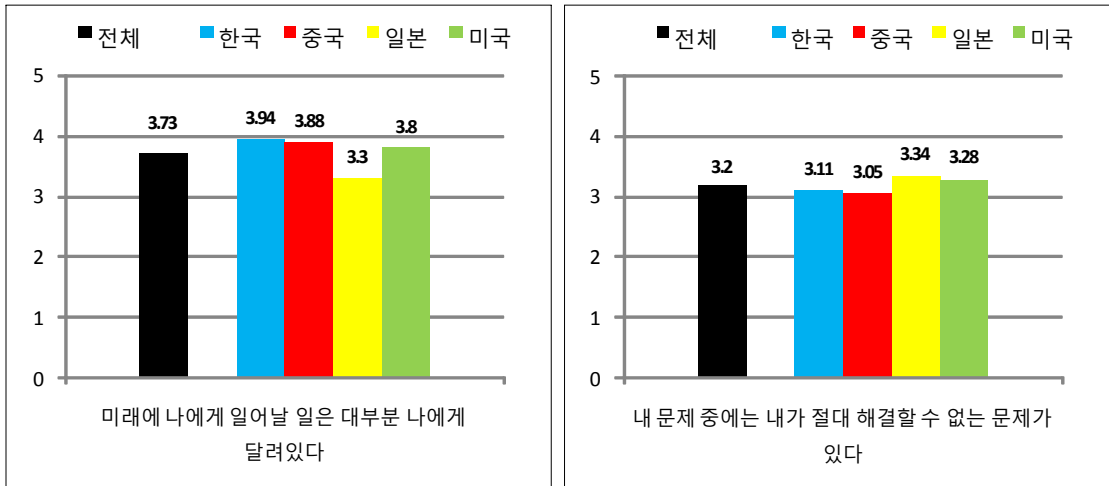
주2 : ①~② 항목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높은 평균값이, ③~⑦ 항목은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낮은 평균값이 높은 자아 통제감을 의미함.

(3)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비교

○ 자아통제감의 세부항목 중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자아통제감의 세부항목별로 4개 국가 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는 미국청소년들의 평균값(M=3.92)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M=3.55), 한국(M=3.30), 일본청소년(M=2.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 는 한국청소년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M=3.94), 중국(M=3.88), 미국(M=3.80), 일본청소년(M=3.30)순이었다.

부정적인 의미의 자아통제감 항목 중에서는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 의 평균값(M=3.12)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한국청소년을 제외하면, 중·일·미 3개국 청소년 모두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는 항목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해 일본청소년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고(M=3.34), 미국청소년(M=3.28), 한국청소년(M=3.11), 중국청소년(M=3.05)로 나타났다.



※ 자아통제감 세부항목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항목과 가장 낮은 항목을 기준으로 평균값 비교

【그림 IV-6】 한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비교

표 IV-8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 세부항목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①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3.44 (1.009)	3.30 (.883)	3.55 (.870)	2.99 (1.046)	3.92 (.988)	258.901*** (ab, ac, ad, bc, bd, cd)
②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	3.73 (.917)	3.94 (.796)	3.88 (.803)	3.30 (.945)	3.80 (.967)	165.604*** (ac, ad, bc, cd)
③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20 (1.073)	3.11 (1.026)	3.05 (1.001)	3.34 (1.100)	3.28 (1.133)	25.289*** (ac, ad, bc, bd)
④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돌리고 있다고 느낀다	3.00 (1.052)	3.12 (1.006)	2.70 (.937)	3.13 (1.103)	3.04 (1.097)	55.126*** (ab, bc, bd)
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	2.54 (.997)	2.43 (.906)	2.23 (.874)	2.79 (.959)	2.72 (1.124)	110.295*** (ab, ac, ad, bc, bd)
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2.93 (1.035)	3.00 (.981)	2.80 (.925)	3.12 (1.016)	2.78 (1.164)	39.122*** (ab, ac, ad, bc, cd)
⑦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2.69 (.987)	2.49 (.936)	2.65 (.918)	2.88 (.931)	2.76 (1.110)	43.476*** (ab, ac, ad, bc, bd, cd)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주3 : ①~② 항목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높은 평균값이, ③~⑦ 항목은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낮은 평균값이 높은 자아통제감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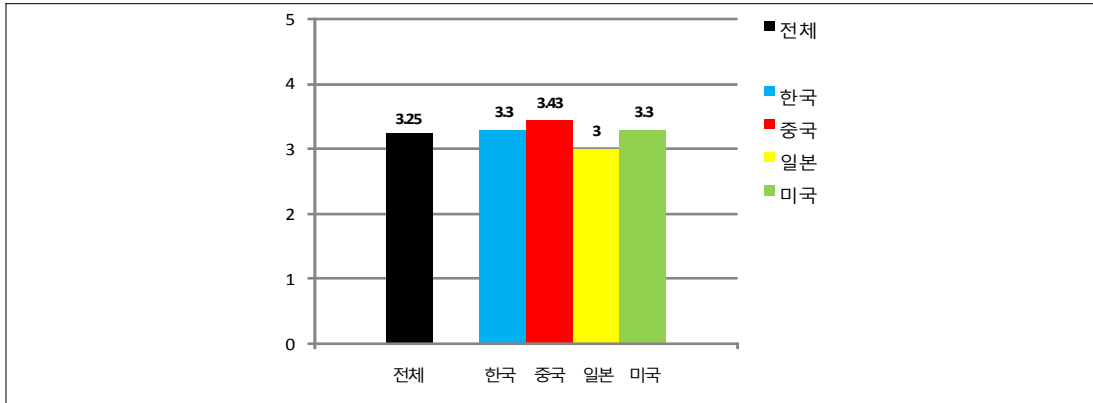
(4)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 비교

○ 중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이 가장 높았음. 한국과 일본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자아통제감은 더 높았고, 한·중·일 청소년은 교육수준과 고교 재학 시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높았음.

자아통제감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항목들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한 평균값에 대해 4개국 비교를 실시한 결과, 【그림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제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자아통제감이 가장 높았고(M=3.43), 한국과 미국청소년이 동일한 수준이었고(M=3.30),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의 청소년이었다(M=3.00).

각 국가 청소년의 자아통제감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청소년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남자청소년, 일본은 여자청소년의 자아통제감이 더 높았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은 교육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자아통제감을 보였고, 미국의 경우는 전문대제·졸

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중·일 청소년은 경제수준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을 높은 편으로 인식할수록 자아통제감 수준이 높았다.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경제수준별로 자아통제감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V-7】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평균값) 비교

표 IV-9 한·중·일·미 청소년의 자아통제감 :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체평균(SD)		3.30(.607)	3.43(.55)	3.00(.470)	3.30(.652)
성별	남	3.36(.631)	3.45(.55)	2.97(.469)	3.31(.685)
	여	3.24(.576)	3.41(.55)	3.03(.469)	3.30(.618)
	t/F(Scheffé)	3.801***	1.163	-2.545*	.211
교육수준	고졸이하	3.21(.603)	3.37(.586)	2.92(.452)	3.30(.717)
	전문대재·졸	3.26(.628)	3.35(.555)	2.99(.457)	3.37(.647)
	4년제대재이상	3.32(.600)	3.46(.547)	3.03(.473)	3.26(.604)
	t/F(Scheffé)	3.131*	6.063**(bc)	7.094***(ac)	3.702*(bc)
학업성적	하위권	3.17(.574)	3.17(.647)	2.99(.482)	3.19(.706)
	중위권	3.27(.574)	3.31(.549)	2.94(.452)	3.24(.623)
	상위권	3.37(.634)	3.49(.538)	3.04(.473)	3.33(.645)
	t/F(Scheffé)	11.852***(df, ef)	23.627***(df, ef)	5.390**(ef)	3.875*
경제수준	낮은편	3.16(.574)	3.34(.535)	2.95(.496)	3.31(.646)
	중간	3.32(.605)	3.43(.521)	2.98(.431)	3.33(.628)
	높은편	3.47(.608)	3.50(.584)	3.06(.464)	3.29(.652)
	t/F(Scheffé)	37.795***(gh, gi, hi)	11.141***(gi)	8.107***(gi, hi)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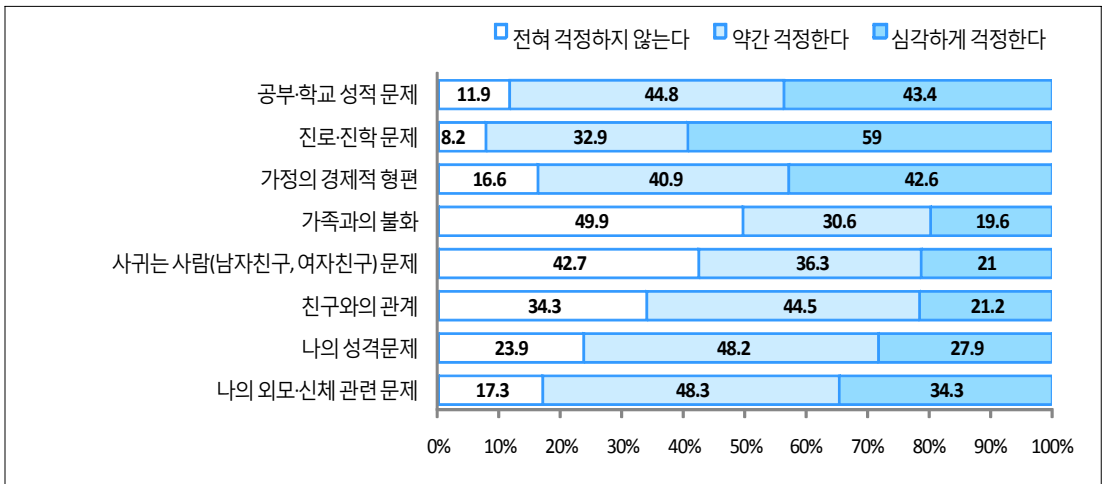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하위권, e=중위권, f=상위권), 경제수준(g=낮은편, h=중간, i=높은편)

3) 청소년의 고민과 걱정거리

(1) 한국청소년의 고민과 걱정거리

○ 한국청소년들은 진로·진학 문제와 공부·학교 성적문제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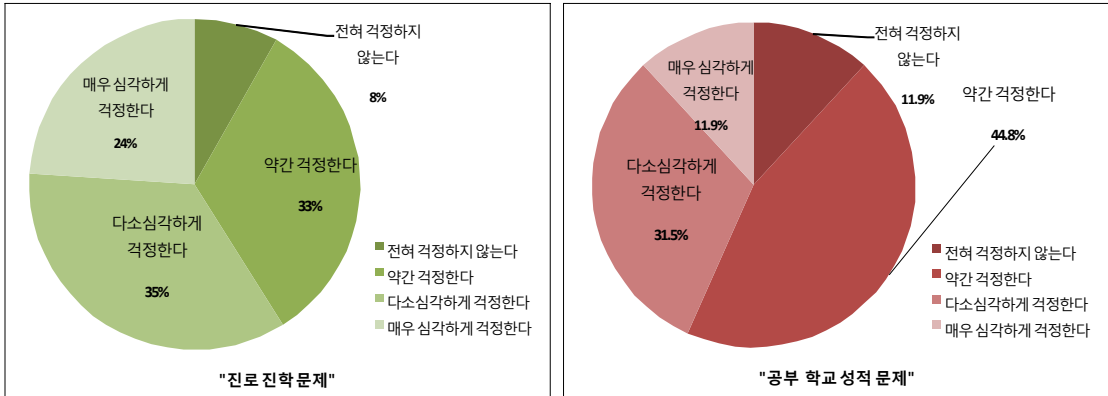


※ '심각하게 걱정한다' 는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와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의 합친 응답률

【그림 IV-8】 한국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까지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IV-8】 과 <표 IV-10>과 같다. 약간이라도 걱정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한국청소년 응답자 중 약 92%가 진로·진학 문제에 대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약간 걱정한다' 와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합한 비율), 그 다음으로는 공부·학교 성적문제로서 역시 90%에 달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83.5%), 외모 및 신체관련 문제(82.6%), 성격문제(76.1%), 친구와의 관계(65.7%), 사귀는 이성친구 문제(57.3%)순으로 응답했고, 가장 낮은 수준의 고민·걱정거리 항목은 가족과의 불화(50.2%)였다.



【그림 IV-9】 한국청소년에게 가장 걱정거리로 나타난 항목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진로·진학 문제는 2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는 비율은 15%, 공부·학교 성적문제의 경우 약 12%였다. 외모와 신체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비율도 10%가 넘게 나타났다.

표 IV-10

한국청소년의 현재의 고민·걱정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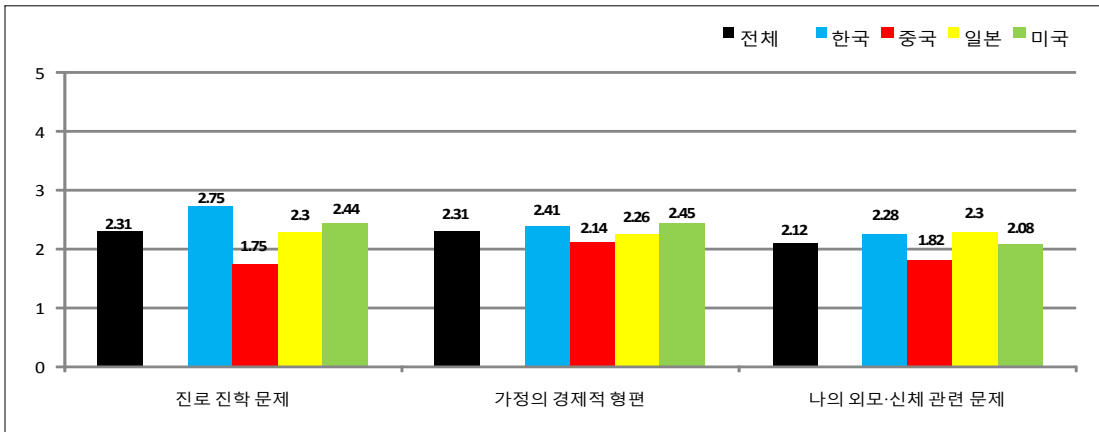
단위: %(명)

내용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전체
공부·학교 성적 문제	11.9	44.8	31.5	11.9	100(1502)
진로·진학 문제	8.2	32.9	35.0	24.0	100(1502)
가정의 경제적 형편	16.6	40.9	27.6	15.0	100(1502)
가족과의 불화	49.9	30.6	14.3	5.3	100(1502)
사귀는 사람(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42.7	36.3	14.5	6.5	100(1502)
친구와의 관계	34.3	44.5	16.8	4.4	100(1502)
나의 성격문제	23.9	48.2	21.4	6.5	100(1502)
나의 외모·신체 관련 문제	17.3	48.3	23.6	10.7	100(1502)

(2)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비교

○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는 '진로·진학문제'였으며,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으로 나타남.

본 조사에 참여한 4개 국가 청소년의 전체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고민·걱정거리는 한국청소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진로·진학문제였으며(M=2.31),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민도 동일한 평균치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외모와 신체에 관련된 내용으로(M=2.12) 자신의 외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 국가별로 높게 나타난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를 기준으로 평균값 비교

【그림 IV-10】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인 고민·걱정거리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진로·진학문제'였으며, 일본 청소년 역시 이 항목에 대한 응답치가 가장 높았다. 일본청소년은 외모와 신체에 대해서도 진로·진학문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로 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고민·걱정거리 세부항목들에 대해 4개 국가 청소년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고민·걱정거리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보면, '진로·진학 문제'는 한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M=2.75), 그 다음은 미국(M=2.44), 일본(M=2.30), 중국청소년의(M=1.75)순이었다.

표 IV-11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항목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공부·학교 성적 문제	2.09 (.893)	2.43 (.849)	1.81 (.748)	2.03 (.867)	2.09 (.981)	133.017*** (ab, ac, ad, bd, cd)
진로·진학 문제	2.31 (1.002)	2.75 (.913)	1.75 (.819)	2.30 (1.016)	2.44 (.983)	297.291*** (ab, ac, ad, bc, bd, cd)
가정의 경제적 형편	2.31 (.941)	2.41 (.935)	2.14 (.848)	2.26 (.943)	2.45 (1.001)	35.344*** (ab, ac, bc, bd, cd)
가족과의 불화	1.73 (.918)	1.75 (.889)	1.47 (.766)	1.59 (.848)	2.12 (1.017)	154.055*** (ab, ac, ad, bc, bd, cd)
사귀는 사람(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1.80 (.929)	1.85 (.900)	1.96 (.911)	1.67 (.895)	1.71 (.978)	31.271*** (ab, ac, ad, bc, bd)
친구와의 관계	1.77 (.829)	1.91 (.825)	1.68 (.790)	1.75 (.802)	1.74 (.878)	22.287*** (ab, ac, bc)
나의 성격문제	2.00 (.884)	2.10 (.837)	1.89 (.828)	2.20 (.878)	1.80 (.929)	69.063*** (ab, ac, ad, bc, bd, cd)
나의 외모·신체 관련 문제	2.12 (.914)	2.28 (.873)	1.82 (.802)	2.30 (.894)	2.08 (.996)	93.771*** (ab, ad, bc, bd, cd)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진로·진학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로 나타난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는 미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M=2.45), 한국(M=2.41), 일본(M=2.26), 중국(M=2.1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고민·걱정거리는 한·중·일청소년은 ‘가족과의 불화’였고, 미국청소년은 사귀는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현재의 고민·걱정거리를 국가별로 정리하면, <표 IV-12>와 같다. 대체로 한·중·미 청소년들이 진로·진학문제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고민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공부·학교 성적문제에 대한 고민이 다른 국가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의 청소년은 사귀는 이성친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일본청소년은 외모·신체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표 IV-12 청소년의 현재의 고민·걱정거리에 대한 국가별 응답 순위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진로·진학 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나의 외모·신체 관련 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2	공부·학교 성적 문제	사귀는 사람(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진로·진학 문제	진로·진학 문제
3	가정의 경제적 형편	나의 성격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가족과의 불화
4	나의 외모·신체 관련 문제	나의 외모·신체 관련 문제	나의 성격문제	공부·학교 성적 문제
5	나의 성격문제	공부·학교 성적 문제	공부·학교 성적 문제	나의 외모·신체 관련 문제
6	친구와의 관계	진로·진학 문제	친구와의 관계	나의 성격문제
7	사귀는 사람(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친구와의 관계	사귀는 사람(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친구와의 관계
8	가족과의 불화	가족과의 불화	가족과의 불화	사귀는 사람(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주: 평균이 같을 경우 표준편차가 적은 순으로 나열하였음.

(3)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진로·진학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자청소년, 4년제대학 재학이상의 청소년, 또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고민이 가장 컸음.
-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여자청소년, 그리고 한국의 고졸이하이면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청소년의 고민정도가 가장 높았음.
- 일본의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이고,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외모와 신체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민·걱정거리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진로·진학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나의 외모·신체관련 문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성별과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한국청소년들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모든 항목과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IV-13〉참조). 한국의 경우 ‘진로·진학문제’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인, 또 낮은 경제적 수준일 때 더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고민하는 정도가 높았고, 외모와 신체와 관련해서는 여자청소년이 또 전문대재·졸인,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일 때 더 고민이 많았다.

‘진로·진학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나의 외모·신체관련 문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배경변인별로 4개국 청소년의 응답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진로·진학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자청소년,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청소년, 또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고민이 가장 컸다(각각 $M=2.80, 2.80, 2.85$). 성별 차이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여자청소년이, 일본은 남자청소년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한국과 일본청소년에게서 나타났으며, 한국과 일본 모두 4년제 대학재학 이상의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진학문제’에 대한 고민정도는 한국과 미국청소년에게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중국청소년의 경우 한·일·미에 비해 ‘진로·진학문제’에 대해 이들 변인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여자청소년($M=2.60$)이, 그리고 한국의 고졸이하이면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평균값(각각 $M=2.63, 2.88$)이 가장 높았다. 한·중·미 3개 국가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성별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과 미국은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중국은 남자청소년의 평균값이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다.

‘나의 외모·신체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4개국 청소년 중에 일본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이 ($M=2.44$), 그리고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이고($M=2.48$), 경제수준이 낮은 편($M=2.49$)일 경우에 외모와 신체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국가 중 한·일·미 청소년에게서 성별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다. 또한 한국은 전문대 재·졸이상의 청소년이, 일본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외모와 신체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고, 4개 국가 모두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외모와 신체에 대한 고민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른 걱정과 고민거리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는 <부표 2>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진학 문제	성별	남	M	2.70(.927)	1.78(.848)	2.36(.995)	2.34(.947)
		여	(SD)	2.80(.895)	1.72(.789)	2.24(1.033)	2.54(1.008)
		t/F (Scheffé)		-2,152*	1.520	2,304*	-4.040***
	교육수준	고졸이하	M	2.69(1.028)	1.84(.916)	2.15(1.065)	2.39(.990)
		전문대재·졸		2.60(.941)	1.73(.782)	2.05(1.080)	2.41(1.005)
		4년제대재이상		2.80(.880)	1.75(.818)	2.37(.986)	2.49(.961)
		t/F (Scheffé)		5.802**(bc)	1.019	9.643***(ac, bc)	1.605
	경제수준	낮은편	M	2.85(.926)	1.80(.831)	2.31(.998)	2.61(1.002)
		중간		2.68(.903)	1.72(.795)	2.27(.997)	2.28(.941)
		높은편		2.66(.888)	1.74(.826)	2.32(1.050)	2.41(.974)
		t/F (Scheffé)		8.069*** (de, df)	1.075	.300	13.745*** (de, df)
	가정의 경제적 형편	성별	남	M	2.35(.933)	2.18(.877)	2.27(.944)
여			(SD)	2.47(.933)	2.10(.816)	2.25(.943)	2.60(.989)
t/F (Scheffé)				-2,350*	2.022*	.397	-5.894***
교육수준		고졸이하	M	2.63(.970)	2.29(.891)	2.61(.988)	2.62(1.012)
		전문대재·졸		2.56(.914)	2.23(.853)	2.31(.850)	2.43(.990)
		4년제대재이상		2.33(.924)	2.09(.837)	2.15(.911)	2.35(.987)
		t/F (Scheffé)		11.929*** (ac, bc)	5.510** (ac, bc)	31.231*** (ab, ac)	9.556*** (ab, ac)
경제수준		낮은편	M	2.88(.849)	2.50(.801)	2.81(.888)	2.87(.947)
		중간		2.29(.832)	2.13(.770)	2.24(.836)	2.32(.928)
		높은편		1.86(.769)	1.84(.826)	1.78(.777)	2.16(.970)
		t/F (Scheffé)		226.024*** (df, ef)	89.801*** (de, df, ef)	214.675*** (de, df)	82.666*** (df, ef)
나의 외모·신체 관련 문제		성별	남	M	2.17(.903)	1.78(.834)	2.17(.894)
	여		(SD)	2.38(.829)	1.86(.767)	2.44(.875)	2.26(1.059)
	t/F (Scheffé)			-4.614***	-1.884	-5.960***	-7.432***
	교육수준	고졸이하	M	2.28(.923)	1.77(.900)	2.48(.939)	2.09(1.030)
		전문대재·졸		2.43(.924)	1.82(.809)	2.42(.854)	2.03(.987)
		4년제대재이상		2.23(.845)	1.83(.787)	2.24(.876)	2.10(.979)
		t/F (Scheffé)		5.424** (bc)	.364	10.280*** (ac)	.600
	경제수준	낮은편	M	2.43(.899)	1.91(.837)	2.49(.906)	2.19(1.019)
		중간		2.25(.842)	1.82(.741)	2.26(.865)	1.96(.938)
		높은편		2.09(.819)	1.74(.807)	2.17(.878)	2.05(1.007)
		t/F (Scheffé)		23.336*** (de, df)	5.892** (df)	18.167*** (de, df)	6.601*** (de)

*p<.05, **p<.01, ***p<.001

※ 주1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낮은편, e=중간, f=높은편)

주2 : 기타 고민/걱정거리 항목들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는 <부표 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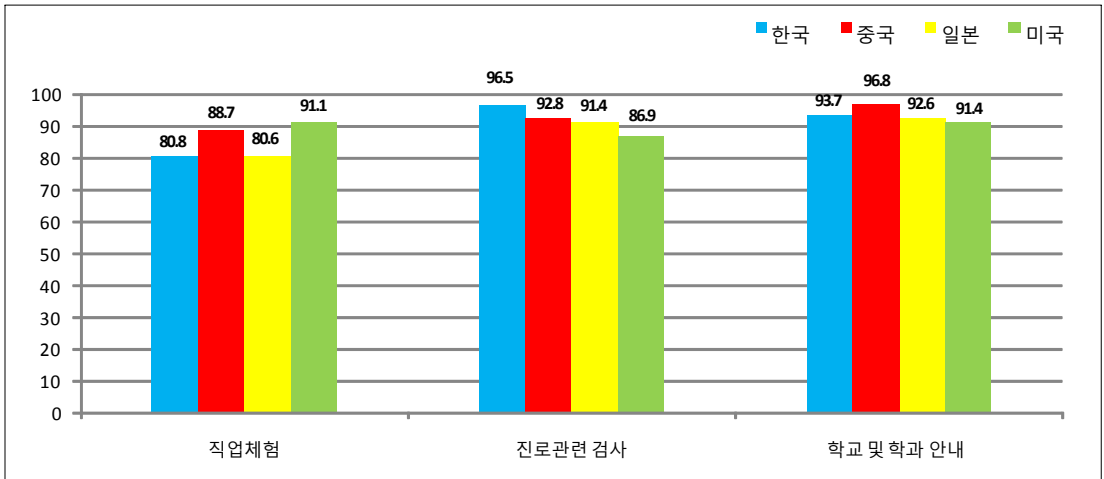
3. 진로지도 경험

1)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1)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여부

○ 고교 재학 시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 경험이(96.5%), 중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96.8%)를, 일본청소년은 진로상담(94.8%), 미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91.4%)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11】 과 <표 IV-14>와 같다. 다양한 진로지도 내용 중 한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 경험이 가장 높았고(96.5%), 그 다음은 학과 및 학과 안내(93.7%), 진로상담(90.6%), 진로관련 강연(89%), 직업체험(80.8%)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가별로 가장 많이 경험한 진로지도 내용을 보면, 중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96.8%)를, 일본청소년은 진로상담(94.8%)을, 미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91.4%)를 경험한 비율이 높아, 각 국가별로 가장 많이 경험한 진로지도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 국가별로 높게 나타난 진로지도 경험 항목을 기준으로 평균값 비교

【그림 IV-11】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진로지도항목에 따른 국가별 차이를 보면, ‘진로관련 강연’ 은 중·한·일·미 순으로 약 87%에서 91.2%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 및 학과 안내’ 역시 중국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일·미 순으로 91.4%~93.7%까지의 경험률을 보였다. 진로관련 검사와 직업체험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컸는데, 한국의 청소년의 진로관련 검사 경험률이 96.5%인데 비해, 미국청소년은 86.9%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직업체험의 경우 미국청소년의 경험률이 91.1%로 가장 높았고,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각각 80.8%, 80.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험률을 보였다. 진로상담의 경우는 일본청소년이 9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청소년(90.6%), 중국청소년(89.7%)이었고, 미국청소년이 82.8%로 가장 낮았다.

표 IV-14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비교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진로관련 강연 (전문가, 선배 등)	89.0	11.0	100 (1498)	91.2	8.8	100 (1484)	88.0	12.0	100 (1479)	87.3	12.7	100 (1319)
학교 및 학과 안내	93.7	6.3	100 (1498)	96.8	3.2	100 (1484)	92.6	7.4	100 (1479)	91.4	8.6	100 (1319)
진로관련 검사 (적성, 흥미 검사 등)	96.5	3.5	100 (1498)	92.8	7.2	100 (1484)	91.4	8.6	100 (1479)	86.9	13.1	100 (1319)
직업체험	80.8	19.2	100 (1498)	88.7	11.3	100 (1484)	80.6	19.4	100 (1479)	91.1	8.9	100 (1319)
진로상담	90.6	9.4	100 (1498)	89.7	10.3	100 (1484)	94.8	5.2	100 (1479)	82.8	17.2	100 (1319)

(2)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여부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한국청소년은 경제수준이 중간이고 전문대재·졸인 청소년의 직업체험 비율이 제일 높았고 그 외 진로지도 항목에 대한 변인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일본 청소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대부분의 진로지도 경험 항목에서 거의 모든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각 국가별로 고교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성별, 지역(대도시/비대도시), 경제수준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직업체험에서 경제수준과 교육수준별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중간이고 전문대재·졸인 청소년의 직업체험 비율이 제일 높았다. 일본청소년도 진로관련검사와 진로상담에서만 교육수준별(전문대재·졸이 가장 높은 경험률)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대체로 성별, 지역규모, 경제수준, 교육수준과 같은 배경변인별 차이는 중국과 미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보면, 진로관련 강연에서 중국과 미국청소년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비대도시(중소도시, 농산어촌 포함)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더 경험률이 높았으며, 진로관련검사에서 미국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그리고 진로상담에서는 중국의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역규모에 따른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외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그리고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고등학교 재학 시 다양한 진로지도 경험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각 국가별, 그리고 진로지도 항목별 세부변인에 따른 차이는 <부표 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V-15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 국가별·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명)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① 진로관련 강연 (전문가, 선배 등)	성별	남	89.4	10.6	100(747)	93.4	6.6	100(737)	86.5	13.5	100(741)	89.8	10.2	100(640)
		여	88.5	11.5	100(751)	89.2	10.8	100(747)	89.4	10.6	100(738)	84.8	15.2	100(679)
		χ^2	.293			8.167**			2.991			7.449**		
	지역	대도시	89.0	11.0	100(1197)	92.1	7.9	100(1189)	87.9	12.1	100(1186)	88.4	11.6	100(1073)
		비대도시	89.0	11.0	100(301)	87.8	12.2	100(295)	88.1	11.9	100(293)	82.1	17.9	100(246)
		χ^2	.001			5.462*			.003			7.214**		
	경제수준 (전문가, 선배 등)	낮은편	87.3	12.7	100(656)	87.4	12.6	100(486)	86.7	13.3	100(510)	84.3	15.7	427
		중간	89.8	10.2	100(354)	91.5	8.5	100(413)	88.1	11.9	100(379)	88.4	11.6	371
		높은편	89.8	9.4	100(488)	94.2	5.8	100(585)	89.0	11.0	100(590)	88.9	11.1	521
		χ^2	3.309			15.144***			1.399			4.998		
	교육수준	고졸이하	88.8	11.2	100(161)	84.3	15.7	100(115)	86.0	14.0	100(299)	82.1	17.9	100(252)
		전문대재·졸	92.3	7.7	100(287)	90.3	9.7	100(331)	88.5	11.5	100(96)	87.8	12.2	100(434)
		4년제대재이상	88.1	11.9	100(1049)	92.3	7.7	100(1038)	88.5	11.5	100(1084)	88.9	11.1	100(633)
χ^2		4.156			8.615*			1.433			7.656*			
② 학교	경제	낮은편	92.5	7.5	100(656)	95.3	4.7	100(486)	91.6	8.4	100(510)	88.1	11.9	100(427)
		중간	94.4	5.6	100(354)	96.9	3.1	100(413)	92.9	7.1	100(379)	90.0	10.0	100(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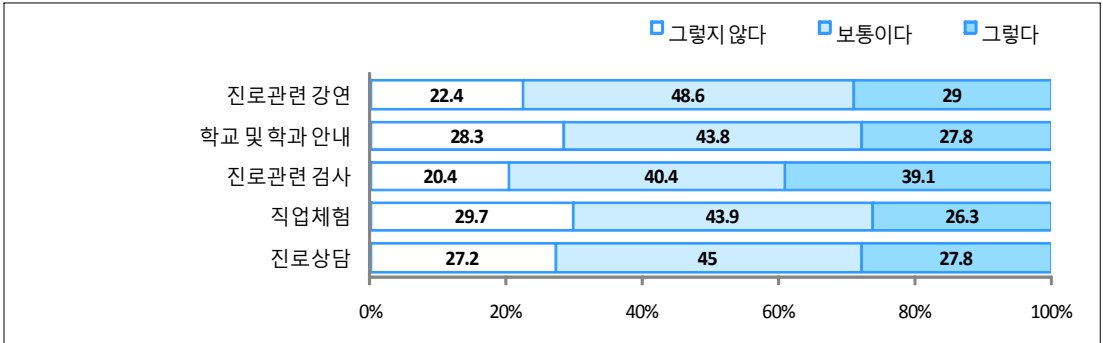
및 학과안내	수준	높은편	94.9	5.1	100(488)	98.1	1.9	100(585)	93.4	6.6	100(590)	95.0	5.0	100(521)
		χ^2	2,928			7,042*			1,374			15,526***		
	교육수준	고졸이하	90.7	9.3	100(161)	97.4	2.6	100(115)	89.6	10.4	100(299)	84.1	15.9	100(252)
		전문대재·졸	95.8	4.2	100(287)	97.0	3.0	100(331)	95.8	4.2	100(96)	91.7	8.3	100(434)
		4년제대재이상	93.6	6.4	100(1049)	96.7	3.3	100(1038)	93.2	6.8	100(1084)	94.0	6.0	100(633)
χ^2	4,692			.180			5,848			22,336***				
③ 진로관련 검사 (적성, 흥미검사 등)	성별	남	95.7	4.3	100(747)	94.7	5.3	100(737)	91.0	9.0	100(741)	88.8	11.3	100(640)
		여	97.2	2.8	100(751)	90.9	9.1	100(747)	91.9	8.1	100(738)	85.1	14.9	100(679)
		χ^2	2,428			8,055**			.392			3,799		
	지역	대도시	96.5	3.5	100(1197)	93.3	6.7	100(1189)	91.4	8.6	100(1186)	88.2	11.8	100(1073)
		비대도시	96.3	3.7	100(301)	90.8	9.2	100(295)	91.5	8.5	100(293)	81.3	18.7	100(246)
		χ^2	.015			2,076			.001			8,272**		
	교육수준	고졸이하	95.0	5.0	100(161)	91.3	8.7	100(115)	88.0	12.0	100(299)	79.8	20.2	100(252)
		전문대재·졸	97.2	2.8	100(287)	92.4	7.6	100(331)	96.9	3.1	100(96)	89.4	10.6	100(434)
		4년제대재이상	96.5	3.5	100(1049)	93.1	6.9	100(1038)	91.9	8.1	100(1084)	88.0	12.0	100(633)
		χ^2	1,439			.554			8,494*			14,314***		
④ 직업 체험	성별	남	81.5	18.5	100(747)	90.8	9.2	100(737)	80.0	20.0	100(741)	91.4	8.6	100(640)
		여	80.2	19.8	100(751)	86.7	13.3	100(747)	81.2	18.8	100(738)	90.9	9.1	100(679)
		χ^2	.451			6,022*			.306			.118		
	경제수준	낮은편	77.9	22.1	100(656)	84.2	15.8	100(486)	82.2	17.8	100(510)	88.5	11.5	100(427)
		중간	87.6	12.4	100(354)	90.1	9.9	100(413)	80.7	19.3	100(379)	90.3	9.7	100(371)
		높은편	79.9	20.1	100(488)	91.6	8.4	100(585)	79.2	20.8	100(590)	93.9	6.1	100(521)
		χ^2	14,292***			15,830***			1,585			8,701*		
	교육수준	고졸이하	83.9	16.1	100(161)	94.8	5.2	100(115)	85.6	14.4	100(299)	84.1	15.9	100(252)
		전문대재·졸	85.7	14.3	100(287)	90.9	9.1	100(331)	91.7	8.3	100(96)	92.9	7.1	100(434)
		4년제대재이상	79.0	21.0	100(1049)	87.4	12.6	100(1038)	78.2	21.8	100(1084)	92.7	7.3	100(633)
χ^2		7,566*			7,727*			16,230***			18,902***			
⑤ 진로 상담	지역	대도시	90.4	9.6	100(1197)	90.7	9.3	100(1189)	94.6	5.4	100(1186)	83.7	16.3	100(1073)
		비대도시	91.4	8.6	100(301)	85.4	14.6	100(295)	95.6	4.4	100(293)	78.9	21.1	100(246)
		χ^2	.265			7,247**			.438			3,275		
	경제수준	낮은편	89.2	10.8	100(656)	85.2	14.8	100(486)	95.3	4.7	100(510)	79.4	20.6	100(427)
		중간	92.1	7.9	100(354)	91.0	9.0	100(413)	94.2	5.8	100(379)	83.3	16.7	100(371)
		높은편	91.4	8.6	100(488)	92.5	7.5	100(585)	94.7	5.3	100(590)	85.2	14.8	100(521)
		χ^2	2,841			16,401***			.537			5,687		
	교육수준	고졸이하	91.3	8.7	100(161)	91.3	8.7	100(115)	92.0	8.0	100(299)	75.4	24.6	100(252)
		전문대재·졸	91.6	8.4	100(287)	90.9	9.1	100(331)	97.9	2.1	100(96)	85.7	14.3	100(434)
		4년제대재이상	90.2	9.8	100(1049)	89.1	10.9	100(1038)	95.3	4.7	100(1084)	83.7	16.3	100(633)
χ^2		.671			1,253			7,269*			12,663**			

*p<.05, **p<.01, ***p<.001

※ 주 : 통계적인 유의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일부 성별, 지역에 따른 차이는 <부표 3~4> 참조

(3) 한국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 한국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한 진로지도의 만족도에 '보통'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진로관련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약 3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 '불만족' 은 '매우불만족' 과 '약간불만족' 합친 비율, '만족' 은 '약간만족' 과 '매우만족' 을 합친 비율

【그림 IV-12】 한국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앞서 조사한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에 대하여 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들은 모든 진로지도 항목에 대해 '보통' 이라는 응답이 40.4%~48.6%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만족한다('약간만족' 과 '매우만족')는 긍정적인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진로관련 검사(적성, 흥미 검사 등)' (39.1%)였고, 그 다음은 '진로관련 강연' (29%), '학교 및 학과 안내' 와 '진로상담' (각각 27.8%), '직업체험' (26.3%)순이었다.

표 IV-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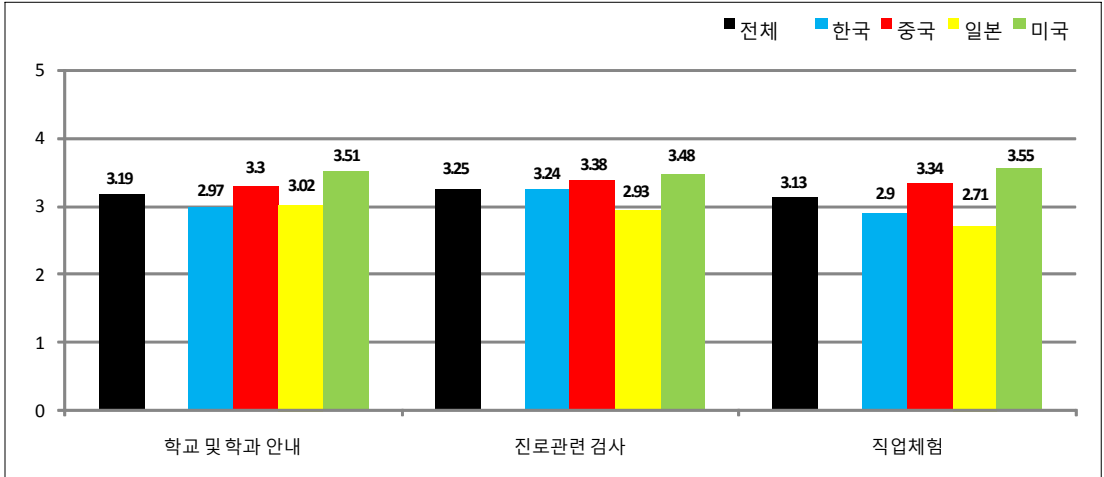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단위: %(명)

내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5.3	17.1	48.6	24.3	4.7	100(1333)
학교 및 학과 안내	7.5	20.8	43.8	22.5	5.3	100(1404)
진로관련 검사(적성, 흥미 검사 등)	4.1	16.3	40.4	30.2	8.9	100(1445)
직업체험	12.8	16.9	43.9	19.9	6.4	100(1211)
진로상담	8.4	18.8	45.0	21.5	6.3	100(1357)

(4)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비교

○ 한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학교 및 학과 안내'는 중·일·미 청소년보다, 직업체험과 직업상담은 중·미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낮았음.



※ 국가별로 높게 나타난 진로지도 항목을 기준으로 평균값 비교

【그림 IV-13】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경험한 진로지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청소년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그림 IV-13】 과 <표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관련 검사' (M=3.25)였으며, 그 다음은 '학교 및 학과 안내' (M=3.19), '진로관련 강연' (M=3.14), '진로상담' (M=3.14), '진로체험' (M=3.13) 순이었다.

한국과 중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 (각각 M=3.24, M=3.38)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일본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 (M=3.02), 미국청소년은 '직업체험' (M=3.55)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각 진로지도 항목에 대한 4개 국가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이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미국청소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의 만족도가 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직업체험과 직업상담도 미국과 중국청소년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IV-17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3.14 (.943)	3.06 (.900)	3.21 (.872)	2.93 (.838)	3.38 (1.108)	53.015*** (ab, ac, ad, bc, bd)
학교 및 학과 안내	3.19 (1.012)	2.97 (.974)	3.30 (.913)	3.02 (.872)	3.51 (1.198)	85.144*** (ab, ad, bc, bd)
진로관련 검사(적성, 흥미 검사 등)	3.25 (.999)	3.24 (.965)	3.38 (.939)	2.93 (.834)	3.48 (1.178)	77.014*** (ab, ac, ad, bc)
직업체험	3.13 (1.107)	2.90 (1.063)	3.34 (.967)	2.71 (.934)	3.55 (1.237)	165.634*** (ab, ac, ad, bc, bd)
진로상담	3.14 (1.025)	2.99 (.997)	3.32 (.955)	2.97 (.936)	3.33 (1.173)	51.456*** (ab, ad, bc)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5)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한국과 미국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할수록 대부분의 진로지도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아,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진로지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진로지도 만족도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들의 변인별 차이를 보면(〈표 IV-18〉, 〈부표 5〉 참조), 대체로 한국청소년은 경제수준별로, 일본청소년은 교육수준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성별, 지역규모,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 등 대부분의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과 미국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진로지도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아,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청소년은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상담’ 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중국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전문대재·졸인 경우 진로지도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학교 및 학과 안내’ 와 ‘직업체험’ 의 경우는 비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만족도가 낮았다. 일부 진로지도 항목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의 여자청소년이 ‘진로상담’ 항목에서, 그리고 중국의 남자청소년이 ‘진로관련 검사’, 미국의 남자청소년이 ‘진로관련 강연’ 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IV-18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전문가, 선배 등)	경제수준	낮은편	2.99(.898)	3.09(.795)	2.91(.803)	3.19(1.130)
		중간	3.00(.818)	3.12(.837)	2.91(.752)	3.34(1.063)
		높은편	3.19(.946)	3.37(.927)	2.97(.915)	3.55(1.098)
		t/F(Scheffé)	7.392***(ac, bc)	15.810***(ac, bc)	.884	10.936***(ac, bc)
	교육수준	고졸이하	2.86(.976)	3.12(.832)	2.79(.815)	3.17(1.131)
		전문대재·졸	3.00(.846)	3.11(.883)	2.92(.743)	3.36(1.120)
4년제대재이상		3.11(.897)	3.25(.870)	2.97(.848)	3.47(1.082)	
t/F(Scheffé)		5.632**(df)	3.397*	4.676**(df)	5.330**(df)	
학교 및 학과안내	경제수준	낮은편	2.86(.976)	3.11(.836)	2.97(.866)	3.30(1.212)
		중간	2.86(.907)	3.17(.847)	3.04(.771)	3.50(1.180)
		높은편	3.20(.982)	3.56(.958)	3.06(.935)	3.69(1.174)
		t/F(Scheffé)	18.664***(ac, bc)	39.086***(ac, bc)	1.400	11.489***(ac)
	교육수준	고졸이하	2.83(.978)	3.27(.805)	2.87(.811)	3.33(1.214)
		전문대재·졸	3.04(.975)	3.16(.872)	3.00(.695)	3.51(1.233)
4년제대재이상		2.98(.970)	3.35(.932)	3.07(.898)	3.58(1.163)	
t/F(Scheffé)		2.270	5.548**(ef)	5.211**(df)	3.282*(df)	
진로관련 검사 (적성, 흥미 검사 등)	경제수준	낮은편	3.19(.985)	3.23(.901)	2.88(.848)	3.31(1.215)
		중간	3.13(.904)	3.27(.919)	2.98(.744)	3.50(1.125)
		높은편	3.37(.966)	3.59(.947)	2.95(.872)	3.60(1.170)
		t/F(Scheffé)	7.793***(ac, bc)	22.553***(ac, bc)	1.660	6.280**(ac)
	교육수준	고졸이하	3.22(.980)	3.38(.825)	2.83(.832)	3.50(1.162)
		전문대재·졸	3.24(.941)	3.22(.963)	2.88(.720)	3.56(1.205)
4년제대재이상		3.24(.968)	3.43(.938)	2.96(.842)	3.42(1.162)	
t/F(Scheffé)		.046	5.881**(ef)	2.962	1.727	
직업체험	경제수준	낮은편	2.81(1.086)	3.16(.910)	2.65(.975)	3.27(1.285)
		중간	2.88(.995)	3.21(.931)	2.79(.822)	3.59(1.220)
		높은편	3.04(1.072)	3.57(.989)	2.70(.963)	3.75(1.169)
		t/F(Scheffé)	5.411**(ac)	26.426***(ac, bc)	2.150	16.840***(ab, ac)
진로상담	성별	남	3.38(1.270)	3.60(1.204)	3.14(1.156)	3.78(1.424)
		여	3.16(1.310)	3.60(1.230)	3.12(1.110)	3.80(1.509)
		t/F(Scheffé)	3.226***	-.107	.266	-.266
	경제수준	낮은편	2.87(.978)	3.08(.909)	2.94(.957)	3.09(1.200)
		중간	2.93(.940)	3.22(.877)	2.97(.827)	3.29(1.158)
		높은편	3.18(1.032)	3.58(.981)	3.00(.983)	3.54(1.127)
		t/F(Scheffé)	13.433***(ac, bc)	37.150***(ac, bc)	.603	4.693***(ac, bc)
	교육수준	고졸이하	3.01(1.076)	3.24(.894)	2.80(.932)	3.29(1.162)
		전문대재·졸	2.98(.903)	3.25(.950)	2.91(.825)	3.35(1.187)
		4년제대재이상	2.99(1.010)	3.36(.963)	3.02(.942)	3.33(1.170)
t/F(Scheffé)		.043	1.850	6.295**(df)	.16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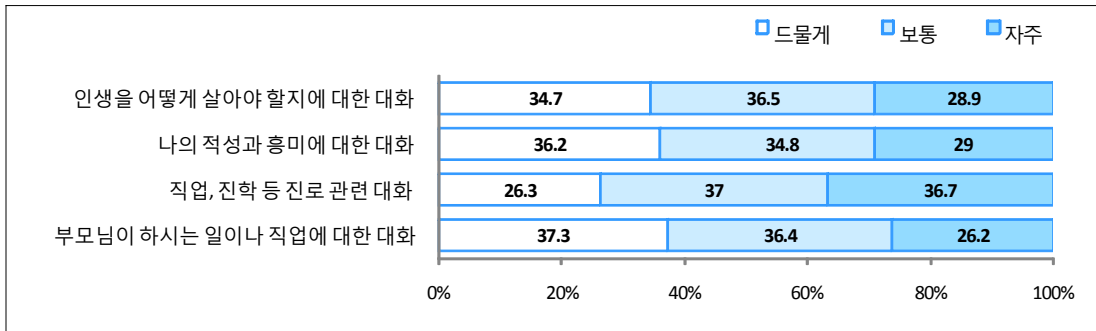
※ 주1 : 경제수준(a=낮은편, b=중간, c=높은편), 교육수준(d=고졸이하, e=전문대재·졸, f=4년제 대재이상)

주2 : 통계적인 유의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일부 성별, 지역에 따른 차이는 <부표 5> 참조

2)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1)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는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통' 수준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드물게' 는 '매우드물게' 와 '드물게' 의 합친 응답률, '자주' 는 '자주' 와 '매우자주' 의 합친 응답률

【그림 IV-14】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표 IV-19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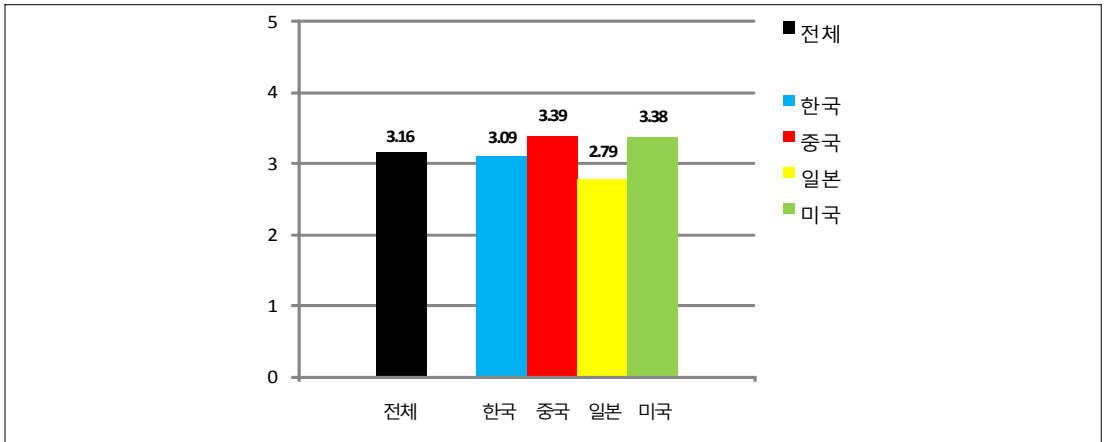
단위: %(명)

내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전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11.5	23.2	36.5	25.4	3.5	100(150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12.4	23.8	34.8	25.0	4.0	100(1502)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7.7	18.6	37.0	29.9	6.8	100(1502)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13.0	24.3	36.4	21.5	4.7	100(1502)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는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이 각 항목별로 약 34.8%~37% 정도로 높았고, 자주 이루어진다는 응답('자주'와 '매우자주')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 진학 등 진로관련 대화'의 빈도가 자주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약 36.7%로 그 중 높았으나, 다른 항목은 약 26%~29%로 낮은 수준으로 특히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2) 한·중·일·미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 한·중·일·미 청소년의 가정에서는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중국·미국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임.



【그림 IV-15】 한·중·일·미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평균값 비교)

한·중·일·미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 전체 청소년들은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를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4개국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표 IV-20 한·중·일·미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2.83 (1.076)	2.86 (1.032)	2.91 (.955)	2.47 (1.002)	3.09 (1.201)	94.187*** (ac, ad, bc, bd, cd)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2.94 (1.048)	2.84 (1.058)	3.08 (.911)	2.73 (1.008)	3.09 (1.153)	44.500*** (ab, ac, ad, bc, cd)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3.16 (1.070)	3.09 (1.028)	3.39 (.868)	2.79 (1.024)	3.38 (1.216)	113.304*** (ab, ac, ad, bc, cd)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2.80 (1.080)	2.81 (1.064)	2.99 (.903)	2.59 (1.020)	2.81 (1.263)	35.916*** (ab, ac, bc, bd, cd)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이 항목에서는 중국과 미국 청소년이 거의 유사한 높은 수준의 가정에서의 대화빈도를 보였고(각각 $M=3.39$, $M=3.38$), 그 다음이 한국청소년($M=3.09$), 일본청소년($M=2.79$)순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각 국가별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났는데, 미국청소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와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에서는 중국청소년과 동일한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진로와 관련해서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대화 빈도는 일본청소년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중국과 미국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한·중·일·미 청소년가정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한·중·미 청소년 모두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경영/관리직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직업이고,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일 때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음.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해서 성별, 지역규모, 부·모 학력 및 직업, 경제수준에 따른 각 국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부표 6~8>와 같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청소년은 성별이나 지역규모보다는 부·모 학력 및 직업, 경제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대체로 부·모 학력이 대졸일 경우, 그리고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경우 더 가정에서의 진로지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청소년도 일부 세부항목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한·중·미 청소년처럼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국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청소년 역시 부·모 학력 및 직업, 경제수준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주목할 것은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성별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지역규모별,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미국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성별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항목의 경우 한·일·미 청소년에게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여자청소년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미국의 여자청소년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가정에서의 진로관련대화가 남자청소년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미 청소년이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내용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V-21>와 같다. 성별차이는 미국청소년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가정에서 직업이나 진학 등의 진로관련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청소년의 경우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가정에서 더 진로관련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다. 부·모학력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중·일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중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경우, 또 일·미 청소년의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경제수준별로는 한·중·일·미 청소년에게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가정에서 진로관련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대화 외에 다른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는 <부표 6~8>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IV-21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12(1.006)	3.40(.883)	2.75(1.018)	3.22(1.199)
	여	(SD)	3.07(1.049)	3.38(.854)	2.83(1.029)	3.55(1.213)
	t/F(Scheffé)		1.104	-.758	-1.497	-5.248***
지역	대도시	M	3.11(1.033)	3.42(.864)	2.78(1.013)	3.39(1.218)
	비대도시	(SD)	3.05(1.009)	3.27(.875)	2.83(1.068)	3.33(1.209)
	t/F(Scheffé)		.906	2.769**	-.758	.796
부 학력	고졸	M	3.07(1.040)	3.36(.866)	2.70(1.003)	3.44(1.179)
	대졸	(SD)	3.19(.994)	3.55(.841)	2.89(1.016)	3.48(1.181)
	t/F(Scheffé)		-2.164*	-3.595***	-3.247***	-.713
모 학력	고졸	M	3.09(1.019)	3.37(.865)	2.74(1.027)	3.41(1.176)
	대졸	(SD)	3.22(1.021)	3.60(.840)	2.92(.993)	3.49(1.223)
	t/F(Scheffé)		-2.220*	-3.856***	-3.271***	-1.267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23(.992)	3.48(.842)	2.86(1.054)	3.17(1.272)
	일반사무/기술 등		3.06(1.028)	3.38(.857)	2.76(1.023)	3.56(1.162)
	농축수산/노무		2.85(1.003)	3.33(.876)	2.65(.932)	3.42(1.190)
	무직		3.03(1.098)	3.21(.993)	2.87(.859)	3.33(1.265)
	t/F(Scheffé)		5.843*** _(ac)	3.656*	1.943	5.756*** _(ad, bd)
모 직업	가사	M (SD)	3.08(1.010)	3.33(.870)	2.76(1.028)	3.33(1.245)
	전문/경영/관리		3.23(1.034)	3.43(.807)	2.95(1.083)	3.73(1.134)
	일반사무/기술 등		3.10(1.042)	3.48(.859)	2.80(.997)	3.36(1.197)
	농축수산/노무		2.86(1.016)	3.32(.930)	2.59(.994)	3.12(1.198)
	t/F(Scheffé)		2.467	2.826*	2.684*	8.741*** _(ef, fg, fh)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2.99(1.082)	3.31(.872)	2.57(1.037)	3.22(1.242)
	중간		3.10(.966)	3.34(.887)	2.84(.934)	3.32(1.219)
	높은편		3.24(.981)	3.50(.841)	2.94(1.038)	3.58(1.164)
	t/F(Scheffé)		8.471*** _(ik)	7.574*** _(ik, jk)	19.002*** _(ij, ik)	12.720*** _(ik, jk)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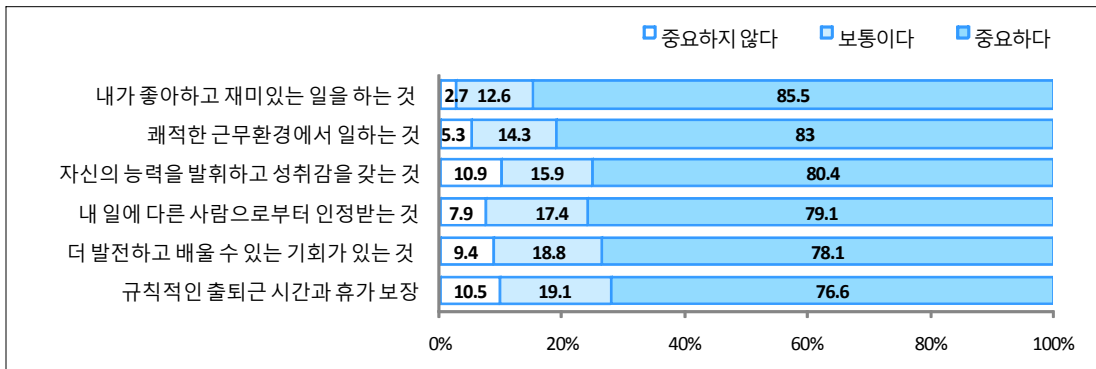
※ 주 : 부직업(a=전문/경영/관리, b=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c=농축수산/노무, d=무직), 모직업(e=가사, f=전문/경영/관리, g=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h=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i=낮은편, j=중간, k=높은편)

4.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및 성공요인

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1) 한국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 다양한 직업생활 가치관 중 한국청소년들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중요도(85.5%)를,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중요도(37.1%)를 보임.



※ 주1 : 한국청소년들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세부항목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6가지 항목 기준

주2 : ‘중요하지 않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의 합친 응답률, ‘중요하다’는 ‘중요하다’와 ‘매우중요하다’의 합친 응답률

【그림 IV-16】 한국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직업생활에 대한 15가지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중요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를 조사한 결과(〈표 IV-22〉),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응답률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청소년들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85.5%)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83%),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80.4%),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79.1%),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78.1%),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76.6%)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그림 IV-16】 참조).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37.1%)과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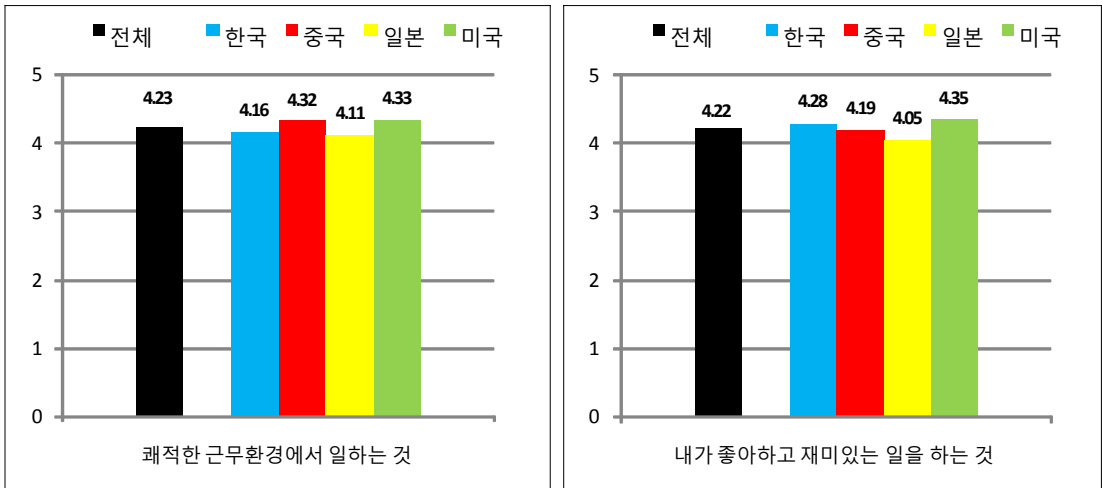
것' (41.4%)으로 50%미만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한국청소년은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비교적 건강한 직업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2 한국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단위: %(명)

내용	전혀중요 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08	2.9	15.9	51.4	29.0	100(150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1.1	7.1	39.0	41.5	11.3	100(1502)
많은 돈을 버는 것	06	4.2	22.4	48.0	24.8	100(1502)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07	3.8	19.7	49.5	26.2	100(1502)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05	2.9	17.4	48.5	30.6	100(1502)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09	8.7	35.8	36.8	17.8	100(1502)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1.7	10.5	34.9	39.3	13.6	100(1502)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1.3	6.9	30.0	46.1	15.7	100(1502)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07	2.4	18.8	48.7	29.4	100(1502)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1.2	6.3	29.9	40.9	21.7	100(1502)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1.1	12.9	44.7	29.8	11.6	100(150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01	1.7	12.6	40.9	44.6	100(1502)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03	2.3	14.3	47.5	35.5	100(1502)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07	3.5	19.1	41.2	35.4	100(1502)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	4.2	17.5	41.1	24.1	13.0	100(1502)

(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비교

○ 한국과 미국청소년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일본청소년은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음. 전체적으로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낮았음.



※ 한·중·일·미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평균값 비교

【그림 IV-17】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주요 항목 비교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에 대해 한·중·일·미 청소년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표 IV-23〉, 【그림 IV-17】 참조) 조사대상자 전체 청소년들은 ‘패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M=4.23),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M=4.22),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M=4.01),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M=4.01),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M=3.98)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평균값 차이는 있으나, 한국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M=4.05)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국청소년의 응답과 유사했다.

각각의 직업생활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 4개 국가 청소년들의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청소년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각각 M=4.28, M=4.35)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청소년의 중요도 순(각각 M=4.19, M=4.05)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청소년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청소년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각각 M=4.32, M=4.11)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는데,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 자체는 미·중·한·일 청소년 순으로 높았다. 이외에 높은 중요도를 보인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중국과 미국청소년이 동일한 높은 평균값(M=4.17)을 보였고, 그 다음은 한국청소년(M=4.04)과 일본청소년(M=3.65)순이었다. 앞의 항목과 동일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인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중·일·미 순으로 나타나 미국청소년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대적으로 한국청소년들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청소년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M=3.45), 다음으로 한·중·일 청소년(각각 M=3.24, M=3.12, M=2.94)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조사에 응답한 모든 청소년에게서 이 항목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미국청소년의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의 중요도가 이 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표 IV-2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4.01 (.864)	4.04 (.802)	4.17 (.711)	3.65 (.865)	4.17 (.957)	127.124*** (ab, ac, ad, bc, cd)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4.22 (.825)	4.28 (.756)	4.19 (.720)	4.05 (.820)	4.35 (.955)	39.480*** (ab, ac, bc, bd, cd)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4.23 (.803)	4.16 (.773)	4.32 (.693)	4.11 (.777)	4.33 (.927)	30.000*** (ab, ad, bc, cd)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4.01 (.910)	4.07 (.865)	4.04 (.817)	3.98 (.855)	3.96 (1.078)	4.613** (ad)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	3.19 (1.065)	3.24 (1.023)	3.12 (.976)	2.94 (.950)	3.45 (1.225)	62.079*** (ab, ac, ad, bc, bd, cd)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주3 : 나머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에 대한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비교에 대한 통계치는 (부표 9) 참조

(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세부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중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들인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또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고,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직업 등에 대해 한·중·일·미 여자청소년의 선호도는 남자보다 더 높았음.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에 대해 한·중·일·미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에 대해(평균값 기준), 다양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¹⁹⁾.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4개국 청소년 모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의 평균값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았다(〈표 IV-24〉). 한국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 때 더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중국청소년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 학력과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더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일본청소년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고 또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그리고 미국청소년은 교육수준이 전문대재·졸일 때 더 평균값이 높았다(〈부표 10〉참조).

표 IV-24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4.09(.815)	4.23(.761)	3.96(.850)	4.12(1.048)
	여	4.22(.723)	4.41(.606)	4.26(.666)	4.54(.729)
	t/F(Scheffé)	-3.383***	5.100***	-7.557***	9.097***
경제수준	낮은편	4.18(.792)	4.34(.691)	4.20(.778)	4.36(.940)
	중간	4.05(.781)	4.26(.713)	3.95(.799)	4.22(.974)
	높은편	4.20(.735)	4.34(.679)	4.13(.748)	4.38(.871)
	t/F(Scheffé)	4.297*(ab, bc)	2.200	11.812***(ab, bc)	3.976*

*p<.05, **p<.01, ***p<.001

※ 주1 : 경제수준(a=낮은편, b중간, c=높은편)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배경변인별 차이는 〈부표 10〉 참조

19)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세부항목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일부항목(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규칙적인 출퇴근시간·휴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기)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본문에 제시하였으며, 그 외 세부항목별 배경변인별 차이는 〈부표 12~21〉 참조

그 다음으로 전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표 IV-25〉), 4개국 모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스스로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한국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집단에서 더 선호도를 보였고, 중국청소년은 부·모 학력과 직업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일본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미국청소년은 교육수준이 전문대재·졸이고, 부·모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경우, 또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 때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부표 10〉참조).

표 IV-25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4.23(.797)	4.15(.769)	3.94(.878)	4.15(1.080)
	여		4.33(.710)	4.24(.665)	4.16(.743)	4.56(.758)
	t/F(Scheffé)		-2.530*	2.455*	-5.197***	8.498***
경제수준	낮은편	M (SD)	4.37(.702)	4.20(.712)	4.15(.831)	4.34(.989)
	중간		4.16(.839)	4.13(.753)	3.93(.823)	4.27(1.033)
	높은편		4.25(.750)	4.24(.701)	4.03(.798)	4.43(.850)
	t/F(Scheffé)		10.221***(ab, ac)	2.806	8.169***(ab, ac)	3.661*

*p<.05, **p<.01, ***p<.001

※ 주1 : 경제수준(a=낮은편, b=중간, c=높은편)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배경변인별 차이는 〈부표 10〉 참조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4개국 청소년 모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6〉). 한국청소년의 경우 4개국 중 유일하게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더 선호도를 보였다. 중국청소년은 교육수준이 전문대재·졸일 경우,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보장에 대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청소년의 경우도 전문대재·졸인 청소년이,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더 선호도를 나타냈다(〈부표 10〉).

표 IV-26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규칙적인 출퇴근시간·휴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기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98(.897)	3.92(.867)	3.86(.912)	3.82(1.123)
	여		4.17(.821)	4.15(.746)	4.10(.777)	4.10(1.014)
	t/F(Scheffé)		-4.261***	5.545***	-5.541***	5.044***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4.12(.885)	4.02(.853)	3.99(.869)	3.95(1.099)
	중간		3.97(.859)	4.02(.819)	3.92(.841)	3.87(1.096)
	높은편		4.07(.836)	4.07(.783)	4.01(.852)	4.04(1.042)
	t/F(Scheffé)		3.730*(ab)	.786	1.347	2.744

*p<.05, **p<.01, ***p<.001

※ 주1 : 경제수준(a=낮은편, b=중간, c=높은편)

주2 : 통계적인 유의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부표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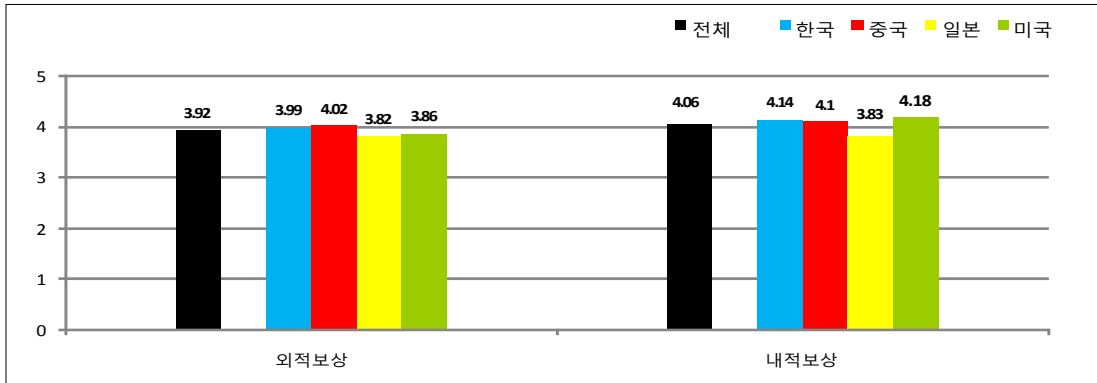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항목도 앞의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과 동일한 평균값을 보였는데 배경변인별 분석에서는 대체로 일본과 미국의 청소년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부표 11> 참조). 일본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일 때, 또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로서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선호했다. 미국청소년에게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에게서,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고,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범주별 분석

○ 한국청소년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범주 중 ‘내적보상’과 ‘환경적 보상’에 대해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각각 M=4.14, M=4.06), 그 다음으로 ‘외적 보상’, ‘사회적보상’, ‘자율·창조적 보상’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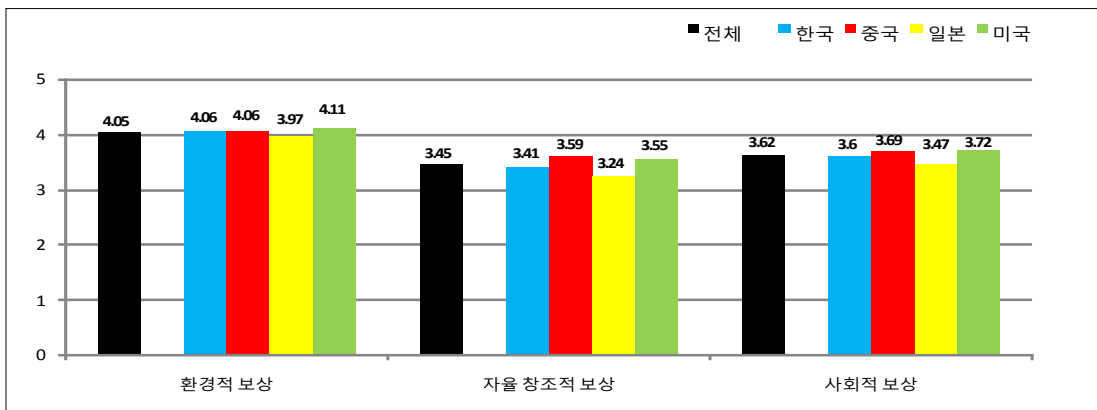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를 5개 범주로 나누어 실시한 분석에서 한·중·미 청소년은 5개의 범주 중, 자신의 능력 발휘 및 성취감,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내적 보상’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각각 M=4.14, M=4.10, M=4.18), 이 내적

보상에 대해 한국청소년은 미국청소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중·미 청소년과는 달리 일본청소년은 5개 범주 중 안정된 직장과 쾌적한 근무환경, 그리고 규칙적 출퇴근시간과 휴가보장이 포함된 ‘환경적 보상’ (M=3.97)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림 IV-18】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범주별 비교(1)

국가별로 각 범주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의 경우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중 ‘내적보상’ 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환경적 보상’ 역시 근사치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각각 M=4.14, M=4.06).



【그림 IV-19】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범주별 비교(2)

그 다음은 많은 돈을 벌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중요시하는 ‘외적 보상’ 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M=3.99), 타인과 함께 일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원하는 ‘사회적보

상' (M=3.60), 자율창조적인 일에 가치를 두는 '자율·창조적 보상' (M=3.41)순이었다. 한국청소년의 '외적보상' 평균치는 중국과 미국청소년 다음으로 높았고, '환경적 보상' 은 미국청소년보다 낮았으나 중국청소년과 동일했다. '자율·창조적 보상' 과 '사회적보상' 은 미국과 중국청소년 다음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IV-27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한·중·일·미 청소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외적 보상	많은 돈을 버는 것	3.92 (.733)	3.99 (.684)	4.02 (.618)	3.82 (.702)	3.86 (.883)	28.680*** (ac, ad, bc, bd)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적 보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4.06 (.681)	4.14 (.623)	4.10 (.565)	3.83 (.638)	4.18 (.818)	79.248*** (ac, bc, bd, cd)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환경적 보상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4.05 (.679)	4.06 (.660)	4.06 (.592)	3.97 (.648)	4.11 (.795)	11.834*** (ac, bc, cd)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자율 창조적 보상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3.45 (.551)	3.41 (.527)	3.59 (.463)	3.24 (.533)	3.55 (.605)	129.291*** (ab, ac, ad, bc, cd)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						
사회적 보상	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3.62 (.818)	3.60 (.786)	3.69 (.706)	3.47 (.795)	3.72 (.945)	29.225*** (ab, ac, ad, bc, cd)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주3 : 자율·창조적 보상의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 은 역코딩하여 사용함.

직업생활의 가치의 각 범주에 따른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8>과 같다²⁰⁾. '외적 보상' 에 대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부모의 학력 및 직업수준, 그리고 경제수준별로 분석하였으나,

20)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난 내용만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내용은 (부표 22~26)참조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외적보상'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중·일·미 청소년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내적보상'에 대해서는 성별과 아버지의 직업,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한국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인 청소년, 그리고 경제적으로 낮은 편인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중·일·미 청소년의 경우 성별과 아버지의 직업수준별로는 한국청소년과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청소년의 경우 '내적보상'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한국과 일본청소년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표 IV-28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5가지 범주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외적 보상	성별	남	M 3.95(.741)	3.97(.682)	3.78(.759)	3.76(.947)
		여	(SD) 4.03(.620)	4.07(.544)	3.86(.638)	3.95(.803)
		t/F(Scheffé)	-2.381*	-3.031**	-2.183*	-4.256***
	경제 수준	낮은편	M 4.04(.692)	4.03(.613)	3.88(.726)	3.85(.881)
		중간	(SD) 3.89(.735)	3.97(.628)	3.66(.740)	3.75(.920)
		높은편	3.99(.624)	4.05(.614)	3.86(.637)	3.94(.848)
t/F(Scheffé)	6.059**(ab)	2.355	13.309***(ab, bc)	5.960**(bc)		
내적 보상	성별	남	M 4.08(.666)	4.07(.633)	3.74(.677)	3.99(.909)
		여	(SD) 4.17(.574)	4.13(.486)	3.93(.583)	4.37(.663)
		t/F(Scheffé)	-2.710**	-2.227*	-5.578***	-9.485***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4.17(.620)	4.14(.556)	3.85(.630)	4.24(.794)
		일반사무/기술 등	(SD) 4.10(.625)	4.12(.519)	3.84(.630)	4.21(.770)
		농축수산/노무	4.02(.565)	4.02(.591)	3.84(.682)	4.12(.858)
		무직	4.15(.684)	4.03(.710)	3.74(.702)	4.06(.911)
		t/F(Scheffé)	2.719*	4.067**(df)	.732	3.088*
	경제 수준	낮은편	M 4.19(.605)	4.09(.554)	3.89(.650)	4.17(.852)
		중간	(SD) 4.02(.678)	4.05(.594)	3.72(.618)	4.11(.885)
		높은편	4.11(.596)	4.14(.551)	3.86(.632)	4.24(.727)
		t/F(Scheffé)	8.525***(ab)	3.535*(bc)	8.507***(ab, bc)	2.828
환경적 보상	성별	남	M 3.99(.680)	3.96(.630)	3.86(.709)	3.95(.873)
		여	(SD) 4.13(.631)	4.16(.533)	4.07(.562)	4.27(.671)
		t/F(Scheffé)	-4.142***	-6.834***	-6.497***	-7.992***
	경제	낮은편	M 4.11(.677)	4.05(.599)	4.02(.653)	4.13(.801)
		중간	(SD) 3.95(.661)	4.04(.625)	3.87(.673)	4.01(.853)

	수준	높은편		4.08(.625)	4.08(.562)	3.98(.621)	4.16(.736)
		t/F(Scheffé)		7.389***(ab, bc)	.735	6.643**(ab, bc)	4.568*(bc)
자율 창조적 보상	성별	남	M	3.45(.523)	3.63(.485)	3.26(.550)	3.50(.650)
		여	(SD)	3.38(.530)	3.54(.437)	3.22(.514)	3.61(.551)
		t/F(Scheffé)		2.637**	3.710***	1.564	-3.465***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47(.531)	3.62(.457)	3.26(.515)	3.65(.597)
		일반사무/기술 등		3.41(.512)	3.59(.446)	3.25(.529)	3.53(.594)
		농축수산/노무		3.30(.492)	3.55(.485)	3.19(.614)	3.53(.627)
		무직		3.35(.615)	3.54(.498)	3.22(.543)	3.46(.622)
	t/F(Scheffé)		4.455**(df)	2.064	.592	5.654***(de, dg)	
	경제수준	낮은편	M (SD)	3.38(.574)	3.58(.468)	3.26(.549)	3.51(.613)
		중간		3.38(.530)	3.51(.466)	3.18(.506)	3.54(.635)
		높은편		3.47(.451)	3.65(.450)	3.27(.532)	3.60(.570)
		t/F(Scheffé)		4.706**(ac, bc)	10.851*** (ac, bc)	3.858*(bc)	3.399*(ac)
사회적 보상	성별	남	M	3.67(.806)	3.71(.718)	3.44(.826)	3.66(.993)
		여	(SD)	3.54(.761)	3.67(.694)	3.49(.762)	3.78(.892)
		t/F(Scheffé)		3.160**	1.135	-1.349	-2.395*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69(.795)	3.74(.707)	3.47(.780)	3.81(.921)
		일반사무/기술 등		3.57(.781)	3.65(.683)	3.49(.793)	3.73(.909)
		농축수산/노무		3.52(.732)	3.67(.708)	3.39(.873)	3.66(.976)
		무직		3.56(.848)	3.70(.798)	3.35(.779)	3.61(1.025)
	t/F(Scheffé)		2.893*	1.618	1.086	2.517	
	경제수준	낮은편	M (SD)	3.56(.829)	3.57(.721)	3.45(.833)	3.60(.949)
		중간		3.58(.776)	3.61(.705)	3.43(.785)	3.68(.959)
		높은편		3.67(.730)	3.84(.666)	3.50(.765)	3.86(.915)
		t/F(Scheffé)		2.429	23.476*** (ac, bc)	1.111	10.210*** (ac, bc)

*p<.05, **p<.01, ***p<.001

※ 주1 : 경제수준(a= 낮은편, b=중간, c=높은편), 부직업(d=전문/경영/관리, e=일반사무/기술 등, f=농축수산/노무, g=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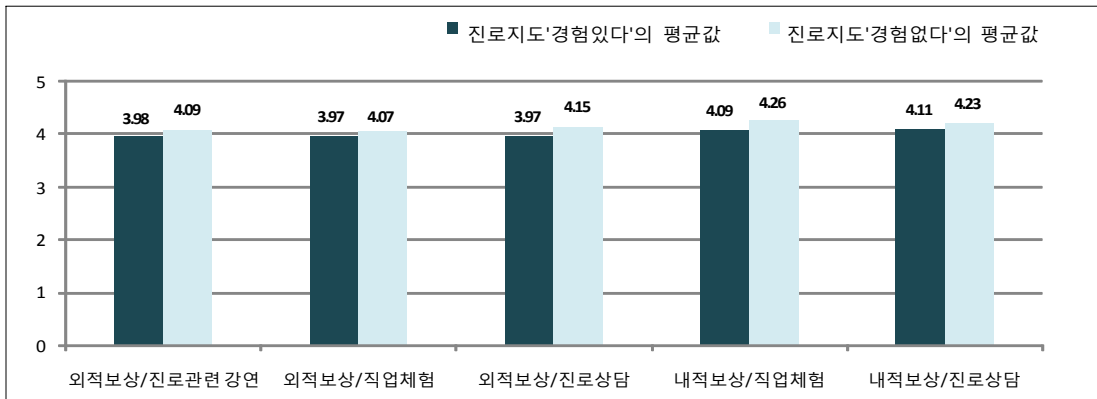
주2 : 본 배경변인별 차이에서 통계적인 유의도를 보이지 않은 내용은 (부표 22~26) 참조

‘환경적 보상’ 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편인 집단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경제수준별 차이는 일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으로 높은 편인 집단에서 ‘환경적 보상’ 에 대해 더 높은 중요도를 보인 중국과 미국청소년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이다.

‘자율·창조적 보상’ 과 ‘사회적보상’ 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성별, 아버지의 직업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범주 모두 남자청소년,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인 청소년, 그리고 경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청소년에게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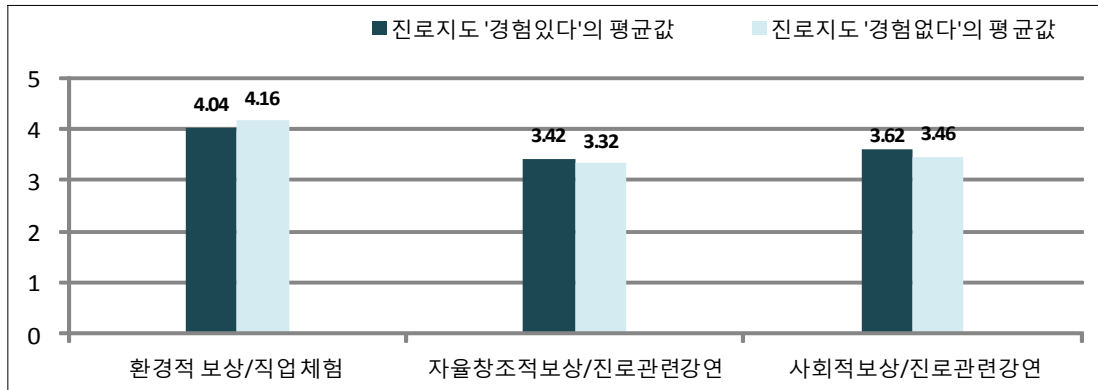
(5)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 진로관련 강연과 직업체험,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한국청소년은 '외적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고,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내적 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았음. '환경적 보상'에 대해서는 직업체험이 없는 경우, '자율·창조적 보상'과 '사회적보상'은 진로관련 강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임.



【그림 IV-20】 한국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결정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5개의 범주에 대한 중요도가 고등학교 재학 시 다양한 진로지도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표 IV-29〉). 한국청소년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외적보상의 중요도는 진로관련 강연과 직업체험, 진로상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 경우 외적보상에 대한 중요도를 더 낮게 응답하였다. 또한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내적 보상'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았다. '환경적 보상'에 대해서는 직업체험이 없는 청소년이, 그리고 '자율·창조적 보상'과 '사회적보상'은 진로관련 강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림 IV-21】 한국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결정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2)

표 IV-29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5가지 범주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외적보상	진로 관련 강연	M	있다	3.98(.681)	4.02(.618)	3.82(.701)	3.87(.864)
		(SD)	없다	4.09(.659)	4.03(.556)	3.83(.710)	3.76(.914)
		t		-2.058*	-.114	-.163	1.518
	직업 체험	M	있다	3.97(.693)	4.01(.620)	3.81(.703)	3.87(.862)
		(SD)	없다	4.07(.612)	4.11(.551)	3.86(.695)	3.74(.953)
		t		-2.321*	-1.990*	-1.246	1.517
진로 상담	M	있다	3.97(.680)	4.01(.620)	3.82(.692)	3.87(.867)	
	(SD)	없다	4.15(.654)	4.11(.540)	3.77(.872)	3.81(.892)	
	t		-2.901**	-1.908	.662	1.026	
내적보상	직업 체험	M	있다	4.09(.617)	4.09(.567)	3.82(.640)	4.21(.775)
		(SD)	없다	4.26(.606)	4.19(.465)	3.92(.613)	4.20(.838)
		t		-4.130***	-2.127*	-2.558*	.239
	진로 상담	M	있다	4.11(.617)	4.09(.567)	3.84(.634)	4.19(.780)
		(SD)	없다	4.23(.624)	4.21(.451)	3.77(.676)	4.32(.772)
		t		-2.123*	-2.481*	.884	-2.339*
환경적보상	직업 체험	M	있다	4.04(.649)	4.05(.589)	3.94(.649)	4.12(.765)
		(SD)	없다	4.16(.672)	4.20(.535)	4.10(.615)	4.19(.809)
		t		-2.606**	-3.181**	-3.776***	-.898
자율·창조적 보상	진로 관련 강연	M	있다	3.42(.514)	3.61(.458)	3.24(.529)	3.58(.594)
		(SD)	없다	3.32(.604)	3.41(.439)	3.23(.558)	3.50(.599)
		t		2.501*	4.677***	.342	1.598
사회적보상	진로 관련 강연	M	있다	3.62(.782)	3.72(.696)	3.48(.782)	3.75(.914)
		(SD)	없다	3.46(.788)	3.43(.725)	3.37(.878)	3.68(.962)
		t		2.458*	4.472***	1.725	.977

*p<.05, **p<.01, ***p<.001

※ 주 : 본 배경변인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27~31> 참조

(6)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학교진로지도 만족도/가정의 진로지도 정도 상관관계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만족도와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 정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일부 보였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았음.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중 구체적으로 직업, 진학 등 진로와 관련한 대화는 그 정도가 많을수록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5가지 범주에 대해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만족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각 범주의 평균값과 학교에서의 각 진로지도 내용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3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V-30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보상	.117***	.096***	.006	.130***
	내적보상	.091***	.128***	.068**	.249***
	환경적보상	.087***	.123***	.057*	.179***
	사회적보상	.062*	.030	.057*	.169***
		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사회적보상	.066*	.164***	.024	.203***
		진로관련 검사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보상	.052*	.115***	.006	.158***
	내적보상	.065*	.141***	.014	.167***
	자율·창조적 보상	.111***	.089***	.023	.111***
	사회적보상	.074**	.095***	.022	.171***
내용		직업체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내적보상	.060*	.125***	.058*	.139***
내용		진로상담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보상	.056*	.074**	-.041	.092***
	자율·창조적 보상	.067**	.078**	.050	.091***
	사회적보상	.058*	.105***	.068**	.127***

*p<.05, **p<.01, ***p<.001

※ 주 : 위의 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32>참조

한국의 청소년은 진로지도 항목에 따라 범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기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32>참조), 상관정도는 크지 않았으며, 대체로 미국과 중국청소년의 경우보다 적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는 직업생활의 가치와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다양한 진로지도관련 대화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5가지 범주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관련 대화정도는 직업생활의 가치 일부 범주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상관계수는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중 구체적으로 직업, 진학 등 진로에 초점을 둔 대화는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대화를 가정에서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5가지 범주 모두)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31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내적보상	.074**	.160***	.007	.265***
	자율창조적 보상	.185***	.213***	.114***	.263***
	사회적보상	.162***	.215***	.110***	.22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내적보상	.070**	.152***	.095***	.253***
	자율창조적 보상	.181***	.184***	.126***	.255***
	사회적보상	.196***	.188***	.129***	.211***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보상	.131***	.175***	.019	.290***
	내적보상	.192***	.254***	.072**	.347***
	환경적보상	.163***	.156***	-.013	.292***
	자율창조적 보상	.181***	.230***	.114***	.303***
	사회적보상	.175***	.187***	.151***	.270***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보상	.056*	.100***	.002	.201***
	자율창조적 보상	.142***	.160***	.129***	.188***
	사회적보상	.133***	.190***	.129***	.223***

*p<.05, **p<.01, ***p<.001

※ 주 : 위의 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33>참조

(7)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심리적 요인 상관관계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는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에 대한 높은 중요도를 예측할 수 있음.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자아존중감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한국청소년이 통계적인 유의도를 보인 항목은 ‘내적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사회적보상’으로 어느 정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중 ‘내적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사회적보상’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율·창조적 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계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일·미 청소년의 해당 상관계수보다도 더 높았다.

자아통제감은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의 모든 범주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적보상’과 ‘자율·창조적 보상’은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본 상관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높은 자아통제감은 직업생활의 가치의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높은 중요도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2 상관분석 :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아존중감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내적보상	.154***	.270***	.081**	.224***
	자율창조적 보상	.291***	.287***	.271***	.220***
	사회적보상	.169***	.192***	.148***	.226***
		자아통제감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보상	.101***	.069**	-.025	.090***
	내적보상	.269***	.239***	.126***	.206***
	환경적보상	.109***	.010	-.047	.118***
	자율창조적 보상	.273***	.265***	.196***	.215***
	사회적보상	.161***	.125***	.096***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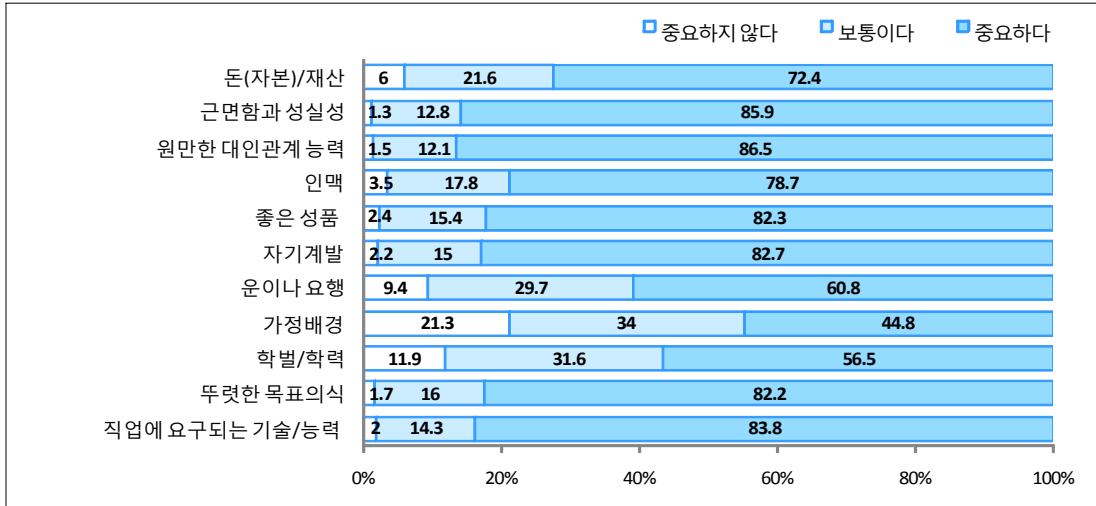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 위의 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34>참조

2)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1) 한국청소년이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 한국청소년이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과 ‘근면함과 성실성’이었고, ‘가정배경’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임.



※ ‘중요하지 않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의 합친 응답률, ‘중요하다’는 ‘중요하다’와 ‘매우중요하다’의 합친 응답률

【그림 IV-22】 한국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직업에서의 성공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1가지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그림 IV-22】 , <표 IV-33> 참조), 한국청소년들이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86.5%)(‘중요하다’ 와 ‘매우중요하다’ 의 합친 응답률)였다. 그 다음은 ‘근면함과 성실성’ (85.9%),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능력’ (83.8%)으로 나타났으며, ‘좋은 성품’ , ‘자기계발’ , ‘뚜렷한 목표의식’ 도 역시 중요도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인맥’ (78.7%), ‘돈(자본)/재산’ (72.4%), ‘운이나 요행’ (60.8%), ‘학벌/학력’ (56.5%)의 순으로 중요도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가정배경’ (44.8%)이었다.

표 IV-33 한국청소년이 생각하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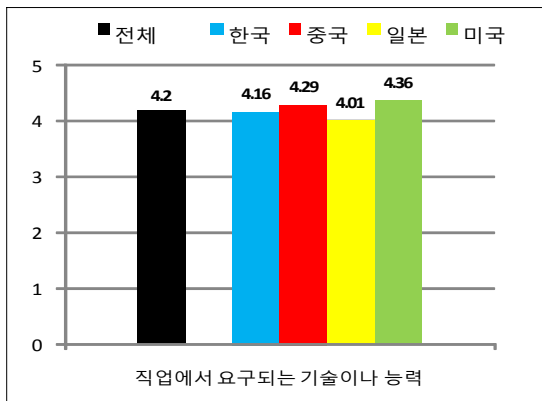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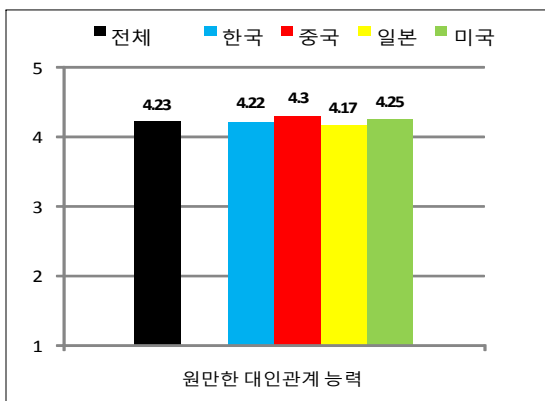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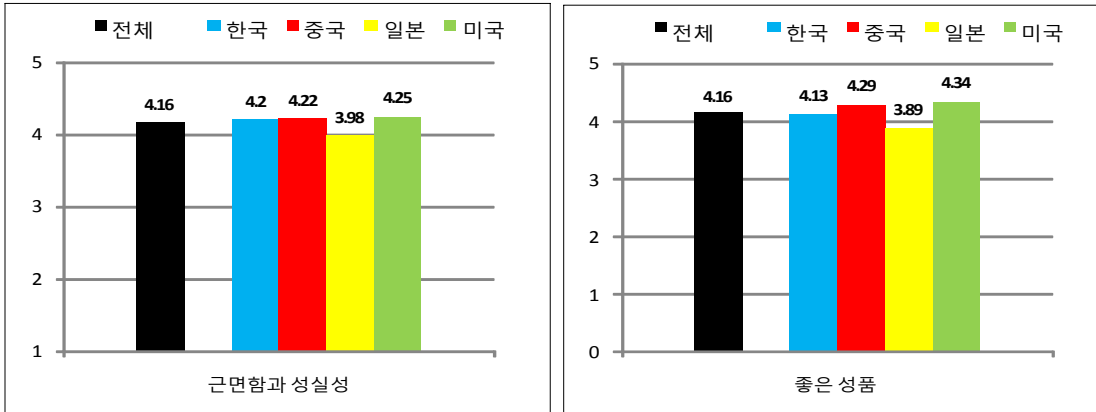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돈(자본)/재산	1.1	4.9	21.6	46.3	26.1	100(1502)
근면함과 성실성	0.1	1.2	12.8	50.4	35.5	100(1502)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0.2	1.3	12.1	49.1	37.4	100(1502)
인맥	0.3	3.2	17.8	47.1	31.6	100(1502)
좋은 성품	0.3	2.1	15.4	49.5	32.8	100(1502)
자기계발	0.1	2.1	15.0	47.5	35.2	100(1502)
운이나 요행	1.5	7.9	29.7	41.7	19.1	100(1502)
가정배경	3.7	17.6	34.0	32.9	11.9	100(1502)
학벌/학력	2.9	9.0	31.6	40.6	15.9	100(1502)
뚜렷한 목표의식	0.3	1.4	16.0	41.3	40.9	100(1502)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0.3	1.7	14.3	49.2	34.6	100(1502)

(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으로 한·일청소년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중국청소년은 ‘인맥’을, 미국청소년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해 한·중·일·미 전체 청소년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표 IV-34>에서 보듯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성공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M=4.23)이었다. 그 다음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M=4.2)으로 나타났다.





※주: 조사응답자 전체 청소년의 응답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4가지 항목 기준 국가별 평균비교

【그림 IV-23】 한·중·일·미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생활 성공요인

‘근면함과 성실함’ 과 ‘좋은성품’ 도 동일한 평균값(M=4.16)을 보이면서 그 뒤를 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가정배경’ (M=3.30)이었다.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각각에 대해 4개국 청소년들의 응답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성공요인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 비교는 【그림 IV-23】 과 같다. 국가별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을 보면, 한국과 일본청소년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각각 M=4.22, M=4.17)을, 중국청소년은 ‘인맥’ (M=4.34)을, 미국청소년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M=4.3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표 IV-34〉, 〈표 IV-35〉참조).

표 IV-34 직업성공요인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중요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돈(자본)/재산	3.83 (.917)	3.91 (.877)	3.88 (.746)	3.75 (.874)	3.78 (1.121)	10.582*** (ac, ad, bc, bd)
근면함과 성실성	4.16 (.765)	4.20 (.709)	4.22 (.670)	3.98 (.740)	4.25 (.891)	41.592*** (ac, bc, cd)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4.23 (.771)	4.22 (.719)	4.30 (.683)	4.17 (.741)	4.25 (.917)	6.916*** (bc, cd)
인맥	4.11 (.839)	4.06 (.805)	4.34 (.677)	3.98 (.813)	4.05 (.986)	56.165*** (ab, bc, bd)
좋은 성품	4.16 (.814)	4.13 (.757)	4.29 (.693)	3.89 (.834)	4.34 (.882)	100.885*** (ab, ac, ad, bc, cd)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자기계발	4.09 (.816)	4.16 (.757)	4.12 (.703)	3.79 (.823)	4.30 (.881)	113.630*** (ac, ad, bc, bd, cd)
운이나 요행	3.64 (1.003)	3.69 (.920)	3.56 (.813)	3.85 (.886)	3.44 (1.279)	47.635*** (ab, ac, ad, bc, bd, cd)
가정배경	3.30 (1.086)	3.32 (1.013)	3.58 (.860)	3.08 (1.042)	3.24 (1.320)	57.219*** (ab, ac, bc, bd, cd)
학벌/학력	3.57 (1.027)	3.58 (.956)	3.69 (.807)	3.01 (1.035)	4.02 (1.030)	288.743*** (ab, ac, ad, bc, bd, cd)
뚜렷한 목표의식	4.15 (.803)	4.21 (.781)	4.25 (.664)	3.97 (.819)	4.15 (.902)	34.893*** (ac, bc, bd, cd)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4.20 (.781)	4.16 (.744)	4.29 (.694)	4.01 (.772)	4.36 (.860)	60.302*** (ab, ac, ad, bc, cd)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표 IV-35 직업성공요인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중요도 순위 비교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인맥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2	뚜렷한 목표의식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좋은 성품
3	근면함과 성실성	좋은 성품	근면함과 성실성	자기계발
4	자기계발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인맥	근면함과 성실성
5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뚜렷한 목표의식	뚜렷한 목표의식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6	좋은 성품	근면함과 성실성	좋은 성품	뚜렷한 목표의식
7	인맥	자기계발	운이나 요행	인맥
8	돈(자본)/재산	돈(자본)/재산	자기계발	학벌/학력
9	운이나 요행	학벌/학력	돈(자본)/재산	돈(자본)/재산
10	학벌/학력	가정배경	가정배경	운이나 요행
11	가정배경	운이나 요행	학벌/학력	가정배경

위의 표와 같이 각 국가별이 아닌,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별로 한·중·일·미 청소년의 응답수준을 정리하면 <표 IV-36>과 같다. 중요도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만으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 표를 통해 세부 성공요인 항목에 대한 4개국 청소년의 의식을 대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전체 평균값이 높은 1순위 항목인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에 대해서는 중국청소년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2~4순위인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근면함과 성실성’, ‘좋은 성품’ 은 미국청소년이, 5순위인 ‘뚜렷한 목표의식’ 은 한국청소년이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6순위인 ‘인맥’ 은 중국청소년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자기계발’ 은 미국청소년에게서, ‘돈(자본)/재산’ 은 한국청소년, ‘운이나 요행’ 은 일본청소년, ‘학벌/학력’ 은 미국청소년, ‘가정배경’ 은 중국청소년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요약하면 한국청소년은 중·일·미 청소년보다 ‘뚜렷한 목표의식’ 과 ‘돈(자본)/재산’ 을 직업생활에서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고, 중국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과 ‘인맥’, ‘가정배경’ 을, 그리고 일본청소년은 ‘운이나 요행’ 에 대한 중요도 평균값이 타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으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근면함과 성실성’, ‘좋은 성품’, ‘자기계발’, ‘학벌/학력’ 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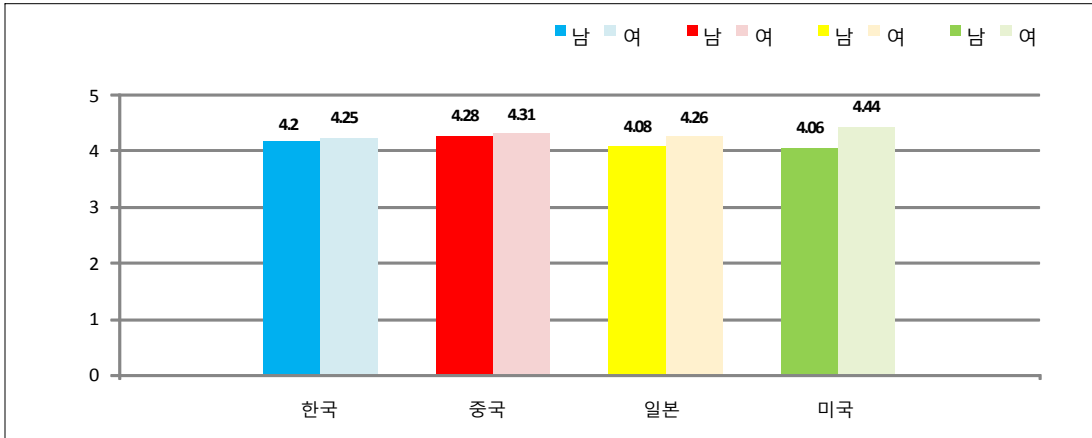
표 IV-36 직업성공요인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전체 중요도 순위

순위	내용	전체평균값 (SD)	4개국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청소년의 국가	
			국가	M(SD)
1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4.24(.771)	중국	4.30(.683)
2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4.20(.781)	미국	4.36(.860)
3	근면함과 성실성	4.16(.765)	미국	4.25(.891)
4	좋은 성품	4.16(.814)	미국	4.34(.882)
5	뚜렷한 목표의식	4.15(.803)	한국	4.21(.781)
6	인맥	4.11(.839)	중국	4.34(.677)
7	자기계발	4.09(.816)	미국	4.30(.881)
8	돈(자본)/재산	3.83(.917)	한국	3.91(.877)
9	운이나 요행	3.64(1.003)	일본	3.85(.886)
10	학벌/학력	3.57(1.027)	미국	4.02(1.030)
11	가정배경	3.30(1.086)	중국	3.58(.860)

(3) 중요도가 높은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

○ 한·중·일·미 여자청소년은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중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근면함과 성실성’ 등을 남자청소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함.

다양한 직업성공요인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들에 대해서 한·중·일·미 청소년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7>과 같다²¹⁾.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을 살펴보면, 한·일·미 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중요도가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았고, 한국과 일본 청소년 모두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집단에서 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직업생활 성공요인 중 ‘원만한 대인관계’에 대한 성별비교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여자청소년이, 한국의 경우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그리고 일본청소년은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편인 집단에서 직업에서의 성공요인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근면함과 성실성’ 의 경우는 한·중·일·미 모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일본청소년 중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한국과 일본청소년 중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집단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근면함과 성실성’ 과 동일한 평균값을 보인 ‘좋은 성품’ 은 성별차이

21) 본문에는 직업생활 성공요인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 일부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기타 직업생활 성공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는 <부표 36~38>참조

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일본과 미국의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좋은 성품을 더 중요한 직업에서의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표 IV-37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성별	남	M	4.20(.764)	4.28(.728)	4.08(.824)	4.06(1.013)	
		여	(SD)	4.25(.670)	4.31(.635)	4.26(.636)	4.44(.765)	
		t/F(Scheffé)		-1.328*	-.873	-4.648***	-8.122***	
	경제수준	낮은편	M	4.27(.714)	4.31(.672)	4.21(.748)	4.19(.979)	
		중간		(SD)	4.09(.771)	4.26(.681)	4.06(.782)	4.24(.956)
		높은편		4.25(.676)	4.31(.694)	4.21(.699)	4.31(.819)	
t/F(Scheffé)		7.459***(ab, bc)	.966	6.252**(ab, bc)	2.426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성별	남	M	4.15(.803)	4.25(.750)	3.98(.823)	4.21(.947)	
		여	(SD)	4.17(.681)	4.33(.631)	4.04(.717)	4.51(.735)	
		t/F(Scheffé)		-.416	-2.426*	-1.670	-6.768***	
	경제수준	낮은편	M	4.23(.748)	4.29(.703)	4.01(.828)	4.35(.885)	
		중간		(SD)	4.02(.782)	4.26(.686)	3.89(.750)	4.31(.937)
		높은편		4.17(.697)	4.31(.692)	4.09(.725)	4.41(.770)	
t/F(Scheffé)		8.994***(ab, bc)	.780	7.768***(bc)	1.543			
근면함과 성실성	성별	남	M	4.16(.754)	4.18(.735)	3.91(.803)	4.07(.995)	
		여	(SD)	4.24(.661)	4.26(.596)	4.04(.665)	4.44(.731)	
		t/F(Scheffé)		-2.002*	-2.211*	-3.428***	-8.084***	
	교육수준	고졸이하	M	4.21(.779)	4.22(.742)	3.89(.824)	4.20(.939)	
		전문대재·졸		(SD)	4.18(.814)	4.22(.679)	3.95(.639)	4.30(.906)
		4년제대재이상		4.20(.667)	4.22(.657)	4.01(.720)	4.26(.847)	
t/F(Scheffé)		.183	.010	3.026*	1.239			
경제수준	낮은편	M	4.27(.678)	4.23(.666)	4.04(.758)	4.23(.981)		
	중간		(SD)	4.08(.781)	4.20(.656)	3.86(.776)	4.27(.891)	
	높은편		4.19(.686)	4.23(.683)	4.00(.691)	4.27(.800)		
	t/F(Scheffé)		7.695***(ab)	.232	7.243***(ab, bc)	.409		
좋은 성품	성별	남	M	4.10(.793)	4.26(.748)	3.79(.892)	4.16(.971)	
		여	(SD)	4.15(.719)	4.33(.631)	3.98(.762)	4.52(.742)	
		t/F(Scheffé)		-1.091	-1.793	-4.329***	-8.040***	

*p<.05, **p<.01, ***p<.001

※ 주1 : 경제수준(a=낮은편, b=중간, c=높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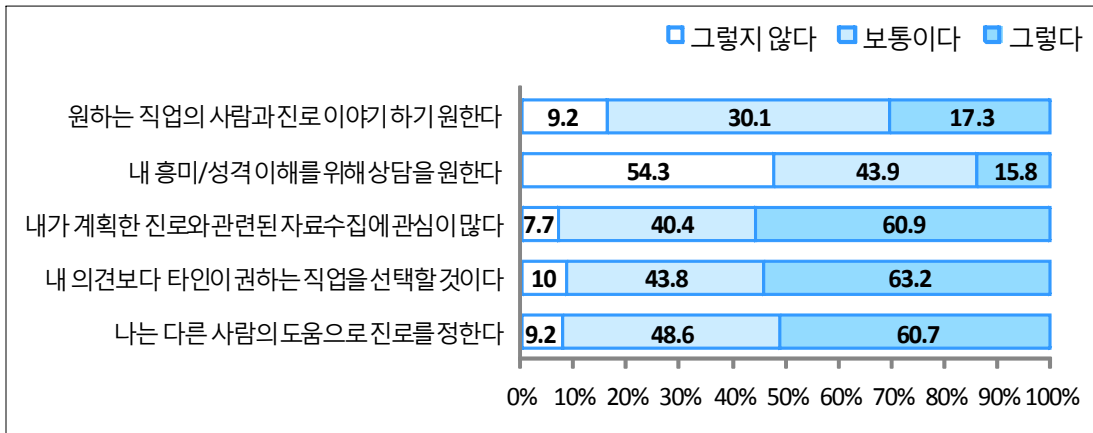
주2 : 통계적인 유의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부표 35> 참조

5. 진로 · 직업태도

1) 청소년의 진로 · 직업 태도

(1)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 태도

- 한국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하며, 스스로 계획한 진로 관련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았음. 또한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그렇지 않다' 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와 '별로 그렇지 않다' 의 합친 응답률, '그렇다' 는 '대체로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합친 응답률

【그림 IV-25】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 중 가장 높은/낮은 응답률 보인 항목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와 직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표 IV-38〉 참조), 한국청소년들의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대체로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을 보인 항목은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63.2%)였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60.9%)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60.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의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거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상담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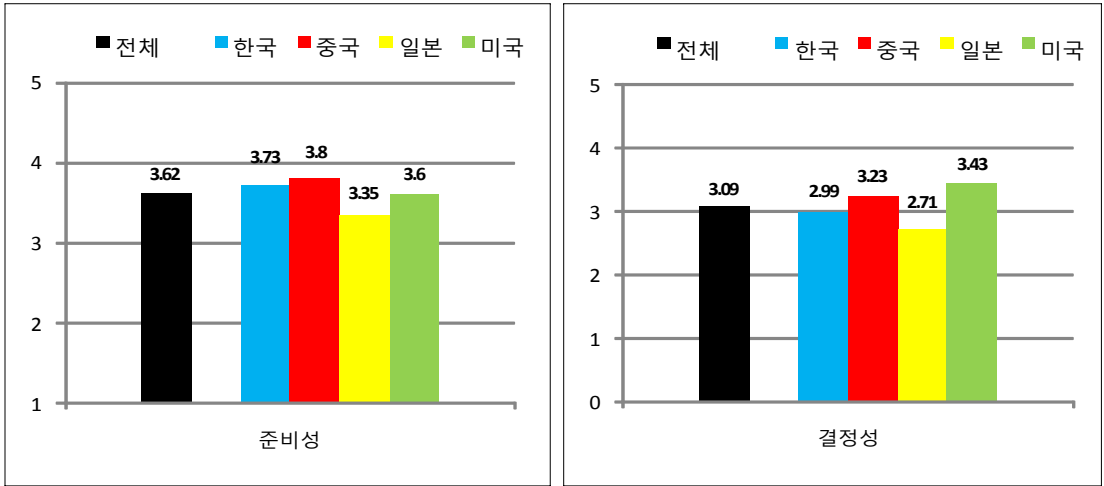
또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5.8%),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7.3%)로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진로·직업태도에 대한 한국청소년의 동의 정도** **단위: %(명)**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8.4	22.8	26.2	32.2	10.5	100(150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9.3	22.9	26.8	30.2	10.9	100(1502)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4.2	31.8	27.1	19.0	7.9	100(1502)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9	19.4	40.1	27.5	7.0	100(1502)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5.1	21.7	35.2	29.8	8.2	100(1502)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1.2	8.0	30.1	40.9	19.8	100(1502)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1.7	8.3	26.8	38.1	25.1	100(1502)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1.1	6.6	31.4	40.4	20.5	100(1502)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0.7	33.6	29.9	12.7	3.1	100(1502)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21.2	28.6	32.8	14.4	2.9	100(1502)

(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

○ 진로·직업 태도와 관련하여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에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미래에 대한 결정은 미국청소년, 향후 직업에서의 성공확신은 중국청소년, 그리고 진로선택의 독립성은 일본청소년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26】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준비성과 결정성(평균값) 비교

진로·직업 태도에 대한 10가지 세부항목은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4가지 진로·직업태도 분류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조사 결과는 <표 IV-39>과 【그림 IV-26】과 같다. 응답자 전체 청소년, 그리고 4개국 청소년 모두 준비성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 ‘준비성’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자신의 흥미나 성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거나, 자신의 진로관련해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청소년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조사대상 청소년들 모두 유사한 중요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성’은 중국청소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M=3.80), 그 다음은 한국청소년(M=3.73), 미국청소년(M=3.60), 일본청소년(M=3.35)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이미 결정을 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결정성’에 대해서는 미국청소년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M=3.43), 그 다음은 중국청소년(M=3.23), 한국청소년(M=2.99), 일본청소년(M=2.71) 순이었다.

‘확신성’과 ‘독립성’의 실제 구성 내용은 부정적인 의미여서, 높은 평균값이 실제로는 낮은

확신성이나 독립성을 의미한다. 향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직업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확신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는데, 특히 일본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자신감 부족이 높은 평균값을 보여, 실제 자신의 직업에서의 성공이나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한국청소년, 미국청소년, 중국청소년 순으로 평균값이 높아, 실제로는 한국청소년이 미·중 청소년보다 장래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다. 또한 직업선택이나 진로결정 시 타인 의지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청소년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 실제 진로선택이나 결정에 더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한국청소년, 미국청소년, 중국청소년 순으로 진로선택이나 결정에 더 독립적이었다. 중국청소년은 자신의 향후 직업에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가장 높았으나, 진로결정에서는 가장 독립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진로·직업태도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동의 정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결정성	·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3.09 (1.067)	2.99 (1.055)	3.23 (.868)	2.71 (1.098)	3.43 (1.092)	138.827*** (ab, ac, ad, bc, bd, cd)
	·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확신성	·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07 (.984)	3.12 (.914)	2.76 (.884)	3.34 (.947)	3.07 (1.090)	93.183*** (ab, ac, bc, bd, cd)
	·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준비성	·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3.62 (.831)	3.73 (.756)	3.80 (.625)	3.35 (.877)	3.60 (.957)	87.763*** (ac, ad, bc, bd, cd)
	·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독립성	·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58 (1.000)	2.47 (.958)	2.88 (.851)	2.42 (.922)	2.57 (1.176)	65.439*** (ab, ac, bc, bd, cd)
	·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주3 : ‘확신성’ 과 ‘독립성’ 의 경우 질문내용이 부정적이므로 높은 평균값은 낮은 확신성과 독립성을 의미함.

(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진로 결정성은 한국과 중국의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높은 부·모학력 및 직업, 높은 경제수준일 때 더 높았음. 확신성에 대한 평균값은 일본의 여자청소년이 높아, 실제로는 향후 직업에 대한 성공 확신이나 자신감이 가장 낮았음.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을 때 직업세계의 성공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이 더 낮게 나타남.
- 진로에 대한 준비성은 한국·일본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한·중·일 청소년에게서 더 높았음. 한·일·미 청소년 중에는 남자청소년이 진로·직업선택 시 타인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일본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에서 더 그런 경향을 보였음.

진로방향을 확고하게 설정하였음을 나타내는 ‘결정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국과 중국청소년이 다양한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IV-40 참조〉). 한·중·일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에게서 ‘결정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중국과 미국청소년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과 중국청소년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결정성’이 높았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청소년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 부·모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경우 ‘결정성’이 더 높았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한·중·미 청소년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향후 진로에 대한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표 IV-40 진로·직업태도/결정성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10(1.021)	3.33(.860)	2.78(1.079)	3.45(1.047)	
	여	(SD)	2.89(1.078)	3.12(.863)	2.63(1.114)	3.42(1.135)	
	t/F(Scheffé)		3.874***	4.850***	2.558*	.580	
학업 성적	하위권	M	2.84(1.090)	3.04(.997)	2.67(1.161)	3.35(1.094)	
	중위권		(SD)	3.00(1.019)	2.96(.825)	2.68(1.007)	3.39(1.067)
	상위권		3.06(1.065)	3.33(.843)	2.75(1.119)	3.52(1.081)	
	t/F(Scheffé)		4.332*(ac)	25.157***(ac, bc)	.780	2.318	
부 학력	고졸	M	2.90(1.057)	3.19(.866)	2.67(1.090)	3.42(1.120)	
	대졸		(SD)	3.12(1.046)	3.44(.825)	2.75(1.111)	3.45(1.041)
	t/F(Scheffé)		-3.599***	-4.825***	-1.293	-.449	

모 학력	고졸	M (SD)	2.95(1.066)	3.20(.860)	2.69(1.105)	3.37(1.114)
	대졸		3.15(1.028)	3.50(.832)	2.75(1.112)	3.54(1.033)
	t/F(Scheffé)		-3.126**	-5.162***	-1.029	-2.748**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13(1.094)	3.37(.835)	2.78(1.121)	3.50(1.072)
	일반사무/기술 등		2.94(1.038)	3.18(.897)	2.62(1.073)	3.43(1.075)
	농축수산/노무		2.90(.975)	3.15(.822)	2.79(1.149)	3.37(1.127)
	무직		2.93(1.016)	3.00(.941)	2.70(.956)	3.42(1.121)
	t/F(Scheffé)		3.903**(de)	8.674***(de, df, dg)	2.651*	.638
모 직업	가사	M (SD)	2.98(1.034)	3.15(.870)	2.68(1.110)	3.43(1.061)
	전문/경영/관리		3.19(1.113)	3.41(.888)	2.83(1.151)	3.59(1.092)
	일반사무/기술 등		2.98(1.064)	3.24(.857)	2.71(1.059)	3.40(1.115)
	농축수산/노무		2.79(.985)	3.13(.833)	2.64(1.191)	3.43(1.060)
	t/F(Scheffé)		3.139*(ik)	7.384***(hi, ik)	.983	1.719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2.83(1.098)	2.94(.895)	2.64(1.099)	3.20(1.156)
	중간		3.05(.996)	3.22(.815)	2.71(1.020)	3.46(1.039)
	높은편		3.18(1.002)	3.47(.805)	2.76(1.145)	3.64(1.026)
	t/F(Scheffé)		16.796***(lm, ln)	54.605***(lm, ln, mn)	1.771	22.468***(lm, ln, mn)

*p<.05, **p<.01, ***p<.001

※ 주1 : 학업성적(a= 하위권 b= 중위권 c= 상위권, 부 직업(d= 전문/경영/관리, e=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f= 농축수산/노무, g= 무직), 모 직업(h= 가사, i= 전문/경영/관리, j=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k= 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l=낮은편, m=중간, n=높은편)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나타나지 않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부표 39> 참조

향후 진로선택 및 성공에 대한 자신감 등에 관련된 ‘확신성’ 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모든 배경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IV-41> 참조).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또 부·모학력과 직업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실제로는 향후 자신이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거나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경우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낮거나 무직일 때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실제로는 자신의 직업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낮은 확신을 보였다. 미국청소년도 한·중 청소년과 같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실제 자신의 향후 직업세계에서의 성공 확신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확신성을 구성하고 있는 질문내용이 부정적이므로 높은 평균값이 실제로는 낮은 확신성을 의미함).

표 IV-41 진로·직업태도/확신성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2.97(.939)	2.73(.910)	3.31(.944)	3.07(1.094)
	여		3.27(.863)	2.79(.858)	3.37(.949)	3.06(1.087)
	t/F(Scheffé)		-6.423***	-1.334	-1.358	.110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SD)	3.22(.952)	2.72(.929)	3.34(1.039)	3.10(1.074)
	전문대재·졸		3.26(.853)	2.84(.817)	3.28(.908)	2.98(1.147)
	4년제대재이상		3.07(.919)	2.74(.898)	3.34(.921)	3.11(1.058)
	t/F(Scheffé)		6.157**(bc)	1.851	.194	2.033
학업 성적	하위권	M (SD)	3.32(.905)	3.15(.853)	3.35(1.026)	3.53(1.087)
	중위권		3.17(.877)	2.90(.788)	3.43(.870)	3.09(1.054)
	상위권		3.01(.928)	2.69(.896)	3.29(.936)	3.00(1.103)
	t/F(Scheffé)		12.757***(df, ef)	17.610***(de, df, ef)	2.570	9.094***(de, df)
부 학력	고졸	M (SD)	3.21(.868)	2.79(.873)	3.37(.929)	2.99(1.097)
	대졸		2.99(.951)	2.63(.926)	3.32(.934)	3.13(1.055)
	t/F(Scheffé)		4.366***	2.909**	.836	-2.333*
모 학력	고졸	M (SD)	3.19(.867)	2.80(.872)	3.37(.935)	3.06(1.087)
	대졸		2.93(.983)	2.57(.930)	3.31(.939)	3.06(1.079)
	t/F(Scheffé)		4.901***	3.846***	1.137	.137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2.97(.941)	2.71(.920)	3.24(.924)	3.07(1.073)
	일반사무/기술 등		3.15(.899)	2.80(.885)	3.42(.940)	3.03(1.092)
	농축수산/노무		3.32(.820)	2.72(.866)	3.42(1.025)	3.04(1.124)
	무직		3.35(.871)	2.94(.732)	3.43(.890)	3.18(1.062)
	t/F(Scheffé)		9.165***(gh, gi, gj)	2.664*	4.299**(gh)	1.207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3.31(.874)	2.83(.819)	3.37(1.019)	3.10(1.092)
	중간		3.08(.855)	2.74(.814)	3.31(.885)	3.00(1.094)
	높은편		2.89(.952)	2.71(.979)	3.33(.919)	3.09(1.084)
	t/F(Scheffé)		31.702***(kl, km, lm)	2.430	.533	1.147

*p<.05, **p<.01, ***p<.001

※ 주1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 하위권, e= 중위권, f= 상위권), 부 직업(g= 전문/경영/관리, h=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i= 농축수산/노무, j= 무직), 경제수준(k=낮은편, l=중간, m=높은편)

주2 : '확신성'의 질문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평균값은 실제로는 향후 진로선택과 성공에 대한 낮은 확신을 의미함.

진로에 대한 준비정도와 관심 등을 보여주는 '준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국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표 IV-42〉참조). 특히 미국청소년의 경우 어떠한 변인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향후 진로에 대한 '준비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청소년의 경우 성별로 차이를 보여 여자청소년의 ‘준비성’ 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국과 일본청소년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준비성’ 이 높았다. 또한 한·중·일 청소년에게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더 ‘준비성’ 이 높았다. 부·모학력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중국청소년의 경우 부·모 학력이 높고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준비성’ 이 더 높았고, 일본청소년의 경우는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더 ‘준비성’ 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준비성’ 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한국과 중국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그리고 중국은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 때 ‘준비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진로·직업태도/준비성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68(.771)	2.78(.632)	3.28(.853)	3.56(.922)
	여		3.79(.736)	3.82(.618)	3.43(.894)	3.64(.991)
	t/F(Scheffé)		-2.830**	-1.181	-3.471***	-1.685
학업성적	하위권	M (SD)	3.61(.792)	3.73(.596)	3.25(.976)	3.64(.973)
	중위권		3.75(.729)	3.67(.624)	3.34(.853)	3.59(.905)
	상위권		3.78(.752)	3.85(.607)	3.42(.829)	3.63(.951)
	t/F(Scheffé)		5.396**(ab, ac)	10.947***(bc)	4.813**(ac)	.209
경제수준	낮은편	M (SD)	3.80(.767)	3.75(.633)	3.34(.929)	3.55(.978)
	중간		3.60(.731)	3.76(.610)	3.31(.854)	3.60(.930)
	높은편		3.74(.745)	3.86(.624)	3.39(.843)	3.64(.959)
	t/F(Scheffé)		8.333***(de, ef)	5.360**(df, ef)	1.179	1.021

*p<.05, **p<.01, ***p<.001

※ 주1 : 고등학교 학업성적(a= 하위권, b= 중위권, c= 상위권), 경제수준(d=낮은편, e=중간, f=높은편)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교육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 등에 따른 차이는 <부표 40> 참조

자신이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타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독립성’ 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경제수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배경변인이 많지 않았다(표 IV-43)참조). 성별로는 한·일·미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진로·직업선택 시 타인을 의지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실제로는 더 낮은 독립성을 보였다.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에게서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과 미국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그리고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진로·직업선택 시 부모나 타인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립성 질문이 부정적이므로 높은 평균값이 실제로는 낮은 독립성을 보여줌).

표 IV-43 진로·직업태도/독립성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2.52(1.014)	2.92(.871)	2.54(.925)	2.83(1.164)
	여	2.41(.897)	2.84(.830)	2.30(.905)	2.31(1.133)
	t/F(Scheffé)	2.359*	1.808	5.097***	8.688***
경제수준	낮은편	2.37(.935)	2.78(.794)	2.33(.970)	2.32(1.110)
	중간	2.60(.897)	2.84(.832)	2.55(.896)	2.63(1.180)
	높은편	2.50(1.019)	2.99(.899)	2.42(.887)	2.75(1.197)
	t/F(Scheffé)	7.633***(ab)	9.141***(ac, bc)	6.687***(ab)	18.970***(ab, ac)

*p<.05, **p<.01, ***p<.001

※ 주1 : 경제수준(a=낮은편, b=중간, c=높은편)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교육수준, 학업성적, 부모학력, 부모직업 등에 따른 차이는 <부표 40> 참조

주3 : '독립성' 의 질문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평균값은 실제로는 진로·직업선택에 있어 낮은 독립성을 의미함.

2)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진로지도/심리적 요인

(1) 진로·직업 태도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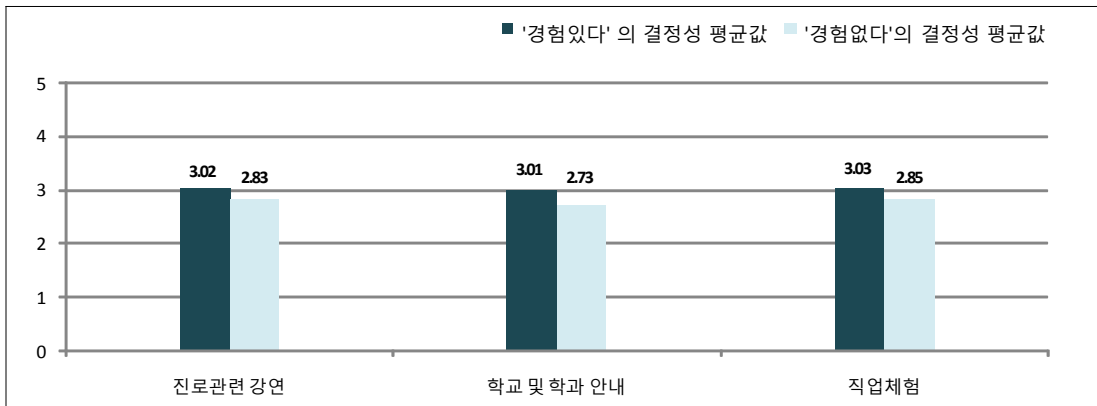
○ 미래의 진로에 대한 결정성은 고교 재학 시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또한 대체로 진로지도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확신성이 더 낮았음.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가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지도 경험여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로·직업 태도의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에 대한 진로지도 세부내용의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국청소년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보면²²⁾, 진로·직업 태도의 각 항목은 일부 진로지도의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어떤 진로지도 경험이 진로·직업 태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도록

22) 본문에는 한국청소년의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항목들만 통계표를 제시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표 41>참조

한다.

진로·직업 태도의 구성 요소에 따라 분석하면, 【그림 IV-27】 과 <표 IV-44>에서 보듯이 ‘결정성’ 은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중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 을 경험한 청소년은 이러한 진로지도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림 IV-27】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결정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이 세 가지 진로지도 경험은 한국청소년에게서 뿐 아니라 중·일·미 청소년에게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세 가지 모든 진로지도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태도 결정성은 미국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국청소년, 한국청소년, 일본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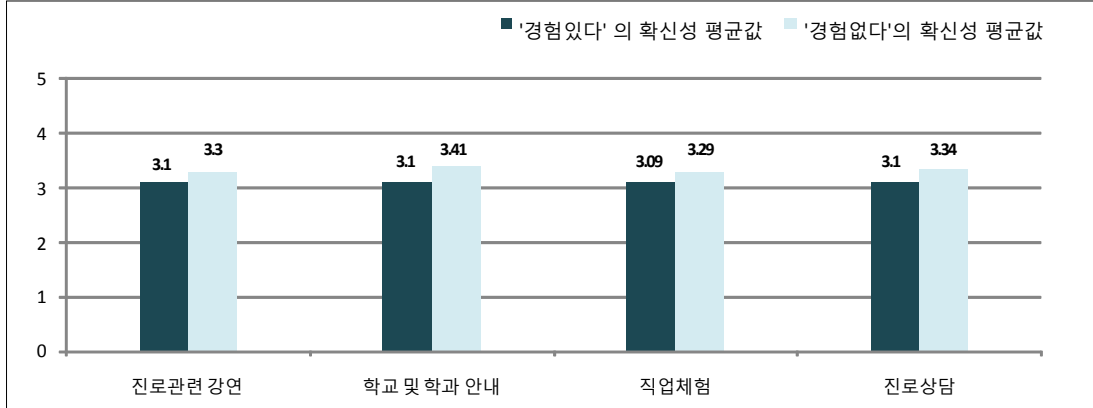
표 IV-44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결정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M (SD)				
	있다	3.02(1.033)	3.28(.854)	2.75(1.084)	3.52(1.052)
	없다	2.83(1.206)	2.78(.867)	2.42(1.175)	3.20(1.238)
t		2.199*	6.357***	3.746***	3.567***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3.01(1.034)	3.25(.862)	2.74(1.092)	3.51(1.055)
	없다	2.73(1.306)	2.69(.832)	2.33(1.136)	3.11(1.285)
t		2.563**	4.404***	3.747***	3.810***
직업체험	M (SD)				
	있다	3.03(1.011)	3.27(.857)	2.75(1.071)	3.51(1.066)
	없다	2.85(1.216)	2.95(.892)	2.53(1.198)	3.11(1.178)
t		2.638**	4.434***	3.050**	3.865***

*p<.05, **p<.01, ***p<.001

※ 주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41> 참조

진로·직업 태도 중 확신성은 진로지도 경험 중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 '진로상담'의 경험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IV-28】와 <표 IV-45> 참조).



※ '확신성'의 질문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경험있다'의 낮은 평균값은 실제로는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향후 성공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나타냄.

【그림 IV-28】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확신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표 IV-45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확신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M (SD)				
	있다	3.10(.903)	2.76(.892)	3.32(.927)	3.07(1.093)
	없다	3.30(.977)	2.76(.892)	3.44(1.060)	2.96(1.116)
t		-2.628**	-.530	-1.589	1.261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3.10(.900)	2.76(.886)	3.34(.938)	3.06(1.093)
	없다	3.41(1.046)	2.87(.811)	3.36(1.025)	3.00(1.135)
t		-3.199***	-.879	-.223	.560
직업체험	M (SD)				
	있다	3.09(.982)	2.75(.885)	3.32(.936)	3.04(1.104)
	없다	3.29(.982)	2.83(.869)	3.42(.977)	3.25(.999)
t		-3.345***	-1.111	-1.559	-1.996*
진로상담	M (SD)				
	있다	3.10(.896)	2.75(.891)	3.34(.936)	3.07(1.101)
	없다	3.34(1.046)	2.84(.812)	3.24(1.087)	2.98(1.075)
t		-2.914**	-1.217	.937	1.096

*p<.05, **p<.01, ***p<.001

※ 주1 : '확신성'의 질문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없다'의 높은 평균값은 실제로는 낮은 확신성을 의미함.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41) 참조

이러한 진로지도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실제로는 낮은 확신성을 나타냈으며, 진로지도 경험이 진로·직업 태도 중 확신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5>에서 보듯이 한·중·일·미 청소년 중 유독 한국청소년에게서만 진로지도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흥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진로·직업 태도 중 ‘준비성’ 은 5가지 진로지도 경험 중 ‘직업체험’ 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중·일·미 청소년들과는 달리 오히려 직업체험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준비성’ 이 낮게 나타나 예상 밖의 결과를 보였다.

표 IV-46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준비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직업체험	M (SD)	있다	3.70(.745)	3.81(.616)	3.36(.863)	3.63(.936)
		없다	3.86(.780)	3.78(.662)	3.33(.925)	3.42(1.001)
	t	-3.200***	.577	.560	2.253*	

*p<.05, **p<.01, ***p<.001

※ 주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41> 참조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 중 진로선택 및 결정에 있어 부모님이나 타인의지나 도움에 대한 내용인 ‘독립성’ 은 진로지도 항목 중 ‘진로관련 강연’ 과 ‘직업체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지도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타인이 원하는 직업 선택 또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높은 평균값을 보여, 실제로는 낮은 독립성을 보였다.

표 IV-47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독립성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M (SD)	있다	2.48(.962)	2.90(.857)	2.43(.912)	2.61(1.165)
		없다	2.32(.927)	2.68(.788)	2.37(.977)	2.11(1.082)
	t	2.061*	2.713**	.838	5.238***	
직업체험	M (SD)	있다	2.52(.950)	2.90(.854)	2.47(.919)	2.57(1.173)
		없다	2.24(.970)	2.74(.834)	2.23(.898)	2.37(1.079)
	t	4.429***	2.231*	3.985***	1.722	

*p<.05, **p<.01, ***p<.001

※ 주1 : ‘독립성’ 의 질문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없다’ 의 높은 평균값은 실제로는 낮은 독립성을 의미함.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부표 41> 참조

(2) 진로·직업 태도와 학교 진로지도 만족도/가정의 진로지도 정도 상관관계

○ 진로·직업 태도는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와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가정의 진로지도 정도는 진로·직업 태도 중 ‘결정성’ 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가 학교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와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의 일부 요소가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세부내용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긴 했으나, 그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항목은 진로·직업 태도 중 ‘결정성’ 과 ‘진로관련 검사’ 였다($r=.156$).

표 IV-48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진로·직업태도	준비성	.113***	.061*	-.018	.036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직업태도	결정성	.131***	.184***	-.038	.212***
		진로관련 검사			
진로·직업태도	결정성	.156***	.121***	.020	.216***
	확신성	-.057*	-.032	-.010	-.127***
	준비성	.068**	.066*	.003	.024
		진로상담			
진로·직업태도	결정성	.093***	.151***	.052*	.162***
	독립성	.057*	.014	.001	-.010

* $p<.05$, ** $p<.01$, *** $p<.001$.

※ 주1 : 확신성과 독립성은 내용이 부정적인 의미이므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남.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들은 <부표 42> 참조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의 정도가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9>과 같다. 가정에서의 모든 진로관련 대화는 진로·직업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중 ‘결정성’ 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대화 정도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관련 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9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진로 · 직업태도	결정성	.224***	.282***	.157***	.161***
	확신성	-.160***	-.022	-.097***	-.011
	준비성	.105***	.151***	.073**	.155***
	독립성	.060*	.086***	.085**	.038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진로 · 직업태도	결정성	.287***	.255***	.147***	.194***
	확신성	-.208***	-.028	-.053*	-.045
	준비성	.093***	.163***	.122***	.171***
	독립성	.066*	.093***	.037	.032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진로 · 직업태도	결정성	.234***	.214***	.145***	.199***
	확신성	-.131***	-.092***	-.065*	-.059*
	준비성	.170***	.206***	.163***	.210***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진로 · 직업태도	결정성	.214***	.258***	.166***	.190***
	확신성	-.125***	-.014	-.102***	-.017
	준비성	.098***	.134***	.079**	.129***
	독립성	.120***	.131***	.067**	.132***

*p<.05, **p<.01, ***p<.001.

※ 주1 : 확신성과 독립성은 내용이 부정적이므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남.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들은 <부표 43> 참조

(3) 진로·직업 태도와 심리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 진로·직업 태도 중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은 진로·직업 태도 중 준비성을 제외한,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에서 자아존중감과 꽤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의 직업과 진로결정, 그리고 향후 직업에서의 성공과 자신감, 또 진로결정 시 타인에게 털 의지하려는 독립성에 있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예측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일·미 청소년에게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관관계 계수는 결정성과 확신성에서 더 높았다.

이러한 진로·직업 태도가 자아통제감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4가지 모든 세부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준비성은 매우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확신성과 독립성은 자아통제감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통제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진로·직업 태도의 높은 결정성과 확신성, 독립성과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V-50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아존중감			
진로·직업 태도	결정성	.339***	.370***	.339***	.247***
	확신성	-.543***	-.311**	-.409***	-.412***
	준비성	.046	.187***	.018	-.038
	독립성	-.205***	-.160***	-.128***	-.174***
		자아통제감			
진로·직업 태도	결정성	.240***	.325***	.214***	.181***
	확신성	-.511***	-.382***	-.312***	-.392***
	준비성	.068**	.151***	.010	-.050
	독립성	-.316***	-.274***	-.236***	-.22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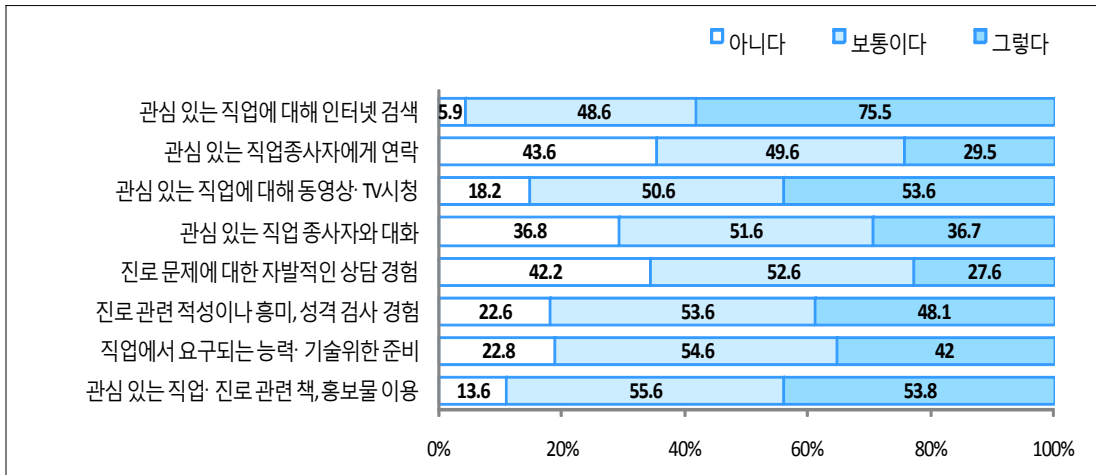
※ 주 : 확신성과 독립성은 내용이 부정적이므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남.

6. 진로준비행동

1)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1)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 한국청소년들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검색이나 책, 동영상, TV프로그램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 받거나 관심 있는 직종의 종사자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아니다' 는 '전혀아니다' 와 '아니다' 의 합친 응답률, '그렇다' 는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의 합친 응답률

【그림 IV-29】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청소년들이 어떠한 진로준비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V-51>, 【그림 IV-29】와 같다. 한국청소년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에 75.5%의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을 보여, 인터넷을 통한 관심 있는 직업 검색이 가장 일반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50%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53.8%)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53.6%)로서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책이나 동영상 및 TV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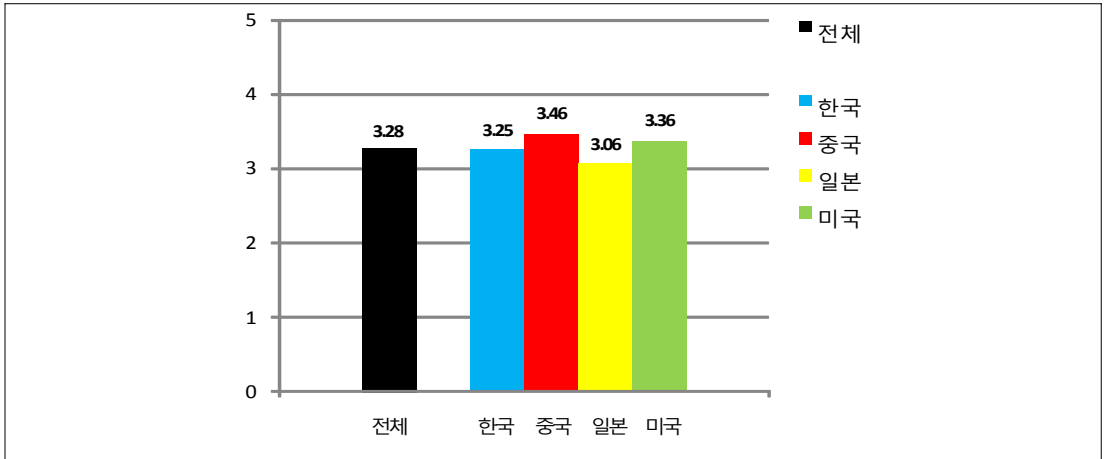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로서 긍정적인 응답이 27.6%에 불과해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서도 29.5%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앞서 진로·직업 태도의 조사항목에서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는 내용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관심 있는 직업의 종사자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표 IV-51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세부항목별 응답 단위: %(명)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1.1	4.8	18.6	47.7	27.8	100(150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	14.2	29.4	26.8	20.8	8.7	100(150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3.6	14.6	28.2	40.2	13.4	100(150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12.3	24.5	26.6	27.4	9.3	100(1502)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12.4	29.8	30.2	21.3	6.3	100(1502)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6.8	15.8	29.4	37.5	10.6	100(1502)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등) 하고 있다.	5.2	17.6	35.2	31.5	10.5	100(150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3.7	9.9	32.6	41.5	12.3	100(1502)

(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비교

○ 전체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청소년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한국청소년이었으나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일본청소년의 응답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IV-30】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평균값) 비교

진로준비행동의 세부적인 항목을 모두 합한 평균값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IV-52>과 같이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청소년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M=3.46), 그 다음은 미국청소년(M=3.36)이었으며, 한국청소년(M=3.25)은 그 다음으로 전체 평균값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 일본청소년(M=3.06)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 평균값을 보였다.

표 IV-5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진로준비행동	3.28 (.751)	3.25 (.692)	3.46 (.644)	3.06 (.796)	3.36 (.802)	80.558*** (ab, ac, ad, bc, bd, cd)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진로준비행동의 세부항목들에 대해 한·중·일·미 전체 청소년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표 IV-53>와 같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4개국 청소년 모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 검색에 한국청소년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으며(M=3.96), 일본청소년(M=3.88), 미국청소년(M=3.80), 중국청소년(M=3.77)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에게서 낮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들을 보면, 다른 국가 청소년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로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중·일·미 청소년보다 더 낮은 평균값을 보여주었으며, 관심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경험은 중국과 미국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한국청소년 지원에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53 진로준비행동 세부항목에 대한 한·중·일·미 청소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3.85 (.944)	3.96 (.870)	3.77 (.803)	3.88 (1.001)	3.80 (.069)	12.122*** (ab, ad, bc)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	2.96 (1.201)	2.80 (1.176)	3.35 (.974)	2.53 (1.242)	3.18 (1.219)	152.931*** (ab, ac, ad, bc, bd, cd)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3.34 (1.100)	3.45 (1.012)	3.54 (.907)	3.15 (1.167)	3.23 (1.235)	43.506*** (ac, ab, bc, bd)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3.09 (1.186)	2.97 (1.174)	3.15 (1.026)	2.92 (1.245)	3.33 (1.242)	37.056*** (ab, ad, bc, bd, cd)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2.95 (1.136)	2.79 (1.103)	3.18 (1.001)	2.89 (1.163)	2.95 (1.229)	32.232*** (ab, ad, bc, bd)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3.22 (1.128)	3.29 (1.069)	3.39 (.970)	3.05 (1.173)	3.16 (1.252)	27.176*** (ab, ac, bc, cd)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등) 하고 있다.	3.34 (1.114)	3.25 (1.029)	3.61 (.933)	2.85 (1.182)	3.66 (1.103)	188.148*** (ab, ac, ad, bc, cd)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3.50 (1.044)	3.49 (.959)	3.67 (.872)	3.23 (1.131)	3.60 (1.133)	53.522*** (ab, ac, ad, bc,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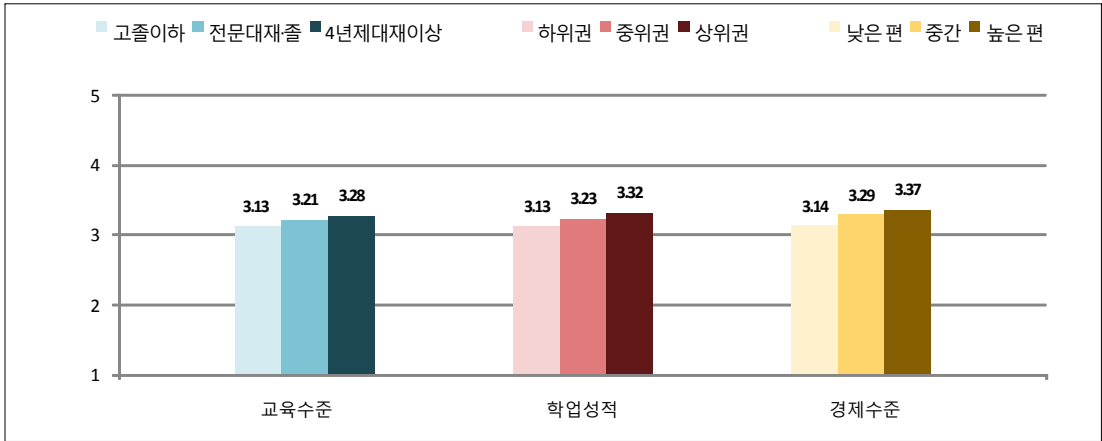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교육수준과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1】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다양한 변인별로 4개국 청소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한국을 제외한 중·일·미 청소년에게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국과 미국은 남자청소년이, 일본은 여자청소년의 평균값이 높았다. 교육수준과 고교재학 시 학업성적별로 보면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평균치가 높았다.

부·모학력수준과 관련해서 한·중·미 청소년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부·모학력이 대졸일 때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응답치가 더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한·중·일 청소년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중·일·미 청소년에게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4개국 청소년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3.28(.719))	M(3.51(.640))	M(3.00(.800))	M(3.42(.785))
	여	M(3.22(.663))	M(3.41(.645))	M(3.12(.788))	M(3.31(.817))
	t/F(Scheffé)	1.614	3.041**	-2.854**	2.532*
교육 수준	고졸이하	M(3.13(.771))	M(3.32(.711))	M(2.94(.856))	M(3.21(.924))
	전문대재·졸	M(3.21(.689))	M(3.37(.656))	M(3.14(.751))	M(3.38(.799))
	4년제대재이상	M(3.28(.677))	M(3.51(.626))	M(3.10(.777))	M(3.46(.692))
	t/F(Scheffé)	4.055*(ac)	9.099***(ac, bc)	6.957***(ac)	12.760***(ab, ac)
학업 성적	하위권	M(3.13(.688))	M(3.31(.717))	M(2.95(.851))	M(3.27(.682))
	중위권	M(3.23(.644))	M(3.29(.606))	M(3.06(.751))	M(3.27(.762))
	상위권	M(3.32(.708))	M(3.53(.629))	M(3.13(.776))	M(3.44(.784))
	t/F(Scheffé)	8.327***(df)	21.075***(df, ef)	6.703***(df)	6.457**(ef)
부 학력	고졸	M(3.21(.689))	M(3.44(.619))	M(3.10(.775))	M(3.34(.832))
	대졸	M(3.34(.675))	M(3.61(.679))	M(3.10(.800))	M(3.45(.734))
	t/F(Scheffé)	-3.390***	-4.501***	-.010	-2.461*
모 학력	고졸	M(3.23(.695))	M(3.44(.622))	M(3.09(.782))	M(3.35(.823))
	대졸	M(3.37(.650))	M(3.66(.689))	M(3.11(.800))	M(3.45(.745))
	t/F(Scheffé)	-3.409***	-4.964***	-.485	-2.162*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3.34(.692))	M(3.59(.680))	M(3.15(.807))	M(3.46(.783))
	일반사무/기술/판매 등	M(3.22(.684))	M(3.39(.643))	M(3.02(.772))	M(3.34(.791))
	농축수산/노무	M(3.15(.630))	M(3.42(.549))	M(2.96(.812))	M(3.34(.837))
	무직	M(3.18(.739))	M(3.34(.683))	M(3.05(.854))	M(3.32(.831))
	t/F(Scheffé)	4.918**(gh, gi)	10.740*** (gh, gi, gj)	3.857**(gh)	2.094
모 직업	가사	M(3.26(.685))	M(3.38(.618))	M(3.01(.827))	M(3.36(.846))
	전문/경영/관리	M(3.32(.708))	M(3.63(.684))	M(3.24(.762))	M(3.50(.785))
	일반사무/기술/판매 등	M(3.23(.687))	M(3.46(.662))	M(3.09(.770))	M(3.34(.769))
	농축수산/노무	M(3.11(.680))	M(3.40(.587))	M(2.88(.729))	M(3.26(.790))
	t/F(Scheffé)	1.861	10.413***(kl, lm, ln)	5.525***(kl, ln)	3.016*
경제 수준	낮은편	M(3.14(.695))	M(3.29(.615))	M(2.99(.785))	M(3.20(.771))
	중간	M(3.29(.687))	M(3.42(.597))	M(2.98(.754))	M(3.36(.813))
	높은편	M(3.37(.669))	M(3.63(.658))	M(3.18(.819))	M(3.52(.795))
	t/F(Scheffé)	16.658***(op, oq)	42.374***(op, oq, pq)	10.679***(oq, pq)	21.008***(op, oq, pq)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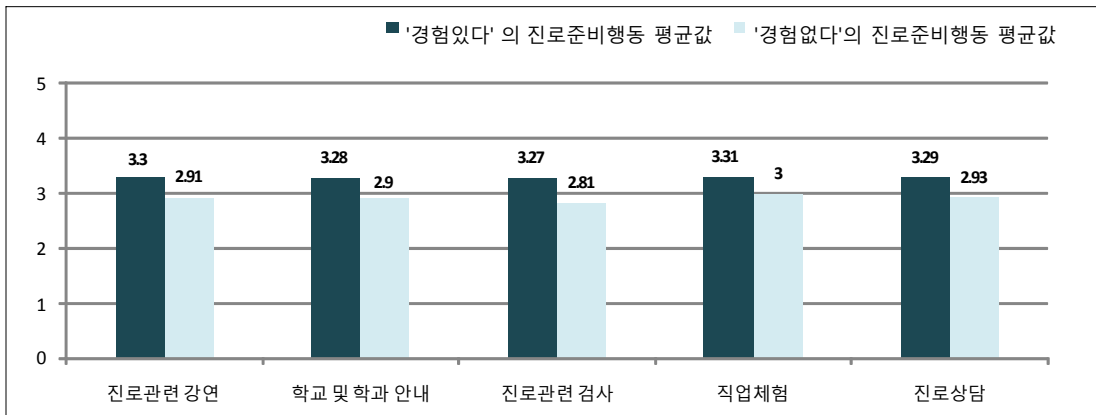
※ 주1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 하위권, e= 중위권, f= 상위권), 부 직업(g= 전문/경영/관리, h=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i= 농축수산/노무, j= 무직), 모 직업(k= 가사, l= 전문/경영/관리, m=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n= 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o=낮은편, p=중간, q=높은편)

주2 : 직업준비행동의 세부항목 중 평균값이 높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는 <부표 44~46> 참조.

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지도/심리적 요인

(1)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 고교재학 시 다양한 진로지도(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값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남.



【그림 IV-32】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지도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표 IV-56>과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모든 진로지도 항목의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을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값이 이러한 진로지도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표 IV-55>, 【그림 IV-32】 참조).

중·일·미 청소년의 조사결과도 한국청소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각 국가별로는 진로지도의 다섯 가지 항목 모두에서 중국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미국청소년, 한국청소년, 일본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5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진로준비행동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M(SD)	있다	3.30(.667)	3.50(.634)	3.11(.776)	3.45(.739)
		없다	2.91(.754)	3.11(.623)	2.76(.835)	2.98(.922)
	t		6.892***	6.705***	5.604***	7.347***
학교 및 학과 안내	M(SD)	있다	3.28(.670)	3.47(.640)	3.10(.780)	3.44(.739)
		없다	2.90(.833)	3.12(.646)	2.68(.836)	2.85(.972)
	t		5.229***	3.714***	5.308***	7.928***
진로관련 검사	M(SD)	있다	3.27(.673)	3.49(.634)	3.10(.778)	3.45(.743)
		없다	2.81(.913)	3.18(.690)	2.76(.875)	2.98(.892)
	t		4.868***	4.772***	4.598***	7.579***
직업체험	M(SD)	있다	3.31(.665)	3.50(.626)	3.12(.770)	3.43(.757)
		없다	3.00(.724)	3.16(.696)	2.83(.839)	2.92(.862)
	t		6.997***	6.481***	5.636***	6.929***
진로상담	M(SD)	있다	3.29(.671)	3.51(.622)	3.09(.774)	3.47(.744)
		없다	2.93(.757)	3.09(.697)	2.64(.983)	3.02(.843)
	t		6.045***	7.706***	4.883***	8.077***

*p<.05, **p<.01, ***p<.001

(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 진로지도 만족도/가정의 진로지도 정도 상관관계

-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 진로지도의 만족도와는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임.
-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잦은 대화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56>에서 보듯이 학교에서의 5가지 진로지도 중 ‘진로관련 강연’ 과 ‘진로체험’ 을 제외한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진로상담’ 과의 상관관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 상관정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56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준비행동	.080**	.217***	-.055*	.130***
진로관련 검사				
진로준비행동	.147***	.153***	-.031	.083**
진로상담				
진로준비행동	.058*	.127***	.002	.062*

*p<.05, **p<.01, ***p<.001

※ 주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진로관련 강연' 과 '직업체험' 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부표 47) 참조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은 가정에서의 모든 진로관련대화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IV-57〉참조).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가정에서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 직업·진학 등 진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 등과 관련된 잦은 대화는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과 상당히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진로준비행동	.339***	.358***	.227***	.217***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진로준비행동	.387***	.366***	.271***	.260***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진로준비행동	.322***	.310***	.282***	.270***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진로준비행동	.294***	.366***	.268***	.311***

*p<.05, **p<.01, ***p<.001

(3)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심리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상당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r=.268$), 자아통제감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91$).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 수준은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잘 하는 것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IV-58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아존중감			
진로준비행동	.268***	.334***	.254***	.166***
자아통제감				
진로준비행동	.191***	.257***	-.236***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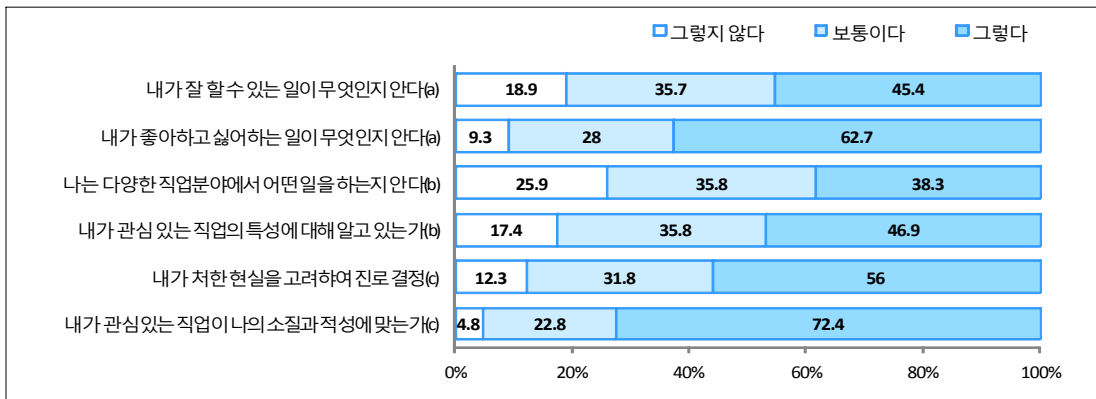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진로 · 직업 역량

1) 청소년의 진로 · 직업역량

(1)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역량

- 한국청소년은 진로·직업 역량의 세부항목 중,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주1 : '그렇지 않다' 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의 합친 응답률, '그렇다' 는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의 합친 응답률
 주2 : 진로 · 직업 역량의 세 가지 분류(a=자기이해, b=진로직업의식, c=합리적인사결정) 중 가장 높은 응답률과 가장 낮은 응답률 기준

【그림 IV-33】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기이해', '진로 · 직업의식', '합리적 의사결정' 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합리적 의사결정' 과 관련된 세부항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그렇다' 와 '매우그렇다')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합리적 의사결정' 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세부항목은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로 72.4%의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로 절반이 약간 넘는 56%였다. '자기이해' 와 관련해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2.7%)였으나, 흥미롭게도 가장 낮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5.4%) 였다.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긍정적 응답률을 나타낸 '진로 ·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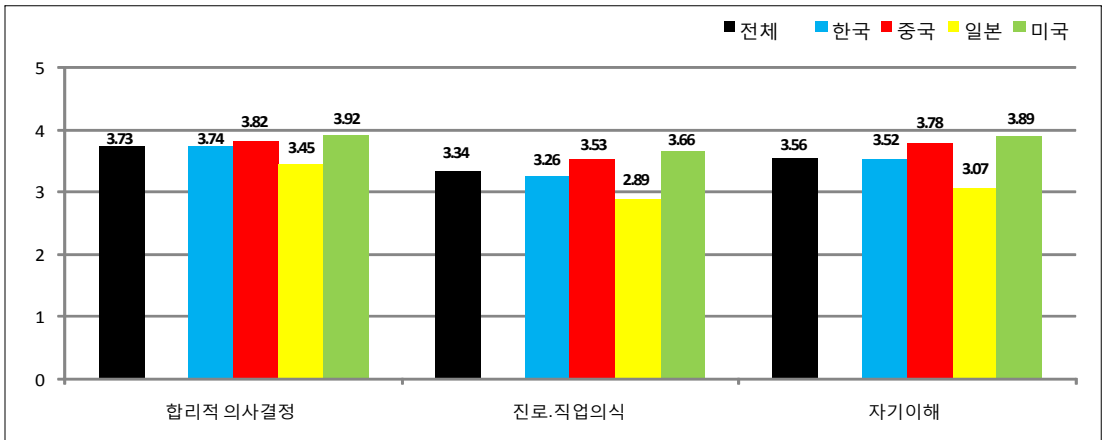
지식' 중에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가 46.9%로 가장 높았고,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는 가장 낮은 응답률인 38.3%로 나타났다.

표 IV-59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세부항목별 응답 단위: %(명)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자기 이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5	15.4	35.7	36.7	8.7	100(150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0	7.3	28.0	48.7	14.0	100(1502)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사회적 지위, 임금수준, 근무시간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3	7.8	30.6	45.7	14.6	100(1502)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8	12.4	31.8	41.9	11.2	100(1502)
진로 직업 의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2.5	14.5	37.7	36.0	9.4	100(1502)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3	20.0	35.4	33.4	7.9	100(1502)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4.5	21.4	35.8	30.8	7.5	100(1502)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4.0	19.1	37.6	31.7	7.6	100(1502)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2.6	14.8	35.8	37.4	9.5	100(1502)
합리적 의사 결정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1.5	6.9	31.3	43.8	16.5	100(1502)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1.4	8.5	34.0	45.4	10.7	100(1502)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2.0	10.3	31.8	44.6	11.4	100(1502)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0.7	4.5	27.7	51.7	15.4	100(1502)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0.9	4.6	24.4	50.3	19.9	100(1502)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0.7	4.1	22.8	51.4	21.0	100(1502)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1.0	4.8	30.9	47.9	15.4	100(1502)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1.0	4.3	27.6	47.8	19.4	100(1502)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0.5	2.5	28.4	47.8	20.8	100(1502)

(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비교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진로·직업 역량 중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미·중·한·일 청소년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임.



【그림 IV-34】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평균값) 비교

진로·직업 역량의 세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4개국 조사대상 청소년의 전체 응답을 살펴본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미국청소년의 ‘합리적 의사결정’ 평균값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M=3.92), 중국청소년(M=3.82), 한국청소년(M=3.74), 일본청소년(M=3.45)순이었다. 그 외 ‘자기이해’와 ‘진로·직업지식’과 관련해서도 미·중·한·일 청소년 순으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표 IV-60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자기이해	3.56(.801)	3.52(.729)	3.78(.622)	3.07(.766)	3.89(.813)	370.436*** (ab, ac, ad, bc, bd, cd)
진로·직업 지식	3.34(.828)	3.26(.785)	3.53(.689)	2.89(.792)	3.66(.820)	292.231*** (ab, ac, ad, bc, bd, cd)
합리적 의사결정	3.73(.642)	3.74(.578)	3.82(.565)	3.45(.661)	3.92(.657)	165.206*** (ab, ac, ad, bc, bd, cd)

*p<.05, **p<.01, ***p<.001

※ 주1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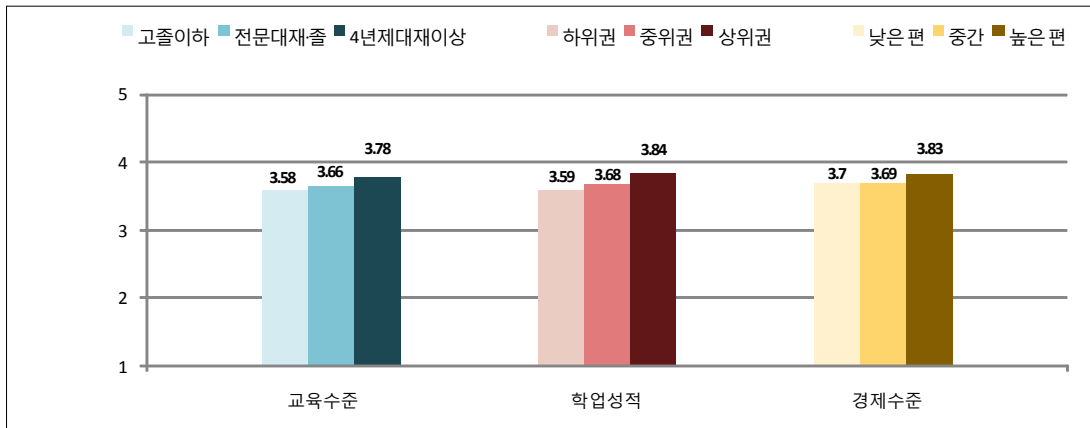
주2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한·중·일·미 청소년은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진로·직업 역량이 높았음.
한·중 청소년은 성별, 교육수준, 부모 학력과 직업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임.

진로·직업 역량의 ‘자기이해’, ‘진로·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V-61〉, 〈부표 48~50〉 참조).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고교재학 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직업 역량이 높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청소년은 ‘자기이해’, ‘진로·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배경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교육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또 부모 학력이 높고 부모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여, 이러한 배경변인을 가진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직업 역량의 세 가지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표 IV-61〉과 같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개인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변인들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35】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합리적 의사결정 : 교육성적, 학업성적, 경제수준별 비교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한·중·일 청소년에게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한·중 청소년은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또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때, 마지막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편인 집단에서 직업·진로역량

중 본인의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한국청소년의 교육수준과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보면 【그림 IV-35】와 같다.

표 IV-61 진로·직업역량/합리적 의사결정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교육수준	고졸이하	3.58(.634)	3.70(.707)	3.32(.754)	3.88(.703)
	전문대재·졸	3.66(.630)	3.74(.606)	3.32(.607)	3.94(.702)
	4년제대재이상	3.78(.547)	3.87(.525)	3.49(.629)	3.93(.589)
	t/F(Scheffé)	11.761***(ac, bc)	10.428***(ac, bc)	11.153***(ac, bc)	.969
학업성적	하위권	3.59(.615)	3.67(.588)	3.36(.700)	3.76(.723)
	중위권	3.68(.580)	3.65(.585)	3.39(.663)	3.84(.668)
	상위권	3.84(.532)	3.90(.526)	3.53(.627)	3.98(.621)
	t/F(Scheffé)	24.233***(de, df, ef)	30.792***(df, ef)	11.111***(df, ef)	8.545***(df, ef)
부학력	고졸	3.73(.564)	3.80(.562)	3.47(.659)	3.96(.651)
	대졸	3.80(.545)	3.93(.580)	3.49(.632)	3.92(.620)
	t/F(Scheffé)	-2.258*	-3.614***	-.554	.947
모학력	고졸	3.73(.574)	3.81(.567)	3.49(.642)	3.96(.643)
	대졸	3.83(.549)	3.95(.575)	3.48(.650)	3.92(.633)
	t/F(Scheffé)	-2.836**	-3.514***	.219	1.082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3.83(.561)	3.92(.567)	3.48(.640)	3.97(.596)
	일반사무/기술/판매등	3.71(.572)	3.81(.562)	3.43(.665)	3.93(.619)
	농축수산/노무	3.64(.624)	3.74(.522)	3.41(.692)	3.82(.759)
	무직	3.65(.582)	3.70(.655)	3.37(.695)	3.90(.707)
	t/F(Scheffé)	7.041***(gh, gi, gj)	9.405***(gh, gi, gj)	1.104	2.512
경제수준	낮은편	3.70(.591)	3.71(.551)	3.41(.665)	3.90(.661)
	중간	3.69(.578)	3.80(.554)	3.35(.666)	3.87(.689)
	높은편	3.83(.552)	3.94(.564)	3.54(.644)	3.98(.624)
	t/F(Scheffé)	8.766***(km, lm)	24.380***(kl, km, lm)	10.695***(km, lm)	3.494*(lm)

*p<.05, **p<.01, ***p<.001

※ 주1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 하위권, e= 중위권, f= 상위권), 부 직업 (g= 전문/경영/관리, h=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i= 농축수산/노무, j= 무직), 직업경제수준(k=낮은편, l=중간, m=높은편)

주2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성별, 모 직업에 따른 평균값차이는 <부표 4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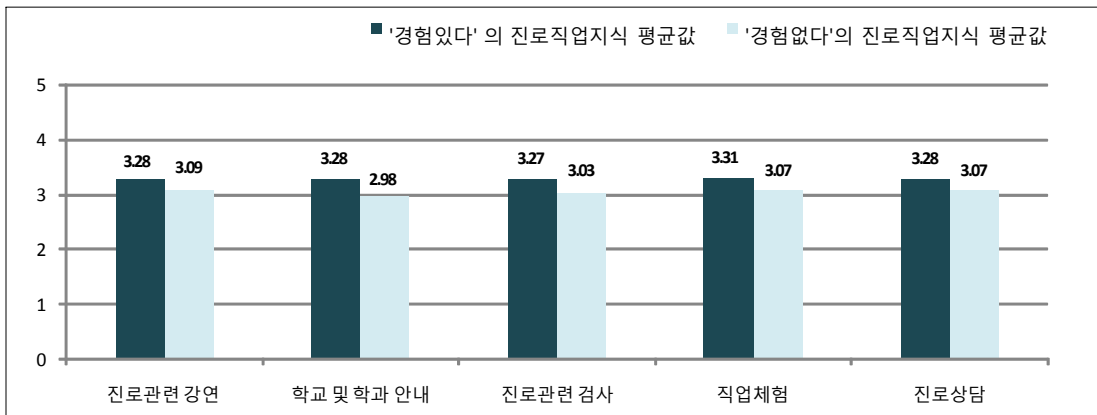
‘자기이해’ 및 ‘진로·직업지식’과 관련해서 일본청소년은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 직일 때 평균값이 높았고, 미국청소년은 ‘자기이해’에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²³⁾.

23) ‘자기이해’와 ‘진로·직업지식’에 대한 4개 국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부표 49~50>참조

2)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진로지도/심리적 요인

(1)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 진로·지도 역량 중 ‘진로·직업 지식’은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지도 경험(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을 한 청소년들에게서 경험을 하지 못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



【그림 IV-36】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의 구성요소인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이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지도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62>와 <부표 51>과 같다²⁴⁾. 진로·지도 역량 중 ‘자기이해’는 진로지도의 어떠한 항목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진로·직업 지식’은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 모든 진로지도 항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러한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지식’ 평균값이 진로지도를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일·미 청소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미·중·한·일 청소년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진로·지도 역량 중 ‘합리적 의사결정’은 ‘직업체험’과 ‘진로상담’에서 유의한 차이가

24) 한국청소년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만 정리하여 <표 IV-63>에 제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를 보이지 않은 내용은 <부표 51> 확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진로지도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서 약간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결과는 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합리적 의사결정’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 중·일·미 청소년들과는 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V-62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 직업 지식	진로관련 강연	M (SD) 있다	3.28(.769)	3.56(.684)	2.92(.777)	3.71(.789)
		M (SD) 없다	3.09(.880)	3.23(.653)	2.73(.874)	3.47(.938)
		t	3.001**	5.284***	3.040**	3.520***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3.28(.768)	3.55(.683)	2.92(.780)	3.71(.790)
		M (SD) 없다	2.98(.947)	3.17(.717)	2.63(.885)	3.38(.976)
		t	3.603***	3.717***	3.599***	4.159***
	진로관련 검사	M (SD) 있다	3.27(.770)	3.56(.676)	2.91(.784)	3.71(.797)
		M (SD) 없다	3.03(1.072)	3.26(.772)	2.69(.847)	3.49(.891)
		t	2.172*	4.391***	3.034**	3.251***
	직업체험	M (SD) 있다	3.31(.757)	3.58(.671)	2.93(.779)	3.72(.798)
		M (SD) 없다	3.07(.861)	3.17(.709)	2.75(.829)	3.27(.850)
		t	4.681***	7.322***	3.463***	5.779***
진로상담	M (SD) 있다	3.28(.763)	3.58(.671)	2.90(.781)	3.71(.790)	
	M (SD) 없다	3.07(.943)	3.17(.719)	2.76(.957)	3.50(.894)	
	t	2.965**	7.032***	1.580	3.614***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체험	M (SD) 있다	3.72(.586)	3.84(.568)	3.45(.661)	3.94(.641)
		M (SD) 없다	3.81(.518)	3.77(.488)	3.43(.667)	3.78(.709)
		t	-2.434*	1.450	.549	2.531*
	진로상담	M (SD) 있다	3.73(.578)	3.84(.567)	3.45(.651)	3.93(.637)
		M (SD) 없다	3.85(.526)	3.72(.476)	3.37(.837)	3.90(.701)
t	-2.464*	2.669**	1.153	.762		

*p<.05, **p<.01, ***p<.001

※ 주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배경변인별 차이는 <부표 51> 참조

(2)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과 학교 진로지도 만족도/가정의 진로지도 정도

○ 진로·직업 역량은 고교 재학 시 경험한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와는 미미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와는 상당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과 고등학교 재학 시 경험한 다양한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63>과 같다.

표 IV-63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083***	.088***	-.005	.221***
	진로·직업 지식	.076**	.060*	.003	.155***
	합리적 의사결정	.122***	.108***	.051	.194***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115***	.176***	-.014	.200***
	진로·직업 지식	.113***	.185***	-.003	.200***
	합리적 의사결정	.110***	.167***	.028	.156***
진로관련 검사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158***	.168***	.020	.190***
	진로·직업 지식	.147***	.139***	.011	.179***
	합리적 의사결정	.115***	.165***	.017	.158***
직업체험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060*	.141***	.019	.203***
	합리적 의사결정	.080**	.158***	.032	.121***
진로상담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090***	.143***	.079**	.146***
	진로·직업 지식	.093***	.130***	.079**	.119***
	합리적 의사결정	.097***	.151***	.106***	.097***

*p<.05, **p<.01, ***p<.001

※ 주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직업체험과 진로·직업지식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부표 52>참조

진로·직업역량의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의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 학교에서 경험한 다섯 가지 진로관련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상관정도는 크지 않았으며, 진로지도 항목 중 ‘학교 및 학과 안내’와 ‘진로관련 검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진로·직업역량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는 한·중·일·미 청소년에게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정에서의 인생에 대한 대화,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진학 등 진로관련 대화,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대화는 진로·직업 역량인 ‘자기이해’, ‘진로·직업 지식’,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이러한 가정에서의 잦은 대화는 청소년의 높은 진로·직업 역량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가 진로·직업 역량 중 ‘진로·직업 지식’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r=.348$)를 보였다.

표 IV-64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248***	.283***	.221***	.187***
	진로·직업 지식	.281***	.306***	.266***	.172***
	합리적 의사결정	.160***	.274***	.164***	.221***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282***	.252***	.258***	.220***
	진로·직업 지식	.348***	.281***	.242***	.213***
	합리적 의사결정	.167***	.276***	.223***	.217***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282***	.241***	.215***	.275***
	진로·직업 지식	.263***	.236***	.232***	.230***
	합리적 의사결정	.238***	.265***	.232***	.272***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205***	.233***	.238***	.176***
	진로·직업 지식	.240***	.309***	.251***	.223***
	합리적 의사결정	.153***	.272***	.146***	.182***

* $p<.05$, ** $p<.01$, *** $p<.001$

(3) 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과 심리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 청소년의 높은 진로·직업 역량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과 상당한 수준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5>와 같다. 한·중·일·미 청소년들에게서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한국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 중 ‘자기이해’는 자아존중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r=.440$)을 보였다. 이외에도 ‘진로·직업 지식’과 자아존중감($r=.384$), ‘자기이해’와 ‘자아통제감’($r=.361$)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정도를 보여주었다. 한국을 제외한 중·일·미 청소년들 중에서는 중국청소년의 진로·직업 역량과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과의 상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65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자아존중감·자아통제감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아존중감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440***	.418***	.323***	.333***
	진로·직업 지식	.384***	.365***	.329***	.288***
	합리적 의사결정	.268***	.349***	.182***	.220***
내용		자아통제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직업 역량	자기이해	.361***	.336***	.145***	.269***
	진로·직업 지식	.282***	.286***	.139***	.213***
	합리적 의사결정	.278***	.299***	.155***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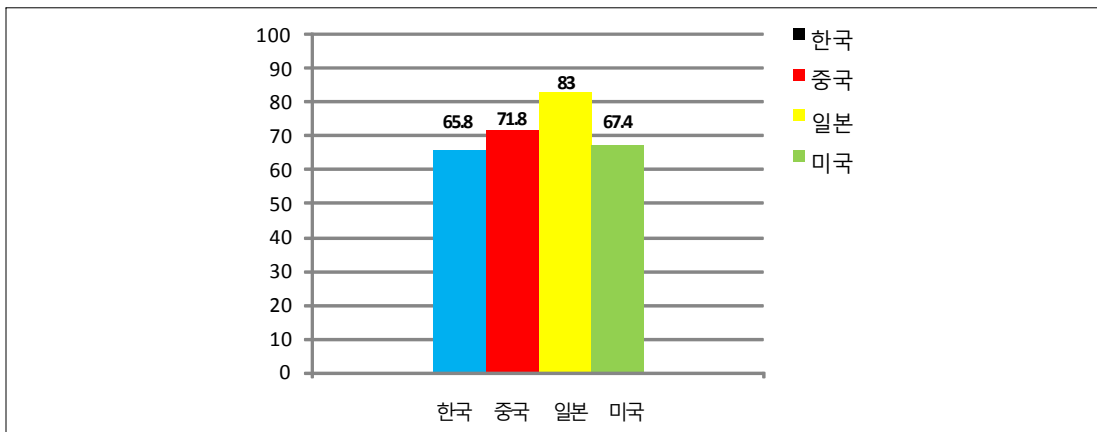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1)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유

(1)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 학교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일본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 미국청소년 순이었으며, 한국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가장 낮았음.



【그림 IV-37】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긍정 응답

한·중·일·미 청소년들에게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표 IV-66>와 【그림 IV-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비율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청소년이 71.8%, 미국청소년이 67.4%, 한국청소년이 65.8%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차이는 한·일·미 청소년에게서 나타났으며 3개국 청소년 모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적이 가장 높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경험비율이 더 높았으며, 한국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그리고 미국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 때 아르바이트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6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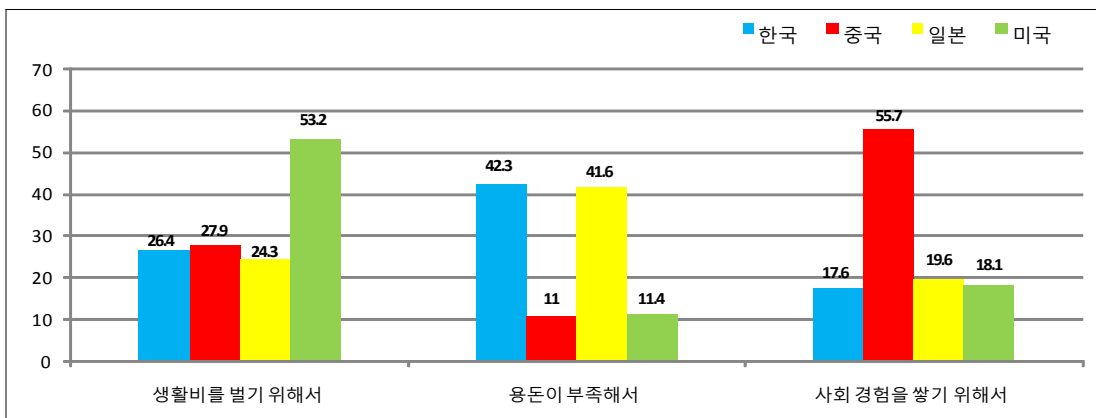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전체	65.8	34.2	100(1502)	71.8	28.2	100(1503)	83.0	17.0	100(1504)	67.4	32.6	100(1502)	
성별	남	59.8	40.2	100(751)	70.7	29.3	100(750)	79.2	20.8	100(751)	65.1	34.9	100(750)
	여	71.8	28.2	100(751)	72.9	27.1	100(753)	86.7	13.3	100(753)	69.8	30.2	100(752)
	χ^2	23.957***			.932			14.943***			3.854*		
학업수준	하위권	64.6	35.4	100(288)	60.6	39.4	100(99)	84.1	15.9	100(346)	68.3	31.7	100(82)
	중위권	60.6	39.4	100(490)	65.9	34.1	100(299)	82.1	17.9	100(375)	67.2	32.8	100(296)
	상위권	70.0	30.0	100(701)	75.3	24.7	100(1080)	84.5	15.5	100(744)	72.1	27.9	100(931)
	χ^2	11.664**			17.803***			2.650			4.846		
경제수준	낮은편	69.5	30.5	100(660)	71.5	28.5	100(498)	81.3	18.7	100(524)	62.8	37.2	100(522)
	중간	61.6	38.4	100(354)	71.1	28.9	100(418)	81.4	18.6	100(388)	64.4	35.6	100(421)
	높은편	63.7	36.3	100(488)	72.6	27.4	100(587)	85.5	14.5	100(592)	74.1	25.9	100(559)
	χ^2	7.840*			.312			4.304			18.007***		

*p<.05, **p<.01, ***p<.001

※ 주 : 일부 배경변인의 결측치로 인해 전체 N값이 일치하지 않음.

(2)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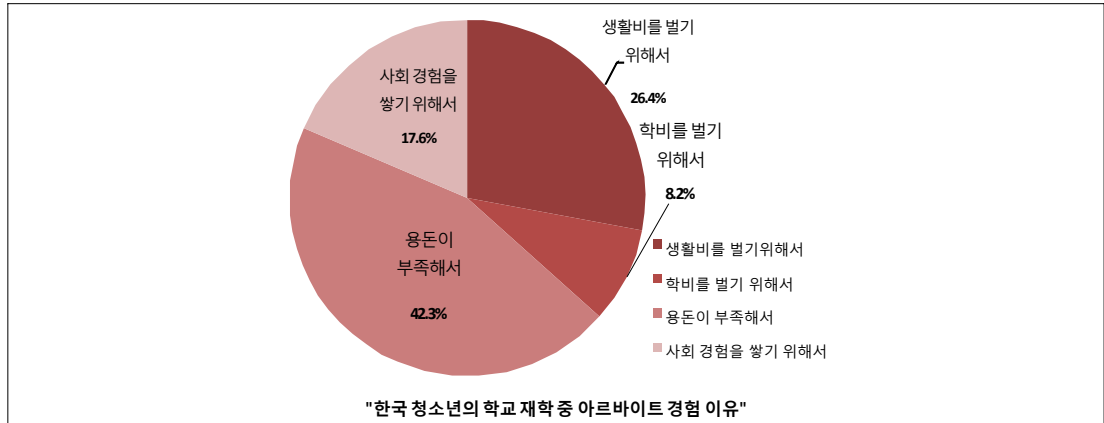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는 한국·일본청소년은 ‘용돈이 부족해서’, 중국청소년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미국청소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로 나타남.



※ 주: 각 국가별로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 항목 기준

【그림 IV-38】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주요이유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청소년은 ‘용돈이 부족해서’ (각각 42.3%, 41.6%)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청소년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55.7%), 미국청소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5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9】 한국청소년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아르바이트 이유 중 특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는 한·중·일 청소년에게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항목은 한국청소년에게서 특히 응답률이 낮았다.

표 IV-67 한·중·일·미 청소년의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이유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χ^2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26.4	27.9	24.3	53.2	1127.707***
학비를 벌기 위해서	8.2	1.6	5.4	13.8	
용돈이 부족해서	42.3	11.0	41.6	11.4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17.6	55.7	19.6	18.1	
호기심에	4.0	3.6	7.5	2.4	
주위의 권유로	1.3	0.2	1.6	1.1	
전체	100(987)	100(1079)	100(1247)	100(1017)	100(4325)

*p<.05, **p<.01, ***p<.001

※ 주1 : 기타 항목을 포함한 일부 결측치로 인해 전체 N값이 일치하지 않음.

주2 :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3) 한·중·일·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한·중·미 청소년 중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일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각 국가별로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의 주요 이유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V-68〉 참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유는 성별로는 중·일 남자청소년과 미국의 여자청소년에게서, 그리고 한·중·미 청소년 중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용돈이 부족해서' 에 대해서는 중국 여자청소년과 일본 남자청소년에게서, 그리고 한·일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에서, 중국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집단에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는 중·일 여자청소년과 미국 남자청소년에게서, 그리고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중간인 집단에서 또 중·일·미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수준이 높은 편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IV-68 주요 아르바이트 이유 :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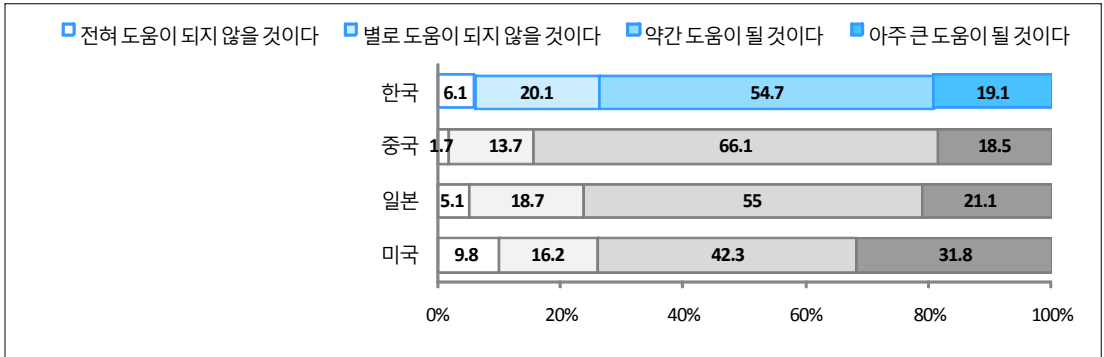
내용 /구분	한국							내용 /구분	중국						
	성별			경제수준					성별			경제수준			
	남	여	전체	낮은편	중간	높은편	전체		남	여	전체	낮은편	중간	높은편	전체
생활비를 벌기 위해	33.0	28.6	30.6 (261)	43.2	16.0	22.1	30.6 (261)	생활비를 벌기 위해	33.5	25.6	29.5 (301)	38.1	27.7	23.6	29.5 (301)
용돈이 부족해서	47.5	50.2	49.0 (418)	46.2	54.8	49.1	49.0 (418)	사회 경험 쌓기 위해	58.2	59.5	58.9 (601)	48.6	60.4	66.3	58.9 (601)
사회 경험 쌓기 위해	19.5	21.2	29.4 (174)	10.6	29.3	28.8	20.4 (174)	용돈이 부족해서	8.4	14.8	11.7 (119)	13.2	11.9	10.2	11.7 (119)
χ^2	1.909		100 (853)	77.561***			100 (853)	χ^2	14.566***		100 (1021)	24.756***			100 (1021)
내용 /구분	일본							내용 /구분	미국						
	성별			경제수준					성별			경제수준			
	남	여	전체	낮은편	중간	낮은편	전체		남	여	전체	낮은편	중간	낮은편	전체
용돈이 부족해서	52.9	44.9	48.7 (519)	48.9	49.3	48.2	48.7 (519)	생활비를 벌기 위해	56.6	67.6	62.5 (539)	68.9	67.0	54.5	62.5 (539)
생활비를 벌기 위해	30.8	26.3	28.4 (303)	35.7	29.2	22.2	28.4 (303)	사회 경험 쌓기 위해	24.8	18.1	21.2 (183)	17.5	17.0	27.0	21.2 (183)
사회 경험 쌓기 위해	16.3	28.8	22.9 (244)	15.4	21.5	29.6	22.9 (244)	학비를 벌기 위해	18.5	14.3	16.2 (140)	13.6	16.1	18.5	16.2 (140)
χ^2	23.414***		100 (1066)	30.250***			100 (1066)	χ^2	11.038**		100 (862)	17.720***			100 (862)

*p<.05, **p<.01, ***p<.001

※ 주 :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가 아닌 항목을 포함한 결측치로 인해 전체 N값이 일치하지 않음.

(4) 아르바이트 경험의 현재·미래 직업 도움 여부

○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그림 IV-40】 한·중·일·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현재·미래의 직업 도움 여부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중국청소년(66.1%), 일본청소년(55%), 한국청소년(54.7%), 미국청소년(42.3%) 순으로 나타났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국가별 차이가 컸는데, 미국청소년의 경우 가장 높은 31.8%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은 일본청소년(21.1%), 한국청소년(19.1%), 중국청소년(18.5%) 순이었다. (전혀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도 중국을 제외하고 20%가 넘었는데, 한·미 청소년의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고(약 26%), 그 다음은 일본청소년(23.8%), 중국청소년(15.4%) 순이었다.

표 IV-69 아르바이트 경험의 현재·미래직업의 도움 여부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χ^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6.1	1.7	5.1	9.8	184.00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1	13.7	18.7	16.2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54.7	66.1	55.0	42.3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9.1	18.5	21.1	31.8	
전체	100(988)	100(1079)	100(1248)	100(1013)	100(4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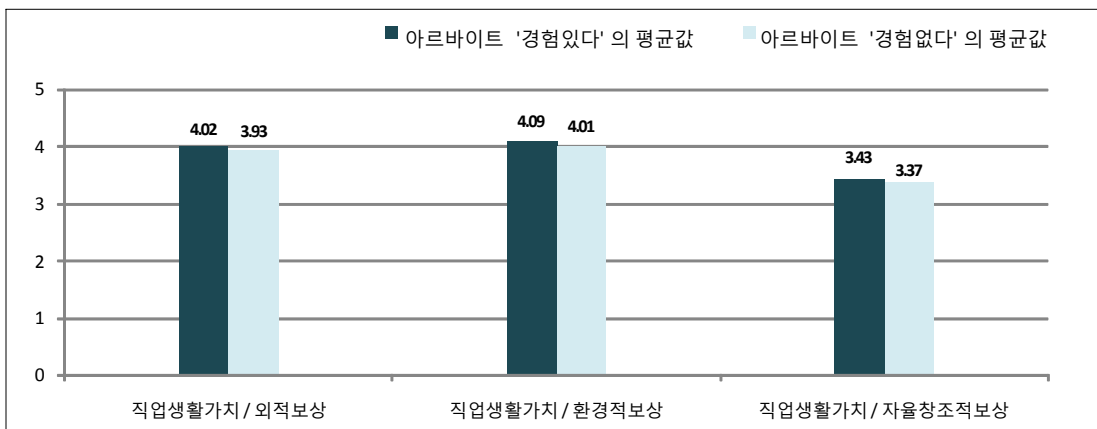
*p<.05, **p<.01, ***p<.001

(5)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진로·직업태도/진로준비 행동/진로·직업역량 차이

○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직업생활의 가치 중 '외적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진로·직업태도 중 준비성과 독립성에서, 그리고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직업 역량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냄.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진로·직업 태도와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 역량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70>과 같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에서는 '외적보상', '환경적보상', '자율·창조적보상' 에서, 진로·직업 태도에서는 '준비성' 과 '독립성' 에서, 그리고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직업 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소(자기이해, 진로·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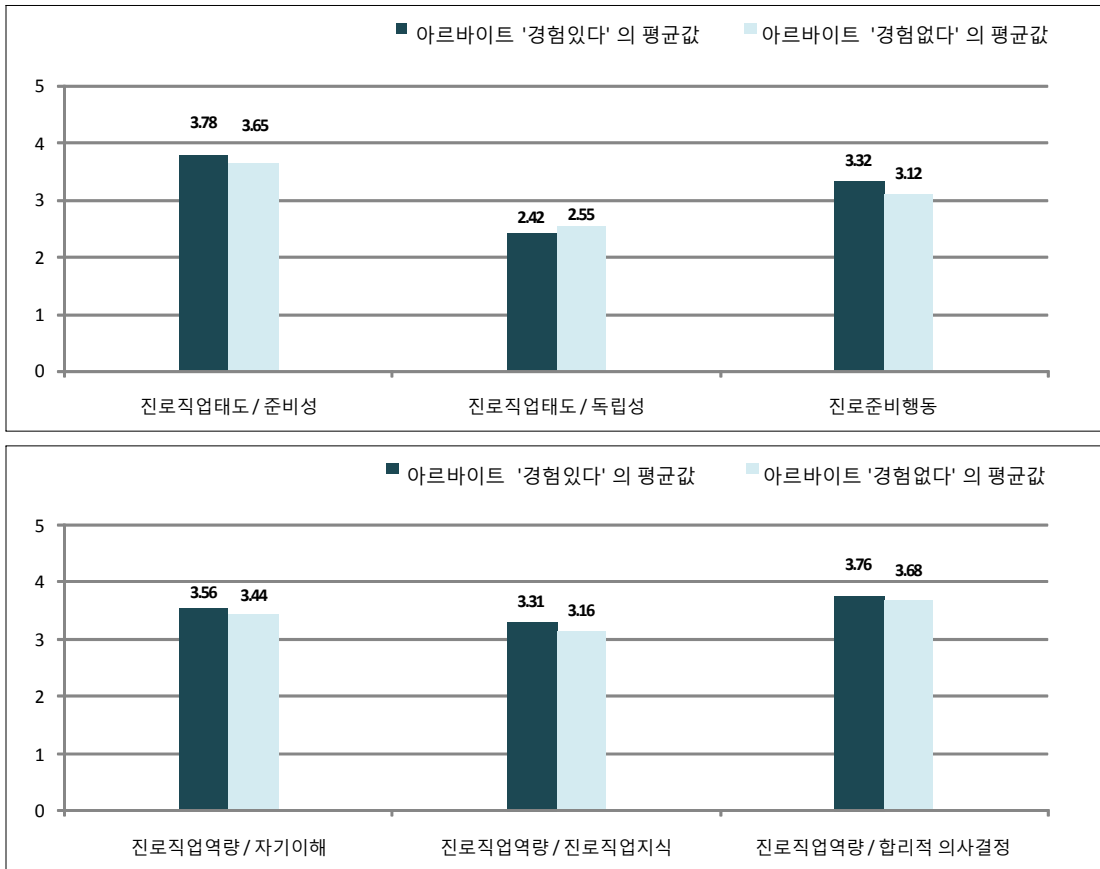
청소년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은 직업생활의 가치 중 '외적보상', '환경적 보상', '자율·창조적 보상' 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그림 IV-41】).



【그림 IV-41】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또한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본인의 향후 진로·직업 준비성에 대한 평균값이 높았으며,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진로와 관련해 의지하지

않는 독립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진로·직업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자기이해’, ‘진로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에서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평균값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그림 IV-42】 참조).



【그림 IV-42】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진로·직업태도/진로준비행동/진로·직업역량 차이

중·일·미 청소년 모두 한국청소년의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진로·직업태도와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중·미·한·일 청소년 순으로, 진로·직업역량에서는 미·중·한·일 청소년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IV-70 아르바이트 여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진로 직업태도/진로준비행동/진로 직업역량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직업 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 보상	M (SD)	4.02 (.675)	3.93 (.696)	4.03 (.616)	4.01 (.624)	3.82 (.702)	3.79 (.701)	3.90 (.867)	3.76 (.909)
		t	2.526**		.624		.752		2.762**	
	환경적 보상	M (SD)	4.09 (.653)	4.01 (.669)	4.07 (.588)	4.04 (.603)	3.97 (.648)	3.93 (.648)	4.15 (.747)	4.01 (.879)
		t	2.098*		.903		.881		3.056**	
	자율 창조적 보상	M (SD)	3.43 (.526)	3.37 (.529)	3.62 (.451)	3.50 (.482)	3.26 (.525)	3.18 (.565)	3.62 (.579)	3.41 (.631)
		t	2.005*		4.706***		2.106*		6.317***	
진로 직업 태도	준비성	M (SD)	3.78 (.755)	3.65 (.751)	3.84 (.605)	3.69 (.662)	3.37 (.864)	3.25 (.933)	3.63 (.958)	3.53 (.955)
		t	3.127**		4.052***		2.023*		1.831	
	독립성	M (SD)	2.42 (.972)	2.55 (.928)	2.85 (.855)	2.95 (.839)	2.39 (.919)	2.58 (.925)	2.57 (1.212)	2.56 (1.100)
		t	-2.451*		-2.083*		-2.939**		.096	
진로준비행동	M (SD)	3.32 (.701)	3.12 (.655)	3.53 (.630)	3.28 (.646)	3.11 (.786)	2.83 (.807)	3.48 (.780)	3.11 (.790)	
	t	5.403***		6.996***		5.107***		8.620***		
진로 직업 역량	자기 이해	M (SD)	3.56 (.738)	3.44 (.707)	3.82 (.611)	3.68 (.641)	3.09 (.750)	2.95 (.830)	3.97 (.789)	3.72 (.838)
		t	2.904**		3.912***		2.808**		5.542***	
	진로 직업 지식	M (SD)	3.31 (.789)	3.16 (.768)	3.58 (.676)	3.39 (.706)	2.91 (.793)	2.81 (.784)	3.76 (.796)	3.47 (.837)
		t	3.643***		4.777***		1.797		6.372***	
	합리적 의사 결정	M (SD)	3.76 (.578)	3.68 (.575)	3.87 (.545)	3.70 (.596)	3.45 (.656)	3.40 (.686)	3.97 (.632)	3.81 (.693)
		t	2.613**		5.476***		1.092		4.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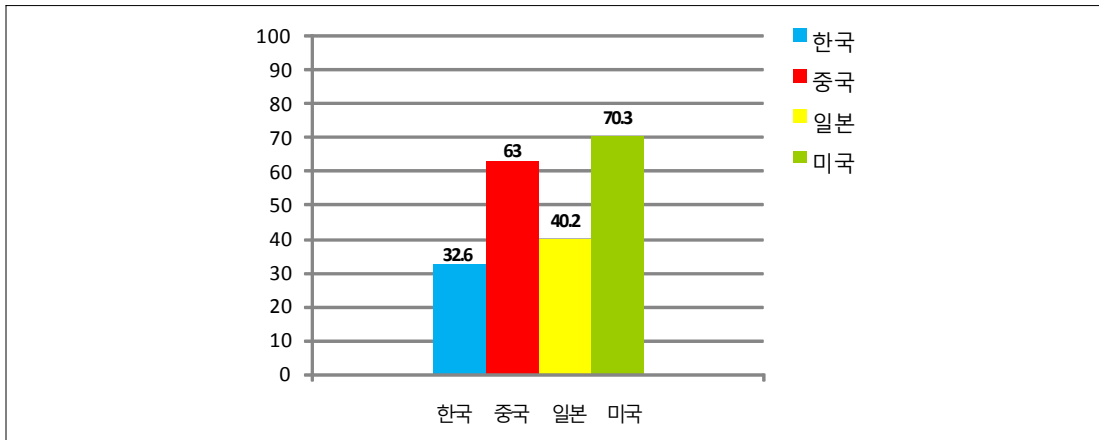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 외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표 53> 참조

2) 구직·취업 경험 및 어려움

(1) 구직 및 취업 경험 여부

- 한국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은 32.6%로, 미국청소년 70.3%, 중국청소년 63%, 일본청소년 40.2%인데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IV-43】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 여부

조사대상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경험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미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70.3%, 중국청소년 63%, 일본청소년 40.2%인데 비해, 한국청소년은 32.6%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한국청소년의 입직연령이 중·일·미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늦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직 및 취업 경험 여부에 대해 성별, 학업수준과 경제수준별로 비교하였는데,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대상은 한·일·미 청소년으로 모두 여자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재학시 학업수준은 한국과 중국청소년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이었는데, 학업성적이 하위권일 때 구직 및 취업 경험이 높았다. 또 중국청소년에게서만 경제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 때 구직 및 취업경험이 높았다.

표 IV-71 구직 및 취업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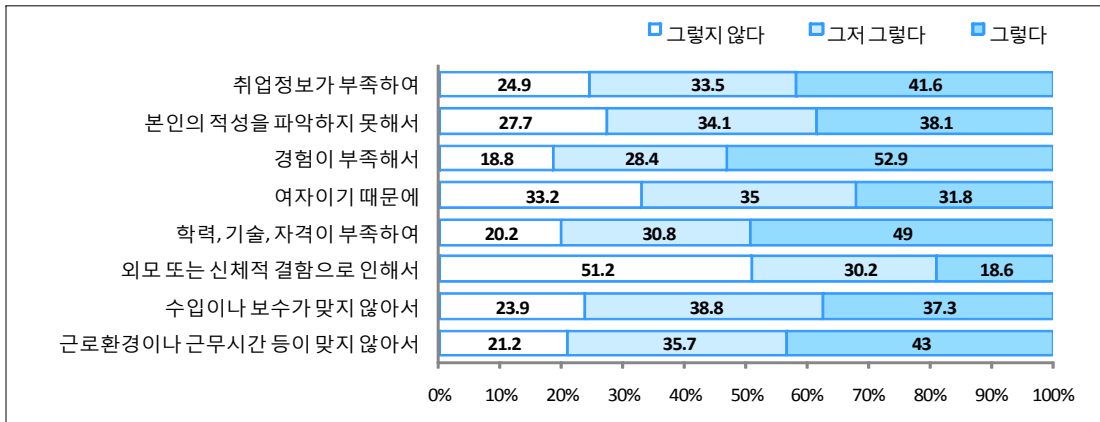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전체	32.6 (490)	67.4 (1012)	100 (1502)	63.0 (947)	37.0 (556)	100 (1503)	40.2 (605)	59.8 (899)	100 (1504)	70.3 (1056)	29.7 (446)	100 (1502)	
성별	남	28.4	71.6	100(751)	65.3	34.7	100(750)	33.7	66.3	100(751)	67.9	32.1	100(750)
	여	36.9	63.1	100(751)	60.7	39.3	100(753)	46.7	53.3	100(753)	72.7	27.3	100(752)
	χ ²	12.407***			3.475			26.663***			4.271*		
학업수준	하위권	42.0	58.0	100(288)	70.7	29.3	100(99)	41.3	58.7	100(346)	72.0	28.0	100(82)
	중위권	32.0	68.0	100(490)	68.9	31.1	100(299)	38.4	61.6	100(375)	66.6	33.4	100(296)
	중위권	28.8	71.2	100(701)	60.5	39.5	100(1080)	41.0	59.0	100(744)	71.3	28.7	100(931)
	χ ²	16.277***			9.935*			.856			2.560		
경제수준	낮은편	35.6	64.4	100(660)	60.8	39.2	100(498)	44.1	55.9	100(524)	71.6	28.4	100(522)
	중간	30.5	69.5	100(354)	60.0	40.0	100(418)	38.7	61.3	100(388)	67.5	32.5	100(421)
	높은편	30.1	69.9	100(488)	67.0	33.0	100(587)	37.8	62.2	100(592)	71.2	28.8	100(559)
	χ ²	4.780			6.487*			5.044			2.299		

*p<.05, **p<.01, ***p<.001

(2) 한국청소년의 구직 시 어려움 경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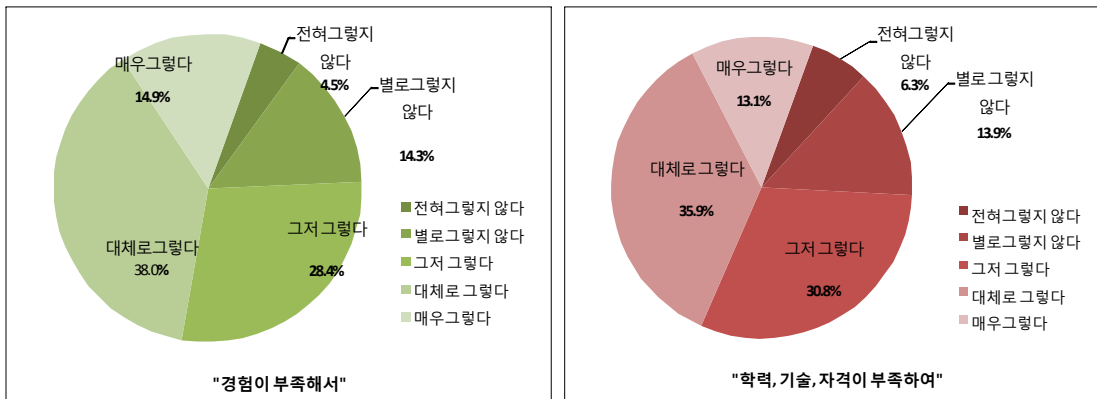
○ 한국청소년은 구직 및 취업 시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 많음.



* '그렇지 않다' 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와 '별로 그렇지 않다' 를 합친 응답률이며, '그렇다' 는 '대체로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의 합친 응답률임. / 여자이기 때문에' 항목은 여자청소년만 응답함.

【그림 IV-44】 한국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시 겪는 어려움 이유

한국청소년이 구직 및 취업 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높은 응답률(‘대체로 그렇다’와 ‘매우그렇다’를 합한 비율)을 보인 항목은 <표 IV-72>와 【그림 IV-45】에서 보듯이, ‘경험이 부족해서’(52.9%)와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49%)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43%), ‘취업정보가 부족하여’(41.6%),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38.1%),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37.3%), ‘여자이기 때문에’(31.8%=여자만 응답)순으로 나타났고,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18.6%)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구직 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 기준

【그림 IV-45】 한국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시 겪는 어려움 이유(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

표 IV-72 구직 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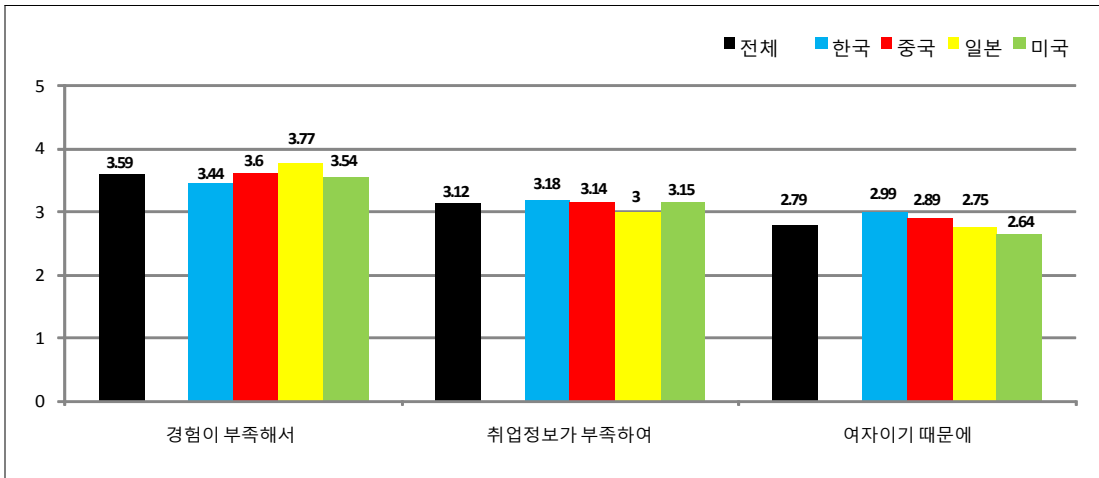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취업정보가 부족하여	6.3	18.6	33.5	34.3	7.3	100(490)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7.3	20.4	34.1	27.3	10.8	100(490)
경험이 부족해서	4.5	14.3	28.4	38.0	14.9	100(490)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응답)	10.1	23.1	35.0	21.3	10.5	100(277)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6.3	13.9	30.8	35.9	13.1	100(490)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20.4	30.8	30.2	13.5	5.1	100(490)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5.9	18.0	38.8	30.6	6.7	100(490)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6.3	14.9	35.7	32.4	10.6	100(490)

※ 주 : 구직 및 취업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체 N과 일치하지 않음.

(3)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취업 시 겪는 어려움 이유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구직·취업 시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취업정보 부족’ 및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는 한국청소년의 응답이 가장 높았음.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국가별 평균값 비교를 한 결과,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 만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4개국 청소년은 ‘경험이 부족해서’ 구직 및 취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일본청소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M=3.77)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중국청소년(M=3.60), 미국청소년(M=3.54) 순이었고, 한국청소년의 평균치(M=3.44)가 가장 낮았다.



※ 주: ‘경험이 부족해서’ 항목은 4개국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취업정보 부족’ 과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청소년만 응답)는 한국청소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별도 그래프로 제시하였음.

【그림 IV-46】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 시 어려움 이유

그러나 ‘취업정보가 부족해서’ 구직이나 취업 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한국청소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M=3.18), 그 다음은 미국과 중국청소년(각각 M=3.15, 3.14)순이었으며, 일본청소년(M=3.00)의 응답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한국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M=2.99), 그 다음으로 중국청소년(M=2.89), 일본청소년(M=2.75), 미국청소년(M=2.64)순이었다.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는 한국과 미국청소년이

동일하게 가장 높은 응답수준을 나타냈고(M=3.26),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는 일본 청소년 다음으로(일본 M=3.15, 한국 M=3.14), 그리고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는 미국청소년 다음으로(미국 M=2.66, 한국 M=2.52)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표 IV-73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취업 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취업정보가 부족하여	3.12 (1.027)	3.18 (1.023)	3.14 (0.891)	3.00 (1.111)	3.15 (1.088)	3.769** (ac, cd)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3.03 (1.065)	3.14 (1.090)	3.04 (0.932)	3.15 (1.068)	2.90 (1.146)	9.968*** (ad, bd, cd)
경험이 부족해서	3.59 (1.053)	3.44 (1.050)	3.60 (0.953)	3.77 (0.987)	3.54 (1.159)	10.268*** (ac, bc, cd)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응답)	2.79 (1.121)	2.99 (1.128)	2.89 (1.025)	2.75 (1.118)	2.64 (1.175)	7.540*** (ad, bd)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3.28 (1.101)	3.36 (1.072)	3.27 (0.996)	3.24 (1.100)	3.28 (1.199)	1.047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2.49 (1.144)	2.52 (1.112)	2.29 (1.050)	2.47 (1.091)	2.66 (1.238)	18.120*** (ab, bc, bd, cd)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3.14 (1.043)	3.14 (0.987)	3.21 (0.923)	2.89 (1.013)	3.21 (1.159)	15.024*** (ac, bc, cd)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3.21 (1.059)	3.26 (1.042)	3.24 (0.920)	3.03 (1.055)	3.26 (1.171)	7.319*** (ab, ac, bc, cd)

*p<.05, **p<.01, ***p<.001

※ 주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의 평균값임.

(4)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취업 시 어려움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에 대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취업 시 겪는 주요 어려움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74>참조).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항목은 4개국 청소년 모두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더 높은 응답수준을 나타냈고,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는 특히 중국과 미국청소년에게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성별로는 한국청소년들이 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항목에서 모두 여자청소년의 응답이 남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74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취업 시 어려움 :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경험이 부족해서	성별	남	M	3.27(1.121)	3.57(.955)	3.75(1.009)	3.48(1.160)	
		여	(SD)	3.58(.974)	3.63(.951)	3.79(.971)	3.59(1.157)	
		t/F(Scheffé)		-3.163**	-.984	-.393	-1.532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3.51(1.071)	3.40(1.059)	3.77(1.002)	3.54(1.166)	
		전문대재·졸		(SD)	3.51(.985)	3.62(.953)	3.77(.941)	3.48(1.184)
		4년제대재이상		3.40(1.068)	3.63(.931)	3.78(.990)	3.57(1.137)	
		t/F(Scheffé)		.668	2.632	.002	.508	
	경제 수준	낮은편	M	3.63(1.027)	3.73(.914)	3.92(.940)	3.69(1.140)	
		중간		(SD)	3.29(.907)	3.63(.936)	3.59(.978)	3.38(1.151)
		높은편		3.27(1.138)	3.49(.982)	3.75(1.020)	3.51(1.168)	
		t/F(Scheffé)		6.850***(de, df)	5.480**(df)	5.296**(de)	5.944**(de)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성별	남	M	3.22(1.109)	3.28(.976)	3.37(1.033)	3.26(1.181)
여			(SD)	3.46(1.033)	3.26(1.017)	3.15(1.138)	3.29(1.216)	
t/F(Scheffé)				-2.446*	.299	2.479*	-.396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3.51(1.037)	3.50(1.128)	3.40(1.076)	3.44(1.220)	
		전문대재·졸		(SD)	3.42(.990)	3.42(.945)	3.12(1.000)	3.26(1.244)
		4년제대재이상		3.27(1.122)	3.16(.979)	3.20(1.121)	3.18(1.139)	
		t/F(Scheffé)		2.018	8.991*** (ac, bc)	2.436	4.597*(ac)	
경제 수준		낮은편	M	3.59(1.023)	3.37(1.023)	3.42(1.052)	3.44(1.223)	
		중간		(SD)	3.26(.931)	3.29(.942)	3.17(1.067)	3.09(1.194)
		높은편		3.05(1.161)	3.18(1.002)	3.10(1.148)	3.26(1.161)	
		t/F(Scheffé)		12.773*** (de, df)	3.159*(df)	5.456**(df)	6.778*** (de)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성별	남	M	3.15(1.053)	3.26(.928)	2.94(1.047)	3.24(1.169)
	여		(SD)	3.35(1.026)	3.23(.913)	3.09(1.058)	3.28(1.173)	
	t/F(Scheffé)			-2.075*	.496	-1.730	-.559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3.41(1.056)	3.25(1.024)	3.11(1.110)	3.32(1.194)	
		전문대재·졸		(SD)	3.25(1.033)	3.28(.860)	3.06(.959)	3.25(1.205)
		4년제대재이상		3.22(1.043)	3.22(.927)	2.99(1.049)	3.22(1.129)	
		t/F(Scheffé)		1.049	.391	.744	.620	
	경제 수준	낮은편	M	3.35(1.062)	3.32(.920)	3.16(1.043)	3.37(1.178)	
		중간		(SD)	3.23(.933)	3.19(.887)	3.07(.974)	3.10(1.151)
		높은편		3.14(1.077)	3.21(.940)	2.87(1.103)	3.26(1.167)	
		t/F(Scheffé)		2.030	1.570	4.338*(df)	4.426*(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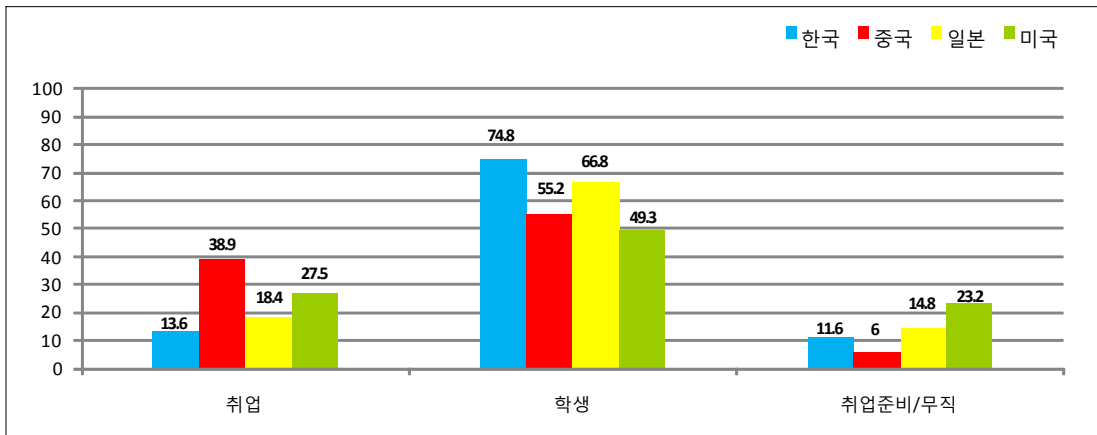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낮은편, e=중간, f=높은편)

3) 기대교육수준 및 희망 일자리 취업 가능성

(1) 한·중·일·미 청소년의 현재 상황(학생, 취업여부 등)

○ 한국청소년의 학생 비율은 중·일·미 청소년 보다 매우 높았고, 취업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남. 또한 한·일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취업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47】 한·중·일·미 조사대상 청소년의 현재 상황(학생, 취업여부 등)

본 조사에 응답한 한·중·일·미 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4개국 중 취업 중이라는 응답은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았고(38.9%), 그 다음은 미국청소년(27.5%), 일본청소년(18.4%)순이었고, 한국청소년의 경우 취업중이라는 응답에 대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13.6%). 이와는 반대로 한국청소년의 학생 비율은 매우 높아 약 75%에 달했으며, 그 다음은 일본청소년(66.8%), 중국청소년(55.2%), 미국청소년(49.3%)순이었다.

동일 연령대(만19~24세) 조사에서 한국청소년의 학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은 한국청소년들이 중·일·미 청소년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 또는 무직’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국청소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23.2%), 일본청소년(14.8%), 한국청소년(11.6%), 중국청소년(6%)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5 한·중·일·미 청소년의 현재 취업/학생 상황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χ^2
취업	13.6	38.9	18.4	27.5	491.927***
학생	74.8	55.2	66.8	49.3	
취업준비/무직	11.6	6.0	14.8	23.2	
전체	100(1502)	100(1503)	100(1504)	100(1502)	

*p<.05, **p<.01, ***p<.001

청소년들의 이러한 현재 취업/학생 상황의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표 IV-76>과 같다. 대부분의 비교분석에서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은 중국청소년을 제외하고, 한·일·미 청소년에게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76 한·중·일·미 청소년의 현재 취업/학생 상황 :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명)

내용/구분	한국				중국				
	취업	학생	취업준비/ 무직	전체	취업	학생	취업준비/ 무직	전체	
성별	남	7.7	83.5	8.8	100(751)	39.9	55.6	4.5	100(750)
	여	19.4	66.2	14.4	100(751)	37.8	54.7	7.4	100(753)
	χ^2	63.134***			100(1502)	5.738			100(1503)
경제수준	낮은편	14.7	71.7	13.6	100.0(660)	35.9	56.4	7.6	100(498)
	중간	12.1	73.4	14.4	100(354)	35.6	57.7	6.7	100(418)
	높은편	13.1	80.1	6.8	100(488)	43.6	52.3	4.1	100(587)
	χ^2	18.648***			100(1502)	13.232**			100(1503)
내용/구분	일본				미국				
	취업	학생	취업준비/ 무직	전체	취업	학생	취업준비/ 무직	전체	
성별	남	13.4	73.4	13.2	100(751)	30.5	50.9	18.5	100(750)
	여	23.4	60.2	16.5	100(753)	24.5	47.6	27.9	100(752)
	χ^2	32.673***			100(1504)	20.123***			100(1502)
경제수준	낮은편	20.6	59.4	20.0	100(524)	23.8	42.9	33.3	100(522)
	중간	19.8	63.7	16.5	100(388)	27.1	49.4	23.5	100(421)
	높은편	15.5	75.3	9.1	100(592)	31.3	55.1	13.6	100(559)
	χ^2	39.173***			100(1504)	59.051***			100(1502)

*p<.05, **p<.01, ***p<.001

한국과 일본청소년의 경우 학생비율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높았으며, 취업과 취업준비·무직 비율은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높았다. 미국청소년에서는 남자청소년의 취업과 학생비율이 모두 높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취업준비·무직의 비율이 높았다.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4개국 청소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 때 현재수준이 취업인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청소년의 취업준비·무직 비율은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높았고, 중국청소년의 경우도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취업준비·무직의 비율은 높았으나 학생비율은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향성을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취업과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취업준비와 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현재 상황에 따른 진로관련 내용의 차이

○ 한국청소년 중 현재 취업준비·무직인 경우, 학생인 청소년에 비해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낮게 나타남.

이러한 현재 상황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직업 태도와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진로·직업 역량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표 IV-77>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77 현재 상황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진로준비행동/진로직업역량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취업	학생	취업준비/무직	취업	학생	취업준비/무직	취업	학생	취업준비/무직	취업	학생	취업준비/무직
진로직업 태도/확신성	M (SD)	3.20 (.906)	3.08 (.917)	3.30 (.881)	2.76 (.918)	2.75 (.862)	2.84 (.877)	3.21 (.943)	3.37 (.934)	3.37 (.997)	3.02 (1.122)	3.08 (1.073)	3.08 (1.088)
	F(Scheffé)	5.147**(bc)			.429			3.306*(ab)			.461		

*p<.05, **p<.01, ***p<.001

※ 주1 : 현재 상황(a=취업, b=학생, c=취업준비/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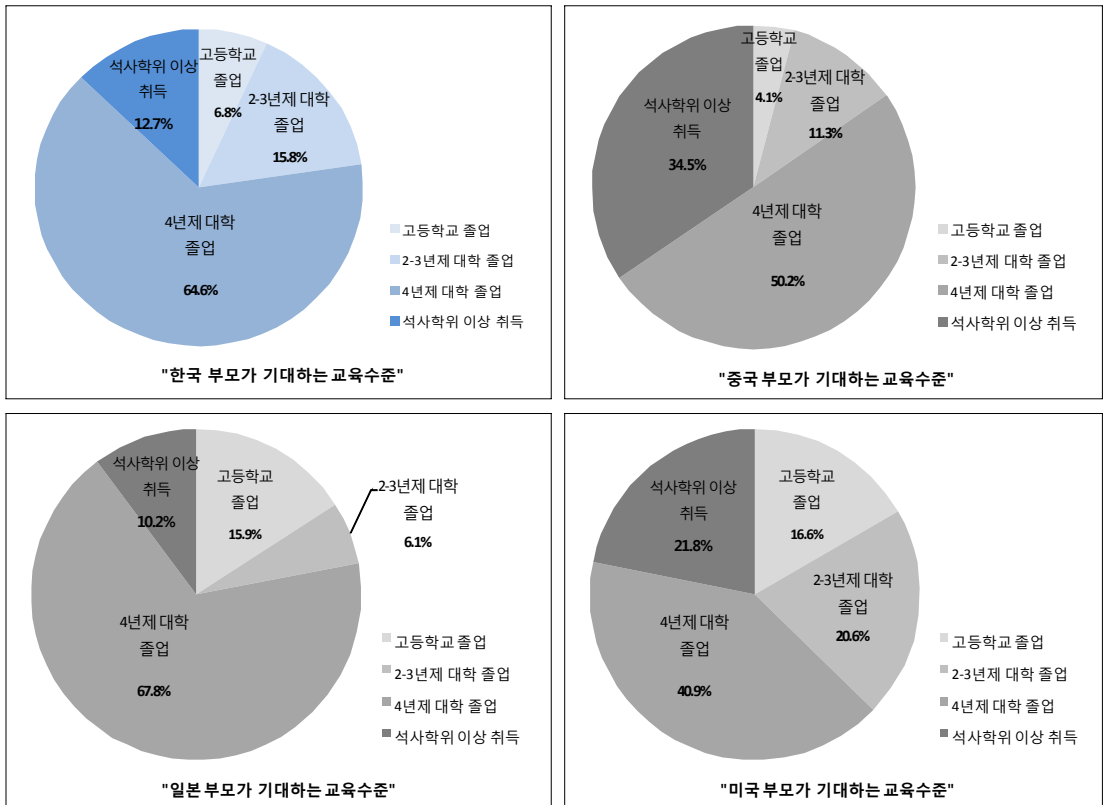
주2 : '확신성' 에 대한 내용이 부정적이므로, 높은 평균값은 낮은 확신성을 의미함.

주3 : 한국청소년에게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표 54> 참조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 중에서 오직 진로·직업 태도 중 미래 직업에 대한 성공 확신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는 '확신성' 만 현재 조사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현재 취업준비·무직인 경우, 현재 학생인 청소년에 비해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낮게 나타났다

(3) 한·중·일·미 청소년의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

○ 한·중·일·미 청소년의 부모들은 모두 자녀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를 기대하였고,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고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자녀가 4년제 대학이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8】 한·중·일·미 부모의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

청소년의 진로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IV-78>에서와 같이 한·중·일·미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의 기대 교육수준으로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일본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67.8%)을 보였고, 한국청소년은 64.6%, 중국청소년은 50.2%,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40.9%였다. 그러나 자녀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길 원하는 부모는 중국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았고(34.5%), 그 다음은 미국청소년(21.8%)순이었다.

표 IV-78 부모가 기대하는 청소년의 교육 수준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χ^2
고등학교 졸업	6.8	4.1	15.9	16.6	697.795***
2~3년제 대학 졸업	15.8	11.3	6.1	20.6	
4년제 대학 졸업	64.6	50.2	67.8	40.9	
석사학위 이상 취득	12.7	34.5	10.2	21.8	
전체	100(1502)	100(1503)	100(1504)	100(1502)	

*p<.05, **p<.01, ***p<.001

미국 청소년의 경우는 자녀의 기대 교육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16.6%)이나 2~3년제 대학졸업(20.6%)에 대한 비율이 한·중·일 청소년보다 높아 대체로 각 교육수준에 대한 고른 응답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고학력을 기대하는 한·중·일 청소년의 부모와 비교할 때 유의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4개국 모두 대부분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V-79>). 성별에서는 한국과 일본청소년에게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일 때, 일본은 남자청소년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이나 석사학위이상으로 높았다.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라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의 학력이 고졸보다 대졸일 때,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이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고,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편인 집단에서 자녀의 기대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응답한 비율이 20%넘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과 중국의 경우와 대비된 결과가 나타났다.

표 IV-79

부모가 기대하는 청소년의 교육수준 :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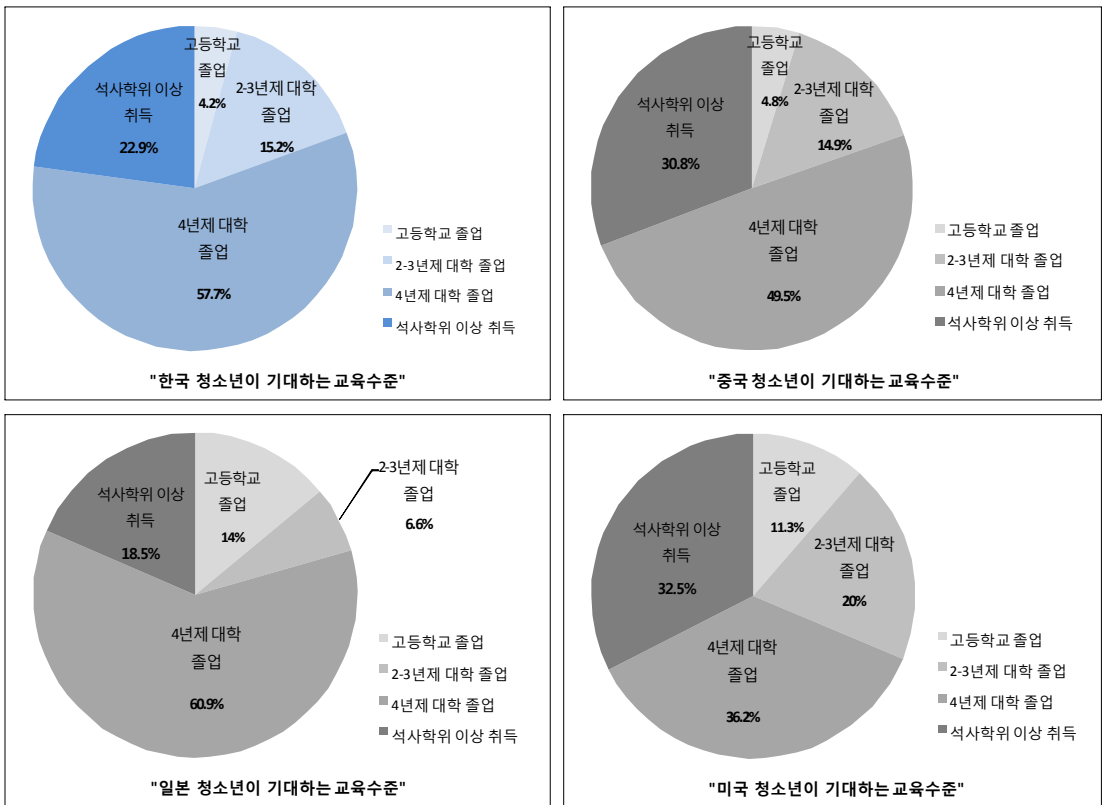
내용/구분		한국					중국				
		고졸	2~3 년제대	4년제대	석사 이상	전체	고졸	2~3 년제대	4년제대	석사 이상	전체
성별	남	9.2	15.2	63.0	12.6	100(751)	4.4	10.8	49.3	35.5	100(750)
	여	4.4	16.5	66.3	12.8	100(751)	3.7	11.8	51.0	33.5	100(753)
	χ^2	13.775**				100(1502)	1.419				100(1503)
부화력	고졸	8.0	22.3	61.9	7.8	100(758)	5.1	12.5	52.2	30.2	100(1071)
	대졸	2.8	6.5	70.9	19.8	100(616)	0.8	5.4	42.7	51.1	100(354)
	χ^2	114.044***				100(1374)	62.609***				100(1425)
무학력	고졸	6.8	18.5	65.6	9.1	100(981)	4.6	12.0	51.8	31.7	100(1120)
	대졸	3.8	5.8	66.4	24.1	100(399)	1.2	5.0	42.7	51.2	100(260)
	χ^2	82.932***				100(1380)	41.917***				100(1380)
경제수준	낮은편	6.4	20.2	61.7	11.8	100(660)	6.2	12.2	51.2	30.3	100(498)
	중간	11.6	15.0	65.3	8.2	100(354)	3.3	14.6	46.7	35.4	100(418)
	높은편	3.9	10.7	68.2	17.2	100(488)	2.7	8.2	51.8	37.3	100(587)
	χ^2	50.141***				100(1502)	23.722***				100(1503)
내용/구분		일본					미국				
		고졸	2~3 년제대	4년제대	석사 이상	전체	고졸	2~3 년제대	4년제대	석사 이상	전체
성별	남	12.1	3.2	68.2	16.5	100(751)	17.1	22.5	40.5	19.9	100(750)
	여	19.7	9.0	67.3	4.0	100(753)	16.1	18.8	41.4	23.8	100(752)
	χ^2	92.036***				100(1504)	5.547				100(1502)
부화력	고졸	23.9	6.4	63.0	6.8	100(486)	20.3	25.1	39.1	15.5	100(698)
	대졸	7.3	4.6	74.6	13.5	100(830)	8.4	13.7	47.1	30.8	100(548)
	χ^2	82.468***				100(1316)	86.068***				100(1246)
무학력	고졸	23.2	7.3	61.3	8.1	100(641)	21.3	24.9	37.5	16.4	100(752)
	대졸	5.0	4.0	78.0	13.0	100(677)	7.0	13.9	48.3	30.8	100(561)
	χ^2	105.814***				100(1318)	101.434***				100(1313)
경제수준	낮은편	23.7	9.5	58.4	8.4	100(524)	21.8	20.7	38.5	19.0	100(522)
	중간	18.3	6.2	68.8	6.7	100(388)	19.5	21.6	38.5	20.4	100(421)
	높은편	7.4	3.0	75.3	14.2	100(592)	9.5	19.9	45.1	25.6	100(559)
	χ^2	94.568***				100(1504)	37.855***				100(1502)

*p<.05, **p<.01, ***p<.001

(4) 한·중·일·미 청소년 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를 기대하는 응답률이 높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이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과 청소년 본인의 기대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

한·중·일·미 청소년 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일본청소년이 가장 높은 60.9%, 그 다음은 한국청소년 57.7%, 중국청소년 49.5%, 미국청소년 36.2%로 나타났다. 특히 한·일·미 청소년은 청소년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에 대한 응답이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중국 청소년 응답 제외). 석사학위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미국청소년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32.5%), 그 다음은 중국청소년(30.8%), 한국청소년(22.9%), 일본청소년(18.5%) 순이었다.



【그림 IV-49】 한·중·일·미 청소년이 기대하는 본인의 교육수준

표 IV-80 청소년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χ^2
고등학교 졸업	4.2	4.8	14.0	11.3	402.986***
2~3년제 대학 졸업	15.2	14.9	6.6	20.0	
4년제 대학 졸업	57.7	49.5	60.9	36.2	
석사학위 이상 취득	22.9	30.8	18.5	32.5	
전체	100(1502)	100(1503)	100(1504)	100(1502)	

*p<.05, **p<.01, ***p<.001

청소년 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대해 성별과 고교재학 시 학업수준,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표 IV-81>과 같다. 성별로는 한국과 미국청소년을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청소년에게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4년제 대학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학업수준과 경제수준별로는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교 재학 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본인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 4년제 대학 및 석사학위 이상 취득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한·중·일·미 청소년의 4년제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청소년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그림 IV-50】 과 같이 4년제 대학 졸업에 대해서는 부모의 기대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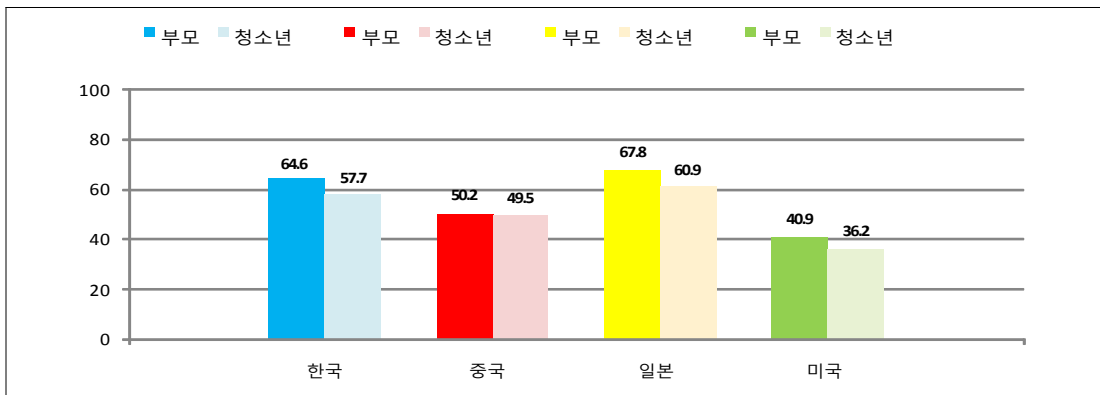
표 IV-81 청소년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명)

내용/구분	한국					중국					
	고졸	2~3년제대	4년제대	석사 이상	전체	고졸	2~3년제대	4년제대	석사 이상	전체	
성별	남	5.6	15.6	56.6	22.2	100(751)	5.3	11.9	49.3	33.5	100(750)
	여	2.8	14.8	58.9	23.6	100(751)	4.2	17.9	49.7	28.2	100(753)
	χ^2	7.782				100(1502)	13.636**				100(1503)
학업수준	하위권	8.0	28.8	46.2	17.0	100(288)	9.1	28.3	42.4	20.2	100(99)
	중위권	3.7	18.2	62.4	15.7	100(490)	5.4	27.1	52.8	14.7	100(299)
	상위권	2.1	7.6	59.6	30.7	100(701)	3.0	10.3	49.9	36.9	100(1080)
	χ^2	125.868***				100(1479)	110.745***				100(1478)
경제수준	낮은편	5.2	20.3	55.3	19.2	100(660)	8.0	19.1	46.8	26.1	100(498)
	중간	6.2	13.8	64.7	15.3	100(354)	4.3	18.2	49.0	28.5	100(418)
	높은편	1.4	9.2	55.9	33.4	100(488)	2.4	9.0	52.1	36.5	100(587)
	χ^2	77.295***				100(1502)	52.621***				100(1503)

내용/구분	일본					미국					
	고졸	2~3 년제대	4년제대	석사 이상	전체	고졸	2~3 년제대	4년제대	석사 이상	전체	
성 별	남	11.2	3.9	58.6	26.4	100(751)	12.8	19.6	35.6	32.0	100(750)
	여	16.7	9.4	63.2	10.6	100(753)	9.7	20.5	36.8	33.0	100(752)
	χ^2	77.539***				100(1504)	3.605				100(1502)
학 업 수 준	하위권	18.8	7.5	61.6	12.1	100(346)	14.6	24.4	39.0	22.0	100(82)
	중위권	17.1	8.3	64.5	10.1	100(375)	7.4	26.7	42.9	23.0	100(296)
	상위권	7.5	5.8	60.3	26.3	100(744)	5.8	15.9	37.6	40.7	100(931)
	χ^2	80.430***				100(1465)	50.365***				100(1309)
경 제 수 준	낮은편	21.8	9.5	52.9	15.8	100(524)	15.9	21.6	31.2	31.2	100(522)
	중간	17.3	6.7	64.7	11.3	100(388)	11.6	21.4	34.4	32.5	100(421)
	높은편	4.9	4.1	65.5	25.5	100(592)	6.6	17.5	42.2	33.6	100(559)
	χ^2	110.311***				100(1504)	33.545***				100(1502)

*p<.05, **p<.01, ***p<.001



【그림 IV-50】 한·중·일·미 청소년본인과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4년제 대학 졸업 기준) 비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과 청소년 본인의 기대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IV-82>에서 보듯이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에게서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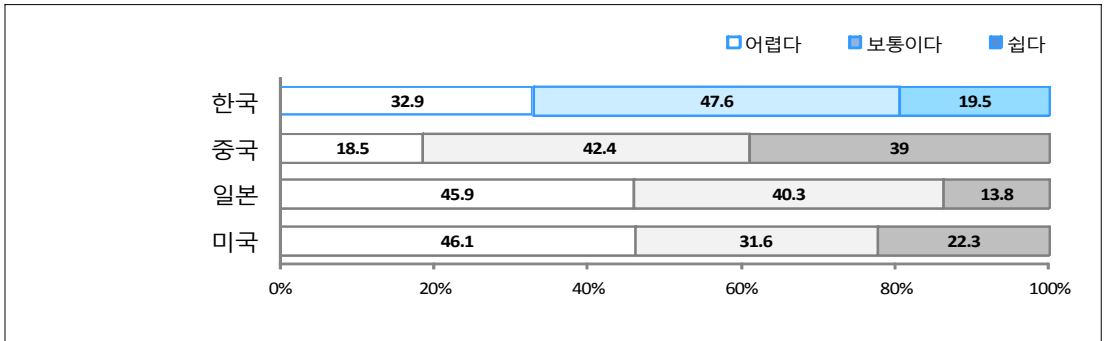
표 IV-82 상관분석 : 한·중·일·미 부모의 기대교육수준과 청소년의 기대교육수준

내용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녀의 기대교육수준	.559***	.619***	.741***	.639***

*p<.05, **p<.01, ***p<.001

(5)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일본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고, 중국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5년 이내 희망일자리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중·일 청소년은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미국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어렵다' 는 '매우어렵다' 와 '다소어렵다' 합친 응답률, '쉽다' 는 '다소쉽다' 와 '매우쉽다' 합친 응답률 기준

【그림 IV-51】 한·중·일·미 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한·중·일·미 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에 대한 취업가능성에 대해서 어렵다(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는 응답은 미국청소년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 46.1%였고, 그 다음은 일본청소년(45.9%), 한국청소년(32.9%), 중국청소년(18.5%)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미국과 일본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그림 IV-51】 , <표 IV-83>참조).

표 IV-83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χ^2
매우 어렵다	5.3	1.9	15.8	13.2	677.445***
다소 어렵다	27.6	16.6	30.1	32.9	
보통	47.6	42.4	40.3	31.6	
다소 쉽다	14.4	35.3	8.8	16.1	
매우 쉽다	5.1	3.7	5.0	6.2	
전체	100(1502)	100(1503)	100(1504)	100(1502)	

*p<.05, **p<.01, ***p<.001

이와는 반대로 중국청소년의 경우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서 40% 가까이 쉽다 (‘다소 쉽다’ 와 ‘매우 쉽다’)고 생각하고 있어 미래의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은 단지 19.5%만이 쉽다고 응답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 성별로는 한·중·미 청소년이 그리고 고교재학 시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한·중·일 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한·중·일·미 청소년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청소년 중에서는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남자청소년이 향후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중·일 청소년 중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중·일 청소년은 고교재학 시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또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5년 이내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5년 이내 희망 일자리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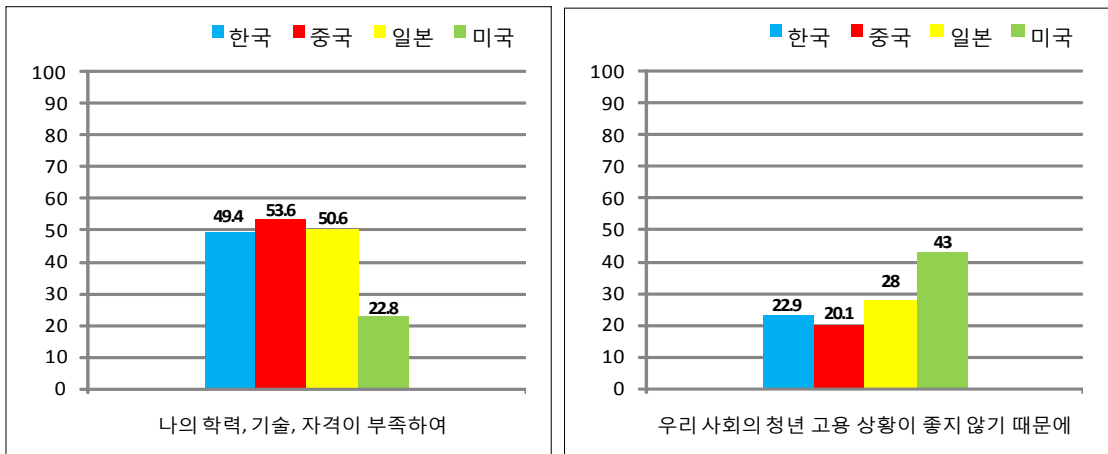
표 IV-84 5년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 :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체		2.86(.904)	3.22(.834)	2.57(1.019)	2.69(1.083)
성별	남	2.82(.943)	3.27(.867)	2.60(1.039)	2.75(1.102)
	여	2.91(.862)	3.18(.797)	2.54(.998)	2.63(1.061)
	t/F(Scheffé)	-2.028*	2.126*	1.067	2.180*
교육 수준	고졸이하	2.81(.956)	2.91(.930)	2.36(1.060)	2.61(1.071)
	전문대재·졸	2.86(.867)	3.11(.813)	2.48(.995)	2.67(1.109)
	4년제대재이상	2.88(.906)	3.30(.815)	2.64(1.000)	2.77(1.070)
	t/F(Scheffé)	.426	17.374***(ac, bc)	10.020***(ac)	2.961
학업 성적	하위권	2.67(.891)	2.98(.845)	2.46(1.95)	2.70(1.151)
	중위권	2.82(.826)	3.07(.836)	2.45(.968)	2.61(.971)
	상위권	2.98(.945)	3.30(.818)	2.70(.992)	2.74(1.107)
	t/F(Scheffé)	13.117***(df, ef)	13.658***(df, ef)	11.386***(df, ef)	1.515
경제 수준	낮은편	2.73(.928)	3.04(.860)	2.39(1.072)	2.47(1.066)
	중간	2.91(.788)	3.18(.809)	2.59(.953)	2.75(1.033)
	높은편	3.01(.925)	3.41(.791)	2.72(.989)	2.86(1.102)
	t/F(Scheffé)	15.019***(gh, gi)	28.737***(gh, gi, hi)	14.514***(gh, gi)	19.148***(gh, gi)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학업성적(d=하위권, e=중위권, f=상위권), 경제수준(g=낮은편, h=중간, i=높은편)

향후 5년 이내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중·일 청소년은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각각, 49.4%, 53.6%, 50.6%)(【그림 IV-52】 , <표 IV-85> 참조). 그러나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43%)을 보였는데, 이 항목은 한·중·일 청소년이 두 번째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특히 미국의 경우 더욱 좋지 않은 경제사정의 여파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응답이기도 하다.



※ 주 : 4개국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 기준

【그림 IV-52】 한·중·일·미 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에 대한 어려움 이유

표 IV-85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이 불가능한 이유 비교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5년 이내에 학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므로 (군복무, 대학원 등의 이유로)	21.1	9.0	4.1	12.8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49.4	53.6	50.6	22.8
나의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1.2	1.8	4.6	4.9
여자이기 때문에(여자만 응답)	0.6	2.2	3.8	1.7
나의 인맥, 학맥이 좋지 않아서	3.6	12.6	7.1	12.8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22.9	20.1	28.0	43.0
기타	1.2	0.7	1.9	1.9
전체	100(494)	100(278)	100(690)	100(693)

※ 주 : 음영 처리한 부분은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임.

중·일·미 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불가에 대한 주요 이유에 대해 성별, 학업수준,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한국 청소년의 경우 성별과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5년 이내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86〉과 〈부표 55〉참조).

표 IV-86 한국청소년의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불가능 이유 :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명)

내용/구분 (높은 순위 3가지 항목)	성별(N=461)		학업성적(N=456)			경제수준(N=461)		
	남	여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낮은편	중간	높은편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48.2	58.8	67.6	58.2	41.6	59.4	54.2	39.4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21.0	28.9	18.5	24.0	27.7	18.7	28.9	33.1
5년 이내에 학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므로(군복무, 대학원 등 이유로)	30.7	12.3	13.9	17.8	30.7	21.9	16.9	27.6
전체	100 (257)	100 (204)	100 (108)	100 (146)	100 (202)	100 (251)	100 (83)	100 (127)
χ^2	22.530***		23.474***			16.92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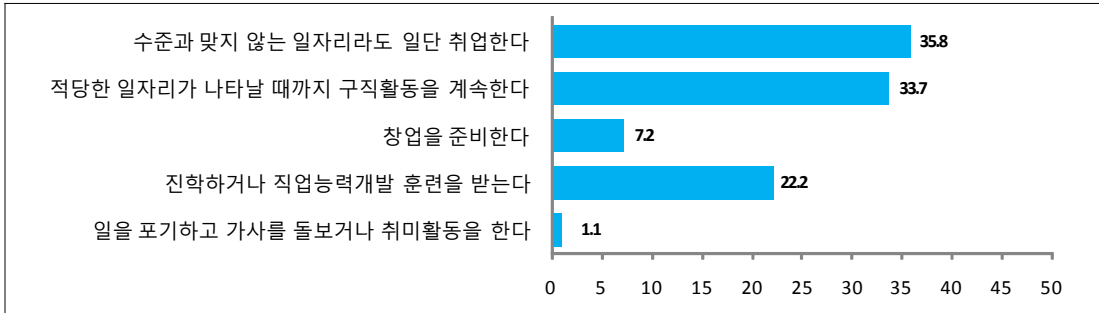
※ 주1 : 일부 변인의 응답에 결측치로 전체 N은 변인별로 차이가 있음.

주2 : 중·일·미 청소년의 응답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는 〈부표 55〉 참조

(6)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한·중·일 청소년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청소년 중에는 여자청소년, 학업성적이 하·중위권인 청소년,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이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일자리를 구할 때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한·중·일·미 청소년에게 조사한 결과는 〈표 IV-87〉과 같다.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한·중·일 청소년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청소년(40%), 한국청소년(35.6%), 중국청소년(31.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미국청소년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 한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았다.



【그림 IV-53】 한국청소년의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대책

또한 ‘진학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다’ 는 항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중국청소년이 2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한국청소년(22.2%)이었고, 일본과 미국청소년은 동일한 14.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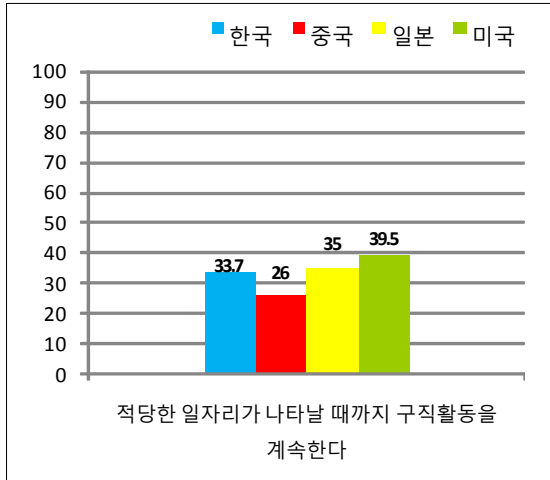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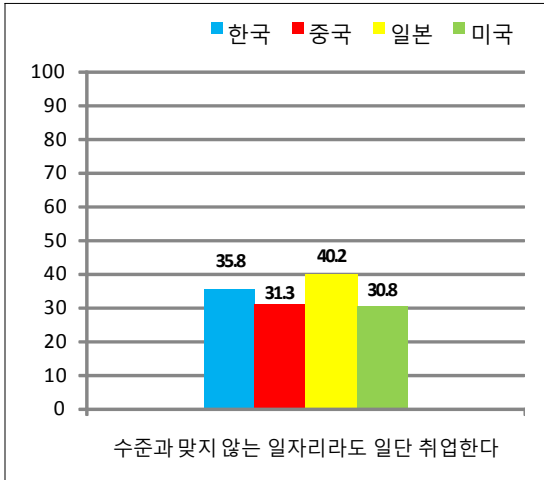
표 IV-87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대책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χ^2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35.8	31.3	40.2	30.8	329.055***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33.7	26.0	35.0	39.5	
창업을 준비한다	7.2	14.6	5.0	11.7	
진학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다	22.2	27.3	14.3	14.3	
일을 포기하고 가사를 돌보거나 취미활동을 한다	1.1	0.8	5.5	3.7	
전체	100(1491)	100(1503)	100(1499)	100(1496)	

*p<.05, **p<.01, ***p<.001

이러한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그 대책에 대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한국의 청소년에게서만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다른 국가의 배경변인별 분석은 <부표 56>참조).

한국의 남자청소년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는 응답이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업성적이 하위권이거나 중위권인 청소년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는 항목에 대해, 그리고 상위권 성적의 청소년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주 : 4개국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 기준

【그림 IV-54】 한·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대책

경제수준별로 보면,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는 응답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편인 청소년에게서는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V-88 한국청소년의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주요 대책 :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명)

내용/구분 (높은 순위 3가지 항목)	성별(N=1367)		학업성적(N=1352)			경제수준(N=1367)		
	남	여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낮은편	중간	높은편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35.7	42.2	46.0	37.6	37.1	46.2	38.0	29.7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 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40.5	33.2	29.2	36.2	40.2	30.1	39.9	43.8
진학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다	23.8	24.6	24.8	26.2	22.7	23.7	22.2	26.5
전체	100 (659)	100 (708)	100 (250)	100 (458)	100 (644)	100 (617)	100 (316)	100 (434)
χ^2	8.838*		11.393*			33.385***		

*p<.05, **p<.01, ***p<.001

※ 주1 : 일부 변인의 응답에 결측치로 전체 N은 변인별로 차이가 있음.

주2 : 중·일·미 청소년의 응답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는 <부표 56>참조

9. 조사결과 요약

1)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요인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총 6천여명이 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사회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 고민 및 걱정거리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미국, 한국, 일본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미국은 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자아통제감도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중국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미국, 일본 청소년의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과 일본의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보다 자아통제감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국 청소년 모두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한·중·일 청소년의 경우 교육수준과 고교 재학 시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자아통제감을 보였다. 다양한 고민·걱정거리 중에서 한국과 일본청소년은 ‘진로·진학문제’를, 그리고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아, 만 19~24세인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성인기로의 진입을 앞둔 주요 과업으로서 진로와 경제적인 부분이 주요 이슈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진로지도 경험

고등학교 재학 시 어떠한 진로지도를 경험했는지는 향후 진로 및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중·일·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 경험이 (96.5%), 그리고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각각 96.8%, 91.4%), 일본청소년은 진로상담(94.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가장 경험률이 높은 진로지도 항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인 ‘진로관련 검사’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는 90%가 넘게 나타난 것에 비해, 미국청소년은 약 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미국청소년에게서 두 번째로 높은 경험률을 보인 직업체험의 경우(91.1%),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약 81%수준에 그쳐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진로지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진로관련검사’에 대한 만족도는 약 3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서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낮은 편일수록 대부분의 진로지도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았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진로지도 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중국·미국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한·중·미 청소년 모두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경영/관리직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직업이고,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반대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어떻게 진로와 관련된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 부족한 진로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3)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및 성공요인

한국청소년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5가지 범주 중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한 ‘내적보상’ 과 같은 전통적으로 진로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들과, 또 안정되고 쾌적한 직장환경이나 규칙적인 출퇴근 및 휴가보장과 같은 ‘환경적 보상’ 에 대해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벌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외적보상’ , 타인과 함께 일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보상’ , 그리고 창조적이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율·창조적 보상’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나,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국가 청소년을 응답을 보면,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내적보상’ , 일본청소년은 ‘환경적 보상’ 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가 진로지도 경험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조사한 결과, 진로관련 강연과 직업체험,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한국청소년은 ‘외적보상’ 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에 비해,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내적 보상’에 대한 중요도를 더 높게 생각하였다. 또한 ‘자율·창조적 보상’ 과 ‘사회적보상’ 은 진로관련 강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진로지도의 만족도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그 상관정도가 낮았으나, 가정에서의 직업·진학 등 진로와 관련한 대화와는 상당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에서의 진로관련 대화가 많을수록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중요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에 대한 중요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이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과 ‘근면함과 성실성’ 이었고, ‘가정배경’ 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또한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으로 일본청소년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을, 중국청소년은 ‘인맥’ , 미국청소년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각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에서의 성공요인에 큰 차이를 보여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 진로 · 직업태도

진로 · 직업 태도에 있어 한 · 중 · 일 · 미 청소년 모두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에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 결정성은 한국과 중국의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높은 부 · 모학력 및 직업,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을 때 직업세계의 성공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다. 진로에 대한 준비성은 한국 · 일본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한 · 중 · 일 청소년에게서 더 높았으며, 한 · 일 · 미 청소년 중에는 남자청소년이 진로 · 직업선택 시 타인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 재학 시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 · 직업 선택 결정성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진로지도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확신성이 더 낮았다. 또한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한 대화 정도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관련 결정성이 높았으며, 진로 · 직업 태도의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업성취가 낮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청소년의 경우,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진로지도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자아존중감 · 자아통제감이 낮은 청소년은 향후 진로를 결정하거나, 성공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실질적인 진로준비 등에서 더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 · 직업 역량

한국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준비 행동 중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검색이나 책, 동영상, TV프로그램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 받거나 관심 있는 직종의 종사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하는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높은 교육수준과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또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지도를 경험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대화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도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진로·직업 역량과 관련해서는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응답이 ‘자기이해’와 ‘진로·직업 지식’에서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체로 4개국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직업 역량이 높았다. 진로·지도 역량 중 ‘진로·직업 지식’도 고등학교 재학 시 다양한 진로지도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도 상당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마찬가지로 진로·직업 역량도 개인의 학업성적이나 심리적 요인, 그리고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또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부분에서 취약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증진과 진로·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6)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중·일·미 청소년 중에서 한국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가장 낮았으며,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는 한국·일본청소년은 ‘용돈이 부족해서’, 중국청소년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미국청소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등으로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직업태도 중 더 높은 준비성과 독립성을 보였고, 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직업 역량에서도 더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은 32.6%로, 미국청소년(70.3%), 중국청소년(63%), 일본청소년(40.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조사대상자 중 한국학생에게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한국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중·일·미의 청소년보다 상당히 늦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중·일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취업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나, 저소득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기술이나 지식의 취득 없이 노동시장에 보다 이른 시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과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중·일·미 청소년의 부모들은 모두 자녀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들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공통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고 경제수준이 높은 편일수록, 또 청소년도 학업성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기대 교육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에서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혹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교육수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향후 5년 이내 희망일자리 취업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미국과 일본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고, 중국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중·일 청소년은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 미국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역량과 사회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한 취업가능성의 어려움을 모두 지적하였다.

또한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한·중·일 청소년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는 응답이, 미국청소년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청소년 중에는 여자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중·하위권인 경우, 또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에게서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비해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편인 청소년에게서는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취업을 먼저 선택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제언²⁵⁾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 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청소년들의 상대적 입지를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는 4개국 만 1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결론

1) 후기 청소년의 진로 준비 수준의 후퇴 현상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 또는 발현성인기라고도 불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이들이 진로준비에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령대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기도 하고 ‘성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기의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으로 간주되며, 취업, 결혼, 출산 등 본격적인 성인기 이행을 앞둔 연령대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려스럽게도 진로준비에 있어서 이들이 중고생들에 비해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한 예로, 2009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태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최인재 외, 2009), 본 연구의 대상인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이 진로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에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진로태도가 자연스럽게 성숙하는

25) 5장은 안선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진로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던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에 대한 목표가 비교적 분명하며, 목표가 구체적인 만큼 이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높았던 것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중요도가 높은 진로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하는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오히려 진로·직업태도 수준에서 후퇴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직업역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자기이해 수준과 합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중고등학생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성인기 이행 단계 직전의 연령대 청소년의 진로준비 정도에 주목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사 결과는 이들의 90%가 진로와 진학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국청소년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의 정도는 비교한 4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이 진로태도나 진로·직업 역량에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비해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이나 미국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과 관련지어 보면, 진로와 진학이 자신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서라기보다, 이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안감과 자신감 저하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유력하다.

중고등학교 시기보다 그 이후 시기에 진로준비 태도, 행동, 역량 수준에 있어 후퇴하는 현상이 한국사회 청소년들에게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기 이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특징이 혼재하는 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유사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사회 청소년의 진로발달 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 양상이 다양화되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진로발달 이론이 수정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청소년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4개국 모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여러 유형의 진로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 유형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타 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검사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직업체험을 한 비율은 낮았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진로지도의 의미를 진학지도와 유사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적성검사이나 흥미검사를 통해 자신이 진학할 학과나 직업군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진로지도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 검사는 시간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에는 직업세계의 치열함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진로 결정의 복잡성을 스스로 경험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인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령대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있어 직업체험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들의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4개국 중 미국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일본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은 진로준비 수준에 일관성 있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보다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수준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의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수준은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에 비쳐볼 때, ‘직업·진학 관련 대화’ 외에 부모나 보호자와 진로 관련 대화를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한국청소년이 30%에 못 미치는 현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만19세-24세 청소년의 경우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확고한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진로·직업 태도 영역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시기보다 이 시기에 진로에 대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대해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인식 정도가 일본청소년 다음인 두 번째로 한국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국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기부터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라며, 이것이 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로 인해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진로 결정에 대한 요구가 더 클 수도 있다. 진로결정에 대한 독립성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이지만 한국청소년이 진로결정성이나 확신성, 진로준비행동, 진로·직업역량에서는 타 국가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에서만 높은 수준을 보이는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진로결정에 대한 높은 욕구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의 필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학업성취수준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학업에 대한 고민’ (통계청, 2012)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사회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위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46.8%, 중국 72.8%, 일본 50.3%, 미국 70.6%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업성적 수준에 대해 다른 나라 청소년들 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더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진로준비 수준 전반에 관련성을 보인다. 먼저 학업성적은 자아존중감과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이는데, 이는 4개국에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과 중국청소년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자아통제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청소년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자아통제감도 학업성취의 상관 정도가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에서는 학업성취 수준과 결정성 수준 간에 관련성이 나타난 반면, 일본과 미국청소년들에서는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확신성과 학업성취수준은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미국 청소년들에서 관련성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에서는 4개국 모두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이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보였고, 진로준비역량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4)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과 함께 가정의 경제수준도 청소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진로준비 정도에 일관성 있게 관련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중국청소년들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먼저 4개국 모두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국을 제외한 3개국 청소년들 모두에서 자아통제감에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는 진로준비 관련 태도나 역량의 개발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준비에서 취약성이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도 더 컸고,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만족도도 더 낮게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에 대한 대화 빈도도 더 낮았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관련성은 중국청소년들에서만 나타났는데, 진로상담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지도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진로·직업 태도도 가정의 경제수준과 관련성을 보이는데, 진로결정성에 있어서는 일본을 제외한 세 국가 모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성이 나타났다. 진로확신성과 가정 경제수준의 상관관계는 한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진로준비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수준과 진로준비성의 정적 상관 양상을 보인 중국청소년과 대비되었다. 진로독립성에 있어서는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로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정도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직업역량 중 합리적 의사결정 수준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아졌다.

5년 이내 희망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경제수준이 높은 편인 청소년들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5) 성별

성별은 사회심리적 특성과 진로준비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아존중감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미국 모두에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았고, 한국과 일본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 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데, 성별 간 차이는 한국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아통제감이 더 낮게 나타났고, 이 역시 성별 간 차이가 4개국 중 한국에서 가장 컸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진로나 진학에 대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일본은 남자청소년이 고민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청소년은 이에 대한 남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직업태도의 결정성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미국만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확신성에서는 한국에서만 성별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의 확신성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았다. 진로준비성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성별 간 차이가 있었는데, 두 국가 모두 여자청소년의 준비성 수준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독립성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3국가 모두 여성의 진로결정에 대한 독립성이 더 높았다.

진로준비행동은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미국에서 성별 간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과 미국은 남자청소년이, 일본은 여자청소년이 진로준비행동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로·직업역량에서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근소한 차이지만 남자청소년이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중국청소년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데 비해, 미국은 여자청소년들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해서 한국, 일본, 미국 청소년들에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3개국 모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여자청소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구직 및 취업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3개국 모두 여자청소년의 구직 및 취업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직 또는 취업 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국 청소년들에서만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한 교육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일 때, 그리고 일본은 남자청소년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들 자신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는 중국과 일본청소년에서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5년 이내 희망일자리에 대한 취업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여자청소년이, 중국과 미국은 남자청소년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한국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정책제언

1)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요구 파악 및 진로교육 강화

기존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 연령대인 만 19세-24세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직업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진로 목표가 구체화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직업선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진로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한국사회의 입시위주 교육 풍토가 학교의 진로지도도를 대학진학지도도의 의미로 축소시켜 옴으로써 이 시기 청소년들의 진로의식과 태도의 발달이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이러한 지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기회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학업과 취업준비에 몰입하게 되면서, 이전 단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진로·직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진로·직업역량은 단기적인 지식 습득이나 일회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숙해진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진로 지원서비스 또는 취업 지원서비스는 취업 준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기초적인 진로·직업 역량부터 기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함께 투입해야 한다.

2)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학업성취수준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진로준비 수준 전반에 관련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개국에서 공통적이었으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 진로준비 수준 전반에서 걸쳐 학업성취수준의 영향이 한국청소년과 중국청소년들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진로지도의 내용도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학업성취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의 수준이 낮고, 진로준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한국 청소년들이 일부 전문직을 진로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의미있는 진로 목표를 가질 수 없다는 비관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강화하여 적성과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로와 삶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가정경제수준은 자녀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정도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나 유망한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 전반과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저소득층 가정 보호자들의 경우 자녀의 교육이나 진로준비에 관한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와 진로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건전한 역할모델로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한국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발달과 진로준비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진로나 직업 분야의 직업인을 멘토로 연결하는 방안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진로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4)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 강화

가정에서 부모와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는 정도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학교의 진로교육보다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을 갖거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족할 경우, 자녀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 많은 부모들의 높은 학업성적과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동일시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우선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자녀의 진로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학교의 진로교육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에서 더 나아가 자녀의 진로지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하다.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치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 개발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프로그램에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학부모 대상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에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지도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5) 의미 있는 진로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 대상 창업교육 강화

‘자신의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창업을 준비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개국 중 한국청소년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창업을 자신이 희망하는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진로라고 보는 시각도 경계해야 하지만, 한국청소년들이 창업을 의미있는 진로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이 기술형 혁신 창업 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창업이 도전해볼만한 가치 있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창업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 주어지는 위험부담이 우리사회에서 지나치게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창업, 그 중에서도 기술형 창업의 활성화는 혁신기술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의 경제 수준을 다음 단계로 높이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창업에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의 경제사회적 중요성,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 창업에 필요한 기초역량 함양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청소년기부터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강순희 (2001). 지역 인력수급,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체제 구축 방향.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운영방향과 과제 탐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2008). **청년고용촉진대책**.
- 김기현, 김창환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연구보고 11.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 (2009).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연구보고 09.R37).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기현, 홍세희, 설현수, 유성렬,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 생성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 09.R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웅진, 김지희 (2000). **비교사회연구방법론: 비교정치·비교행정·지역연구의 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진숙, 김현철 (2007). **고교생의 소비의식 및 소매행동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미 4개국 비교** (연구보고 07.R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숙, 임희진, 김현철 (2009).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 (연구보고 09.R2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설규주, 조영향, 이기홍, 한승희, 김정민, 박정애 (2011). 세계 청소년 시민의식과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시사점, **한국HRD연구**, 6(2), 25-41.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연구보고 RR 2110-18).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 (2006).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한·중·일·미 4개국 비교** (연구보고 06.2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형주, 최인재, 임지연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 08.R0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기곤 (2008).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 PISA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 분석. **한국경제학보**, 15(1), 55-90.
- 명승환, 최영훈 (2002). 인터넷조사방법론의 가능성과 쟁점. **한국행정학보**, 36(2), 333-351.
- 문시연 (2005). 데이터 수집 과정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2005년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 제2차 정기세미나 논문집**, 17-27.
- 박기남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한국여성학**, 25(2), 37-71.
-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완성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3(4), 57-73.
- 박종찬 (2006).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성장산업으로서의 헬기산업. **산업경제연구**, 9(5), 2097-2110.
- 송민경 (2011). 청소년기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329-347.
- 신효정,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9-161.
- 심수진, 이희길 (2009). **사회조사 항목개발** (통계 연구보고 09.1). 대전: 통계개발원.
- 안선영, 김희진 (2011). **창업,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연보 11.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호형, 이지연, 윤희한 (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홍준 (2005). 한국과 비교한 중국의 직업구조와 인적자원개발 정책적 함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8(1), 25-42.

- 윤정일, 이범수 (2006). PISA 2003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4(2), 523-548.
- 이경상, 임희진, 김진숙 (2011).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비교조사** (연보 11.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계오, 장덕현 (2009). 인터넷 선거조사에서 성향가중모형 적용사례. **조사연구** 10(3), 21-36.
- 이득연 (2004).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무근 (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진로교육. **진로교육연구**, 13, 1-14.
- 이미숙 (2011).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자료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1-54.
- 이수영, 김세미, 정혜령, 박은미, 임언, 유한구, 박현정, 전준우, 한혜은 (2009).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PIAAC)**」 사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은아 (2007). 청소년의 진로관 결정요인과 학년별 변화. **한국사회**, 8(1), 121-162.
- 이재창 (1994). 진로교육 발전방안 탐색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 80-119.
- 이재형 (2007). **우리 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 광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7-07).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학연구**, 20(3), 571-586.
- 이종원(2003).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 조사: 한·중·일·미 4개국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임희진, 이경자 (2007).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미 4개국 비교** (연보 07.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연, 윤희한, 김나라 (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최동선, 이혜숙 (2007). **초·중등학교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년·교과별 진로교육 요목 계열화 연구: 교과통합형 진로교육 모형과 자료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영, 김진교 (2006). 온라인 패널 조사와 오프라인 대인면접 조사 간 데이터 품질 비교: 신뢰도와 타당도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21(4), 209-231.

- 임경은 (2009). 2009 인터넷조사 사회조사 효과분석.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논문집**, 517-531.
- 임언 (2004). **생애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정책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2006). 한국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실태와 형성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9(1), 1-24.
- 임언 (2009).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12(2), 1-20.
- 임언, 장홍근, 윤희한 (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최동선, 오은진(2005). **한국의 성인직업기초능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정희, 강지원, 강경종(2008). **청소년의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특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홍근, 오영훈, 최지희, 이동임, 정윤경, 서우석, 이기홍 (2007).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국제비교 맥락에서 본 한국인의 직업의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창원, 이상돈, 황규희, 오호영, 전재식, 김미란, 윤여인, 강순희, 고상원, 박재민, 최영섭 (200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병우, 주영욱, 임병훈 (2011). 대인면접조사와 비교한 온라인 서베이조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제품구매행태에 대한 연구: 20대~4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18(2), 271-289.
- 정주영 (2010).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진로교육연구**, 23(1), 21-39.
-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동선 (2003).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성 탐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미,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연보 09.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이한나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연보

- 10.R36). 서울: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0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2). 2012 청소년 통계.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사이버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학/진로상담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2008년 청소년의 삶과 고민**. 한국청소년상담원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한국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상근, 임연, 이지연, 이경상, 정윤경 (2002).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I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명희, 조성겸 (2010). 자원자 패널에 의한 인터넷 조사의 성향조정 가중화. **조사연구**, 11(2), 1-28.
- 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추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4), 75-94.
- Alexitch, L. R., & Page, S. (1997). Evaluation of academic career counselling information and its relation to students' educational orientation.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31(3), 205-218.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Lond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old, J., & Jackson, C. (1997). The new career: Issues and challeng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5(4), 427-433.

- Arthur, M. B., Hall, D. T., & Lawrence, B. S. (1989). *Generating new directions in career theory: The case for the transdisciplinary approach*. In M. B. Arthur, D. T. Hall, and B. S. Lawrence (Eds.), *Handbook of career theory* (pp. 7–2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thur, M. B., & Rousseau, D. M. (1996).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thur, M. B., Inkson, K., & Pringle, J. K. (1999). *The new careers: Individual action and economic change*.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Baim, J., Galin, M., Frankel, M.R., Becker, R. & Agresti, J. (2009). *Sample surveys based on Internet panels: Eight years of learning*. New York, NY: Mediamark.
- Bank, G. (2009). *Evidence-based policy making: What is it? How do we get it? (ANU public lecture series)* Canberra, Canada: Productivity Commission.
- Bouffard, S. M., & Savitz-Romer, M. (2012). Ready, willing, and able. *Educational Leadership*, 69(7), 40–43.
- Braunsberger, K., Wybenga, H. & Gates, R. (2007). A comparison of reliability between telephone and web-based survey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7), 758–764.
- Collin, A. (1997). Career in context.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5(4), 435–446.
- Collin, A., & Watts, A. G. (1996). The death and transfiguration of career—and-of career guida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4, 385–398.
- Cote, J., & Bynner, J. M. (2008). Chang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the UK and Canada: The role of structure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251–268.
- Deci, E. L., Koestner, R., & Ryan, R. M. (2001). Extrinsic rewards and intrinsic motivation in education: Reconsidered once agai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1(1), 1–27.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Y: Norton.
- Feller, R. W. (2003). Aligning school counseling, the changing workplace, and career development assumption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6*(4), 262–271.
- Fu, T. M. (2005). Unequal primary education opportunities in rural and urban china. *China Perspectives*. Retrieved May 15, 2012, from <http://chinaperspectives.revues.org/500>
- Gati, I., & Saka, N. (2001). High school student' s career-related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3), 331–340.
- Galesic, M. & Bosknak, M. (2009). Effects of questionnaire length on participation and indicators of response quality in online surveys. *Pubic Opinion Quarterly, 73*(2), 349–360.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hard, B., Mignot, P., Offer, M., & Ruff, M. (2001). *Careers guidance in context*.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Gushue, G. V., Clarke, C. P., Pantzer, K. M., & Scanlan, K. R. L.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tino/a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4), 307–317.
- Gysbers, N. C., & Moore, E. J. (1981). *Improving guidance program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ll, D. T. (1996). Protean careers of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0*(4), 8–16.
- Head, B. (2009). *Evidence-based policy: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Strengthening evidence-based policy in the Australian Federation*. Roundtable Proceedings(pp.13–26). Volume 1: Proceedings, Roundtable Proceedings. Canberra, Canada: Productivity Commission.

- Helwig, A. A. (2008). From childhood to adulthood: A 15-year longitudinal career development stud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1), 38-50.
- Herr, E. L. (1992). Emerging trends in career counsel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15, 255-288.
- Herr, E. L. & Cramer, S. 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 (5th ed.). New York, NY: Harper Collins.
- Isaacson, L. E., & Brown, D. E. (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7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Julien, H. E. (1999). Barriers to adolescents' information seeking for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 38-48.
- Kenny, M. E., Blustein, D. L., Haase, R. F., Jackson, J., & Perry, J. C. (2006). Setting the stage: Career development and the student engage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 272-279.
- Ketterson, T. U., & Blustien, D. L. (1997).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67-177.
- Lee, S. & Valliant, R. (2009). Estimation for volunteer panel web surveys using propensity score adjustment and calibration adjustmen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37(3), 319-343.
- Littleton, S. M., Arthur, M. B., & Rousseau, D. M. (2000). *The future of boundaryless careers*. In A. Collin and R. A. Young (Eds.), *The future of career* (pp. 101-114).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o, Y., Yang, F., Lei, S., Wang, X., Papasoam, C. J. & Deng, H. (2009). Differences of height and body mass index of youths in urban vs rural areas in Hunan province of China. *Annals of Human biology*, 36(6), 750-755.
- Mau, W. C., Hitchcock, R., & Calvert, C. (1998).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lans: The influence of others' expectation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2), 161-166.
- Middleton, E. B., & Loughhead, T. A. (1993). Parental influence on career

- develop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adolescent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9(3), 161–173.
- Moore, M. (2004). *Attachment security's relation to various indices of caree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ollege of Akron.
- Morrow, M. R. (1995). The influence of dysfunctional family behaviors on adolescent career exploration. *School Counselor*, 42(4), 310–316.
- Nico, M. L. (2009). *Life styles and living conditions*. Paris, France: Council of Europe.
- Niles, S. G., & Harris–Bolwsbey, J. (2002).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21st century*.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Niles, S. G., & Harris–Bowlsey, J. (2005).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OECD (2004). **진로지도와 공공정책**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Patton, W., & McMahon, M (1999) *Career development and systems theory: A new relationship*.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Perry, J. C., Liu, X., & Pabian, Y. (2010). School engagement as a mediator of academic performance among urban youth: The role of career preparatio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2), 269–295.
- Peterson, G. W.(1998). Using a vocational card sort as an assessment of occupational knowledg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 49–67.
- Phillips, S. D., & Pazienza, N. J. (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 (pp.1–13). London: Routledge.
- Rainey, L. M., & Borders, L. D. (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44(2), 160–172.
- Rivers, D. (2007). *Sampling matching for web surveys: Theory and appl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007 Joint Statistical Meetings.
- Rosenbaum, J. E., & Person, A. E. (2003). Beyond college for all: Policies and practices to improve transition into college and job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6(4), 252–259.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6–78.
- Ryzin, G. G. (2008). Validity of an on-line panel approach to citizen surveys.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32(2), 236–262.
- Savickas, M. L. (2000). *Renovating the psychology of carer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A. Collin and R. S. Young (Eds.), *The future of career* (pp. 53–6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llewaert, N. & Meulemeester, P. (2005). Comparing response distributions of offline and online data collection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7(2), 163–178.
- Schonlau, M., van Soest, A. & Kapteyn, A. (2007). Are 'webographic' or attitudinal questions useful for adjusting estimates from web surveys using propensity scoring? *Survey Research Methods*, 1(3), 155–163.
- Segone, M. & Pron, N. (2008). *The role of statistics in evidence-based policy making*. Paper presented at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and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 Skorikov, V.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1), 8–24.
- Storey, J. A. (2000). 'Fracture lines' in the career environment. In A. Collin and R.A. Young(Eds.), *The future of career* (pp. 21–3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inger, K., Kerpelman, J., & Skorikov, V. (2011). Career preparation: A

- longitudinal, process-oriented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158–169.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63).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early career behavior: A first formulat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775–780.
- Super, D. E. (1976). *Career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work*. Monographs on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C: The Office of Career Education, U. S. Office of Education.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Taveira, M. D. C., Silva, M. C., Rodriguez, M. L. & Maia, J. (1998).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6(1), 89–104.
- Taveira, M. D. C., & Moreno, M. L. R. (2003). Guidance theory and practice: The status of career explora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1(2), 189–207.
- Tomini, B. A., & Page, S. (1992). Vocational bias and gender: Evaluations of high school counsellors by Canadian university graduates.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26(2), 100–106.
- Turner, S., & Lapan, R. T. (2002). Career Self-efficacy and perceptions of parent support i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1), 44–55.
- Watts, A. G. (2002).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Global issues and challenges*. A keynote presentation to the ‘Pushing the Bounda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 Weick, K. E. (1996). *Enactment and the boundaryless career: Organizing as we work*. In M. B. Arthur and D. M. Rousseau (Eds.), *The boundaryless*

-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pp. 40–5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emer, E. D., & Ritschard, G. (2009). The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Are men and women equal? *Advances in Life Research*, 14, 28–39.
- Witko, K., Bernes, K. B., Magnusson, K., & Bardick, A. D. (2005). Senior high
school career planning: What students want. *Journal of Educational Enquiry*,
6(1), 34–49.
- Young, R. A. (1997). The joint action of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versation
about career.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1), 73–86.
- Young, R. A., & Collin, A. (2000). *Introduction: Framing the future of career*.
In A. Collins and R. A. Young (Eds.), *The future of career* (pp. 1–17).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ttp://www.dentsu.co.jp>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 http://kostat.go.kr/survey/lifestyle/ls_sm/1/index.static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 <http://www.bls.gov>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 <http://www.stat.go.jp>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 <http://www.issp.org>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 <http://www.worldvaluessurvey.org>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 <http://www.stats.gov.cn>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부록

[부 록]

부록1. 한국 설문지



ID

2012년 청소년 진로준비 실태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
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생활실태 국제비교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선영 · 김희진 박사
-------------	-------------------------

Q2.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둘러싼 일들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Q3.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
1)	공부·학교 성적 문제	①	②	③	④
2)	진로·진학 문제	①	②	③	④
3)	가정의 경제적 형편	①	②	③	④
4)	가족과의 불화	①	②	③	④
5)	사귀는 사람(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①	②	③	④
6)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7)	나의 성격문제	①	②	③	④
8)	나의 외모·신체 관련 문제	①	②	③	④

진로지도 경험

Q4. 고등학교 재학 중 다음에 제시된 진로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신 경우 각 활동의 경험여부와 귀하의 진로관련 결정에 도움이 된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경험여부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1)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및 학과 안내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관련 검사(적성, 흥미 검사 등)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업체험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상담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Q5. 평소에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가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Q6. 귀하는 직업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많은 돈을 버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9)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10)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11)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3)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4)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휴가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5)	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Q7.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래의 요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 통 이 다	중 요 하 다	매우 중요 하다
1)	돈(자본)/재산	①	②	③	④	⑤
2)	근면함과 성실성	①	②	③	④	⑤
3)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인맥	①	②	③	④	⑤
5)	좋은 성품	①	②	③	④	⑤
6)	자기계발	①	②	③	④	⑤
7)	운이나 요행	①	②	③	④	⑤
8)	가정배경	①	②	③	④	⑤
9)	학벌/학력	①	②	③	④	⑤
10)	뚜렷한 목표의식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①	②	③	④	⑤

진로·직업 태도

Q8.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대 체로 그 렇 다	매우 그 렇 다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장애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진로준비 행동

Q9.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 (이메일, 전화 등)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등)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진로·직업 역량

Q10.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귀하와 일치하는 정도를 오른쪽의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사회적 지위,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 내용, 수입,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Q11. 귀하는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Q11-1.**
- ② 없다 **Q12.**

Q11-1.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 ② 학비를 벌기 위해서
- ③ 용돈이 부족해서
- ④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 ⑤ 호기심에
- ⑥ 주위의 권유로
- ⑦ 기타 (_____)

Q11-2.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귀하의 지금 또는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③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 ④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12. 귀하는 직업을 찾거나 취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제외)**

- ① 있다 **Q13.**
- ② 없다 **BQ1.**




Q13. 직업을 구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하십시오. **(취업을 한 경우에는 첫 직장을 얻을 때 경험했던 바를 염두에 두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직 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정보가 부족하여	①	②	③	④	⑤
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①	②	③	④	⑤
3)	경험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4)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5)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①	②	③	④	⑤
6)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①	②	③	④	⑤
7)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8)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_____)					

기타 질문

※ 다음은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BQ1. 귀하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학교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학생으로 응답)

- ① 취업  BQ1-1.
- ② 학생(휴학생 포함)  BQ2.
- ③ 취업준비/무직(전업주부 포함)  BQ2.

BQ1-1.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
- ② 임시직, 계약직
- ③ 일용직
- ④ 고용원을 둔 사업주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프리랜서
- ⑥ 무급가사종사자
- ⑦ 기타 (_____)






BQ2.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가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2-3년제 대학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석사학위 취득
- ⑤ 박사학위 취득

BQ3. 귀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2-3년제 대학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석사학위 취득
- ⑤ 박사학위 취득

BQ4. 귀하는 향후 5년 이내에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BQ5.
- ② 다소 어렵다  BQ5.
- ③ 보통  BQ6.
- ④ 다소 쉽다  BQ6.
- ⑤ 매우 쉽다  BQ6.

BQ5. 향후 5년 이내에 귀하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렵다고 예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5년 이내에 학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므로(군복무, 대학원 등의 이유로)
- ②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 ③ 나의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 ④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응답)**
- ⑤ 나의 인맥, 학맥이 좋지 않아서
- ⑥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 ⑦ 기타(_____)

BQ6. 일자리를 구할 때 귀하의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 ②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 ③ 창업을 준비한다
- ④ 진학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다
- ⑤ 일을 포기하고 가사를 돌보거나 취미활동을 한다
- ⑥ 기타(_____)

BQ7. 귀하의 부모님께서서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각각의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부	① 중졸(고등학교 중퇴) ④ 대학원졸	② 고졸(대학교 중퇴) ⑤ 잘 모름	③ 대졸(대학원 중퇴)
모	① 중졸(고등학교 중퇴) ④ 대학원졸	② 고졸(대학교 중퇴) ⑤ 잘 모름	③ 대졸(대학원 중퇴)

BQ8. 귀하의 부모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서 해당합니까? (만약 은퇴하셨다면 은퇴 시 상태를 응답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부	① 무직 ④ 농·축산업/어업/노무직	② 전문/경영/관리직 ⑤ 기타 (_____)	③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직
모	① 가사(전업주부) ④ 농·축산업/어업/노무직	② 전문/경영/관리직 ⑤ 기타 (_____)	③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직

BQ9. 귀하의 고등학교 때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상위권 ② 중상위권 ③ 중위권
- ④ 중하위권 ⑤ 하위권 ⑥ 해당사항 없음

BQ10.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0에서 10까지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낮다'면 0, 가장 '높다'면 10 등 0에서 10 사이의 숫자 중 해당 번호에 √표 하십시오.

낮다(아래)	중간이다	높다 (위)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2. 중국 설문지



2012年

ID

--	--	--	--	--

青少年就业升学准备现状调查

本问卷调查所涉及的全部内容,不可用于统计分析以外的其它目的,按照统计法(第33条)的规定进行保密处理。

您好!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是隶属于国务总理室的国策研究机关,负责对儿童、青少年相关的各种问题,进行调查研究和政策制定。

本调查为青少年生活现状国际比较调查的一部分,以出台更好的青少年政策为目的,对韩国青少年的就业升学前景及职业相关的现状进行调查。

各位的意见将成为制定儿童、青少年政策非常重要的资料。为了将各位的意见准确反应在政策制定中,请各位务必诚实作答。最后,向从百忙中抽时间接受调查的各位表示诚挚的谢意。

2012. 10.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首尔特别市瑞草区胎峰路114号

SQ1. 您的性别？

- ① 男 ② 女

SQ2. 您的出生年度？

SQ3. 您现在居住的城市？

SQ4. 您所居住的地域为以下哪一类型？

- ① 大城市 ② 中小城市 ③ 农村(乡村地区)

SQ5. 您的最高学历？

- | | |
|-----------------------|-------------------|
| ① 初中毕业以下(包括高中退学) | ② 高中在校/休学中 |
| ③ 高中毕业 (包括参加高中毕业资格考试) | ④ 2年制~3年制大学在校/休学中 |
| ⑤ 2年制~3年制大学, 大专毕业 | ⑥ 4年制大学在校/休学中 |
| ⑦ 4年制大学毕业 | ⑧ 研究生院在校 |
| ⑨ 研究生毕业 | |

Q1. 以下为您对自身评价的相关问题。请您选择与您的条件最为符合的答案。

号码		完全 不符合	不符合	一般	基本 符合	非常 符合
1)	我认为我是个品行端正的人。	①	②	③	④	⑤
2)	我认为我是有能力的人。	①	②	③	④	⑤
3)	我认为我是有价值的人	①	②	③	④	⑤
4)	有时我觉得我是个没有用的人。	①	②	③	④	⑤
5)	有时我觉得我是个坏人。	①	②	③	④	⑤
6)	我感到基本上我是个失败的人。	①	②	③	④	⑤
7)	我没有多少值得骄傲的东西。	①	②	③	④	⑤
8)	如果我能更尊重自身就更好了。	①	②	③	④	⑤
9)	我用肯定的态度的对待我自己。	①	②	③	④	⑤
10)	我对自己的生活总体上满意。	①	②	③	④	⑤

Q2. 以下为您对自身周围的事情和问题的看法相关的问题。请您选择与您的条件最为符合的答案。

号码		完全 不符合	不符合	一般	基本 符合	非常 符合
1)	在我的问题中,有我绝对无法解决的。	①	②	③	④	⑤
2)	有时我感觉我的人生被摆布。	①	②	③	④	⑤
3)	我的事情,我基本上都无法控制。	①	②	③	④	⑤
4)	只要我下定决心事情,无论是什么都可以做到。	①	②	③	④	⑤
5)	我要解决我人生的问题时,经常感到无力。	①	②	③	④	⑤
6)	未来我身上将发生的事情,大部分都取决于我自己。	①	②	③	④	⑤
7)	我人生中发生的重要的事情,大部分我都无法改变。	①	②	③	④	⑤

Q3. 现在烦恼的事情相关的问题。请您选择最为符合的答案。

号码		绝对 不担心	有点担心	比较 担心	非常 担心
1)	学习、学校成绩问题	①	②	③	④
2)	就学、升学问题	①	②	③	④
3)	家庭的经济问题	①	②	③	④
4)	与家人的不和睦	①	②	③	④
5)	恋人问题(男朋友、女朋友)	①	②	③	④
6)	朋友关系	①	②	③	④
7)	我的性格问题	①	②	③	④
8)	我的外貌、身体相关的问题	①	②	③	④

Q4. 中在校时,您是否接受过以下就业指导教育?如果有,是否参加过各种体验活动,以及这些活动对阁下的就业起到了何种程度的帮助作用,请您选择最为符合的答案。

号码		是否体验		非常 不满意	比较 不满意	一般	比较 满意	非常 满意
		① 有	② 没有	①	②	③	④	⑤
1)	就业相关讲演(专家、前辈等)	① 有	② 没有	①	②	③	④	⑤
2)	学校及学科介绍	① 有	② 没有	①	②	③	④	⑤
3)	就业相关测试(性格、兴趣检验等)	① 有	② 没有	①	②	③	④	⑤
4)	职业体验	① 有	② 没有	①	②	③	④	⑤
5)	就业咨询	① 有	② 没有	①	②	③	④	⑤

Q5. 平时在家庭中的就业指导相关的问题。

您在家中,对于以下事项是否会经常与家人进行对话?

请您选择最为符合的答案。

号码		非常少	较少	一般	非常多	非常频繁
1)	关于人生要如何度过的对话	①	②	③	④	⑤
2)	关于我的担心与兴趣的对话	①	②	③	④	⑤
3)	职业、升学等相关的对话	①	②	③	④	⑤
4)	父母所从事的工作或职业相关的对话	①	②	③	④	⑤

Q6. 您在职业生活中,对以下事项的重要性如何考虑? 请您选择最为符合的答案。

号码		完全不重要	不重要	一般	重要	非常重要
1)	可发挥自身的能力,感受成就感	①	②	③	④	⑤
2)	从事有变化的工作,而不是单调重复	①	②	③	④	⑤
3)	可以赚很多钱	①	②	③	④	⑤
4)	不容易失业,可长久工作下去的职场	①	②	③	④	⑤
5)	我所从事的工作受到他人的认可	①	②	③	④	⑤
6)	在我工作的地方可以发挥领导力	①	②	③	④	⑤
7)	比起独立工作,更喜欢和他人共同工作	①	②	③	④	⑤
8)	可具体帮助到他人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9)	有进一步发展和学习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10)	自己提出好点子,有进行全新尝试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11)	没有上司的命令或管理,独自工作并承担责任	①	②	③	④	⑤
12)	做我喜欢并感兴趣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13)	在愉快的环境中工作	①	②	③	④	⑤
14)	规则的上下班时间,以及可以保障休假时间的职场	①	②	③	④	⑤
15)	做简单容易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Q7. 在自身的职场中, 您认为的以下因素对成功的重要性? 请您选择最为符合的答案。

号码		完全不重要	不重要	一般	重要	非常重要
1)	钱(资本)、财产	①	②	③	④	⑤
2)	勤勉和诚实	①	②	③	④	⑤
3)	完美的人际关系能力	①	②	③	④	⑤
4)	人脉	①	②	③	④	⑤
5)	端正的品行	①	②	③	④	⑤
6)	自我启发	①	②	③	④	⑤
7)	运气或侥幸	①	②	③	④	⑤
8)	家庭背景	①	②	③	④	⑤
9)	学校/学历	①	②	③	④	⑤
10)	明确的目标意识	①	②	③	④	⑤
11)	职场中要求的技术能力	①	②	③	④	⑤

Q8. 您对以下项目是否同意, 请您选择与您的条件最为符合的答案。

号码		完全不符合	比较不符合	一般	比较符合	非常符合
1)	我已经明确决定了我的前途。	①	②	③	④	⑤
2)	我已经确定将来要干什么事情	①	②	③	④	⑤
3)	我已经决定了我的前途,在前途选择上没有过多的烦恼	①	②	③	④	⑤
4)	我在我选择的职业上,没有自信能成功	①	②	③	④	⑤
5)	我对我想要做的事情没有充分的自信	①	②	③	④	⑤
6)	我希望与从事我喜欢职业的人进行有关前途的对话	①	②	③	④	⑤
7)	为了准确理解我的兴趣或性格等,希望接受专业咨询	①	②	③	④	⑤
8)	我很有兴趣收集与未来前途相关的资料	①	②	③	④	⑤
9)	比起我喜欢的职业,我会选择父母或周围人推荐的职业	①	②	③	④	⑤
10)	我必须要他人的帮助,才能决定我的未来前途	①	②	③	④	⑤

Q9. 阅读以下内容, 请您选择与您的条件最为符合的答案。

号码		完全不是	不是	一般	比较准确	非常准确
1)	我对我所关注的职业,通过网络进行过搜索	①	②	③	④	⑤
2)	我曾和拥有我所喜欢职业的人进行过联系(电子邮件、电话等)	①	②	③	④	⑤
3)	我看过与我关注的职业相关的视频或电视节目	①	②	③	④	⑤
4)	我曾和我关注的职业的从业者见面并进行过交谈	①	②	③	④	⑤
5)	我曾自发的就我的前途问题进行过咨询	①	②	③	④	⑤
6)	为了了解对未来前途有影响的自身性格及兴趣等,进行过测试	①	②	③	④	⑤
7)	为了具备我喜欢的职业所要求的能力或技术,正在努力准备中(在培训班学习,获取资格证等)	①	②	③	④	⑤
8)	我阅读了我所关注的职业或升学相关的书籍、宣传材料等	①	②	③	④	⑤

Q10. 阅读下面的问题, 请您选择与您的条件最为符合的答案。

号码		完全不准确	比较不准确	一般	比较准确	非常准确
1)	我知道我擅长的什么	①	②	③	④	⑤
2)	我知道我喜欢什么,讨厌什么	①	②	③	④	⑤
3)	我知道我所重视的职业选择条件(社会地位,工资水平,工作时间等)是什么	①	②	③	④	⑤
4)	我知道与我的性格相符的职业是什么	①	②	③	④	⑤
5)	我知道与我可以选择的职业相关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6)	我知道多种职业种类和职业前景等相关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7)	我知道在多种职业领域,人们实际上在做什么工作	①	②	③	④	⑤
8)	我知道要如何获取适合的就业升学相关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9)	我知道我所关注的职业的特性(例如:工作内容,收入,工作环境等)	①	②	③	④	⑤
10)	对多种职业的优缺点进行充分思考后做决定	①	②	③	④	⑤
11)	在做决定之前,充分听取多人的意见,进行深思熟虑	①	②	③	④	⑤
12)	考虑我所处的现实(家庭环境,身体条件等),决定未来前途	①	②	③	④	⑤

号码		完全 不准确	比较 不准确	一般	比较 准确	非常 准确
13)	以我拥有的职业知识和对自身的理解为基础,选择适合我的职业	①	②	③	④	⑤
14)	在求职时,考虑职业与我的性格或兴趣是否相符	①	②	③	④	⑤
15)	我关注的职业,会考虑我的素质和个性是否相符	①	②	③	④	⑤
16)	客观判断我希望拥有的职业所要求的学历或资格,我是否具备	①	②	③	④	⑤
17)	进行充分的思考以后,做出有关前途的决定	①	②	③	④	⑤
18)	做出具体选择之前,充分考虑了该选择将带来的结果	①	②	③	④	⑤

Q11. 您在学校的时候，是否兼职了？

- ① 有  Q11-1.
- ② 没有  Q12.

Q11-1. 在校期间, 兼职的最主要目的是什么?

- ① 为了赚取生活费
- ② 为了赚取学费
- ③ 零花钱不足
- ④ 为了积累社会经验
- ⑤ 好奇心
- ⑥ 周围人的劝导
- ⑦ 其它 (_____)

Q11-2. 您是否认为在校期间兼职的经验对现在或未来的职业有帮助？

- ① 完全没有帮助
- ② 不太有帮助
- ③ 有一些帮助
- ④ 非常有帮助

Q12. 您是否有求职或就业的经验？(兼职除外)

- ① 有  Q13.
- ② 没有  BQ1.




Q13. 求职中遇到的困难相关的问题。请您选择与您的条件最为接近的答案。

(已就业的情况下,以获得第一份工作时的经历为基础作答)

号码	就职时困难的理由	完全不准确	比较不准确	一般	比较准确	非常准确
1)	就业信息不足	①	②	③	④	⑤
2)	对本人的个性了解不透彻	①	②	③	④	⑤
3)	缺乏经验	①	②	③	④	⑤
4)	由于是女性 (仅限女性作答)	①	②	③	④	⑤
5)	学历、技术、资格不足	①	②	③	④	⑤
6)	由于外貌或身体上的缺陷	①	②	③	④	⑤
7)	收入或报酬不符	①	②	③	④	⑤
8)	工作环境或工作时间等不符	①	②	③	④	⑤
9)	其它 (_____)					

※ 以下是为了进行问卷调查的结果分析而设置的问题,答案内容将进行保密处理,请诚实作答。

BQ1. 您现在的身份为? (※ 在职学习的情况,按学生作答)

- ① 就业  BQ1-1.
 ② 学生(包括休学生)  BQ2.
 ③ 就业准备/无职(包括全职主妇)  BQ2.

BQ1-1. 您现在的就业形态为以下哪一种?

- ① 全职
 ② 临时职工,合同制职工
 ③ 零工
 ④ 雇佣职员的企业主
 ⑤ 没有雇佣职员的自营业/自由职业
 ⑥ 无偿家政人员
 ⑦ 其它 (_____)

BQ2. 您的父母希望您接受教育到何种程度?

- ① 高中毕业
 ② 2-3年制大学毕业
 ③ 4年制大学毕业
 ④ 获得硕士学位

- ⑤ 获得博士学位

BQ3. 您认为您将接受教育到何种程度？

- ① 高中毕业
- ② 22-3年制大学毕业
- ③ 4年制大学毕业
- ④ 取得硕士学位
- ⑤ 取得博士学位

BQ4. 您认为,未来5年以内找到您所希望的职位的可能性有多大？

- ① 非常困难  BQ5.
- ② 比较困难  BQ5.
- ③ 一般  BQ6.
- ④ 比较容易  BQ6.
- ⑤ 非常容易  BQ6.

BQ5. 如果认为未来5年以内,想要找到您所希望的职位很困难,有这样想法的最大理由是什么？

- ① 5年以内,无法结束读书(军队服务,研究生等理由)
- ② 我的学历、技术、资格不足
- ③ 我的外貌及身体上的条件不符
- ④ 由于我是女性 (限女性回答)
- ⑤ 我的人脉关系不好
- ⑥ 社会整体的青年就业情况不好
- ⑦ 其它(_____)

BQ6. 在求职过程中,如果没有和您的学历水平相匹配的职位,您将如何选择？

- ① 先接受与自身学历水平不符的职位
- ② 在遇到适合的职位之前,继续进行求职
- ③ 准备创业
- ④ 进行深造学习或者接受职业能力开培训练
- ⑤ 放弃求职,在家做家务或开展兴趣活动
- ⑥ 其它(_____)

BQ7. 您父母的受教育程度？ 请您选择于您父母学制学历。

父	① 初中毕业(高中退学)	② 高中毕业(大学退学)	③ 大学毕业(研究生退学)
	④ 大学毕业	⑤ 不清楚	

母	① 初中毕业(高中退学)	② 高中毕业(大学退学)	③ 大学毕业(研究生退学)
	④ 大学毕业	⑤ 不清楚	

BQ8. 请选择您父母的职业？

(如果已经退休,回答退休当时的状态即可) 请您选择于您父母职业。

父	① 无职	② 专门/经营/管理职	③ 一般事务/技术/销售服务职
	④ 农业畜牧业/渔业/劳务职	⑤ 其它 ()	
母	① 家务(全职主妇)	② 专门/经营/管理职	③ 一般事务/技术/销售服务职
	④ 农业畜牧业/渔业/劳务职	⑤ 其它 ()	

BQ9. 您在高中时期,学习成绩如何？

- ① 上游 ② 中上 ③ 中游
④ 中下 ⑤ 下游 ⑥ 没有相应事项

BQ10. 将我们所处的社会中人们的经济能力划分为0至10等,您认为现在自己家庭的经济状况处于以下哪个水平上? 最低为0,最高为10, 请从0至10之间的数字中选择一个数字。

低	中间										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非常感谢您回答以上问题。♣

부록3. 일본 설문지



ID

--	--	--	--	--

2012年 青少年進路準備実態調査

このアンケートで得られたすべての内容は統計目的以外には絶対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ず、その秘密は保護されるように統計法(第33条)に規定されています。

こんにちは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は国務総理室傘下の国策研究機関として児童・青少年に関する各種の調査研究や政策開発業務を担当・遂行しています。

この調査は青少年の生活実態の国際比較調査の一環として日本の青少年たちの進路及び職業に関わる実態を調査し、より良い青少年政策を立てるための目的で実施しています。

皆様の自由で誠意のあるご意見は皆様のための実質的な児童・青少年政策の樹立に重要な資料として活用されることでしょう。したがって皆様のご意見が正確に政策に反映されるようにまじめに率直な回答をお願い致します。本調査にお時間をいただき、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12. 10.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

(137-715)ソウル特別市瑞草区胎峰路114

<http://www.nypi.re.kr>

SQ1. あなたの性別を教えてください。

- ① 男 ② 女

SQ2. あなたの生まれた年(西暦)を教えてください。

SQ3. あなたの現在お住まいの都市を教えてください。

SQ4. あなたがお住まいの地域は次のうちのどこに近いですか。

- ① 大都市 ② 中小都市 ③ 農漁村

SQ5. あなたの最終学歴を教えてください。

- | | |
|-------------------|--------------------|
| ① 中卒以下(高校中退を含む) | ② 高校在学中/休学中 |
| ③ 高校卒業(高卒認定試験を含む) | ④ 2年制~3年制大学在学中/休学中 |
| ⑤ 2年制~3年制大学卒業 | ⑥ 4年制大学在学中/休学中 |
| ⑦ 4年制大学卒業 | ⑧ 大学院在学中 |
| ⑨ 大学院卒業 | |



Q1. 次はあなたが自分をどう思っているかについての質問です。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まったく そでない	そうで ない	普通だ	そうだ	まったく そうだ
1)	自分は良い性格の持ち人だと思う					
2)	自分は能力のある人だと思う					
3)	自分は価値のある人だと思う					
4)	時々、自分はつまらない人だと思うことがある					
5)	時々、自分は悪い人だと思うことがある					
6)	自分は失敗した人だと感じることもある					
7)	自分には自慢できるところが少ない					
8)	自分自身をもっと尊敬できたら良いと思う					
9)	自分に対して前向きな態度をもっている					
10)	自分の人生に対して全般的に満足している					

Q2. 次はあなたが自分の周りにある出来事や問題についてどう思っているかの質問です。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まったく そでない	そうで ない	普通だ	そうだ	まったく そうだ
1)	自分がかかえている問題のうち、絶対に自分で解決できない問題がある					
2)	時々、自分が人生の中で振り回されているような感じがする					
3)	自分における出来事はほとんど自分でコントロールできる					
4)	自分で決心すれば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					
5)	自分の人生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時、いつも無力感を感じる。					
6)	未来に自分における事の大部分が自分によっておこると思う。					
7)	自分の人生でおこる重要な事の大部分は自分で変えることができる力がないと思う					

Q3. 次は現在の悩みことや心配なことについての質問です。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まったく 心配でない	多少心配だ	多少深刻に 悩んでいる	とても深刻に 悩んでいる
1)	勉強・学校・成績の問題				
2)	進路・進学の問題				
3)	家庭の経済面				
4)	家族との不和				
5)	つきあっている人(彼氏、彼女)の問題				
6)	友だちとの関係				
7)	自分の性格の問題				
8)	自分の外見や身体関連の問題				

Q4. 高校在学中に次のような進路指導をうけたことがありますか。進路指導の経験の有無と進路を決定する際に役に立った程度を教えてください。

番号		経験の有無		とても 不満足	やや 不満足	普通だ	やや 満足	とても 満足
		①ある	②ない					
1)	進路関連の講演(専門家、先輩など)							
2)	学校および学科案内							
3)	進路関連検査(適性、興味検査など)							
4)	職業経験							
5)	進路相談							

Q5. 次は普段の家庭での進路指導についての質問です。あなたは家庭で次の事項についてどれくらいの頻度で話しますか。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とても 少ない	少ない	普通だ	頻繁だ	とても 頻繁だ
1)	人生をどのように生きたら良いかについての話					
2)	自分の適性や興味についての対話					
3)	職業、進学など進路についての対話					
4)	親の仕事や職業についての対話					

Q6. あなたは職業生活で次の事項がどれくらい重要だと思いますか。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まったく 重要 ではない	重要 ではない	普通だ	重要だ	とても 重要だ
1)	自分の能力を発揮して達成感を感じる					
2)	単調で繰り返しのない変化のある仕事					
3)	お金をたくさん儲ける					
4)	簡単に飽きずに、長い間その職場で働く					
5)	自分の仕事の人から認められる					
6)	自分の職場で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できる					
7)	一人でする仕事より人と一緒に働く					
8)	人の役に立つ具体的な仕事					
9)	もっと発展させたり、勉強する機会					
10)	自分のアイデアをだしたり、新しい試み					
11)	上司の命令に縛られずに独自の仕事					
12)	自分が好きで楽しい仕事					
13)	快適な勤務環境で働く					
14)	規則的な出勤時間や、休暇が保証					
15)	やさしくて簡単な仕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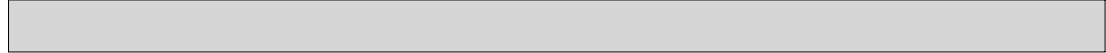
Q7. 自分の職業で成功するために下の要因がどれくらい重要だと思いますか。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まったく重要ではない	重要ではない	普通だ	重要だ	とても重要だ
1)	お金(資本)/財産					
2)	勤勉さや誠実さ					
3)	円満な対人関係能力					
4)	人脈					
5)	良い性格					
6)	自己開発					
7)	運や思いがけない幸運					
8)	家庭の背景					
9)	学閥や学歴					
10)	はっきりとした目標意識					
11)	職業で求められる技術や能力					

--

Q8. 次の各項目に同意する程度を下の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まったくそうでない	そうでない	普通だ	そうだ	まったくそうだ
1)	自分の進路について確かな決定を出した状態だ					
2)	将来、何をしたらいいのか、すでに決めている					
3)	すでに進路を決めた状態なので進路を選ぶのに悩まない					
4)	自分が決めた職業の世界で成功できるかどうか自信がない					
5)	自分がしようとしている仕事について自信があまりない					
6)	自分のしたい職業についている人と進路について話がしたい					
7)	自分の興味や性格をはっきりと知るために専門家に相談してみたい					
8)	自分が計画した進路に関連のある資料をもらうことに関心がある					
9)	自分がしたいと思う職業より親や周りの人が勧める職業を選ぶつもりだ					
10)	人の助言がないと自分の進路を決めることができない					



Q9. 以下の各項目に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まっぴぐそ うで ない	そうでな い	普通だ	そうだ	まっぴぐ そうだ
1)	自分が関心をもっている職業について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したことがある					
2)	自分が関心をもっている職業についている人に連絡(Eメール、電話など)をしたことがある					
3)	自分が関心をもっている職業について動画やTV番組を見たことがある					
4)	自分が関心をもっている職業についている人に会って話したことがある					
5)	自分の進路の問題に関して自発的に相談をしたことがある					
6)	進路に関して自分の適性や興味、性格などを知るための検査をしたことがある					
7)	自分のしたい職業で求められる能力や技術をもつために一生懸命に準備(塾で受講、資格取得など)している					
8)	自分が関心をもっている職業や進路に関する本、パンフレットなどを読んだことがある					



Q10. 次の各項目を読んであなたの考えと一致する程度を下の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番号		まったく そうでない	そうでな い	普通だ	そうだ	まったく そうだ
1)	自分にできる仕事について知っている					
2)	自分の好きな仕事や嫌いな仕事について知っている					
3)	自分が重要だと思う職業選択の条件(社会的地位、賃金水準、勤労時間など)について知っている					
4)	自分の性格に合う職業について知っている					
5)	自分が選ぶ事のできる職業についての情報を知っている					
6)	多様な職業の種類やその職業の将来の展望などについて知っている					
7)	さまざまな職業分野で人々が実際にどんな仕事をしているのか知っている					
8)	自分に適した進路に関する情報をどうやって得られるのか知っている					
9)	関心のある職業の特性(例：仕事の内容、収入、勤務環境など)について知っている					
10)	多くの職業の長所と短所について十分に考えたうえで自分の進路を決める					
11)	進路決定をする前にいろいろな人の意見を十分に聞いて考える					
12)	自分におかれた現実(家庭環境、身体的条件など)を考慮して進路を決める					
13)	職業についての知識と自分についての理解をもとに自分に合った職業を選択する					
14)	職業について調べる時、その職業が自分の性格や興味に合っているかを検討する					
15)	関心のある職業が自分の素質や適性に合っているのか検討する					
16)	自分がつきたい職業で求められる学歴や資格を取ることができのかどうか客観的に判断する					
17)	十分に時間をもって考えたうえで進路を決める					
18)	具体的な進路を選択する前にその選択の結果について十分に考える					

Q11. あなたは学校在学中にアルバイト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 ① ある  Q 11-1.
- ② ない  Q 12.



Q11-1. 学校在学中にアルバイトをした一番の理由は何でしたか。

- ① 生活費を稼ぐため
- ② 学費を稼ぐため
- ③ お小遣いが足りなくて
- ④ 社会経験を積むため
- ⑤ 好奇心で
- ⑥ 周りの人の勧めで
- ⑦ その他 (_____)

Q11-2. 学校在学中にアルバイトをした経験があなたの今、または将来の職業に役に立つと思いますか。

- ① まったく役に立たない
- ② それほど役に立たない
- ③ 多少役に立つ
- ④ 非常に役に立つ

Q12. あなたは職業を探したり、就職をした経験がありますか。(アルバイトは除外)

- ① ある  Q13.
- ② ない  BQ1.

Q13. 職業を探すとき経験する困難に関する質問です。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すでに就職をした場合は最初の職場につく前に経験したことを思い浮かべて答えてください)

番号	求職時に困難だった事の理由	まったく そうでない	そうでない	普通だ	そうだ	まったく そうだ
1)	就職情報が不足していた	①	②	③	④	⑤
2)	自分の適性を把握していなかった	①	②	③	④	⑤
3)	経験が少ない	①	②	③	④	⑤
4)	女性だから (女性だけ答えてください)	①	②	③	④	⑤
5)	学力、技術、資格が不足	①	②	③	④	⑤
6)	自分の外見または身体的な欠陥のため	①	②	③	④	⑤
7)	収入や報酬が合っていない	①	②	③	④	⑤
8)	勤労環境や勤務時間などが合っていない	①	②	③	④	⑤
9)	その他 (_____)					

※ 次はアンケートの結果分析のための質問です。内容に対する秘密は保証されますので正直に答えてください。

BQ1. あなたの現在の状況は？ (※学校に在学中であれば学生と答えてください)

- ① 就職 BQ1-1.
- ② 学生(休学生を含む) BQ2.
- ③ 就職準備中/無職(専業主婦含む) BQ2.

BQ1-1. あなたの現在の就職状態は次のどれに該当しますか。

- ① 正社員
- ② 臨時職、契約職
- ③ 日雇い
- ④ 雇用員をおく事業主
- ⑤ 雇用員のない自営業/フリーランサー
- ⑥ 無給家事従事者
- ⑦ その他 (_____)

BQ2. あなたの親はあなたがどれくらいまで教育を受けてほしいと願っていますか

- ① 高校卒業
- ② 2-3年制大学
- ③ 4年制大学卒業
- ④ 修士号学位取得
- ⑤ 博士号学位取得

BQ3. あなたはどれくらいまで教育を受けられると思いますか。

- ① 高校卒業
- ② 2-3年制大学
- ③ 4年制大学卒業
- ④ 修士号学位取得
- ⑤ 博士号学位取得

BQ4. あなたは今後5年以内に自分が希望する仕事に就職できる可能性についてどう思っていますか。

- ① とても難しい BQ5.
- ② 多少難しい BQ5.
- ③ 普通 BQ6.
- ④ 多少簡単だ BQ6.
- ⑤ とても簡単だ BQ6.

BQ5. 今後5年以内にあなたが希望する仕事に就職できそうもないと思う一番の理由は？

- ① 5年以内に学業を終え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大学院などの理由で)
- ② 学力や技術、資格が不足している
- ③ 自分の外見や身体的な欠陥のため
- ④ 女性だから(女性だけ教えてください)
- ⑤ 人脈などが無いので
- ⑥ 国内の若者雇用状況がよくないので
- ⑦ その他(_____)

BQ6. 仕事を探す時、あなたの学力レベルに適した仕事が見つからない場合、どうしますか。

- ① レベルに合っていない仕事でもとりあえず就職する
- ② レベルに合った仕事が見つかるまで就職活動を続ける
- ③ 起業を準備する
- ④ 進学したり職業能力開発訓練を受ける
- ⑤ 仕事を諦めて家事を手伝ったり趣味生活をする
- ⑥ その他(_____)

BQ7. あなたの親の最終学歴は次のどれにあたりますか。それぞれ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父	① 中卒(高校中退)	② 高卒(大学中退)	③ 大卒(大学院中退)
	④ 大学院卒	⑤ よく知らない	
母	① 中卒(高校中退)	② 高卒(大学中退)	③ 大卒(大学院中退)
	④ 大学院卒	⑤ よく知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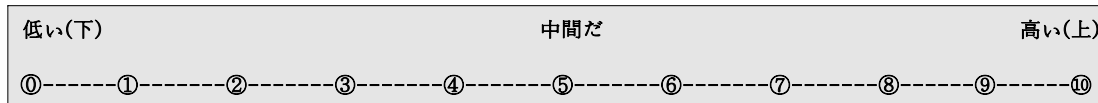
BQ8. あなたの親の職業を教えてください。(既に引退されているのなら引退時の状態を教えてください)それぞれ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父	① 無職	② 専門/経営/管理職	③ 一般事務/技術/販売サービス業
	④ 農・畜産業/漁業/労働職	⑤ その他 (_____)	
母	① 無職	② 専門/経営/管理職	③ 一般事務/技術/販売サービス業
	④ 農・畜産業/漁業/労働職	⑤ その他 (_____)	

BQ9. あなたが高校生の時の成績はどの程度でしたか。

- ① 上位圏 ② 中上位圏 ③ 中位圏
 ④ 中下位圏 ⑤ 下位圏 ⑥ 該当事項無し

BQ10. 私たちの社会を経済的に0から10までにわけるとしたら、現在のあなたの家庭の経済的レベルを教えてください。一番「低い」なら0、一番「高い」なら10など、0から10の間の数字の中であてはまるのをお選びください。



♣ ご協力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부록4. 미국 설문지



ID

--	--	--	--

2012 Youth Career Path Preparation Survey

Al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is survey will not be used for reasons other than statistical ones and is regulated by Article 33 of the Privacy Protection Act.

Dear Participant,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s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s responsible for and performs all types of child/youth related survey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work.

This survey is conducted as part of a cross-national comparison survey of the present youth situation with the objective of surveying conditions relevant to the career path prepa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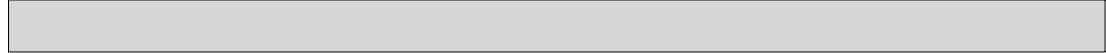
Your free and sincere opinion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in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child/youth related policies. Accordingly, to ensure that your opinion is accurately reflected in such policies,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honestly and sincerely. We greatly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to fill out this survey. Thank you.

2012. 10.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http://www.nypi.re.kr>



SQ1. Are you?

- ① Male
- ② Female

SQ2. In which year were you 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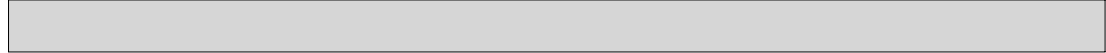
SQ3. Where do you currently live?

SQ4. Which best describes where you currently live?

- ① Large city
- ② Small-medium size city
- ③ Small town or rural area

SQ5. What level of schooling have you completed?

- ① Primary school or lower (including secondary school leavers)
- ② Currently attending secondary school / on leave of absence
- ③ Completed secondary school (including secondary school qualification exam)
- ④ Currently attending a 2-3year college/ on leave of absence
- ⑤ Completed 2-3 year university course
- ⑥ Currently attending a 4 year university / on leave of absence
- ⑦ Completed 4 year university course
- ⑧ Currently completing a postgraduate course
- ⑨ Completed postgraduate studies



Q1.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how you think of yourself. Please tick the option which applies

No.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1)	I think I have a good personality.					
2)	I think I am a capable person.					
3)	I think I am a valuable person.					
4)	Sometimes I think I am useless.					
5)	Sometimes I think I am a bad person.					
6)	Generally, I feel like a failure.					
7)	I don't have many things to be proud of.					
8)	I wish I could admire myself more.					
9)	I have a positive attitude about myself.					
10)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my life.					



Q2.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how you think of things around you. Please tick the option which applies.

No.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1)	Out of all my problems there are some that I will never be able to solve.					
2)	Sometimes I think I am swayed easily by events.					
3)	I am not able to control things that happen to me.					
4)	I can do anything I set my mind to.					
5)	I often feel helpless when I try to resolve my problems.					
6)	Most things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depend on me.					
7)	I am unable to change most of the important things that happen to me.					

Q3.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your worries. Please tick the option which applies.

No.		Not at all worried	Slightly worried	Quite worried	Extremely worried
1)	Problems with study/school results				
2)	Problems regarding career/further education				
3)	The family's economic conditions				
4)	Family troubles				
5)	Problems with boy/girlfriend				
6)	Relationships with friends				
7)	Personality issues				
8)	Issues relating to physical appearance				

Q4. Have you ever had any of the following forms of career guidance while attending secondary school? Please mark the option which applies.

No.		Experience		Very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Somewh at satisfied	Very satisfied
1)	Career path lectures (by expert lecturers, school seniors etc.)	① Yes	② No					
2)	Guidance about the choice of college or college major	① Yes	② No					
3)	Career aptitude or career interest test	① Yes	② No					
4)	Work experience	① Yes	② No					
5)	Career counselling	① Yes	②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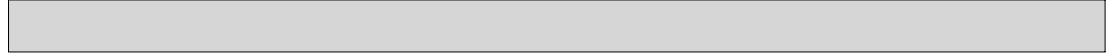
Q7. How important do you think the following are to be successful in your career?

Please tick the option which applies.

No.		Not at all Important	Not much Important	Not sure	Somewhat Important	Very Important
1)	Money/wealth					
2)	Hard work and sincerity					
3)	Good interpersonal skills					
4)	Social connections					
5)	Good personality					
6)	Self-development					
7)	Luck					
8)	Family background					
9)	Academic background/achievement					
10)	Clear objectives					
11)	Job-related knowledge and skills					

Q8. Please tick the option which corresponds to how much you agree with the statements below.

No.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1)	I've already made a decision about my career path.					
2)	I've already decided which career I want to pursue.					
3)	I've already decided my career path so I'm not much worried about it.					
4)	I am not sure whether I can be successful in my career.					
5)	I lack confidence about the job I want to pursue.					
6)	I want to talk about my career path with someone working in the area I want to work in.					
7)	I want to receive expert advice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my interests and personality.					
8)	I am very interested in receiving information related to career planning.					
9)	I will choose a job suggested by my parents or others instead of the job that I want to do.					
10)	I can only decide on a career if other people help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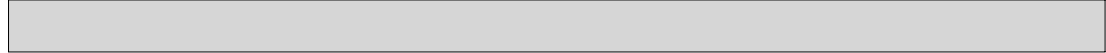
Q9. Read each item and tick the corresponding option.

No.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1)	I have looked for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bout a job that I am interested in.					
2)	I have contacted (e-mail, phone etc.) someone who works in the area that I am interested in working in.					
3)	I have seen a video or TV program about the job that I am interested in.					
4)	I have met and talked with someone who works in the job that I am interested in.					
5)	I have voluntarily received counselling about career choice.					
6)	I have taken a test(s) to measure my aptitude or interests relating to career path selection.					
7)	I am working hard to gain the abilities or skills needed to get the job that I want (private classes, obtaining qualifications, etc.).					
8)	I have read books or other reading materials related to a career path or job I am interested in pursuing.					



Q10. Read each item and mark a ✓ in the option which corresponds with your level of agreement.

No.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1)	I know what jobs I can do well.					
2)	I know what jobs I like and dislike.					
3)	I know wha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when choosing a career.					
4)	I know what jobs fit my personality.					
5)	I know what information there is about jobs I can choose from.					
6)	I know about various types of jobs and their prospects.					
7)	I know what kind of work people actually do in various professional areas.					
8)	I know where to get information related to career paths that are right for me.					
9)	I know about the features of the job I am interested in. (e.g. what work is performed, income, working environment etc.)					
10)	I will make a decision about my career path after thinking carefully about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careers.					
11)	I will listen carefully to and think carefully about the opinions of several other people before making a decision about my career path.					
12)	I will make a decision about my career path in consideration of my own situation. (family environment, physical factors etc.)					
13)	I will choose a career that complements my understanding of myself and specific occupations.					
14)	When inquiring about jobs I will weigh up whether the job matches my personality or interests.					
15)	I will weigh up whether my talents and aptitudes are a good match for the job I am interested in.					
16)	I will think realistically about whether I can acquire the academic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profession that I want to pursue.					
17)	I will decide my career path after spending a sufficient amount of time thinking about it.					
18)	Before choosing a definite career path I will think carefully about the consequences of that choice.					



Q11. Have you ever held a part-time job while studying?

- ① Yes → Q11-1.
- ② No → Q12.

Q11-1. What was the main reason for holding a part-time role while studying?

- ① To pay for living costs
- ② To pay for tuition
- ③ Insufficient allowance
- ④ To gain real-world experience
- ⑤ Out of curiosity
- ⑥ Advice from others
- ⑦ Other (_____)

Q11-2. Please answer only who chose Do you think that your part-time work experience will be helpful in your future profession?

- ① Not helpful at all
- ② Not particularly helpful
- ③ Slightly helpful
- ④ Very helpful

Q12. Have you previously looked for work or been employed? (part-time work excluded)

- ① Yes → Q13.
- ② No → BQ1.



Q13. The following question is about difficulties faced when looking for work. tick the box which corresponds to your own experience (If you have previously worked, answer with reference to the experience faced when looking for your first job)

No.	Reasons for difficulties when looking for work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1)	Insufficient job seeking information	①	②	③	④	⑤
2)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own abilities	①	②	③	④	⑤
3)	Insufficient experience	①	②	③	④	⑤
4)	Due to being a woman (women only)	①	②	③	④	⑤
5)	Insufficient education, skills or qualifications	①	②	③	④	⑤
6)	Due to appearance or physical flaws	①	②	③	④	⑤
7)	Low salary	①	②	③	④	⑤
8)	Undesirable working environment or hours	①	②	③	④	⑤

※ The follow questions will b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Please respond to the questions honestly. All information provided will be kept confidential.

BQ1. What is your current employment status? (※ mark 'student' if you are attending school while working)

- ① Working BQ1-1.
- ② Student (including being on a leave of absence) BQ2.
- ③ Looking for work / unemployed (including homemakers) BQ2.

BQ1-1. Which of the following corresponds to your current employment status?

- ① Full time
- ② Part time
- ③ Casual
- ④ Business owner
- ⑤ self-employed with no employees/freelancer
- ⑥ Unpaid family worker
- ⑦ Other (_____)

BQ2. What level of schooling do your parents want you to complete?

- ① Secondary school
- ② 2-3 year college degree
- ③ 4 year university degree
- ④ Master's degree
- ⑤ Doctorate

BQ3. What level of schooling do you expect to complete?

- ① High school
- ② 2-3 year college degree
- ③ 4 year university degree
- ④ Master's degree
- ⑤ Doctorate

BQ4. How difficult do you think it will be to find a job that you want within the next 5 years?

- ① Very difficult BQ5.
- ② Somewhat difficult BQ5.
- ③ Neutral BQ6.
- ④ Somewhat easy BQ6.
- ⑤ Very easy BQ6.

BQ5. What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you predict it will be hard find employment in your desired role within 5 years.

- ① I won't finish schooling within the next 5 years (for reasons including military service, postgraduate studies etc.)
- ② Due to my insufficient education, skills or qualifications
- ③ Due to my appearance or physical flaws
- ④ Because I am a woman (women only)
- ⑤ Due to my poor social connection
- ⑥ Due to the poor employment outlook for young people
- ⑦ Other (_____)

BQ6. When looking for work, what will you do if your academic qualifications don't fit the requirements of the position?

- ① Take the job first even if the job is beneath your academic qualification the requirements of the role
- ② Continue looking for jobs until an appropriate position comes up
- ③ Start my own business
- ④ Continue studies or receive vocational training
- ⑤ Abandon looking for work and do household duties or pursue hobbies
- ⑥ Other (_____)



BQ7. What level of education did you parents complete? Please tick the box which corresponds to below.

Father	① Did not finish secondary school ② Secondary school (did not finish university) ③ University (did not finish postgraduate school) ④ Postgraduate ⑤ I don't know
Mother	① Did not finish secondary school ② Secondary school (did not finish university) ③ University (did not finish postgraduate school) ④ Postgraduate ⑤ I don't know

BQ8. What are your parents' occupations? (If retired, answer with the position they held when they retired). Please tick the box which corresponds to below.

Father	① Unemployed ② Executive / Management ③ Office worker / Skilled tradesman / Salesperson ④ Farming / Fishing / General labor ⑤ Other (_____)
Mother	① Unemployed ② Executive / Management ③ Office worker / Skilled tradesman / Salesperson ④ Farming / Fishing / General labor ⑤ Other (_____)

BQ9. How were your grades in high school?

- ① High ② Medium-high ③ Medium
 ④ Low-medium ⑤ Low ⑥ Not applicable

BQ10. If we were to divide society into a scale from 0 to 10 in economic terms, how would you rate your family's economic status? Place a √ on the scale from 0 (lowest) to 10 (highest).

Low (Bottom)	Middle	High (Top)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complete this survey ♣

부록5. 아동·청소년 통계자료 구축 현황(2011년 5월 기준)

유형	작성기관	부처명	통계명	작성방법
정기 실태 조사	중앙 행정 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
			청소년유해환경검토종합실태조사	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조사
			청소년상담지원현황	보고
			청소년전화(1388)운영현황	보고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
			보육실태조사	조사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	보고
			청소년건강상태 온라인조사	조사
			학대아동보호현황	보고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보고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조사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보고
		교육과학기술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보고
	사교육의식조사		조사	
	사교육비조사		조사	
	특수교육실태조사		조사	
	연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조사
패널 조사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조사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조사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조사
비정기 실태조사	중앙 행정 기관	여성가족부	정책수요별 세부정책개발을 위한 비정기 실태조사	조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책수요별 세부정책개발을 위한 비정기 실태조사	조사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정책수요별 세부정책개발을 위한 비정기 실태조사	조사

※ 출처: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홈페이지(<http://KOSIS.kr/metadata/>) (김기현·김창환, 2011에서 재인용).

부록6. 설문조사 결과 부표

1) 자아존중감

부표 1 한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세부항목 :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남	여	고졸 이하	전문대 재·졸	4년제 대재이상	낮은편	중간	높은편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 (SD)	3.76 (.873)	3.77 (.882)	3.75 (.864)	3.53 (1.009)	3.61 (.860)	3.83 (.843)	3.65 (.906)	3.69 (.835)	3.96 (.818)
	t/F(Scheffé)	.532		13.360***(ac, bc)			20.392***(df, ef)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M (SD)	3.53 (.914)	3.62 (.923)	3.45 (.897)	3.38 (.990)	3.40 (.917)	3.60 (.894)	3.40 (.919)	3.55 (.883)	3.70 (.902)
	t/F(Scheffé)	3.543***		8.151***(ac, bc)			15.437***(de, df)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M (SD)	3.34 (.983)	3.45 (1.000)	3.24 (.954)	3.11 (1.030)	3.10 (1.047)	3.45 (.940)	3.07 (1.015)	3.38 (.897)	3.68 (.888)
	t/F(Scheffé)	4.303***		19.513***(ac, bc)			58.475***(de, df, ef)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M (SD)	2.62 (1.058)	2.56 (1.083)	2.68 (1.029)	2.92 (1.095)	2.77 (1.043)	2.53 (1.043)	2.85 (1.080)	2.56 (1.017)	2.37 (.992)
	t/F(Scheffé)	-2.296**		13.177***(ac, bc)			30.787***(de, df, ef)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M (SD)	2.88 (1.001)	2.83 (1.023)	2.94 (0.975)	3.00 (1.036)	3.01 (1.003)	2.83 (0.991)	3.12 (.971)	2.85 (.936)	2.58 (1.002)
	t/F(Scheffé)	-2.168**		4.995**(bc)			44.142***(de, df, ef)			

*p<.05, **p<.01, ***p<.001

※ 주1 : ①~⑤ 항목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높은 평균값이, ⑥~⑩항목은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낮은 평균값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주2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낮은편, e=중간, f=높은편)

2) 현재의 고민과 걱정거리

부표 2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민·걱정거리 : 배경변인별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공부· 학교 성적 문제	성별	남	M	2.40(.850)	1.81(.781)	2.07(.888)	2.06(.963)
		여	(SD)	2.47(.846)	1.82(.714)	1.98(.843)	2.12(.998)
		t/F (Scheffé)	-1.612	-.123	2.175*	-1.206	
	교육수	고졸이하	M	2.30(.958)	1.84(.821)	2.02(.934)	1.93(1.005)
전문대재·졸		(SD)	2.32(.912)	1.80(.718)	1.91(.930)	2.08(.930)	

	준	4년제대제이상		2.49(.807)	1.81(.748)	2.04(.840)	2.21(.983)
		t/F (Scheffé)		6.811*** _(ac, bc)	.136	1.045	10.640*** _(ac)
	경제수준	낮은편	M (SD)	2.49(.874)	1.86(.748)	2.04(.910)	2.13(1.003)
				중간	2.44(.819)	1.79(.743)	2.03(.890)
높은편		2.36(.831)	1.79(.751)	2.01(.812)	2.13(1.006)		
	t/F (Scheffé)		3.450* _(df)	1.445	.249	3.201	
가족 과의 불화	성별	남	M (SD)	1.75(.885)	1.49(.775)	1.61(.853)	2.03(.996)
				여	1.75(.893)	1.45(.758)	1.57(.842)
		t/F (Scheffé)		.174	.990	1.101	-3.302***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2.02(.975)	1.63(.880)	1.75(.940)	2.28(1.036)
				전문대재·졸	1.86(.905)	1.53(.835)	1.64(.896)
		4년제대제이상	1.68(.859)	1.43(.723)	1.54(.808)	1.99(.982)	
		t/F (Scheffé)		13.749*** _(ac, bc)	5.876** _(ac)	7.740*** _(ac)	11.219*** _(ac, bc)
	경제수준	낮은편	M (SD)	1.92(.935)	1.51(.795)	1.76(.948)	2.39(1.033)
				중간	1.75(.857)	1.45(.745)	1.63(.814)
		높은편	1.52(.795)	1.45(.756)	1.41(.735)	1.93(.993)	
		t/F (Scheffé)		28.519*** _(de, df, ef)	1.143	24.220*** _(df, ef)	30.443*** _(de, df)
	사귀는 사람 (남자친구, 여자 친구) 문제	성별	남	M (SD)	1.87(.944)	2.05(.922)	1.68(.920)
여					1.83(.854)	1.87(.891)	1.66(.871)
t/F (Scheffé)				.774	3.867	.240	.855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1.85(.921)	1.97(.988)	1.73(.966)	1.78(1.024)
				전문대재·졸	1.93(.978)	1.98(.953)	1.76(.960)
		4년제대제이상	1.83(.874)	1.95(.887)	1.64(.866)	1.66(.946)	
		t/F (Scheffé)		1.510	.145	1.748	1.913
경제수준		낮은편	M (SD)	1.87(.951)	1.94(.919)	1.65(.918)	1.76(1.003)
				중간	1.86(.853)	1.87(.838)	1.66(.877)
		높은편	1.82(.864)	2.06(.951)	1.69(.888)	1.74(.997)	
		t/F (Scheffé)		.507	5.066** _(de)	.325	3.020
친구 와의 관계		성별	남	M (SD)	1.88(.852)	1.70(.824)	1.76(.836)
	여				1.95(.796)	1.65(.755)	1.74(.767)
	t/F (Scheffé)			-1.628	1.241	.531	-5.73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1.95(.885)	1.81(.888)	1.77(.884)	1.76(.930)
				전문대재·졸	2.00(.885)	1.70(.823)	1.72(.830)
		4년제대제이상	1.89(.796)	1.65(.765)	1.75(.774)	1.74(.841)	
		t/F (Scheffé)		2.187	2.337	.224	.197
	경제수준	낮은편	M (SD)	1.98(.849)	1.76(.799)	1.83(.868)	1.76(.867)
				중간	1.92(.798)	1.60(.734)	1.73(.788)
		높은편	1.82(.802)	1.67(.816)	1.70(.744)	1.77(.898)	
		t/F (Scheffé)		5.850** _(df)	4.714** _(de)	4.073* _(df)	1.756
	나의 성격	성별	남	M (SD)	2.03(.881)	1.90(.869)	2.15(.885)

문제		여		2.18(.786)	1.88(.785)	2.25(.870)	1.79(.922)	
		t/F (Scheffé)		-3.308***	.364	-2.104*	.294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전문대재·졸	2.18(.885)	1.99(.905)	2.37(.896)	1.76(.927)
				4년제대재이상	2.23(.892)	1.95(.869)	2.31(.898)	1.84(.983)
		t/F (Scheffé)		5.291**(bc)	2.359	9.197***(ac)	.826	
	경제수준	낮은편	M (SD)	중간	2.20(.842)	2.03(.840)	2.36(.912)	1.84(.960)
				높은편	2.11(.814)	1.86(.806)	2.14(.843)	1.70(.893)
		t/F (Scheffé)		10.077***(df)	10.446***(de, df)	14.205***(de, df)	3.325*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낮은편, e=중간, f=높은편)

3) 학교/가정에서의 진로지도

부표 3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 배경변인별 비교(1)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학교 및 학과 안내	성별	남	94.2	93.2	100(747)	97.7	2.3	100(737)	92.0	8.0	100(741)	93.1	6.9	100(640)
		여	5.8	6.8	100(751)	96.0	4.0	100(747)	93.2	6.8	100(738)	89.7	10.3	100(679)
	χ ²		.682			3.535			.763			4.921*		
	지역	대도시	93.7	6.3	100(1197)	97.1	2.9	100(1189)	92.6	7.4	100(1186)	91.9	8.1	100(1073)
비대도시		93.7	6.3	100(301)	95.9	4.1	100(295)	92.8	7.2	100(293)	89.0	11.0	100(246)	
χ ²		.001			.974			.022			2.084			
진로관련사	교육수준	고졸이하	95.0	5.0	100(161)	91.3	8.7	100(115)	88.0	12.0	100(299)	79.8	20.2	100(252)
		전문대재·졸	97.2	2.8	100(287)	92.4	7.6	100(331)	96.9	3.1	100(96)	89.4	10.6	100(434)
		4년제대재이상	96.5	3.5	100(1049)	93.1	6.9	100(1038)	91.9	8.1	100(1084)	88.0	12.0	100(633)
	χ ²		1.439			.554			8.494*			14.314***		

*p<.05, **p<.01, ***p<.001

부표 4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 : 배경변인별 비교(2)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직업체험	지역	대도시	81.4	18.6	100(1197)	89.2	10.8	100(1189)	80.3	19.7	100(1186)	91.4	8.6	100(1073)
		비대도시	78.7	21.3	100(301)	86.8	13.2	100(295)	81.9	18.1	100(293)	89.8	10.2	100(246)
	χ ²		1.076			1.426			.405			.625		
진로상담	성별	남	90.1	9.9	100(747)	91.2	8.8	100(737)	94.1	5.9	100(741)	85.5	14.5	100(640)
		여	91.1	8.9	100(751)	88.2	11.8	100(747)	95.5	4.5	100(738)	80.3	19.7	100(679)
	χ ²		.426			3.517			1.611			6.261*		

*p<.05, **p<.01, ***p<.001

부표 5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만족도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 관련 강연	성별	남	M	3.42(1.229)	3.41(1.115)	3.30(1.320)	3.63(1.357)
		여	(SD)	3.34(1.276)	3.50(1.177)	3.30(1.219)	3.79(1.348)
		t/F(Scheffé)		1.290	-1.505	.022	-2.183*
	지역	대도시	M	3.38(1.260)	3.45(1.128)	3.29(1.277)	3.68(1.347)
		비대도시	(SD)	3.41(1.226)	3.47(1.220)	3.36(1.243)	3.85(1.381)
t/F(Scheffé)		-.405	-.194	-.834	-1.750		
학교 및 학과 안내	성별	남	M	3.21(1.172)	3.39(1.027)	3.23(1.171)	3.70(1.314)
		여	(SD)	3.11(1.216)	3.39(1.003)	3.25(1.118)	3.75(1.367)
		t/F(Scheffé)		1.615	-.182	-.312	-.648
	지역	대도시	M	3.16(1.205)	3.43(1.014)	3.23(1.155)	3.72(1.343)
		비대도시	(SD)	3.17(1.159)	3.23(1.005)	3.31(1.102)	3.76(1.335)
t/F(Scheffé)		-.160	2.979**	-1.076	-.400		
진로 관련 검사	성별	남	M	3.37(1.104)	3.50(1.100)	3.19(1.199)	3.80(1.348)
		여	(SD)	3.30(1.048)	3.64(1.155)	3.20(1.146)	3.82(1.427)
		t/F(Scheffé)		1.232	-2.423*	-.057	-.305
	지역	대도시	M	3.32(1.079)	3.61(1.108)	3.19(1.175)	3.78(1.358)
		비대도시	(SD)	3.38(1.069)	3.43(1.207)	3.22(1.162)	3.96(1.510)
t/F(Scheffé)		-.810	2.385	-.364	-1.917		
진로 체험	성별	남	M	3.53(1.513)	3.61(1.221)	3.34(1.570)	3.78(1.375)
		여	(SD)	3.46(1.584)	3.67(1.257)	3.35(1.530)	3.76(1.367)
		t/F(Scheffé)		.884	-.913	-.168	.203
	지역	대도시	M	3.49(1.545)	3.68(1.219)	3.34(1.568)	3.79(1.362)
		비대도시	(SD)	3.53(1.567)	3.48(1.306)	3.38(1.475)	3.71(1.407)
		t/F(Scheffé)		-.487	2.537*	-.453	.818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2.88(1.058)	3.29(.853)	2.70(.885)	3.41(1.260)
전문대재·졸		3.01(1.095)		3.31(.990)	2.90(.898)	3.57(1.264)	
4년제대재이상		2.88(1.051)		3.36(.972)	2.69(.951)	3.60(1.207)	
t/F(Scheffé)		1.483	.459	2.009	1.935		
진로 상담	지역	대도시	M	3.26(1.314)	3.61(1.189)	3.13(1.151)	3.78(1.452)
		비대도시	(SD)	3.30(1.213)	3.54(1.324)	3.14(1.057)	3.82(1.539)
		t/F(Scheffé)		-.461	.858	-.136	-.360

*p<.05, **p<.01, ***p<.001

부표 6 가정에서의 진로지도/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2.91(1.009)	2.90(.960)	2.47(1.001)	2.94(1.170)
	여		2.81(1.052)	2.92(.951)	2.46(1.005)	3.24(1.213)
	t/F(Scheffé)		1.953	1.285	.127	-4.999***
지역	대도시	M (SD)	2.86(1.036)	2.93(.962)	2.48(1.002)	3.10(1.215)
	비대도시		2.85(1.017)	2.85(.926)	2.40(1.003)	3.05(1.142)
	t/F(Scheffé)		.207	1.220	1.192	.727
부 학력	고졸	M (SD)	2.81(1.044)	2.83(.957)	2.38(.998)	3.13(1.192)
	대졸		2.95(1.011)	3.16(.919)	2.55(1.005)	3.20(1.185)
	t/F(Scheffé)		-2.526*	-5.617***	-2.884**	-.914
모 학력	고졸	M (SD)	2.84(1.033)	2.84(.951)	2.45(1.028)	3.08(1.165)
	대졸		2.99(1.022)	3.29(.882)	2.54(.978)	3.25(1.216)
	t/F(Scheffé)		-2.464*	-6.968***	-1.651	-2.554*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04(.999)	3.07(.926)	2.52(1.043)	2.81(1.285)
	일반사무/기술/ 판매서비스		2.80(1.015)	2.87(.957)	2.41(.960)	3.29(1.183)
	농축수산/노무		2.54(1.067)	2.78(.950)	2.43(1.010)	3.13(1.146)
	무직		2.83(1.055)	2.79(1.023)	2.84(.931)	3.00(1.206)
	t/F(Scheffé)		10.444***(ab, ac)	8.257***(ab, ac)	4.863**(bd)	9.088***(ad, bd)
모 직업	가사	M (SD)	2.88(1.001)	2.81(.915)	2.46(1.027)	3.02(1.215)
	전문/경영/관리		3.07(1.035)	3.07(.946)	2.60(1.030)	3.43(1.186)
	일반사무/기술/ 판매서비스		2.82(1.023)	3.01(.960)	2.45(.964)	3.02(1.174)
	농축수산/노무		2.46(1.148)	2.77(.986)	2.37(.975)	3.03(1.193)
	t/F(Scheffé)		6.638***(eh, fh, gh)	8.985***(ef, eg, fh, gh)	1.400	7.655***(ef, fg, fh)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2.76(1.098)	2.65(.959)	2.33(1.007)	2.97(1.232)
	중간		2.90(.938)	2.89(.936)	2.50(.933)	2.98(1.187)
	높은편		2.96(.992)	3.15(.906)	2.56(1.031)	3.29(1.158)
	t/F(Scheffé)		5.673**(ik)	38.269***(ij, ik, jk)	7.447***(ik)	12.090***(ik, jk)

*p<.05, **p<.01, ***p<.001

※ 주 : 부직업(a=전문/경영/관리, b=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c=농축수산/노무, d=무직), 모직업(e=가사, f=전문/경영/관리, g=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h=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i=낮은편, j=중간, k=높은편)

부표 7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2.94(1.041)	3.06(.900)	2.64(.967)	3.02(1.148)
	여		2.75(1.069)	3.10(.922)	2.82(1.041)	3.17(1.155)
	t/F(Scheffé)		3.425***	.362	-3.427***	-2.461*
지역	대도시	M (SD)	2.87(1.055)	3.12(.901)	2.74(.997)	3.12(1.160)
	비대도시		2.73(1.066)	2.92(.934)	2.70(1.052)	2.99(1.122)
	t/F(Scheffé)		2.018*	3.438***	.554	1.793
부 학 력	고졸	M (SD)	2.80(1.053)	3.01(.906)	2.64(.980)	3.11(1.141)
	대졸		2.95(1.056)	3.32(.887)	2.81(1.006)	3.24(1.112)
	t/F(Scheffé)		-2.575**	-5.658***	-3.060**	-2.100*
모 학 력	고졸	M (SD)	2.81(1.049)	3.02(.917)	2.74(1.012)	3.08(1.135)
	대졸		3.02(1.058)	3.43(.819)	2.79(.990)	3.23(1.145)
	t/F(Scheffé)		-3.292***	-6.605***	-.949	-2.377*
부 직 업	전문/경영/관리	M (SD)	3.05(1.021)	3.24(.859)	2.79(1.030)	2.92(1.237)
	일반사무/기술/ 판매서비스		2.79(1.038)	3.06(.934)	2.70(.996)	3.25(1.110)
	농축수산/노무		2.53(1.068)	2.93(.900)	2.58(.993)	3.13(1.117)
	무직		2.68(1.142)	2.86(.948)	2.91(.903)	3.03(1.166)
	t/F(Scheffé)		12.073***(ab, ac, ad)	11.325***(ab, ac, ad)	2.558	4.907**(ad)
모 직 업	가사	M (SD)	2.90(1.036)	2.99(.881)	2.71(1.013)	3.06(1.182)
	전문/경영/관리		3.01(1.051)	3.30(.836)	2.76(1.063)	3.34(1.117)
	일반사무/기술/ 판매서비스		2.77(1.054)	3.13(.942)	2.74(.978)	3.07(1.130)
	농축수산/노무		2.47(1.137)	2.93(.944)	2.79(1.068)	2.97(1.171)
	t/F(Scheffé)		5.906***(eh, fh)	10.781***(ef, fh, gh)	.283	4.428**(fh, fg, fh)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2.65(1.107)	2.83(.883)	2.58(1.052)	2.93(1.165)
	중간		2.98(.975)	3.07(.904)	2.80(.919)	3.05(1.182)
	높은편		3.00(1.009)	3.29(.884)	2.82(1.011)	3.28(1.096)
	t/F(Scheffé)		19.433***(ij, ik)	37.532***(ij, ik, jk)	8.657***(ij, ik)	12.682***(ik, jk)

*p<.05, **p<.01, ***p<.001

※ 주 : 부직업(a=전문/경영/관리, b=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c=농축수산/노무, d=무직), 모직업(e=가사, f=전문/경영/관리, g=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h=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i=낮은편, j=중간, k=높은편)

부표 8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2.83(1.047)	3.02(.904)	2.51(.994)	2.79(1.233)
	여		2.78(1.081)	2.96(.901)	2.67(1.039)	2.83(1.293)
	t/F(Scheffé)		.873	-.466	-2.988**	-.620
지역	대도시	M (SD)	2.80(1.075)	3.03(.900)	2.58(1.024)	2.83(1.264)
	비대도시		2.81(1.022)	2.82(.895)	2.64(1.002)	2.74(1.260)
	t/F(Scheffé)		-.152	3.645***	-.902	1.168
부 학력	고졸	M (SD)	2.77(1.062)	2.94(.897)	2.54(.991)	2.78(1.261)
	대졸		2.91(1.050)	3.18(.923)	2.65(1.024)	3.03(1.207)
	t/F(Scheffé)		-2.516*	-4.216***	-1.852	-3.622***
모 학력	고졸	M (SD)	2.79(1.073)	2.96(.886)	2.60(1.028)	2.76(1.233)
	대졸		2.95(1.017)	3.30(.914)	2.65(1.005)	3.02(1.285)
	t/F(Scheffé)		-2.613**	-5.306***	-.933	-3.825***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2.96(1.049)	3.15(.885)	2.69(1.052)	2.61(1.351)
	일반사무/기술/ 판매서비스		2.78(1.050)	2.95(.892)	2.50(.984)	3.04(1.200)
	농축수산/노무		2.51(1.040)	2.92(.915)	2.56(1.002)	2.82(1.209)
	무직		2.66(1.095)	2.69(.888)	2.75(.988)	2.79(1.287)
	t/F(Scheffé)		7.751***(ab, ac)	10.182***(ab, ac, ad)	4.096**(ab)	6.525***(ad)
모 직업	가사	M (SD)	2.80(1.046)	2.88(.850)	2.43(1.000)	2.72(1.289)
	전문/경영/관리		2.98(1.075)	3.15(.899)	2.93(1.077)	3.21(1.215)
	일반사무/기술/ 판매서비스		2.79(1.071)	3.07(.896)	2.68(.985)	2.78(1.245)
	농축수산/노무		2.55(1.076)	2.91(.970)	2.54(1.026)	2.71(1.173)
	t/F(Scheffé)		3.013*(fh)	7.775***(ef, eg, fh)	14.572***(ef, fg, fh)	9.259***(ef, fg, fh)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2.64(1.102)	2.76(.858)	2.45(1.056)	2.49(1.261)
	중간		2.91(.996)	2.91(.885)	2.65(.956)	2.79(1.224)
	높은편		2.96(1.029)	3.24(.892)	2.67(1.015)	3.13(1.216)
	t/F(Scheffé)		14.861***(ij, ik)	42.587***(ij, ik, jk)	7.886***(ij, ik)	37.042***(ij, ik, jk)

*p<.05, **p<.01, ***p<.001

※ 주 : 부직업(a=전문/경영/관리, b=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c=농축수산/노무, d=무직), 모직업(e=가사, f=전문/경영/관리, g=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h=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i=낮은편, j=중간, k=높은편)

부표 9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세부항목별 비교

내용	전체 평균값 (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 (Scheffé)
		M(SD)	M(SD)	M(SD)	M(SD)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3.95 (.857)	4.05 (.796)	3.93 (.742)	3.80 (.832)	4.02 (1.013)	25.532*** (ab, ac, bc, bd, cd)
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3.42 (.924)	3.55 (.826)	3.73 (.786)	2.99 (.885)	3.44 (1.019)	191.315*** (ab, ac, ad, bc, bd, cd)
많은 돈을 버는 것	3.87 (.893)	3.92 (.830)	4.01 (.752)	3.66 (.880)	3.87 (1.048)	41.415*** (ac, bc, bd, cd)
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3.91 (.872)	3.97 (.822)	3.83 (.807)	3.81 (.853)	4.04 (.975)	24.324*** (ab, ac, bd, cd)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3.98 (.873)	4.06 (.800)	4.04 (.735)	3.97 (.845)	3.84 (1.061)	18.518*** (ac, ad, bd, cd)
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3.62 (.893)	3.62 (.905)	3.77 (.820)	3.17 (.972)	3.90 (1.063)	170.072*** (ab, ac, ad, bc, bd, cd)
혼자 하는 일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3.51 (.978)	3.53 (.913)	3.65 (.842)	3.29 (.918)	3.56 (1.173)	36.516*** (ab, ac, bc, cd)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3.73 (.890)	3.68 (.863)	3.73 (.747)	3.64 (.904)	3.88 (1.010)	21.279*** (ab, bd, cd)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3.86 (.913)	3.76 (.903)	4.04 (.739)	3.60 (.927)	4.04 (.986)	91.238*** (ab, ac, ad, bc, cd)
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3.53 (.921)	3.38 (.889)	3.53 (.800)	3.40 (.866)	3.82 (1.045)	77.167*** (ab, ad, bc, bd, cd)

*p<.05, **p<.01, ***p<.001

※ 주 : a=한국, b=중국, c=일본, d=미국

5)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부표 10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 배경변인별 비교(1)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	성별	남	M	4.09(.815)	4.23(.761)	3.96(.850)	4.12(1.048)	
		여	(SD)	4.22(.723)	4.41(.606)	4.26(.666)	4.54(.729)	
		t/F(Scheffé)		-3.383***	5.100***	-7.557***	9.097***	
	교육수준	고졸이하	M	4.15(.857)	4.20(.773)	4.12(.793)	4.22(1.005)	
		전문대재·졸		(SD)	4.18(.787)	4.28(.741)	4.11(.738)	4.41(.871)
		4년제대재이상			4.15(.755)	4.34(.665)	4.10(.777)	4.35(.902)
		t/F(Scheffé)		.248	3.077*	.095	4.775**(ab)	
	부학력	고졸	M	4.17(.752)	4.30(.694)	4.18(.758)	4.42(.867)	
		대졸	(SD)	4.19(.745)	4.39(.665)	4.09(.765)	4.29(.905)	
		t/F(Scheffé)		-.439	-2.051*	2.070*	2.413*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4.18(.774)	4.36(.686)	4.11(.794)	4.36(.879)	
		일반사무/기술 등		(SD)	4.14(.759)	4.37(.642)	4.12(.741)	4.35(.870)
		농축수산/노무			4.09(.784)	4.19(.717)	4.13(.826)	4.24(1.050)
		무직			4.19(.877)	4.29(.848)	3.89(.894)	4.28(1.013)
	t/F(Scheffé)		.734	4.529***(df, ef)	1.966	.931		
	모학력	고졸	M	4.17(.760)	4.30(.704)	4.15(.758)	4.39(.869)	
		대졸	(SD)	4.17(.764)	4.44(.616)	4.09(.763)	4.35(.891)	
		t/F(Scheffé)		-.072	-3.096**	1.465	.948	
	모직업	가사	M	4.16(.776)	4.28(.756)	4.06(.796)	4.30(.973)	
		전문/경영/관리		(SD)	4.17(.740)	4.44(.664)	4.17(.712)	4.38(.838)
일반사무/기술 등				4.14(.761)	4.33(.616)	4.13(.782)	4.35(.901)	
농축수산/노무				4.16(.880)	4.24(.705)	4.27(.716)	4.20(1.041)	
t/F(Scheffé)		.146	4.144**(hi, ik)	2.474	1.111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교육수준	고졸이하	M	4.32(.832)	4.13(.808)	4.09(.845)	4.22(1.049)	
		전문대재·졸		(SD)	4.25(.839)	4.15(.757)	4.02(.794)	4.42(.904)
		4년제대재이상			4.29(.720)	4.22(.695)	4.04(.815)	4.40(.911)
		t/F(Scheffé)		.481	1.914	.581	6.507**(ab, ac)	
	부학력	고졸	M	4.29(.741)	4.17(.719)	4.11(.793)	4.42(.899)	
		대졸	(SD)	4.31(.738)	4.27(.702)	4.03(.815)	4.35(.914)	
		t/F(Scheffé)		-.446	-2.224*	1.802	1.279	
	모학력	고졸	M	4.28(.752)	4.18(.720)	4.11(.813)	4.39(.896)	
		대졸	(SD)	4.31(.739)	4.30(.688)	4.02(.805)	4.40(.913)	
		t/F(Scheffé)		-.639	-2.361*	1.916	-.201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4.32(.754)	4.26(.715)	4.03(.822)	4.42(.922)		
	일반사무/기술 등		(SD)	4.26(.741)	4.23(.682)	4.06(.801)	4.41(.885)	
	농축수산/노무			4.20(.768)	4.07(.728)	4.11(.858)	4.26(.980)	
	무직			4.33(.865)	4.12(.848)	3.88(.915)	4.21(1.112)	
t/F(Scheffé)		1.409	4.578***(df, ef)	1.409	3.141*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휴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기	모직업	가사	M (SD)	4.27(.743)	4.14(.772)	4.00(.836)	4.31(1.007)
		전문/경영/관리		4.30(.756)	4.32(.696)	4.10(.793)	.835(.054)
		일반사무/기술 등		4.30(.757)	4.23(.665)	4.07(.807)	4.39(.914)
		농축수산/노무		4.20(.880)	4.09(.711)	4.24(.819)	4.14(1.120)
		t/F(Scheffé)		.620	5.222***(hi, ik)	2.356	2.651*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4.09(.845)	4.26(.715)	3.98(.870)	3.92(1.102)
		일반사무/기술 등		4.05(.867)	4.23(.682)	3.99(.821)	3.98(1.065)
		농축수산/노무		4.07(.896)	4.07(.728)	3.99(.948)	4.00(1.091)
		무직		4.15(.873)	4.12(.848)	3.81(.940)	3.96(1.088)
		t/F(Scheffé)		.432	4.848***(df, ef)	1.012	.217
	모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4.06(.841)	3.98(.841)	3.96(.858)	3.96(1.090)
		일반사무/기술 등		4.05(.885)	4.16(.781)	4.01(.884)	3.88(1.131)
		농축수산/노무		4.07(.867)	4.09(.742)	3.99(.851)	4.02(1.010)
		무직		4.11(.974)	3.94(.892)	4.10(.813)	3.80(1.256)
		t/F(Scheffé)		.097	4.024**(ik)	.595	1.715
	부학력	고졸	M (SD)	4.13(.850)	4.04(.808)	3.99(.879)	4.04(1.069)
		대졸		4.04(.862)	4.02(.833)	3.98(.846)	3.91(1.038)
		t/F(Scheffé)		1.931	.408	.075	2.218*
	모학력	고졸	M (SD)	4.09(.869)	4.04(.818)	4.02(.831)	4.03(1.030)
		대졸		4.04(.841)	4.08(.815)	3.95(.874)	3.92(1.093)
t/F(Scheffé)		1.049		-.837	1.599	1.924	
교육수준	고졸이하		4.02(.930)	3.87(.969)	3.94(.871)	3.92(1.123)	
	전문대재·졸		4.15(.885)	4.10(.831)	3.97(.814)	4.09(1.030)	
	4년제대재이상		4.06(.848)	4.04(.788)	4.00(.855)	3.90(1.073)	
	t/F(Scheffé)		1.447	3.693*(ab)	.456	4.797**(bc)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부직업(d=전문/경영/관리, e=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f=농축수산/노무, g=무직), 모직업(h=가사, i=전문/경영/관리, j=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k=농축수산/노무)

부표 1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 배경변인별 비교(2)**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성별	남	M (SD)	4.03(.837)	4.17(.780)	3.58(.889)	4.01(1.068)
		여		4.05(.765)	4.18(.634)	3.73(.835)	4.32(.803)
		t/F(Scheffé)		-.483	-.199	-3.191***	-6.438***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4.05(.806)	4.07(.837)	3.55(.898)	4.08(1.013)
		전문대재·졸		4.06(.907)	4.16(.770)	3.50(.871)	4.21(.948)
		4년제대재이상		4.03(.771)	4.19(.671)	3.70(.851)	4.19(.921)
		t/F(Scheffé)		.219	1.764	5.408**(ac)	2.608
	부학력	고졸	M (SD)	4.09(.752)	4.17(.721)	3.64(.890)	4.26(.900)
		대졸		4.02(.807)	4.23(.663)	3.71(.845)	4.11(.956)
		t/F(Scheffé)		1.704	-1.510	-1.384	2.679**
모	고졸	M	4.06(.783)	4.16(.716)	3.66(.871)	4.23(.906)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가득 갖는 것	학력	대졸	(SD)	4.04(.787)	4.27(.690)	3.71(.839)	4.14(.961)
		t/F(Scheffé)		.355	-2.308*	-1.009	1.899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4.11(.801)	4.20(.673)	3.72(.836)	4.22(.919)
		일반사무/기술 등		4.01(.804)	4.19(.680)	3.64(.865)	4.18(.915)
		농축수산/노무		3.93(.722)	4.13(.759)	3.55(.995)	4.12(1.037)
		무직		3.99(.870)	4.10(.863)	3.56(.793)	4.09(1.026)
	t/F(Scheffé)		2.391	1.149	2.030	1.118	
	모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4.02(.768)	4.16(.733)	3.62(.852)	4.15(.976)
		일반사무/기술 등		4.11(.804)	4.19(.676)	3.79(.866)	4.25(.918)
		농축수산/노무		4.05(.831)	4.21(.665)	3.68(.846)	4.19(.913)
		무직		3.91(.897)	4.12(.759)	3.48(1.054)	3.95(1.120)
	t/F(Scheffé)		1.361	1.026	3.054*	2.732*	
	경제수준	낮은편	M (SD)	4.08(.818)	4.15(.719)	3.65(.905)	4.19(.986)
		중간		3.95(.838)	4.13(.719)	3.57(.805)	4.11(.993)
		높은편		4.04(.748)	4.22(.695)	3.71(.863)	4.18(.900)
		t/F(Scheffé)		2.962	2.243	2.962	.834
	성별	남	M (SD)	3.98(.842)	3.88(.810)	3.71(.883)	3.80(1.087)
		여		4.12(.741)	3.97(.663)	3.90(.768)	4.24(.879)
		t/F(Scheffé)		-3.481***	-2.516*	-4.343***	-8.719***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4.04(.886)	3.85(.836)	3.75(.929)	3.90(1.122)
전문대재·졸		3.93(.914)		3.80(.809)	3.82(.725)	4.05(.995)	
4년제대재이상		4.08(.743)		3.98(.700)	3.82(.810)	4.09(.936)	
t/F(Scheffé)		3.977*(bc)		7.614***(bc)	.866	4.835***(ac)	
부학력	고졸	M (SD)	4.05(.781)	3.92(.725)	3.85(.819)	4.11(.967)	
	대졸		4.09(.768)	3.98(.766)	3.81(.841)	3.99(.970)	
	t/F(Scheffé)		-.984	-1.426	.836	2.146*	
모학력	고졸	M (SD)	4.06(.784)	3.90(.743)	3.84(.788)	4.09(.968)	
	대졸		4.09(.773)	4.05(.717)	3.81(.873)	4.02(.984)	
	t/F(Scheffé)		-.681	-3.061**	.785	1.212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4.09(.780)	3.97(.739)	3.81(.832)	4.09(.988)	
	일반사무/기술 등		4.03(.794)	3.94(.719)	3.80(.842)	4.03(.965)	
	농축수산/노무		3.93(.827)	3.87(.746)	3.85(.774)	4.00(1.036)	
	무직		4.12(.862)	3.87(.829)	3.77(.863)	3.88(1.132)	
t/F(Scheffé)		1.919	1.586	.153	2.195		
모직업	가사	M (SD)	4.04(.782)	3.89(.779)	3.77(.839)	3.99(1.025)	
	전문/경영/관리		4.07(.823)	3.96(.737)	3.91(.830)	4.12(.970)	
	일반사무/기술 등		4.07(.783)	3.97(.706)	3.82(.822)	4.06(.980)	
	농축수산/노무		4.00(.894)	3.89(.731)	3.73(.878)	3.82(1.164)	
t/F(Scheffé)		.259	1.310	1.629	2.751*		
경제수준	낮은편	M (SD)	4.10(.802)	3.92(.734)	3.85(.854)	4.00(1.062)	
	중간		3.95(.858)	3.88(.749)	3.66(.793)	3.95(1.060)	
	높은편		4.05(.733)	3.97(.742)	3.86(.825)	4.09(.922)	
	t/F(Scheffé)		4.573***(de)	1.748	7.911****(de, ef)	2.545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 낮은편, e=중간, f=높은편)

부표 12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단조롭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 있는 일을 하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56(.837)	3.74(.810)	3.03(.935)	3.44(1.038)
	여		3.53(.816)	3.71(.762)	2.95(.831)	3.43(1.001)
	t/F(Scheffé)		.687	.826	1.836	.199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SD)	3.56(.858)	3.70(.814)	3.02(.886)	3.32(1.046)
	전문대재·졸		3.47(.910)	3.69(.803)	3.04(.820)	3.52(1.029)
	4년제대재이상		3.57(.796)	3.74(.777)	2.97(.890)	3.46(.988)
	t/F(Scheffé)		1.621	.585	.645	4.451*(ab)
부 학력	고졸	M (SD)	3.58(.813)	3.73(.769)	3.02(.911)	3.44(1.058)
	대졸		3.55(.791)	3.72(.844)	2.97(.886)	3.49(.951)
	t/F(Scheffé)		.753	.268	.961	-.915
모 학력	고졸	M (SD)	3.56(.823)	3.72(.784)	3.07(.907)	3.45(1.013)
	대졸		3.61(.756)	3.77(.812)	2.91(.888)	3.49(1.014)
	t/F(Scheffé)		-1.084	-.826	3.090**	-.681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59(.849)	3.76(.796)	2.97(.870)	3.53(1.015)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55(.798)	3.76(.758)	3.00(.906)	3.43(.965)
	농축수산/노무		3.38(.825)	3.61(.796)	2.94(.802)	3.46(1.023)
	무직		3.52(.881)	3.78(.815)	3.13(.977)	3.30(1.109)
	t/F(Scheffé)		2.540	3.414*	.894	2.600
모 직업	가사	M (SD)	3.57(.796)	3.72(.804)	2.95(.882)	3.38(1.014)
	전문/경영/관리		3.56(.822)	3.72(.787)	3.06(.858)	3.56(1.022)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54(.827)	3.78(.757)	2.99(.892)	3.44(1.005)
	농축수산/노무		3.39(.994)	3.68(.798)	3.07(.976)	3.39(1.078)
	t/F(Scheffé)		1.013	1.045	.947	1.703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3.53(.882)	3.73(.805)	2.98(.898)	3.29(1.074)
	중간		3.50(.805)	3.67(.778)	2.97(.808)	3.45(.971)
	높은편		3.60(.759)	3.77(.774)	3.01(.924)	3.57(.985)
	t/F(Scheffé)		1.893	1.853	.286	10.601***(df)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 낮은편, e=중간, f=높은편)

부표 13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많은 돈을 버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90(.869)	3.96(.823)	3.68(.938)	3.77(1.121)
	여	(SD)	3.95(.788)	4.06(.671)	3.65(.818)	3.96(.962)
	t/F(Scheffé)		-1.120	-2.540*	.684	-3.465***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3.92(.984)	4.07(.873)	3.66(.971)	3.90(1.122)
	전문대재·졸		3.97(.863)	4.04(.83)	3.67(.816)	3.93(1.032)
	4년제대재이상		3.91(.794)	3.99(.708)	3.67(.857)	3.80(1.003)
	t/F(Scheffé)		.468	.924	.005	2.480
부 학력	고졸	M	3.95(.823)	4.01(.730)	3.75(.862)	3.93(1.028)
	대졸		3.92(.793)	4.00(.802)	3.62(.866)	3.76(1.043)
	t/F(Scheffé)		.693	.264	2.758**	2.756**
모 학력	고졸	M	3.93(.818)	4.02(.745)	3.72(.852)	3.93(1.013)
	대졸		3.96(.789)	3.98(.766)	3.63(.885)	3.81(1.054)
	t/F(Scheffé)		-.712	.748	1.947	2.130*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3.91(.823)	4.02(.746)	3.64(.863)	3.81(1.041)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92(.821)	4.03(.708)	3.66(.883)	3.86(1.037)
	농축수산/노무		3.89(.883)	3.97(.786)	3.78(.948)	3.88(1.117)
	무직		3.94(.841)	4.04(.880)	3.65(.908)	3.92(1.032)
	t/F(Scheffé)		.090	.564	.735	.543
모 직업	가사	M	3.90(.814)	4.00(.765)	3.65(.899)	3.87(1.065)
	전문/경영/관리		4.06(.750)	4.00(.751)	3.61(.896)	3.87(1.018)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90(.839)	4.07(.712)	3.69(.833)	3.89(1.017)
	농축수산/노무		4.00(.938)	3.96(.785)	3.80(.995)	3.75(1.149)
	t/F(Scheffé)		2.071	1.322	1.031	.505
경제 수준	낮은편	M	3.98(.859)	4.06(.740)	3.70(.805)	3.88(1.083)
	중간		3.84(.849)	3.93(.771)	3.50(.902)	3.76(1.060)
	높은편		3.90(.769)	4.02(.745)	3.75(.928)	3.93(1.000)
	t/F(Scheffé)		3.695*(ab)	3.410*(ab)	9.533***(ab, bc)	3.274*(bc)

*p<.05, **p<.01, ***p<.001

※ 주 : 경제수준(a= 낮은편, b=중간, c=높은편)

부표 14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쉽게 실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92(.853)	3.73(.837)	3.76(.881)	3.91(1.064)
	여	(SD)	4.02(.788)	3.93(.764)	3.86(.821)	4.17(.858)
	t/F(Scheffé)		-2.293*	-4.942***	-2.343*	-5.232***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3.90(.932)	3.78(.931)	3.88(.875)	4.01(1.037)
	전문대재·졸		4.02(.877)	3.77(.842)	3.77(.852)	4.12(.936)
	4년제대재이상		3.96(.788)	3.85(.778)	3.79(.846)	4.00(.955)
	t/F(Scheffé)		1.219	1.554	1.612	2.073
부 학력	고졸	M	4.01(.790)	3.80(.795)	3.86(.842)	4.14(.925)
	대졸		3.96(.824)	3.92(.830)	3.80(.842)	3.94(.955)
	t/F(Scheffé)		1.305	-2.297*	1.189	3.772***
모 학력	고졸	M	4.00(.799)	3.83(.794)	3.88(.809)	4.08(.926)
	대졸		3.95(.832)	3.87(.836)	3.78(.876)	4.04(.978)
	t/F(Scheffé)		.855	-.774	2.086*	.910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3.97(.805)	3.85(.817)	3.78(.838)	3.97(.980)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97(.833)	3.88(.767)	3.83(.874)	4.05(.941)
	농축수산/노무		3.96(.802)	3.74(.812)	3.83(.803)	4.07(.979)
	무직		3.94(.841)	3.78(.921)	3.80(.838)	4.10(.984)
	t/F(Scheffé)		.031	2.340	.337	1.073
모 직업	가사	M	3.96(.794)	3.74(0.822)	3.78(.840)	4.01(1.006)
	전문/경영/관리		4.03(.846)	3.84(.860)	3.77(.873)	4.07(.953)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93(.839)	3.93(.739)	3.84(.865)	4.08(.919)
	농축수산/노무		3.99(.856)	3.81(.807)	3.92(.824)	3.93(1.095)
	t/F(Scheffé)		.670	4.116**(ac)	.900	1.045
경제 수준	낮은편	M	4.04(.830)	3.81(.804)	3.81(.815)	4.09(.978)
	중간		3.83(.845)	3.84(.819)	3.72(.822)	3.94(1.038)
	높은편		3.97(.784)	3.84(.803)	3.86(.912)	4.06(.917)
	t/F(Scheffé)		7.394***(ef, fg)	.229	3.038*(fg)	3.136*

*p<.05, **p<.01, ***p<.001

※ 주 : 모 직업(a=가사, b=전문/경영/관리, c=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d=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e= 낮은편, f=중간, g=높은편)

부표 15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4.00(.862)	3.99(.793)	3.87(.905)	3.74(1.110)
	여	(SD)	4.12(.729)	4.08(.669)	4.06(.769)	3.94(1.001)
	t/F(Scheffé)		-2.910**	-2.492*	-4.362***	-3.645***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4.01(.921)	3.94(.83)	3.88(.926)	3.75(1.124)
	전문대재·졸		4.05(.880)	3.97(.795)	4.05(.731)	3.91(1.045)
	4년제대재이상		4.07(.756)	4.07(.699)	3.99(.827)	3.86(1.024)
	t/F(Scheffé)		.448	3.687*	2.741	2.394
부 학력	고졸	M	4.09(.789)	4.03(.716)	4.04(.832)	3.86(1.062)
	대졸		4.09(.754)	4.10(.779)	3.97(.837)	3.87(1.009)
	t/F(Scheffé)		.073	-1.613	1.433	-.165
모 학력	고졸	M	4.08(.786)	4.03(.725)	4.02(.784)	3.89(1.010)
	대졸		4.11(.760)	4.13(.758)	3.97(.872)	3.85(1.077)
	t/F(Scheffé)		-.720	-1.848	1.094	.549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4.10(.774)	4.09(.735)	3.97(.809)	3.93(1.029)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4.07(.808)	4.06(.700)	3.99(.873)	3.83(1.039)
	농축수산/노무		3.93(.772)	3.93(.756)	3.96(.854)	3.79(1.102)
	무직		3.94(.889)	3.97(.801)	3.85(.849)	3.83(1.068)
	t/F(Scheffé)		2.383	4.069**(ac)	.611	1.092
모 직업	가사	M	4.07(.787)	3.96(.757)	3.93(.845)	3.80(1.052)
	전문/경영/관리		4.12(.762)	4.09(.750)	4.02(.847)	3.99(1.039)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4.03(.802)	4.11(.659)	4.01(.835)	3.87(1.035)
	농축수산/노무		4.04(.886)	3.99(.773)	3.99(.886)	3.62(1.193)
	t/F(Scheffé)		.672	4.047**(eg)	1.205	3.747*(fh)
경제 수준	낮은편	M	4.10(.811)	4.01(.757)	4.02(.810)	3.81(1.085)
	중간		3.93(.832)	4.00(.720)	3.82(.865)	3.73(1.069)
	높은편		4.09(.752)	4.08(.725)	4.02(.857)	3.95(1.024)
	t/F(Scheffé)		5.876**(ij, jk)	1.932	8.308***(ij, jk)	5.477**(jk)

*p<.05, **p<.01, ***p<.001

※ 주 : 부 직업(a=전문/경영/관리, b=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c=농축수산/노무, d=무직), 모 직업(e=가사, f=전문/경영/관리, g=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h=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i= 낮은편, j=중간, k=높은편)

부표 16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내가 일하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64(.918)	3.81(.861)	3.28(.987)	3.80(1.117)
	여	(SD)	3.60(.893)	3.74(.777)	3.07(.946)	4.01(.996)
	t/F(Scheffé)		.741	1.488	4.223***	-3.881***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3.50(.973)	3.66(.927)	3.07(1.036)	3.80(1.114)
	전문대재·졸		3.61(.967)	3.75(.838)	3.17(1.043)	4.00(1.050)
	4년제대재이상		3.64(.875)	3.80(.799)	3.21(.944)	3.91(1.032)
	t/F(Scheffé)		1.865	1.852	2.549	4.050*(ab)
부 학력	고졸	M	3.65(.907)	3.75(.794)	3.24(1.021)	3.94(1.054)
	대졸		3.65(.885)	3.92(.847)	3.16(.948)	3.91(1.038)
	t/F(Scheffé)		-.066	-3.417***	1.390	.404
모 학력	고졸	M	3.62(.908)	3.77(.796)	3.17(.991)	3.95(1.016)
	대졸		3.71(.866)	3.91(.856)	3.21(.963)	3.91(1.074)
	t/F(Scheffé)		-1.683	-2.548*	-.655	.756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3.69(.886)	3.91(.819)	3.16(.964)	4.02(1.023)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61(.901)	3.72(.792)	3.21(.952)	3.86(1.073)
	농축수산/노무		3.45(.909)	3.69(.810)	3.14(1.102)	3.83(1.093)
	무직		3.63(.991)	3.69(.933)	3.13(1.004)	3.87(1.103)
	t/F(Scheffé)		2.522	7.197***(de, df)	.381	2.042
모 직업	가사	M	3.61(.883)	3.74(.787)	3.20(.955)	3.85(1.063)
	전문/경영/관리		3.75(.889)	3.86(.834)	3.20(.961)	4.08(1.007)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58(.915)	3.80(.813)	3.18(.987)	3.92(1.053)
	농축수산/노무		3.68(.969)	3.70(.864)	2.96(1.034)	3.70(1.152)
	t/F(Scheffé)		1.691	2.351	1.340	4.189**(hi, ik)
경제 수준	낮은편	M	3.53(.956)	3.68(.828)	3.18(.956)	3.84(1.099)
	중간		3.57(.892)	3.65(.813)	3.12(.926)	3.90(1.042)
	높은편		3.78(.821)	3.94(.792)	3.21(1.022)	3.97(1.043)
	t/F(Scheffé)		11.114***(ln, mn)	21.396***(ln, mn)	.843	2.160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부 직업(d=전문/경영/관리, e=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f=농축수산/노무, g=무직), 모 직업(h=가사, i= 전문/경영/관리, j=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k=농축수산/노무), 경제 수준(l= 낮은편, m=중간, n=높은편)

부표 17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61(.934)	3.67(.851)	3.29(.948)	3.56(1.182)	
	여	(SD)	3.44(.885)	3.62(.832)	3.30(.887)	3.55(1.165)	
	t/F(Scheffé)		3.745***	1.193	-.152	.178	
교육수준	고졸이하	M	3.51(1.004)	3.58(.895)	3.16(.981)	3.42(1.239)	
	전문대재·졸		3.67(.894)	3.62(.871)	3.24(.867)	3.59(1.182)	
	4년제대재이상		3.49(.901)	3.67(.825)	3.34(.899)	3.63(1.113)	
	t/F(Scheffé)		4.715**(bc)	.927	5.116**(ac)	4.540*(ac)	
부학력	고졸	M	3.54(.907)	3.64(.836)	3.28(.953)	3.52(1.218)	
	대졸		(SD)	3.55(.911)	3.72(.843)	3.33(.894)	3.65(1.098)
	t/F(Scheffé)		-.146	-1.537	-.945	-1.934	
모학력	고졸	M	3.53(.903)	3.63(.837)	3.27(.943)	3.58(1.161)	
	대졸		(SD)	3.58(.918)	3.79(.845)	3.35(.889)	3.56(1.187)
	t/F(Scheffé)		-.983	-2.853**	-1.588	.321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3.61(.942)	3.72(.834)	3.31(.886)	3.61(1.170)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SD)	3.49(.887)	3.61(.832)	3.30(.932)	3.60(1.173)
	농축수산/노무		3.40(.872)	3.60(.838)	3.23(1.008)	3.55(1.138)	
	무직		3.53(.981)	3.66(.939)	3.19(.881)	3.44(1.221)	
	t/F(Scheffé)		2.358	2.103	.631	1.355	
모직업	가사	M	3.54(.910)	3.63(.835)	3.28(.913)	3.53(1.176)	
	전문/경영/관리		(SD)	3.68(.885)	3.70(.871)	3.37(.956)	3.69(1.140)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46(.911)	3.67(.827)	3.31(.891)	3.56(1.171)	
	농축수산/노무		3.51(.916)	3.59(.844)	3.18(1.086)	3.45(1.213)	
	t/F(Scheffé)		2.636*	1.115	.786	1.493	
경제수준	낮은편	M	3.48(.948)	3.53(.846)	3.33(.895)	3.37(1.208)	
	중간		(SD)	3.51(.875)	3.56(.855)	3.28(.871)	3.57(1.129)
	높은편		3.60(.889)	3.81(.802)	3.27(.976)	3.72(1.150)	
	t/F(Scheffé)		2.484	19.210***(de, ef)	.816	12.307***(de, ef)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 낮은편, e=중간, f=높은편)

부표 18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72(.880)	3.74(.762)	3.59(.938)	3.76(1.075)
	여	(SD)	3.64(.844)	3.71(.731)	3.69(.865)	4.00(.926)
	t/F(Scheffé)		1.795	.801	-2.221*	-4.713***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3.61(.909)	3.71(.857)	3.54(.935)	3.71(1.097)
	전문대재·졸		3.72(.927)	3.70(.797)	3.59(.865)	3.95(.972)
	4년제대재이상		3.68(.837)	3.74(.715)	3.67(.895)	3.95(.959)
	t/F(Scheffé)		.857	.392	2.978	9.302***(ab, ac)
부 학력	고졸	M	3.70(.855)	3.72(.764)	3.64(.910)	3.93(1.006)
	대졸		3.71(.856)	3.81(.693)	3.67(.904)	3.92(.963)
	t/F(Scheffé)		-.176	-1.996*	-.562	.096
모 학력	고졸	M	3.68(.865)	3.72(.760)	3.67(.882)	3.94(.962)
	대졸		3.74(.848)	3.85(.678)	3.65(.933)	3.89(1.018)
	t/F(Scheffé)		-1.182	-2.689**	.447	.751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3.77(.855)	3.76(.756)	3.63(.908)	4.00(.957)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64(.871)	3.69(.723)	3.68(.889)	3.87(.956)
	농축수산/노무		3.64(.804)	3.74(.745)	3.56(.977)	3.76(1.125)
	무직		3.59(.897)	3.75(.812)	3.52(.875)	3.79(1.086)
	t/F(Scheffé)		2.578	.823	1.208	3.556*
모 직업	가사	M	3.69(.829)	3.74(.749)	3.64(.905)	3.86(1.053)
	전문/경영/관리		3.76(.897)	3.75(.760)	3.70(.944)	3.96(.991)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65(.873)	3.74(.735)	3.64(.873)	3.89(.950)
	농축수산/노무		3.57(.971)	3.68(.749)	3.58(1.023)	3.69(1.138)
	t/F(Scheffé)		1.285	.549	.418	1.942
경제 수준	낮은편	M	3.66(.914)	3.61(.762)	3.67(.882)	3.84(1.012)
	중간		3.65(.875)	3.67(.756)	3.58(.893)	3.79(1.072)
	높은편		3.74(.778)	3.87(.705)	3.64(.934)	3.99(.950)
	t/F(Scheffé)		1.414	17.705***(df, ef)	1.205	5.362**(df, ef)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 낮은편, e=중간, f=높은편)

배경

부표 19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83(.901)	4.04(.779)	3.59(.919)	3.91(1.078)
	여	(SD)	3.68(.900)	4.04(.697)	3.60(.935)	4.17(.865)
	t/F(Scheffé)		3.239***	-.136	-.050	-5.145***
교육수준	고졸이하	M	3.72(.941)	3.96(.883)	3.60(.954)	3.96(1.067)
	전문대재·졸		3.75(.951)	4.05(.743)	3.41(.936)	4.13(.952)
	4년제대재이상		3.76(.884)	4.05(.717)	3.61(.916)	4.04(.946)
	t/F(Scheffé)		.159	.945	2.170	3.349*(ab)
부학력	고졸	M	3.79(.862)	4.02(.742)	3.59(.948)	4.09(.976)
	대졸		3.78(.902)	4.14(.709)	3.62(.914)	4.03(.960)
	t/F(Scheffé)		.218	-2.620**	-.498	.953
모학력	고졸	M	3.78(.879)	4.03(.746)	3.60(.933)	4.09(.949)
	대졸		3.79(.912)	4.15(.682)	3.62(.927)	4.05(.990)
	t/F(Scheffé)		-.097	-2.290*	-.384	.719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3.84(.910)	3.88(.812)	3.62(.910)	4.14(.924)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75(.881)	4.09(.706)	3.63(.919)	4.01(.983)
	농축수산/노무		3.66(.880)	4.05(.723)	3.43(1.010)	4.03(1.023)
	무직		3.64(1.000)	4.00(.779)	3.53(.949)	3.96(1.068)
	t/F(Scheffé)		2.377	2.709*	1.726	1.968
모직업	가사	M	3.77(.862)	3.96(.761)	3.59(.892)	4.02(1.000)
	전문/경영/관리		3.83(.962)	4.13(.702)	3.65(.981)	4.10(.995)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73(.906)	4.07(.702)	3.62(.931)	4.07(.932)
	농축수산/노무		3.57(1.075)	4.02(.781)	3.38(1.033)	3.82(1.154)
	t/F(Scheffé)		1.783	3.610*(de)	1.616	2.357
경제수준	낮은편	M	3.72(.940)	3.97(.734)	3.65(.920)	4.01(1.021)
	중간		3.74(.925)	3.98(.747)	3.51(.885)	3.99(1.023)
	높은편		3.83(.831)	4.14(.727)	3.60(.960)	4.11(.918)
	t/F(Scheffé)		2.191	8.859***(hj. ij)	3.021*(ij)	2.554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모 직업(d=가사, e= 전문/경영/관리, f=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g=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h= 낮은편, i=중간, j=높은편)

부표 20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윗사람의 명령이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고 책임지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41(.925)	3.58(.811)	3.43(.884)	3.77(1.089)
	여	M (SD)	3.34(.850)	3.47(.785)	3.37(.847)	3.88(.997)
	t/F(Scheffé)		1.481	2.766**	1.364	-2.085*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SD)	3.43(.905)	3.60(.842)	3.39(.936)	3.78(1.107)
	전문대재·졸		3.38(.887)	3.49(.854)	3.36(.756)	3.93(1.044)
	4년제대재이상		3.37(.887)	3.53(.776)	3.40(.853)	3.78(.997)
	t/F(Scheffé)		.331	.825	.098	3.276*
부 학 려	고졸	M (SD)	3.36(.879)	3.52(.808)	3.47(.898)	3.87(1.024)
	대졸		3.42(.883)	3.58(.779)	3.37(.842)	3.80(1.030)
	t/F(Scheffé)		-1.138	-1.241	2.045*	1.163
모 학 려	고졸	M (SD)	3.40(.879)	3.52(.796)	3.43(.887)	3.86(1.017)
	대졸		3.38(.883)	3.62(.804)	3.40(.839)	3.84(1.054)
	t/F(Scheffé)		.298	-1.662	.730	.323
부 직 업	전문/경영/관리	M (SD)	3.45(.918)	3.57(.785)	3.39(.859)	3.83(1.070)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35(.864)	3.52(.804)	3.42(.865)	3.83(1.020)
	농축수산/노무		3.35(.881)	3.59(.796)	3.40(.965)	3.80(1.021)
	무직		3.28(.955)	3.43(.798)	3.35(.830)	3.83(1.087)
	t/F(Scheffé)		1.883	2.762*	.225	.056
모 직 업	가사	M (SD)	3.34(.879)	3.49(.781)	3.39(.865)	3.78(1.047)
	전문/경영/관리		3.45(.909)	3.55(.848)	3.49(.891)	3.88(1.068)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39(.886)	3.61(.765)	3.40(.839)	3.86(1.002)
	농축수산/노무		3.46(.93)	3.44(.815)	3.30(1.020)	3.65(1.205)
	t/F(Scheffé)		1.009	2.820*	1.111	1.915
경 제 수 준	낮은편	M (SD)	3.34(.939)	3.49(.798)	3.42(.867)	3.80(1.045)
	중간		3.39(.839)	3.44(.772)	3.33(.859)	3.72(1.070)
	높은편		3.43(.852)	3.62(.812)	3.43(.868)	3.92(1.018)
	t/F(Scheffé)		1.537	7.406***(ac, bc)	1.772	4.670**(bc)

*p<.05, **p<.01, ***p<.001

※ 주 : 경제수준(a= 낮은편, b=중간, c=높은편)

부표 2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쉽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21(1.070)	3.00(.992)	3.01(.963)	3.43(1.223)
	여		3.28(.974)	3.24(.945)	2.87(.933)	3.46(1.227)
	t/F(Scheffé)		-1.438	-4.730***	2.826**	-.550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3.25(1.095)	3.18(.988)	3.08(.954)	3.51(1.223)
	전문대재·졸		3.40(1.037)	3.17(.991)	3.11(.916)	3.55(1.194)
	4년제대재이상		3.20(1.005)	3.10(.969)	2.88(.946)	3.33(1.238)
	t/F(Scheffé)		4.148*(bc)	.805	7.435***(ac)	5.275**(bc)
부학력	고졸	M (SD)	3.25(1.044)	3.10(.968)	2.93(1.001)	3.49(1.214)
	대졸		3.21(1.007)	3.13(.998)	2.90(.922)	3.34(1.226)
	t/F(Scheffé)		.669	-.439	.541	2.211*
모학력	고졸	M (SD)	3.25(1.028)	3.13(.964)	2.98(.959)	3.51(1.178)
	대졸		3.21(1.014)	3.07(1.013)	2.86(.942)	3.35(1.270)
	t/F(Scheffé)		.537	.775	2.208*	2.367*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22(1.033)	3.22(1.006)	2.85(.941)	3.26(1.300)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23(1.021)	3.16(1.027)	3.00(.953)	3.45(1.182)
	농축수산/노무		3.33(.997)	3.18(.942)	2.96(.999)	3.45(1.197)
	무직		3.30(.988)	2.96(.927)	3.05(.971)	3.67(1.222)
	t/F(Scheffé)		.532	4.605**(df, ef)	2.928*	6.106***(dg)
모직업	가사	M (SD)	3.24(.988)	3.12(.961)	2.91(.929)	3.51(1.217)
	전문/경영/관리		3.29(1.019)	3.18(1.047)	2.92(1.026)	3.27(1.341)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19(1.059)	3.18(.959)	2.94(.931)	3.46(1.180)
	농축수산/노무		3.46(1.051)	2.98(.936)	3.23(1.111)	3.42(1.233)
	t/F(Scheffé)		1.758	2.920*	2.344	2.194
경제수준	낮은편	M (SD)	3.19(1.066)	2.98(.965)	2.86(.945)	3.40(1.237)
	중간		3.29(.960)	3.16(.925)	3.02(.895)	3.34(1.235)
	높은편		3.27(1.008)	3.22(1.006)	2.96(.990)	3.57(1.197)
	t/F(Scheffé)		1.475	8.627***(hi, hj)	3.679*(ij)	4.974**(ij)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부 직업(d=전문/경영/관리, e=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f=농축수산/노무, g=무직), 경제수준(h= 낮은편, i=중간, j=높은편)

부표 22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외적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95(.741)	3.97(.682)	3.78(.759)	3.76(.947)	
	여	(SD)	4.03(.620)	4.07(.544)	3.86(.638)	3.95(.803)	
	t/F(Scheffé)		-2.381*	-3.031**	-2.183*	-4.256***	
경제 수준	낮은편	M	4.04(.692)	4.03(.613)	3.88(.726)	3.85(.881)	
	중간		(SD)	3.89(.735)	3.97(.628)	3.66(.740)	3.75(.920)
	높은편		3.99(.624)	4.05(.614)	3.86(.637)	3.94(.848)	
	t/F(Scheffé)		6.059** _(ab)	2.355	13.309*** _(ab, bc)	5.960** _(bc)	

*p<.05, **p<.01, ***p<.001
 ※ 주 : 경제수준(a= 낮은편, b=중간, c=높은편)

부표 23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내적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4.08(.666)	4.07(.633)	3.74(.677)	3.99(.909)	
	여	(SD)	4.17(.574)	4.13(.486)	3.93(.583)	4.37(.663)	
	t/F(Scheffé)		-2.710**	-2.227*	-5.578***	-9.485***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4.17(.620)	4.14(.556)	3.85(.630)	4.24(.794)	
	일반사무/기술 등		(SD)	4.10(.625)	4.12(.519)	3.84(.630)	4.21(.770)
	농축수산/노무		4.02(.565)	4.02(.591)	3.84(.682)	4.12(.858)	
	무직		4.15(.684)	4.03(.710)	3.74(.702)	4.06(.911)	
	t/F(Scheffé)		2.719*	4.067** _(ac)	.732	3.088*	
모 직업	가사	M	4.11(.603)	4.06(.616)	3.80(.635)	4.15(.857)	
	전문/경영/관리		(SD)	4.16(.636)	4.16(.525)	3.93(.628)	4.28(.762)
	일반사무/기술 등		4.14(.636)	4.14(.515)	3.86(.637)	4.21(.768)	
	농축수산/노무		4.04(.688)	4.03(.579)	3.82(.680)	3.97(.967)	
	t/F(Scheffé)		1.010	3.753*	2.447	4.179** _(fh, gh)	
경제 수준	낮은편	M	4.19(.605)	4.09(.554)	3.89(.650)	4.17(.852)	
	중간		(SD)	4.02(.678)	4.05(.594)	3.72(.618)	4.11(.885)
	높은편		4.11(.596)	4.14(.551)	3.86(.632)	4.24(.727)	
	t/F(Scheffé)		8.525*** _(ij)	3.535* _(jk)	8.507*** _(ij, jk)	2.828	

*p<.05, **p<.01, ***p<.001
 ※ 주 : 부 직업(a=전문/경영/관리, b=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c=농축수산/노무, d=무직), 모 직업(e=가사, f=전문/경영/관리, g=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h=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i= 낮은편, j=중간, k=높은편)

부표 24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환경적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99(.680)	3.96(.630)	3.86(.709)	3.95(.873)
	여		4.13(.631)	4.16(.533)	4.07(.562)	4.27(.671)
	t/F(Scheffé)		-4.142***	-6.834***	-6.497***	-7.992***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4.11(.677)	4.05(.599)	4.02(.653)	4.13(.801)
	중간		3.95(.661)	4.04(.625)	3.87(.673)	4.01(.853)
	높은편		4.08(.625)	4.08(.562)	3.98(.621)	4.16(.736)
	t/F(Scheffé)		7.389***(ab, bc)	.735	6.643**(ab, bc)	4.568*(bc)

*p<.05, **p<.01, ***p<.001

※ 주 : 경제수준(a= 낮은편, b=중간, c=높은편)

부표 25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자율·창조적 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45(.523)	3.63(.485)	3.26(.550)	3.50(.650)
	여		3.38(.530)	3.54(.437)	3.22(.514)	3.61(.551)
	t/F(Scheffé)		2.637**	3.710***	1.564	-3.465***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47(.531)	3.62(.457)	3.26(.515)	3.65(.597)
	일반사무/기술 등		3.41(.512)	3.59(.446)	3.25(.529)	3.53(.594)
	농축수산/노무		3.30(.492)	3.55(.485)	3.19(.614)	3.53(.627)
	무직		3.35(.615)	3.54(.498)	3.22(.543)	3.46(.622)
	t/F(Scheffé)		4.455**(ac)	2.064	.592	5.654***(ab, ad)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3.38(.574)	3.58(.468)	3.26(.549)	3.51(.613)
	중간		3.38(.530)	3.51(.466)	3.18(.506)	3.54(.635)
	높은편		3.47(.451)	3.65(.450)	3.27(.532)	3.60(.570)
	t/F(Scheffé)		4.706**(eg, fg)	10.851***(eg, fg)	3.858*(fg)	3.399*(eg)

*p<.05, **p<.01, ***p<.001

※ 주 : 부 직업(a=전문/경영/관리, b=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c=농축수산/노무, d=무직), 경제수준(e= 낮은편, f=중간, g= 높은편)

부표 26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생활의 가치/사회적보상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67(.806)	3.71(.718)	3.44(.826)	3.66(.993)
	여		3.54(.761)	3.67(.694)	3.49(.762)	3.78(.892)
	t/F(Scheffé)		3.160**	1.135	-1.349	-2.395*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SD)	3.56(.845)	3.65(.806)	3.35(.850)	3.56(1.021)
	전문대재·졸		3.69(.835)	3.66(.749)	3.42(.742)	3.77(.940)
	4년제대재이상		3.59(.761)	3.70(.678)	3.51(.779)	3.79(.880)
	t/F(Scheffé)		2.465	.787	5.239**(ac)	8.682***(ab, ac)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69(.795)	3.74(.707)	3.47(.780)	3.81(.921)
	일반사무/기술 등		3.57(.781)	3.65(.683)	3.49(.793)	3.73(.909)
	농축수산/노무		3.52(.732)	3.67(.708)	3.39(.873)	3.66(.976)
	무직		3.56(.848)	3.70(.798)	3.35(.779)	3.61(1.025)
	t/F(Scheffé)		2.893*	1.618	1.086	2.517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3.56(.829)	3.57(.721)	3.45(.833)	3.60(.949)
	중간		3.58(.776)	3.61(.705)	3.43(.785)	3.68(.959)
	높은편		3.67(.730)	3.84(.666)	3.50(.765)	3.86(.915)
	t/F(Scheffé)		2.429	23.476***(df, ef)	1.111	10.210***(df, ef)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 낮은편, e=중간, f=높은편)

부표 27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외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3.98(.682)	4.02(.616)	3.82(.698)	3.87(.868)
		없다	4.12(.638)	4.05(.513)	3.76(.750)	3.77(.905)
	t		-1.932	-.321	.941	1.131
진로관련 검사	M (SD)	있다	3.99(.680)	4.02(.616)	3.81(.696)	3.86(.882)
		없다	4.08(.677)	4.14(.562)	3.89(.758)	3.84(.800)
	t		-1.021	-2.104*	-1.209	.356

*p<.05, **p<.01, ***p<.001

부표 28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내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M (SD)	있다	4.12(.616)	4.10(.566)	3.83(.641)	4.19(.784)
		없다	4.16(.641)	4.13(.461)	3.86(.600)	4.37(.733)
	t	-.735	-.576	-.456	-2.853**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4.12(.618)	4.10(.561)	3.84(.638)	4.20(.782)
		없다	4.16(.622)	4.15(.449)	3.76(.617)	4.30(.758)
	t	-.631	-.595	1.241	-1.262	
진로관련 검사	M (SD)	있다	4.13(.614)	4.09(.561)	3.83(.638)	4.20(.788)
		없다	4.04(.731)	4.19(.504)	3.87(.619)	4.31(.723)
	t	.960	-1.771	-.632	-1.724	

*p<.05, **p<.01, ***p<.001

부표 29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환경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직업체험	M (SD)	있다	4.04(.649)	4.05(.589)	3.94(.649)	4.12(.765)
		없다	4.16(.672)	4.20(.535)	4.10(.615)	4.19(.809)
	t	-2.606**	-3.181**	-3.776***	-.898	

*p<.05, **p<.01, ***p<.001

부표 30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자율 창조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3.42(.521)	3.60(.460)	3.25(.525)	3.58(.591)
		없다	3.34(.598)	3.48(.418)	3.21(.613)	3.47(.633)
	t	1.298	1.760	.692	1.870	
진로관련 검사	M (SD)	있다	3.41(.521)	3.60(.458)	3.25(.523)	3.58(.595)
		없다	3.43(.655)	3.51(.478)	3.21(.625)	3.53(.595)
	t	-.192	1.838	.676	.871	
직업체험	M (SD)	있다	3.41(.511)	3.60(.457)	3.24(.527)	3.58(.581)
		없다	3.40(.585)	3.51(.472)	3.24(.553)	3.44(.711)
	t	.309	2.573*	.245	2.553*	
진로상담	M (SD)	있다	3.41(.521)	3.60(.459)	3.24(.524)	3.57(.593)
		없다	3.47(.573)	3.51(.454)	3.29(.661)	3.55(.604)
	t	-1.278	2.432*	-.853	.627	

*p<.05, **p<.01, ***p<.001

부표 31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사회적보상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3.61(.781)	3.70(.703)	3.49(.784)	3.76(.913)
	없다	3.48(.821)	3.44(.664)	3.27(.902)	3.60(.992)
t		1.544	2.545*	2.789**	1.730
진로관련 검사	M (SD)				
	있다	3.61(.781)	3.71(.696)	3.48(.791)	3.75(.913)
	없다	3.56(.859)	3.50(.763)	3.33(.824)	3.70(.973)
t		.456	2.876**	2.067*	.718
직업체험	M (SD)				
	있다	3.63(.773)	3.72(.694)	3.47(.788)	3.77(.899)
	없다	3.51(.820)	3.50(.742)	3.46(.824)	3.47(1.082)
t		2.188*	3.772***	.196	3.324***
진로상담	M (SD)				
	있다	3.62(.776)	3.72(.699)	3.48(.788)	3.77(.913)
	없다	3.50(.845)	3.49(.708)	3.31(.900)	3.63(.949)
t		1.670	3.775***	1.870	2.003*

*p<.05, **p<.01, ***p<.001

부표 32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직업 생활에 관한 가치	자율창조적 보상	.049	.039	.046	.155***
	학교 및 학과 안내				
	외적보상	.047	.083***	-.039	.140***
	내적보상	.005	.143***	-.026	.177***
	환경적보상	.034	.083***	-.013	.172***
	자율창조적 보상	.015	.119***	-.012	.131***
	진로관련 검사				
	환경적보상	.016	.115***	-.011	.164***
	직업체험				
	외적보상	.048	.115***	-.002	.127***
	환경적보상	.031	.101***	.044	.144***
	자율창조적 보상	.017	.074**	.033	.142***
	사회적보상	.016	.091***	.036	.165***
	진로상담				
	내적보상	.008	.127***	.033	.112***
환경적보상	.015	.077**	-.002	.123***	

*p<.05, **p<.01, ***p<.001

부표 33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화)			
직업 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보상	.044	.078**	-.036	.196***
	환경적보상	.049	.091***	-.052*	.213***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외적보상	.050	.048	.001	.208***
	환경적보상	.026	.080**	.019	.194***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대화				
	내적보상	.048	.096***	.054*	.131***
	환경적보상	.012	.072**	-.021	.146***

*p<.05, **p<.01, ***p<.001

부표 34 상관분석 :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와 자아존중감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외적보상	.044	.143***	-.041	.121***
	환경적보상	.036	.141***	-.103***	.159***

*p<.05, **p<.01, ***p<.001

6)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요인

부표 35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1)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4.18(.773)	4.37(.781)	4.10(.752)	4.20(.939)
		전문대재·졸	(SD)	4.22(.783)	4.33(.712)	4.09(.666)	4.26(.955)
		4년제대재이상		4.23(.692)	4.28(.660)	4.20(.743)	4.27(.873)
		t/F(Scheffé)		.361	1.557	2.504	.999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	성별	남	M	4.15(.803)	4.25(.750)	3.98(.823)	4.21(.947)
		여	(SD)	4.17(.681)	4.33(.631)	4.04(.717)	4.51(.735)
		t/F(Scheffé)		-.416	-2.426*	-1.670	-6.768***
	교육 수준	고졸이하		4.12(.832)	4.20(.811)	3.96(.809)	4.30(.920)
		전문대재·졸	M	4.18(.795)	4.30(.709)	3.90(.688)	4.37(.911)
4년제대재이상		(SD)	4.16(.715)	4.30(.672)	4.03(.767)	4.39(.776)	
t/F(Scheffé)		.374	1.175	2.143	1.504		

*p<.05, **p<.01, ***p<.001

부표 36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2)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근면함과 성실성	교육 수준	고졸이하	4.21(.779)	4.22(.742)	3.89(.824)	4.20(.939)
		전문대재·졸	4.18(.814)	4.22(.679)	3.95(.639)	4.30(.906)
		4년제대재이상	4.20(.667)	4.22(.657)	4.01(.720)	4.26(.847)
		t/F(Scheffé)	.183	.010	3.026*	1.239
좋은 성품	성 별	남	4.10(.793)	4.26(.748)	3.79(.892)	4.16(.971)
		여	4.15(.719)	4.33(.631)	3.98(.762)	4.52(.742)
		t/F(Scheffé)	-1.091	-1.793	-4.329***	-8.040***
	교육 수준	고졸이하	4.09(.868)	4.28(.721)	3.91(.802)	4.29(.927)
		전문대재·졸	4.16(.790)	4.26(.722)	4.03(.801)	4.39(.885)
		4년제대재이상	4.12(.729)	4.31(.679)	3.87(.846)	4.35(.848)
		t/F(Scheffé)	.555	.514	1.908	1.624
	경 제 수 준	낮은편	4.16(.751)	4.24(.709)	3.93(.869)	4.36(.818)
		중간	4.05(.768)	4.32(.666)	3.81(.800)	4.31(.947)
		높은편	4.14(.755)	4.32(.695)	3.90(.823)	4.35(.896)
t/F(Scheffé)		2.510	1.926	2.550	.366	
돈(자본)/ 재산	성 별	남	3.84(.935)	3.85(.784)	3.80(.878)	3.73(1.190)
		여	3.99(.807)	3.91(.706)	3.70(.868)	3.84(1.044)
		t/F(Scheffé)	-3.337***	-1.396	2.053*	-2.061*
	교육 수준	고졸이하	3.90(1.063)	4.07(.815)	3.81(.909)	3.82(1.124)
		전문대재·졸	3.99(.873)	3.93(.795)	3.79(.845)	3.86(1.116)
		4년제대재이상	3.89(.844)	3.84(.716)	3.73(.865)	3.71(1.119)
		t/F(Scheffé)	1.369	6.829*** _(ac)	1.378	2.422
	경 제 수 준	낮은편	3.98(.898)	3.88(.758)	3.81(.922)	3.76(1.184)
		중간	3.88(.883)	3.84(.730)	3.62(.850)	3.74(1.109)
		높은편	3.85(.837)	3.91(.747)	3.78(.838)	3.84(1.067)
t/F(Scheffé)		3.513* _(df)	1.024	6.108** _(de, ef)	1.274	
인 맥	성 별	남	4.06(.846)	4.31(.719)	3.91(.874)	3.92(1.012)
		여	4.07(.763)	4.38(.631)	4.05(.743)	4.17(.943)
		t/F(Scheffé)	-.352	-2.096*	-3.213***	-5.036***
	교육 수준	고졸이하	3.95(.926)	4.42(.749)	3.79(.851)	3.94(1.065)
		전문대재·졸	4.14(.841)	4.37(.719)	3.76(.830)	4.08(.978)
		4년제대재이상	4.06(.772)	4.33(.653)	3.79(.815)	4.09(.930)
		t/F(Scheffé)	3.165* _(ab)	1.309	1.903	3.341*
	경 제 수 준	낮은편	4.14(.778)	4.38(.673)	4.02(.833)	3.97(1.041)
		중간	3.95(.843)	4.29(.680)	3.88(.812)	4.00(1.014)
		높은편	4.05(.804)	4.35(.678)	4.02(.792)	4.16(.900)
t/F(Scheffé)		6.512** _(de)	1.822	4.232* _(de, ef)	5.659** _(df, ef)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 낮은편, e=중간, f=높은편)

부표 37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3)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기 계발	성별	남 M	4.11(.793)	4.09(.742)	3.70(.882)	4.14(.965)
		여 (SD)	4.20(.717)	4.14(.662)	3.87(.751)	4.47(.754)
		t/F(Scheffé)	-2.218*	-1.271	-3.981***	-7.252***
	교육 수준	고졸이하	4.10(.824)	4.05(.798)	3.79(.851)	4.23(.955)
		전문대재·졸 M	4.18(.822)	4.11(.714)	3.76(.830)	4.35(.865)
		4년제대재이상 (SD)	4.16(.727)	4.13(.687)	3.79(.815)	4.33(.836)
		t/F(Scheffé)	.524	.656	.055	2.149
	경제 수준	낮은편	4.21(.750)	4.09(.697)	3.85(.818)	4.28(.971)
		중간 M	4.05(.786)	4.11(.682)	3.68(.820)	4.32(.864)
		높은편 (SD)	4.16(.737)	4.14(.724)	3.80(.824)	4.32(.802)
		t/F(Scheffé)	5.548**(de)	.529	4.858**(de)	.328
	관이나 요행	성별	남 M	3.60(1.010)	3.48(.852)	3.83(.951)
여 (SD)			3.78(.811)	3.64(.766)	3.88(.816)	3.36(1.312)
t/F(Scheffé)			-3.944***	-3.801***	-1.231	2.341*
교육 수준		고졸이하	3.65(1.070)	3.52(.899)	3.89(.904)	3.44(1.289)
		전문대재·졸 M	3.71(.897)	3.56(.897)	3.90(.801)	3.49(1.295)
		4년제대재이상 (SD)	3.69(.902)	3.57(.774)	3.84(.888)	3.40(1.262)
		t/F(Scheffé)	.248	.199	.503	.619
경제 수준		낮은편	3.73(.948)	3.51(.854)	3.88(.909)	3.32(1.302)
		중간 M	3.64(.897)	3.56(.782)	3.79(.897)	3.39(1.324)
		높은편 (SD)	3.67(.897)	3.62(.798)	3.87(.857)	3.59(1.209)
		t/F(Scheffé)	1.542	2.515	1.247	6.644***(df)
가정 배경		성별	남 M	3.26(1.056)	3.50(.899)	3.08(1.089)
	여 (SD)		3.37(.965)	3.65(.814)	3.07(.994)	3.17(1.337)
	t/F(Scheffé)		-2.041*	-3.258***	.276	1.927
	교육 수준	고졸이하	3.25(1.139)	3.37(1.024)	3.17(1.089)	3.29(1.354)
		전문대재·졸 M	3.45(1.025)	3.57(.942)	3.40(.957)	3.26(1.331)
		4년제대재이상 (SD)	3.29(.986)	3.60(.805)	3.02(1.029)	3.19(1.288)
		t/F(Scheffé)	3.276*	4.262*(ac)	7.409*** (bc)	.867
	경제 수준	낮은편	3.26(1.069)	3.48(.888)	2.99(1.076)	3.00(1.331)
		중간 M	3.29(.942)	3.54(.845)	3.17(.983)	3.28(1.321)
		높은편 (SD)	3.41(.978)	3.68(.836)	3.09(1.045)	3.43(1.275)
		t/F(Scheffé)	3.032*	7.812***(df, ef)	3.414*(de)	14.794***(de, df)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 낮은편, e=중간, f=높은편)

부표 38 직업에서의 성공요인 : 배경변인별 비교(4)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학벌/ 학력	성별	남	M	3.55(1.004)	3.62(.835)	3.04(1.098)	3.86(1.099)	
		여	(SD)	3.61(.906)	3.75(.773)	2.99(.968)	4.17(.933)	
		t/F(Scheffé)		-1.160	-3.172**	.923	-6.746***	
	교육수준	고졸이하	M	3.45(1.139)	3.40(.981)	2.84(1.117)	3.87(1.130)	
		전문대재·졸		(SD)	3.60(1.031)	3.63(.834)	2.93(.849)	4.03(1.070)
		4년제대재이상		3.59(.901)	3.75(.763)	3.07(1.018)	4.10(.915)	
		t/F(Scheffé)		1.531	12.731***(ab, ac)	6.590***(ac)	6.419**(ac)	
	경제수준	낮은편	M	3.57(1.037)	3.57(.817)	2.90(1.088)	3.88(1.109)	
		중간		(SD)	3.48(.878)	3.67(.796)	3.04(.991)	4.00(1.080)
		높은편		3.66(.889)	3.80(.793)	3.09(1.006)	4.15(.889)	
		t/F(Scheffé)		3.788*(ef)	10.535****(df)	5.124***(df)	10.006****(df)	
	뚜렷한 목표의식	성별	남	M	4.20(.791)	4.25(.704)	3.96(.844)	4.03(.983)
여			(SD)	4.22(.772)	4.25(.623)	3.99(.795)	4.27(.797)	
t/F(Scheffé)			-.462	-.049	-.568	-5.096***		
교육수준		고졸이하	M	4.12(.916)	4.15(.818)	3.90(.901)	4.11(.959)	
		전문대재·졸		(SD)	4.23(.823)	4.24(.664)	3.89(.752)	4.17(.934)
		4년제대재이상		4.22(.746)	4.26(.641)	4.00(.798)	4.16(.837)	
		t/F(Scheffé)		1.246	1.765	2.363	.547	
경제수준		낮은편	M	4.25(.783)	4.24(.664)	4.02(.851)	4.12(.923)	
		중간		(SD)	4.12(.835)	4.23(.651)	3.86(.775)	4.14(.950)
		높은편		4.23(.734)	4.26(.676)	4.01(.813)	4.18(.845)	
		t/F(Scheffé)		3.596*(de)	.249	4.978***(de, ef)	.704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경제수준(d= 낮은편, e=중간, f=높은편)

7) 진로·직업 태도

부표 39 진로·직업태도/결정성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교육수준	고졸이하	M	2.92(1.049)	3.07(1.019)	2.62(1.076)	3.20(1.139)	
	전문대재·졸		(SD)	3.01(1.085)	3.12(.828)	2.60(1.009)	3.50(1.114)
	4년제대재이상		3.00(1.048)	3.28(.855)	2.74(1.111)	3.56(1.017)	
	t/F(Scheffé)		.428	6.335***(ac, bc)	2.153	15.354****(ab, ac)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부표 40 진로·직업태도/준비성·독립성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준비성	교육수준	고졸이하	3.71(.792)	3.63(.756)	3.20(.967)	3.51(1.005)
		전문대재·졸	3.67(.759)	3.72(.664)	3.20(.911)	3.66(.943)
		4년제대재이상	3.75(.748)	3.84(.587)	3.41(.839)	3.61(.931)
		t/F(Scheffé)	1.408	10.112*** _(ac, bc)	9.020*** _(ac)	2.808
	학업성적	하위권	3.61(.792)	3.73(.596)	3.25(.976)	3.64(.973)
		중위권	3.75(.729)	3.67(.624)	3.34(.853)	3.59(.905)
		상위권	3.78(.752)	3.85(.607)	3.42(.829)	3.63(.951)
		t/F(Scheffé)	5.396** _(de, df)	10.947*** _(ef)	4.813** _(df)	.209
	경제수준	낮은편	3.80(.767)	3.75(.633)	3.34(.929)	3.55(.978)
		중간	3.60(.731)	3.76(.610)	3.31(.854)	3.60(.930)
		높은편	3.74(.745)	3.86(.624)	3.39(.843)	3.64(.959)
		t/F(Scheffé)	8.333*** _(gh, hi)	5.360** _(gi, hi)	1.179	1.021
독립성	교육수준	고졸이하	2.44(1.026)	2.79(.910)	2.43(.975)	2.60(1.210)
		전문대재·졸	2.57(.980)	2.91(.850)	2.42(.890)	2.56(1.207)
		4년제대재이상	2.44(.940)	2.88(.844)	2.42(.910)	2.56(1.133)
		t/F(Scheffé)	2.306	.947	.012	.172
	학업성적	하위권	2.53(1.008)	3.19(.822)	2.39(.979)	2.70(1.242)
		중위권	2.49(.949)	3.00(.834)	2.47(.841)	2.65(1.167)
		상위권	2.40(.943)	2.82(.851)	2.42(.932)	2.51(1.159)
		t/F(Scheffé)	2.567	12.117*** _(df, ef)	.688	2.466
	부학력	고졸	2.44(.939)	3.85(.839)	2.33(.942)	2.44(1.156)
		대졸	2.48(.982)	2.95(.893)	2.43(.896)	2.70(1.182)
		t/F(Scheffé)	-.878	-1.921	-1.957	-3.909***
		모학력	고졸	2.45(.962)	2.87(.846)	2.39(.945)
	대졸		2.47(.955)	2.94(.907)	2.40(.892)	2.63(1.191)
	t/F(Scheffé)		-.286	-1.105	-.151	-2.231*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2.45(1.024)	2.92(.864)	2.40(.895)
		일반사무/기술 등	2.47(.906)	2.86(.880)	2.42(.914)	2.53(1.144)
		농축수산/노무	2.54(.988)	2.82(.806)	2.47(1.019)	2.56(1.131)
		무직	2.49(1.002)	2.94(.785)	2.69(.986)	2.70(1.222)
		t/F(Scheffé)	.289	1.378	2.307	1.212
	모직업	가사	2.47(.927)	2.85(.847)	2.47(.895)	2.65(1.193)
전문/경영/관리		2.49(1.062)	2.91(.874)	2.42(1.008)	2.62(1.230)	
일반사무/기술 등		2.40(.945)	2.89(.871)	2.39(.936)	2.45(1.138)	
농축수산/노무		2.55(.904)	2.86(.812)	2.29(.835)	2.62(1.145)	
t/F(Scheffé)		.957	.324	1.134	3.265*(ij)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 하위권, e= 중위권, f= 상위권), 경제수준(g= 낮은편, h=중간, i=높은편), 모 직업(j= 가사, k= 전문/경영/관리, l=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m= 농축수산/노무)

부표 41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학교진로 지도내용	진로/ 직업 태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진로관련 강연	준비성	M (SD)	3.73 (.744)	3.74 (.837)	3.81 (.615)	3.72 (.680)	3.39 (.845)	3.09 (1.035)	3.64 (.919)	3.40 (1.077)	
		t	-.132		1.627		4.337***		3.084**		
학교 및 학과 안내	준비성	M (SD)	3.73 (.746)	3.87 (.861)	3.81 (.619)	3.67 (.665)	3.38 (.862)	3.07 (.985)	3.64 (.923)	3.33 (1.107)	
		t	-1.790		1.445		3.529***		3.310***		
	독립성	M (SD)	2.47 (.954)	2.39 (1.040)	2.88 (.856)	2.71 (.735)	2.43 (.914)	2.38 (.990)	2.58 (1.159)	2.24 (1.194)	
		t	.814		1.351		.521		2.999**		
진로관련 검사	결정성	M (SD)	3.00 (1.042)	2.87 (1.361)	3.26 (.859)	2.93 (.913)	2.74 (1.092)	2.44 (1.150)	3.50 (1.059)	3.30 (1.211)	
		t	.903		3.707***		2.936**		2.334*		
	확신성	M (SD)	3.12 (.901)	3.20 (1.206)	2.75 (.885)	2.87 (.867)	3.34 (.936)	3.33 (1.035)	3.07 (1.093)	2.95 (1.120)	
		t	-.600		-1.317		.047		1.415		
	준비성	M (SD)	3.74 (.747)	3.69 (.926)	3.81 (.612)	3.75 (.724)	3.37 (.865)	3.21 (.965)	3.64 (.924)	3.45 (1.050)	
		t	.415		.895		2.018*		2.470*		
	독립성	M (SD)	2.47 (.955)	2.41 (1.074)	2.89 (.852)	2.74 (.851)	2.44 (.920)	2.30 (.911)	2.61 (1.165)	2.17 (1.103)	
		t	.468		1.702		1.562		4.650***		
	진로상담	결정성	M (SD)	3.01 (1.024)	2.86 (1.314)	3.27 (.849)	2.88 (.938)	2.73 (1.092)	2.42 (1.195)	3.51 (1.062)	3.33 (1.163)
			t	1.664		5.359***		2.429*		2.199*	
준비성		M (SD)	3.73 (.751)	3.81 (.779)	3.80 (.616)	3.81 (.662)	3.37 (.862)	3.13 (1.073)	3.65 (.922)	3.45 (1.026)	
		t	-1.310		-.074		2.387*		2.859**		
독립성		M (SD)	2.48 (.953)	2.33 (1.015)	2.89 (.860)	2.76 (.782)	2.43 (.917)	2.32 (.976)	2.62 (1.170)	2.19 (1.075)	
		t	1.730		1.737		.983		5.187***		

*p<.05, **p<.01, ***p<.001

부표 42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진로·직업 태도	결정성	.046	.071**	-.032	.161***
	확신성	-.024	-.050	.024	-.093***
	독립성	-.050	-.060*	-.016	-.085**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직업 태도	확신성	-.028	-.084***	.008	-.140***
	준비성	.050	.046	-.033	.019
	독립성	.030	-.006	.020	-.004
진로관련 검사					
진로·직업 태도	독립성	-.028	-.018	.019	-.025
직업체험					
진로·직업 태도	결정성	.045	.131***	-.001	.220***
	확신성	.010	-.033	-.003	-.098***
	준비성	.050	.066*	-.007	-.039
	독립성	-.038	.004	-.049	-.012
진로상담					
진로·직업 태도	확신성	-.026	-.030	-.041	-.110***
	준비성	.013	.092***	.009	-.044

*p<.05, **p<.01, ***p<.001

부표 43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진로·직업태도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진로 관련 대화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직업, 진학 등 진로 관련 대화					
진로·직업 태도	독립성	.016	-.001	.062*	-.078**

*p<.05, **p<.01, ***p<.001

8) 진로준비행동

부표 44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일부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89(.919)	3.77(.829)	3.72(1.059)	3.63(1.094)
	여	(SD)	4.03(.813)	3.77(.777)	4.05(.910)	3.97(1.017)
	t/F(Scheffé)		-3.034**	-.118	-6.537***	-6.241***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3.85(.906)	3.63(.873)	3.89(1.020)	3.66(1.173)
	전문대재·졸		3.98(.901)	3.66(.825)	3.92(.925)	3.86(1.070)
	4년제대재이상		3.97(.855)	3.83(.781)	3.88(1.002)	3.87(.982)
	t/F(Scheffé)		1.399	8.227***(ac, bc)	.082	5.680**(ab, ac)
학업 성적	하위권	M	3.85(.932)	3.54(.896)	3.81(1.096)	3.52(1.146)
	중위권		4.01(.811)	3.64(.797)	3.85(.989)	3.77(1.017)
	상위권		4.00(.866)	3.84(.778)	3.95(.938)	3.90(1.029)
	t/F(Scheffé)		3.783*(de, df)	12.835***(df, ef)	2.797	6.059**(df)
부 학력	고졸	M	3.97(.881)	3.77(.783)	3.95(1.007)	3.83(1.107)
	대졸		3.97(.851)	3.82(.870)	3.87(.990)	3.84(.968)
	t/F(Scheffé)		-.121	-1.142	1.370	-.135
모 학력	고졸	M	3.96(.872)	3.76(.790)	3.95(.968)	3.84(1.076)
	대졸		3.99(.843)	3.89(.836)	3.89(1.010)	3.87(1.019)
	t/F(Scheffé)		-.511	-2.360*	1.112	-.532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4.01(.841)	3.85(.845)	3.90(.978)	3.86(1.035)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93(.874)	3.72(.764)	3.89(1.001)	3.79(1.045)
	농축수산/노무		3.88(.829)	3.74(.789)	3.88(1.034)	3.82(1.122)
	무직		4.03(1.036)	3.77(.819)	3.65(1.097)	3.70(1.116)
	t/F(Scheffé)		1.542	2.750*	1.423	1.227
모 직업	가사	M	3.93(.901)	3.70(.809)	3.77(1.075)	3.81(1.086)
	전문/경영/관리		3.98(.857)	3.90(.824)	4.06(.929)	3.88(1.064)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99(.810)	3.77(.805)	3.95(.926)	3.80(1.036)
	농축수산/노무		3.99(1.000)	3.77(.758)	3.94(.924)	3.69(1.176)
	t/F(Scheffé)		.659	3.981**(gh)	5.543*** (gh, gi)	.853
경제 수준	낮은편	M	4.01(.898)	3.71(.808)	3.93(1.002)	3.77(1.100)
	중간		3.85(.885)	3.77(.773)	3.75(.989)	3.76(1.095)
	높은편		3.98(.814)	3.83(.817)	3.92(1.001)	3.87(1.018)
	t/F(Scheffé)		3.770*(kl)	3.074*(km)	4.564*(kl, km)	1.535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 하위권, e= 중위권, f= 상위권), 모 직업(g= 가사, h= 전문/경영/관리, i=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j= 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k= 낮은편, l=중간, m=높은편)



부표 45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일부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홍보물 등을 읽어 보았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49(.959)	3.74(.853)	3.12(1.107)	3.61(1.090)
	여	3.48(.959)	3.60(.886)	3.33(1.147)	3.59(1.176)
	t/F(Scheffé)	.215	3.054**	-3.582***	.437
교육수준	고졸이하	M (SD) 3.36(1.065)	3.47(.994)	3.08(1.260)	3.44(1.232)
	전문대재·졸	3.37(.996)	3.55(.908)	3.22(1.038)	3.58(1.151)
	4년제대재이상	3.54(.926)	3.73(.836)	3.27(1.095)	3.72(1.033)
t/F(Scheffé)	5.387**(bc)	9.643*** (ac, bc)	3.721*(ac)	8.272*** (ac)	
학업성적	하위권	M (SD) 3.40(.972)	3.46(.929)	3.12(1.208)	3.43(1.133)
	중위권	3.43(.964)	3.44(.889)	3.26(1.103)	3.53(1.073)
	상위권	3.57(.939)	3.77(.836)	3.28(1.100)	3.69(1.120)
t/F(Scheffé)	5.037**(df, ef)	20.617*** (df, ef)	2.247	3.751*	
부학력	고졸	M (SD) 3.47(.959)	3.64(.870)	3.28(1.135)	3.63(1.135)
	대졸	3.56(.935)	3.87(.818)	3.27(1.108)	3.62(1.096)
	t/F(Scheffé)	-1.725	-4.366***	.035	.031
모학력	고졸	M (SD) 3.45(.965)	3.64(.866)	3.27(1.144)	3.60(1.136)
	대졸	3.66(.879)	3.93(.835)	3.27(1.116)	3.70(1.095)
	t/F(Scheffé)	-3.806***	-4.861***	-.032	-1.530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58(.906)	3.82(.864)	3.27(1.109)	3.65(1.134)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45(.982)	3.59(.882)	3.21(1.133)	3.61(1.110)
	농축수산/노무	3.38(.934)	3.60(.829)	3.13(1.202)	3.56(1.224)
	무직	3.41(1.023)	3.56(.928)	3.25(1.116)	3.52(1.139)
t/F(Scheffé)	2.774*	8.083*** (gh, hi)	.689	.819	
모직업	가사	M (SD) 3.49(.941)	3.62(.883)	3.16(1.152)	3.61(1.134)
	전문/경영/관리	3.50(.984)	3.85(.856)	3.40(1.075)	3.66(1.139)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48(.971)	3.66(.876)	3.26(1.109)	3.58(1.124)
	농축수산/노무	3.39(.994)	3.58(.845)	3.10(1.244)	3.59(1.189)
t/F(Scheffé)	.858	6.222*** (kl, lm, ln)	2.589	.261	
경제수준	낮은편	M (SD) 3.38(.990)	3.49(.845)	3.22(1.180)	3.50(1.184)
	중간	3.47(.941)	3.64(.785)	3.10(1.086)	3.61(1.095)
	높은편	3.64(.909)	3.85(.845)	3.32(1.109)	3.69(1.108)
	t/F(Scheffé)	10.006*** (oq)	24.155*** (α, α, α)	4.614** (pq)	3.649*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 하위권, e= 중위권, f= 상위권), 부 직업(g= 전문/경영/관리, h=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i= 농축수산/노무, j= 무직), 모 직업(k= 가사, l= 전문/경영/관리, m=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n= 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o= 낮은편, p=중간, q=높은편)

부표 46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일부 항목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49(1.005)	3.55(.899)	3.10(1.140)	3.35(1.153)
	여		3.42(1.019)	3.54(.916)	3.21(1.193)	3.10(1.301)
	t/F(Scheffé)		1.326	.075	-1.828	3.914***
교육 수준	고졸이하	M (SD)	3.39(1.075)	3.48(.963)	3.17(1.245)	3.23(1.280)
	전문대재·졸		3.49(.988)	3.47(.925)	3.19(1.108)	3.30(1.248)
	4년제대재이상		3.45(1.009)	3.58(.893)	3.14(1.149)	3.17(1.193)
t/F(Scheffé)		.471	2.113	.090	1.325	
학업 성적	하위권	M (SD)	3.46(1.025)	3.30(1.054)	3.08(1.250)	3.18(1.135)
	중위권		3.48(.964)	3.39(.846)	3.20(1.130)	3.12(1.225)
	상위권		3.45(1.030)	3.62(.893)	3.17(1.143)	3.26(1.237)
t/F(Scheffé)		.143	11.504***(ac, bc)	1.080	1.616	
부 학력	고졸	M (SD)	3.38(1.022)	3.54(.892)	3.22(1.177)	3.16(1.279)
	대졸		3.58(.983)	3.68(.895)	3.14(1.150)	3.28(1.171)
	t/F(Scheffé)		-3.589***	-2.594**	1.208	-1.601
모 학력	고졸	M (SD)	3.42(1.007)	3.54(.895)	3.28(1.138)	3.25(1.246)
	대졸		3.58(.984)	3.73(.890)	3.10(1.165)	3.21(1.229)
	t/F(Scheffé)		-2.625**	-3.068**	2.747**	.542
부 직업	전문/경영/관리	M (SD)	3.61(.979)	3.64(.940)	3.20(1.138)	3.21(1.254)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40(1.008)	3.47(.897)	3.14(1.177)	3.19(1.218)
	농축수산/노무		3.20(.980)	3.55(.823)	3.05(1.269)	3.35(1.209)
	무직		3.35(1.105)	3.44(1.012)	3.19(1.099)	3.22(1.228)
t/F(Scheffé)		7.591***(de, df)	3.691*(de)	.707	.958	
모 직업	가사	M (SD)	3.46(.995)	3.44(.891)	3.09(1.157)	3.20(1.243)
	전문/경영/관리		3.60(1.014)	3.68(.980)	3.34(1.177)	3.25(1.258)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43(1.004)	3.58(.881)	3.17(1.171)	3.23(1.234)
	농축수산/노무		3.08(1.117)	3.54(.875)	3.04(1.176)	3.26(1.175)
t/F(Scheffé)		4.782**(hk, ik, jk)	4.779**(hi)	2.457	.144	
경제 수준	낮은편	M (SD)	3.38(1.068)	3.36(.884)	3.12(1.210)	3.14(1.228)
	중간		3.46(.946)	3.52(.911)	3.08(1.092)	3.22(1.217)
	높은편		3.54(.975)	3.72(.892)	3.22(1.174)	3.31(1.251)
	t/F(Scheffé)			3.725*(ln)	22.139*** (ln ln m)	2.009

*p<.05, **p<.01, ***p<.001

※ 주 : 고등학교 학업성적(a= 하위권, b= 중위권, c= 상위권), 부 직업(d= 전문/경영/관리, e=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f= 농축수산/노무, g= 무직), 모 직업(h= 가사, i= 전문/경영/관리, j=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k= 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l= 낮은편, m=중간, n=높은편)

부표 47 상관분석 :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진로 관련 강연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로관련 강연			
진로준비행동	.036	.089***	-.059*	.079**
내용	직업체험			
	진로준비행동	-.012	.127***	-.065*

*p<.05, **p<.01, ***p<.001

9) 한국청소년의 진로 · 직업역량

부표 48 진로·직업역량/합리적 의사결정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SD)	3.74(.595)	3.84(.578)	3.40(.657)	3.82(.690)
	여		3.73(.562)	3.81(.553)	3.49(.663)	4.02(.606)
	t/F(Scheffé)		.104	1.177	-2.631**	-6.182***
모 직업	가사	M (SD)	3.75(.552)	3.77(.605)	3.41(.653)	3.92(.663)
	전문/경영/관리		3.73(.565)	3.94(.572)	3.50(.700)	4.00(.639)
	일반사무/기술/판매등		3.73(.602)	3.86(.540)	3.47(.654)	3.93(.628)
	농축수산/노무		3.67(.603)	3.75(.503)	3.50(.629)	3.76(.787)
	t/F(Scheffé)		.647	8.117***(ab, bd)	1.561	3.315*(bd)

*p<.05, **p<.01, ***p<.001

※ 주 : 모 직업(a= 가사, b= 전문/경영/관리, c=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d= 농축수산/노무)

부표 49 진로·직업역량/자기이해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57(.726)	3.82(.639)	3.04(.792)	3.78(.863)
	여	(SD)	3.47(.730)	3.74(.603)	3.09(.739)	4.00(.745)
	t/F(Scheffé)		2.650**	2.453*	-1.207	-5.297***
교육수준	고졸이하	M	3.38(.792)	3.65(.852)	3.03(.834)	3.88(.842)
	전문대재·졸		3.44(.775)	3.68(.664)	3.06(.755)	3.95(.862)
	4년제대재이상		3.56(.702)	3.83(.566)	3.08(.746)	3.86(.755)
	t/F(Scheffé)		6.711***(ac, bc)	9.686***(ac, bc)	.688	1.710
학업성적	하위권	M	3.32(.818)	3.64(.677)	3.02(.869)	3.68(.952)
	중위권		3.46(.681)	3.57(.605)	2.98(.731)	3.85(.802)
	상위권		3.65(.698)	3.86(.590)	3.14(.725)	3.95(.779)
	t/F(Scheffé)		24.406***(de, df, ef)	30.493***(df, ef)	6.449**(ef)	5.254**(df)
부학력	고졸	M	3.51(.701)	3.74(.626)	3.13(.768)	3.97(.797)
	대졸	(SD)	3.59(.720)	3.95(.590)	3.07(.754)	3.85(.783)
	t/F(Scheffé)		-2.211*	-5.771***	.741	2.570**
모학력	고졸	M	3.50(.718)	3.76(.616)	3.11(.755)	3.93(.823)
	대졸	(SD)	3.64(.722)	4.00(.593)	3.08(.762)	3.89(.767)
	t/F(Scheffé)		-3.286***	-5.703***	.861	.743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3.63(.747)	3.89(.588)	3.11(.761)	3.89(.812)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50(.702)	3.77(.594)	3.03(.745)	3.91(.757)
	농축수산/노무		3.33(.700)	3.71(.652)	3.13(.865)	3.83(.890)
	무직		3.41(.751)	3.52(.713)	3.01(.805)	3.86(.869)
	t/F(Scheffé)		8.172***(gh, gi, gj)	12.662***(gh, gi, gj, hj)	1.455	.590
모직업	가사	M	3.53(.711)	3.70(.647)	2.99(.764)	3.87(.816)
	전문/경영/관리		3.62(.742)	3.92(.565)	3.21(.779)	3.96(.797)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50(.724)	3.82(.593)	3.12(.754)	3.90(.800)
	농축수산/노무		3.40(.737)	3.70(.649)	3.01(.769)	3.80(.931)
	t/F(Scheffé)		1.924	10.069***(kl, km, ln)	5.676***(kl, km)	1.134
경제수준	낮은편	M	3.43(.751)	3.61(.636)	3.01(.812)	3.81(.838)
	중간		3.49(.711)	3.74(.595)	3.02(.759)	3.89(.824)
	높은편		3.66(.691)	3.95(.586)	3.15(.722)	3.97(.774)
	t/F(Scheffé)		14.565***(oq, pq)	42.637***(op, oq, pq)	5.552**(oq, pq)	5.525**(oq)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 하위권, e= 중위권, f= 상위권), 부 직업(g= 전문/경영/관리, h=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i= 농축수산/노무, j= 무직), 모 직업(k= 가사, l= 전문/경영/관리, m=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n= 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o= 낮은편, p=중간, q=높은편)

부표 50 진로·직업역량/진로직업지식 : 배경변인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성별	남	M	3.33(.807)	3.62(.675)	2.93(.806)	3.64(.837)	
	여	(SD)	3.19(.757)	3.44(.692)	2.86(.776)	3.69(.803)	
	t/F(Scheffé)		3.490***	4.993***	1.720	-1.273	
교육수준	고졸이하	M	3.12(.796)	3.42(.733)	2.83(.830)	3.61(.847)	
	전문대재·졸		(SD)	3.22(.842)	3.48(.688)	2.85(.752)	3.72(.871)
	4년제대재이상		3.29(.765)	3.56(.682)	2.91(.783)	3.67(.762)	
	t/F(Scheffé)		3.572*(ac)	3.479*	1.685	2.251	
학업성적	하위권	M	3.11(.835)	3.42(.711)	2.87(.859)	3.49(.855)	
	중위권		(SD)	3.20(.755)	3.37(.672)	2.85(.772)	3.61(.819)
	상위권		3.36(.771)	3.60(.675)	2.93(.771)	3.73(.800)	
	t/F(Scheffé)		13.224***(df, ef)	14.340***(ef)	1.253	4.819**(df)	
부학력	고졸	M	3.21(.780)	3.50(.667)	2.90(.786)	3.71(.824)	
	대졸	(SD)	3.35(.777)	3.69(.718)	2.92(.791)	3.66(.797)	
	t/F(Scheffé)		-3.293***	-4.560***	-.463	.936	
모학력	고졸	M	3.21(.791)	3.52(.666)	2.90(.789)	3.68(.832)	
	대졸	(SD)	3.43(.745)	3.72(.742)	2.94(.790)	3.69(.794)	
	t/F(Scheffé)		-4.590***	-4.206***	-.962	-.319	
부직업	전문/경영/관리	M	3.41(.795)	3.67(.685)	2.93(.791)	3.70(.781)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SD)	3.21(.771)	3.50(.699)	2.86(.765)	3.66(.812)
	농축수산/노무		3.08(.735)	3.44(.625)	2.87(.886)	3.65(.874)	
	무직		3.12(.780)	3.29(.745)	2.94(.852)	3.64(.837)	
	t/F(Scheffé)		10.887***(gh, gi, gj)	13.191***(gh, gi, gj)	.841	.312	
모직업	가사	M	3.25(.772)	3.47(.687)	2.82(.796)	3.65(.825)	
	전문/경영/관리		(SD)	3.35(.844)	3.68(.677)	3.06(.780)	3.79(.767)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3.26(.760)	3.57(.708)	2.94(.780)	3.64(.836)	
	농축수산/노무		3.16(.845)	3.42(.651)	2.82(.790)	3.65(.820)	
	t/F(Scheffé)		1.347	9.178***(kl, ln, mn)	5.470***(kl)	2.074	
경제수준	낮은편	M	3.11(.793)	3.31(.678)	2.79(.832)	3.53(.847)	
	중간		(SD)	3.30(.720)	3.50(.657)	2.92(.743)	3.69(.830)
	높은편		3.43(.782)	3.73(.663)	2.96(.779)	3.77(.772)	
	t/F(Scheffé)		25.888***(op, oq)	54.209***(op, oq, pq)	6.641***(oq)	11.341***(op, oq)	

*p<.05, **p<.01, ***p<.001

※ 주 : 교육수준(a=고졸이하, b=전문대재·졸, c=4년제 대재이상), 고등학교 학업성적(d= 하위권, e= 중위권, f= 상위권), 부 직업(g= 전문/경영/관리, h=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i= 농축수산/노무, j= 무직), 모 직업(k= 가사, l= 전문/경영/관리, m=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 n= 농축수산/노무), 경제수준(o= 낮은편, p=중간, q=높은편)

부표 51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 학교의 진로지도 경험에 따른 차이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기이해	진로관련 강연	M (SD) 있다	3.53(.718)	3.80(.618)	3.09(.747)	3.90(.793)
		M (SD) 없다	3.45(.796)	3.60(.567)	2.93(.873)	3.92(.874)
		t	1.366	3.641***	2.696**	-.227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3.53(.721)	3.79(.611)	3.09(.746)	3.91(.788)
		M (SD) 없다	3.45(.805)	3.49(.697)	2.84(.950)	3.78(.948)
		t	.917	3.357***	3.303***	1.677
	진로관련 검사	M (SD) 있다	3.52(.722)	3.80(.612)	3.08(.755)	3.91(.796)
		M (SD) 없다	3.44(.840)	3.64(.655)	2.94(.860)	3.87(.857)
		t	.795	2.451*	2.107*	.665
	직업체험	M (SD) 있다	3.52(.721)	3.80(.619)	3.09(.750)	3.92(.789)
		M (SD) 없다	3.51(.753)	3.65(.579)	2.98(.821)	3.71(.922)
		t	.328	3.127**	2.286*	2.682**
	진로상담	M (SD) 있다	3.52(.718)	3.81(.618)	3.08(.752)	3.91(.792)
		M (SD) 없다	3.50(.809)	3.60(.569)	2.94(.974)	3.87(.859)
		t	.367	3.918***	1.495	.689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관련 강연	M (SD) 있다	3.73(.575)	3.84(.568)	3.46(.660)	3.92(.643)
		M (SD) 없다	3.78(.569)	3.73(.455)	3.35(.676)	3.94(.685)
		t	-.965	2.249*	2.088*	-.372
	학교 및 학과 안내	M (SD) 있다	3.73(.576)	3.84(.560)	3.46(.654)	3.94(.635)
		M (SD) 없다	3.81(.558)	3.64(.514)	3.30(.747)	3.84(.775)
		t	-1.337	2.372*	2.446*	1.481
	진로관련 검사	M (SD) 있다	3.74(.574)	3.84(.558)	3.46(.652)	3.93(.641)
		M (SD) 없다	3.81(.583)	3.69(.571)	3.31(.754)	3.91(.697)
		t	-.868	2.699**	2.419*	.327

*p<.05, **p<.01, ***p<.001

부표 52 상관분석 : 한·중·일·미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과 학교의 진로지도 만족도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직업체험	직업체험	직업체험	직업체험
진로·직업 역량	진로·직업 지식	.010	.091***	.022	.145***

*p<.05, **p<.01, ***p<.001

10) 아르바이트와 현재 상황에 따른 직업관련 문항 비교

부표 53 아르바이트 여부 :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직업 생활에 관한 가치	내적 보상	M(SD)	4.14(.613)	4.09(.641)	4.12(.560)	4.04(.574)	3.85(.628)	3.74(.678)	4.25(.769)	4.03(.895)
		t	1,355		2.404**		2.592**		4.748***	
	사회적 보상	M(SD)	3.63(.789)	3.56(.780)	3.73(.698)	3.58(.715)	3.50(.782)	3.30(.835)	3.82(.916)	3.52(.973)
		t	1,584		3.750***		3.677***		5.769***	
진로 직업 태도	결정성	M(SD)	2.99(1.068)	3.01(1.031)	3.27(.845)	3.11(.914)	2.75(1.097)	2.48(1.080)	3.52(1.085)	3.26(1.085)
		t	-479		3.139**		3.630***		4.360***	
	확신성	M(SD)	3.13(.912)	3.11(.919)	2.74(.898)	2.81(.848)	3.33(.934)	3.40(1.005)	3.01(1.127)	3.18(1.000)
		t	.246		-1.369		-1.095		-2.858**	

*p<.05, **p<.01, ***p<.001

부표 54 현재 상황 : 진로직업태도 비교

내용/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취업	학생	취업 준비/무직	취업	학생	취업 준비/무직	취업	학생	취업 준비/무직	취업	학생	취업 준비/무직
진로 직업 태도	결정성	M (SD)	3.01 (.986)	3.01 (1.049)	2.88 (1.166)	3.30 (.879)	3.20 (.851)	2.98 (.903)	2.850 (1.005)	2.70 (1.111)	2.55 (1.136)	3.5 (1.127)	3.54 (1.030)	3.14 (1.129)
		F(Scheffé)	1,183			5.778**(ac)			4.613**(ac)			16.911***(ac, bc)		
	준비성	M (SD)	3.72 (.790)	3.74 (.748)	3.70 (.763)	3.76 (.651)	3.83 (.591)	3.77 (.737)	3.10 (.840)	3.45 (.844)	3.23 (.989)	3.54 (.966)	3.68 (.907)	3.48 (1.034)
		F(Scheffé)	.251			2.410			20.373*** (ab, bc)			6.440** (bc)		
독립성	M (SD)	2.61 (1.006)	2.44 (.956)	2.44 (.909)	2.92 (.908)	2.86 (.811)	2.74 (.825)	2.36 (.935)	2.45 (.898)	2.40 (1.011)	2.67 (1.225)	2.60 (1.158)	2.37 (1.137)	
	F(Scheffé)	2.606			2.197			1.094			6.917*** (ac, bc)			
진로준비 행동	M (SD)	3.34 (.758)	3.24 (.674)	3.22 (.722)	3.51 (.675)	3.44 (.619)	3.35 (.652)	3.08 (.791)	3.08 (.777)	2.96 (.876)	3.42 (.844)	3.41 (.733)	3.19 (.867)	
	F(Scheffé)	2,119			3,301*			2,339			10,446*** (ac, bc)			
진로 직업 역량	자기 이해	M (SD)	3.54 (.825)	3.53 (.710)	3.41 (.726)	3.80 (.66)	3.77 (.587)	3.72 (.683)	3.20 (.749)	3.05 (.753)	2.98 (.829)	3.98 (.803)	3.85 (.797)	3.87 (.852)
		F(Scheffé)	2,058			.877			5,591** (ab, ac)			3,435* (ab)		
	진로 직업 지식	M (SD)	3.31 (.854)	3.26 (.773)	3.19 (.779)	3.60 (.679)	3.49 (.686)	3.43 (.754)	2.91 (.802)	2.91 (.778)	2.79 (.835)	3.75 (.792)	3.66 (.795)	3.57 (.895)
		F(Scheffé)	1,083			5,494** (ab)			2,165			4,612** (ac)		
합리적 의사 결정	M (SD)	3.72 (.642)	3.75 (.564)	3.65 (.588)	3.82 (.606)	3.84 (.533)	3.72 (.581)	3.31 (.704)	3.51 (.633)	3.33 (.694)	3.99 (.616)	3.90 (.630)	3.88 (.748)	
	F(Scheffé)	2,305			1,826			13,081*** (ab, bc)			3,158*			

*p<.05, **p<.01, ***p<.001

※ 주 : 현재 상황(a=취업, b=학생, c=취업준비/무직)

11) 5년이내 희망일자리 취업 불가능 이유

부표 55 중·일·미 청소년의 5년이내 희망일자리 취업불가능 이유 :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 %(명)

내용/구분 (각국의 높은 순위 3가지 항목)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		
		남	여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낮은편	중간	높은편
중국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58.0	66.1	50.0	62.5	62.5	66.4	59.7	56.1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24.4	22.3	25.0	23.2	24.3	16.4	31.3	28.1
	나의 인맥, 학맥이 좋지 않아서	17.6	11.6	25.0	14.3	13.2	17.2	9.0	15.8
	전체	100 (119)	100 (121)	100 (24)	100 (56)	100 (152)	100 (116)	100 (67)	100 (57)
	χ^2	2.267		2.569			7.599		
일본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58.1	60.0	61.5	64.5	52.4	61.3	57.9	57.2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31.3	34.0	28.8	30.8	37.9	30.5	33.8	34.4
	나의 인맥, 학맥이 좋지 않아서	10.7	6.0	9.6	4.7	9.7	8.2	8.3	8.4
	전체	100 (291)	100 (300)	100 (156)	100 (172)	100 (248)	100 (243)	100 (133)	100 (215)
	χ^2	4.287		9.408			.990		
미국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45.6	48.2	48.5	43.5	50.5	44.1	49.4	48.8
	나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25.0	24.9	30.3	21.8	23.1	27.8	23.5	22.4
	5년 이내에 학업을 끝 내지 못할 것이므로	13.9	14.2	6.1	13.7	14.8	12.5	15.7	14.6
	나의 인맥, 학맥이 좋지 않아서	15.5	12.7	15.2	21.0	11.6	15.6	11.4	14.1
	전체	100 (296)	100 (338)	100 (33)	100 (124)	100 (398)	100 (263)	100 (166)	100 (205)
	χ^2	1.138		9.517			4.328		

*p<.05, **p<.01, ***p<.001

12)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직업이 없을 경우

부표 56 중·일·미 청소년의 구직 시 학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 %(명)

내용/구분 (높은 순위 3가지 항목)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			
	남	여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낮은편	중간	높은편	
중국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33.7	39.9	37.0	38.1	36.7	41.5	36.2	33.5
	진학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다	34.9	29.9	30.1	25.5	34.1	29.3	30.1	36.4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31.4	30.2	32.9	36.4	29.1	29.3	33.6	30.1
	전체	100 (605)	100 (666)	100 (73)	100 (239)	100 (940)	100 (434)	100 (345)	100 (492)
	χ^2	5.925		7.974			9.589*		
일본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44.1	45.7	41.3	45.0	47.1	46.6	41.1	45.9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40.5	37.8	40.9	38.9	37.9	37.3	44.6	37.3
	진학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다	15.4	16.5	17.8	16.1	15.0	16.1	14.4	16.8
	전체	100 (662)	100 (680)	100 (303)	100 (347)	100 (667)	100 (459)	100 (341)	100 (542)
	χ^2	1.055		3.106			5.814		
미국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47.3	46.1	48.4	45.9	48.0	40.9	48.9	50.4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	35.4	37.3	27.4	39.0	34.9	41.8	36.0	31.6
	진학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다	17.3	16.6	24.2	15.0	17.1	17.3	15.1	17.9
	전체	100 (596)	100 (670)	100(62)	100 (246)	100 (811)	100 (440)	100 (358)	100 (468)
	χ^2	.508		4.700			12.450*		

*p<.05, **p<.01, ***p<.001

보론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보론

보론 1. 한·중·일·미 고등학생 진로준비 설문조사 결과²⁶⁾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중국, 일본,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도구는 중국아동청소년연구센터(China Youth and Children Research Center)에서 개발하였고, 2012년 7월 24일에서 26일에 걸쳐 로드아일랜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중·일·미 전문가협의회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조사개요는 <보론표 1>과 같다.

보론표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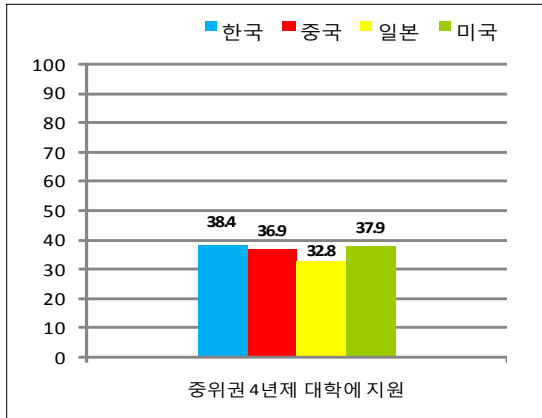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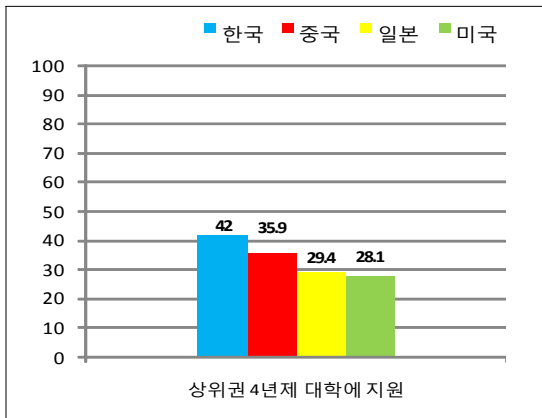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조사지역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울산, 대전, 충남, 경북, 대구, 광주, 전북	北海 郑州 北京 西安 宁波 哈尔滨	岡山県 茨城県 福島県 東京都 福岡県 埼玉県 神奈川県 青森県 愛知県 山形県 宮城県	Durham, North Carolina Kansas City, Kansas Agoura Hills, California Jersey Shore, Pennsylvania Chicago, Illinois Liberty, Missouri Thousand Oaks, California Indianapolis, Indiana Idaho Falls, Idaho DeWitt, New York Eugene, Oregon Albuquerque, New Mexico Oklahoma City, Oklahoma
표본수	1295	1767	1224	1025

26) 보론1은 김희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조사결과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을 보면, 한국청소년의 상위권 4년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응답(42%)과 중위권 4년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응답(38.2%)이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한국청소년들은 중·일·미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상위권이나 중위권 4년제 대학에 지원하려는 계획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청소년은 상위권 4년제 대학 지원과 중위권 4년제 대학 지원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일본과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중위권 4년제 대학 지원 계획이 더 높았음. 특히 미국청소년의 전문대 지원계획 응답률은 타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보론그림 1】 한·중·일·미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보론표 2 고등학교 졸업 후의 계획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χ^2
상위권 4년제 대학에 지원	42.0(542)	35.9(632)	29.4(359)	28.1(273)	747.067***
중위권 4년제 대학에 지원	38.4(496)	36.9(648)	32.8(400)	37.9(368)	
하위권 4년제 대학에 지원	1.9(24)	9.8(172)	5.6(68)	7.1(69)	
외국으로 유학	1.9(25)	4.5(79)	1.0(12)	2.8(27)	
전문대(2~3년제) 지원	5.6(72)	3.4(59)	3.0(36)	13.8(134)	
기술학교 진학	1.5(19)	1.6(28)	11.3(138)	2.2(21)	
취업	2.4(31)	1.4(25)	12.5(152)	4.3(42)	
졸업 후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음	6.3(81)	6.5(115)	4.5(55)	3.7(36)	
전체	100(1290)	100(1758)	100(1220)	100(970)	

*p<.05, **p<.01, ***p<.001

□ 진로와 관련한 부모님과과의 대화 정도

○ 진로와 관련한 부모님과과의 대화주제와 관련해서 한·중·미 청소년은 학업성과 관련하여, 일본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대화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진로와 관련해서 한·중·미 청소년은 특히 학업성적에 대해, 일본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미 청소년은 진로계획이나 고교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 공부하고 싶은 전공 등에 대해 전반적인 대화빈도가 일본청소년보다 높았다. 가장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 주제는 한국청소년은 부모님 직업이었고, 중·일·미 청소년은 사회, 경제적인 추세나 사업동향이였다.

보론표 3 부모님과의 진로관련 대화 정도(낮은 평균값이 높은 빈도의 대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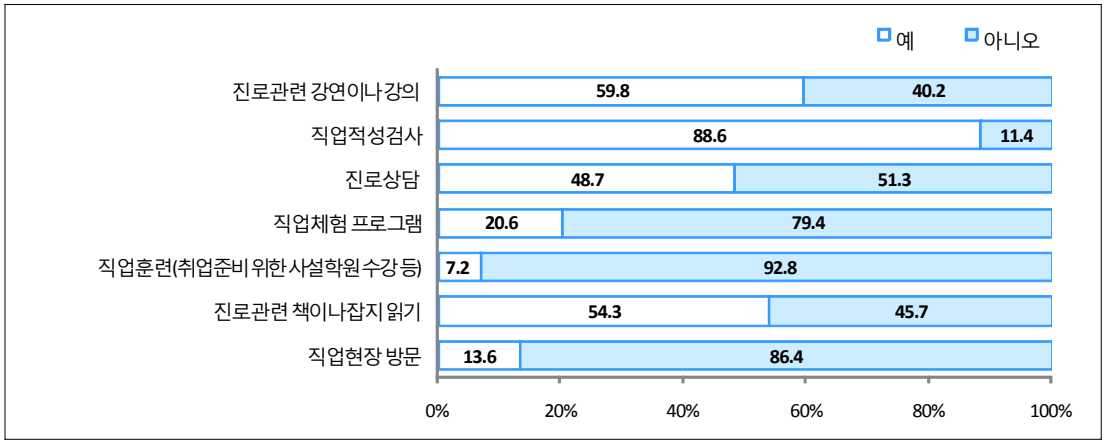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Scheffé)
	M	SD	M	SD	M	SD	M	SD	
고등학교 졸업 후의 나의 구체적인 진로	1.90	.759	1.92	.798	2.02	.776	1.76	.798	20.074*** (ac, ad, bd, bc, cd)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문분야 또는 전공	1.86	.803	2.14	.885	2.24	.907	1.91	.915	53.647*** (ab, ac, bc, bd, cd)
나의 장기적인 진로계획	2.15	.838	2.03	.863	2.09	.896	1.95	.918	11.842*** (ab, ad, cd)
내 흥미와 적성	2.02	.855	1.99	.874	2.22	.921	1.72	.843	60.131*** (ac, ad, bc, bd, cd)
내 학업성적	1.75	.813	1.83	.841	2.14	.820	1.63	.843	77.735*** (ac, ad, bc, bd, cd)
나의 미래의 삶의 방식	2.21	.939	2.21	.937	2.35	.909	1.94	.940	36.953*** (ac, ad, bc, bd, cd)
부모님 직업	2.53	.886	2.29	.861	2.48	.913	2.29	.929	25.974*** (ab, ad, bc, cd)
사회, 경제적인 추세, 사업 동향	2.46	.868	2.43	.959	2.78	.930	2.55	1.012	37.070*** (ac, bc, bd, cd)

*p<.05, **p<.01, ***p<.001 / 한:a, 중:b, 일:c, 미:d

※ 주 : 응답척도의 의미가 역순이기 때문에 ①-자주한다 ~ ④-전혀안한다) 높은 평균값은 낮은 대화빈도를 의미함.

□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 경험

○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 경험 중 한국청소년은 직업적성검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88.6%) 보였으며, 그 다음은 진로관련 강연이나 강의(59.8%), 진로관련 책이나 잡지 읽기 (54.3%), 진로상담(48.7%), 직업체험 프로그램(20.6%), 직업현장 방문(13.6%), 직업훈련(7.2%)순으로 나타남.



【보론그림 2】 한국 청소년의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

보론표 4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 경험 여부

단위: %(명)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진로관련 강연이나 강의	59.8 (774)	40.2 (521)	100 (1295)	19.5 (340)	80.5 (1403)	100 (1743)	53.0 (643)	47.0 (570)	100 (1213)	48.2 (484)	51.8 (521)	100 (1005)
직업적성검사	88.6 (1148)	11.4 (147)	100 (1295)	12.7 (221)	87.3 (1518)	100 (1739)	61.1 (745)	38.9 (474)	100 (1219)	30.3 (304)	69.7 (699)	100 (1003)
진로상담	48.7 (631)	51.3 (664)	100 (1295)	12.5 (218)	87.5 (1520)	100 (1738)	10.3 (124)	89.7 (1083)	100 (1207)	30.9 (310)	69.1 (694)	100 (1004)
직업체험 프로그램	20.6 (267)	79.4 (1028)	100 (1295)	15.6 (272)	84.4 (1472)	100 (1744)	42.4 (516)	57.6 (702)	100 (1218)	32.5 (325)	67.5 (674)	100 (999)
직업훈련(취업준비 위한 사설학원 수강 등)	7.2 (93)	92.8 (1202)	100 (1295)	6.4 (111)	93.6 (1626)	100 (1737)	7.1 (86)	92.9 (1127)	100 (1213)	15.4 (154)	84.6 (848)	100 (1002)
진로관련 책이나 잡지 읽기	54.3 (703)	45.7 (592)	100 (1295)	27.2 (474)	72.8 (1266)	100 (1740)	53.0 (645)	47.0 (573)	100 (1218)	50.5 (507)	49.5 (497)	100 (1004)
직업현장 방문	13.6 (176)	86.4 (1119)	100 (1295)	18.1 (315)	81.9 (1428)	100 (1743)	44.2 (537)	55.8 (679)	100 (1216)	39.9 (400)	60.1 (603)	100 (1003)

*p<.05, **p<.01, ***p<.001

지난 1년간 진로결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경험여부를 보면, 국가별로, 그리고 활동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직업적성검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88.6%) 보였으며, 그 다음은 진로관련 강연이나 강의(59.8%), 진로관련 책이나 잡지 읽기(54.3%), 진로상담(48.7%), 직업체험 프로그램(20.6%), 직업현장 방문(13.6%)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7.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은 진로관련 책이나 잡지 읽기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각각 27.2%, 50.5%), 일본청소년은 한국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직업적성검사(61.1%)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청소년은 가장 경험률이 높았던 직업적성검사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만족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청소년에게서 가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직업적성검사의 경우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률이(‘도움 되지 않았다’ 와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합친 응답률) 가장 높아 향후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고려한 직업적성검사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청소년의 경우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내용은 중국은 진로관련 강연이나 강의였고,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직업적성검사였다.

보론표 5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 경험 만족도 (낮은 평균값이 높은 수준의 만족도 의미)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진로관련 강연이나 강의	2.20	.695	2.18	.812	1.95	.676	1.73	.787	47.467*** (ac, ad, bc, bd, cd)
직업적성검사	2.25	.736	2.02	.735	2.11	.802	2.03	.980	10.234*** (ab, ac, ad)
진로상담	2.09	.685	1.95	.768	1.88	.750	1.64	.859	24.917*** (ac, bd, cb, ab)
직업체험 프로그램	2.17	.841	1.69	.737	1.59	.731	1.49	.811	44.929*** (ab, ac, ad, bd)
직업훈련(취업준비를 위한 사설학원 수강포함)	1.80	.815	1.97	.921	1.66	.679	1.47	.951	7.377*** (ab, bd)
진로관련 책이나 잡지 읽기	1.90	.646	1.86	.664	1.70	.674	1.76	.881	10.364*** (ac, ad, bc)
직업현장 방문	1.77	.912	2.04	.846	1.63	.741	1.50	.844	27.546*** (ab, ad, bc, bd)

*p<.05, **p<.01, ***p<.001 / 한:a, 중:b, 일:c, 미:d
 ※ 주 : 응답척도의 의미가 역순이기 때문에(①-많이 도움되었다~④-전혀도움되지 않았다) 높은 평균값은 낮은 만족도를 의미함.

□ 진로·직업 태도

○ 한·중·미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알고 있다는 항목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청소년은 중·일·미 청소년보다 취업기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대한 이해, 미래의 목표설정,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지식, 고교 졸업 후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 수집, 취업기회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전반적인 진로·직업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이 가장 낮았고, 한국청소년의 경우는 일본청소년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개국 청소년의 개별항목별 응답을 보면, 한·중·미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알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았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현재 취업기회에 관심이 있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해할 만한 결과이다. 일본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항목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알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수집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다.

보론표 6 진로·직업 태도(높은 평균값은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을 의미)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Scheffé)
	M	SD	M	SD	M	SD	M	SD	
나의 능력과 적성을 알고 있다.	2.23	.733	1.93	.654	2.43	.731	1.68	.709	259.454*** (ab, ac, ad, bc, bd, cd)
내 미래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2.23	.850	2.08	.780	2.21	.954	1.69	.827	94.997*** (ab, ad, bc, bd, cd)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지식이 있다.	2.24	.772	2.42	.809	2.48	.858	1.75	.841	186.786*** (ab, ac, ad, bd, cd)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를 조사하고 모으고 있다.	2.43	.821	2.35	.847	2.37	.871	1.99	.980	58.929*** (ac, ad, bd, cd)
현재 취업기회에 관심이 있다.	2.48	.813	2.53	.909	2.30	.830	1.91	.911	123.829*** (ac, ad, bc, bd, cd)

*p<.05, **p<.01, ***p<.001 / 한:a, 중:b, 일:c, 미:d

※ 주 : 응답척도의 의미가 역순이기 때문에 ①-매우 그렇다 ~ ④-전혀그렇지 않다) 높은 평균값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짐.

□ 직업선택 요인

○ 직업선택을 위한 요인으로,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자신의 능력과 선호에 잘 맞아야 한다는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한·중·일·미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을 살펴보면, 4개국 청소년 모두 내 능력과 선호에 잘 맞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중요하지 않다’ 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이 가장 낮았으며, 직업선택 요인으로서 직업의 명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4개국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선호도를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 요인으로, 그리고 반대로 명성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론표 7 직업선택 요인(높은 평균값은 낮은 중요도를 의미)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수입	1.65	.606	1.77	.612	1.60	.617	1.46	.710	52.512*** (ab, ad, bc, bd, cd)
사회적 지위	2.12	.770	2.03	.715	2.30	.769	2.19	.968	29.848*** (ab, ac, bc, bd, cd)
안정성	1.54	.646	1.56	.692	1.45	.639	1.34	.660	25.871*** (ac, ad, bc, bd, cd)
융통성 있는 근로방식 (예, 출·퇴근시간)	1.91	.782	1.72	.697	1.80	.708	1.60	.745	39.483*** (ab, ac, ad, bc, bd, cd)
내 능력과 선호에 잘 맞음	1.24	.484	1.38	.631	1.40	.575	1.26	.628	26.961*** (ab, ac, bd, cd)
도전적인(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직업특성	2.05	.853	2.06	.827	2.08	.832	1.87	.825	14.761*** (ad, bd, cd)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1.46	.625	1.69	.719	1.67	.717	1.43	.714	49.865*** (뮤, ac, bd, cd)
사회에 대한 기여	2.10	.812	2.01	.789	2.00	.859	1.53	.813	107.099*** (ab, ac, ad, bd, cd)
근로환경	1.61	.635	1.71	.717	1.52	.650	1.42	.762	42.124*** (ab, ac, ad, bc, bd, cd)
직장의 복지혜택 (건강보험, 휴가)	1.67	.708	1.93	.770	2.30	.793	1.43	.745	281.992*** (ab, ac, ad, bc, bd, cd)
명성	2.27	.882	2.50	.848	2.56	.832	2.82	1.116	68.553*** (ab, ac, ad, bd, cd)

*p<.05, **p<.01, ***p<.001 / 한:a, 중:b, 일:c, 미:d

※ 주 : 응답척도의 의미가 역순이기 때문에 ①-매우중요하다 ~ ④-전혀중요하지않다) 높은 평균값은 낮은 중요도를 의미함.

□ 진로와 관련한 가치관

○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의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은 ‘오늘날의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준다고 느낀다’는 항목을, 중·일·미 청소년은 ‘살면서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에서 동의정도가 가장 높았음.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의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다양한 항목을 가지고 4개국 청소년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국청소년은 중·일·미 청소년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청소년은 다른 항목보다 ‘오늘날의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준다고 느낀다’에서, 그리고 중·일·미 청소년은 ‘살면서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에서 동의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항목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청소년은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다면, 여유 있고 느긋하게 살고 싶다’를,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를, 일본청소년은 ‘부모님이 반대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항목을 보면, 한국청소년은 ‘원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참고 일해야 한다’에서 한국청소년들은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경우 참고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특출난 것보다 평범한 것에 좋다’를 다른 항목보다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청소년은 ‘내 회사나 가게를 갖고 싶다’를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흥미 있는 조사결과를 보여주었다.

보론

보론표 8 진로와 관련한 가치관(높은 평균값은 낮은 동의 정도를 의미)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F(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살면서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	1.68	.658	1.57	.645	1.77	.836	1.45	.715	42.056*** (ab, ac, ad, bc, bd, cd)
인생의 목표 없이는 살 수 없다.	1.80	.763	1.72	.758	2.16	.876	1.62	.894	102.648*** (ac, ad, bc, bd, cd)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1.69	.682	1.67	.691	2.05	.820	1.47	.783	123.165*** (ac, ad, bc, bd, cd)
젊을 때 많은 직업을 경험하고 싶다.	1.92	.823	1.88	.799	2.17	.889	2.06	.988	32.209*** (ac, ad, bc, bd, cd)

다소 지루하더라도 안정적인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2.21	.856	2.29	.920	2.27	.900	2.30	1.117	2.507
큰 조직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1.96	.750	1.82	.747	2.28	.852	1.93	.956	78.550*** (ab, ac, bc, bd, cd)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다면, 여유 있고 느긋하게 살고 싶다.	1.56	.686	2.35	.963	1.94	.829	1.87	.986	205.978*** (ab, ac, ad, bc, bd)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일단 먼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2.44	.794	1.71	.749	2.06	.808	2.64	1.163	312.918*** (ab, ac, ad, bc, bd, cd)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보답을 받는다.	1.65	.725	1.92	.822	1.98	.903	1.97	1.016	40.504*** (ab, ac, ad)
특출난 것보다 평범한 것이 좋다.	2.55	.875	2.66	.923	2.42	.890	2.72	1.238	21.483*** (ab, ac, ad, cd)
내 회사나 가게를 갖고 싶다.	2.24	.906	1.98	.864	2.94	.919	2.10	1.131	269.215*** (ab, ac, ad, bc, bd, cd)
학교교육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1.99	.821	1.85	.809	2.00	.783	2.24	1.100	43.257*** (ab, ad, bc, bd, cd)
원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참고 일해야 한다,	2.89	.855	1.97	.773	2.47	.830	2.09	1.072	314.478*** (ab, ac, ad, bc, bd, cd)
부모님이 반대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1.70	.679	2.12	.770	1.81	.751	1.84	1.026	76.577*** (ab, ac, ad, bc, bd)
나에 대한 가족의 기대가 너무 높다.	2.09	.801	2.22	.821	2.83	.888	2.55	1.188	171.159*** (ab, ac, ad, bc, bd, cd)
일보다 취미와 여가시간이 더 중요하다.	2.20	.698	1.92	.772	2.28	.804	2.62	1.108	152.443*** (ab, ad, bc, bd, cd)
미래에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2.00	.851	2.22	.875	1.92	.875	2.14	1.128	30.962*** (ab, ad, bc, cd)
오늘날의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준다고 느낀다.	1.47	.664	1.75	.746	2.19	.924	1.99	1.078	169.958*** (ab, ac, ad, bc, bd, cd)

*p<.05, **p<.01, ***p<.001

※ 주 : 응답척도의 의미가 역순이기 때문에①-매우 동의한다 ~ ④-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높은 평균값은 낮은 동의정도를 의미함.

보론 2.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의 데이터 비교²⁷⁾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연구 분야에서 온라인조사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며, 기존에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연구 분야에서 온라인조사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 데이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구축할 때 본 조사와 동일한 연령대(만 19세-24세)를 대상으로 2011년 수행된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Ⅱ’의 면접 방식 설문조사²⁸⁾에서 사용한 항목 일부를 온라인조사에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방식에 따라 응답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탐색적 비교를 실시하였다. 다만, 조사시기가 다소 상이하고, 문항의 배열 위치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조사 방법 간 데이터의 차이를 해석하는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에 사용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상황 (취업, 학생, 취업준비/무직)
- 부모님의 최종학력
-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
- 가정의 경제수준
- 부모님의 교육기대수준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
- 구직/취업 경험 여부
- 구직 시 경험한 어려움

청소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면접조사 보다 온라인 조사에서 ‘취업’ 과 취업/무직’ 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낮았고, ‘학생’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27) 보론2는 안선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8) 이 연구에서 수행한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11년 6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표집방법은 16개 시·도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비례할당 방식을 채택하였다.

보론표 9 조사방법에 따른 현재 상황(취업, 학생, 취업준비/무직)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현재상황	취업	20.0	13.6	6.4	70.049***
	학생	61.4	74.8	-13.4	
	취업준비/무직)	18.5	11.6	6.9	

아버지의 학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졸 또는 대학원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온라인조사에서 각각 6.1.9%, 7.4% 높았고, 고졸과 대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7% 5.7%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졸, 대졸, 대학원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온라인 조사에서 각각 5.9%, 3.1%, 2.1% 높았고, 고졸이라는 응답 비율은 11.1% 더 낮게 나타났다.

보론표 10 조사방법/부모님의 최종학력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부의 최종학력	중졸	5.0	11.1	-6.1	150.863***
	고졸	51.8	44.1	7.7	
	대졸	41.5	35.8	5.7	
	대학원졸	1.6	9.0	-7.4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모의 최종학력	중졸	6.8	12.7	-5.9	69.824***
	고졸	69.5	58.4	11.1	
	대졸	22.9	26.0	-3.1	
	대학원졸	0.8	2.9	-2.1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중간’ 또는 ‘높은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온라인조사에서 각각 21%, 15.6 낮았고, ‘낮은편’, ‘매우 낮은편’ 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21.7%, 13.4%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조사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론표 11 조사방법/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고등학교 학업성적	매우 높은편	3.0	4.3	-1.3	570.347***
	높은편	30.7	15.1	15.6	
	중간	54.1	33.1	21	
	낮은편	9.9	31.6	-21.7	
	매우 낮은편	2.4	15.8	-13.4	

조사방법에 따른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문에는 ‘낮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온라인조사에서 11.17%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간’ 및 ‘높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온라인조사에서 각각 9.7%, 1.9%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조사 응답자들이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론표 12 조사방법/가정의 경제수준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경제수준	낮다	20.8	32.5	-11.7	73.558***
	중간이다	33.3	23.6	9.7	
	높다	45.8	43.9	1.9	

부모님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2~3년제대학 졸업’ 또는 ‘석사학위 졸업’ 으로 응답한 비율은 온라인조사에서 각각 1.6%, 3.3%, 2.3% 높게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졸업’ 으로 응답한 비율은 7.1% 낮았으며, ‘박사학위 취득’ 이라는 응답은 0.1% 낮게 나타났다.

보론표 13 조사방법/부모님의 기대교육수준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기대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5.2	6.8	-1.6	23.226***
	2-3년제 대학 졸업	12.5	15.8	-3.3	
	4년제 대학 졸업	71.7	64.6	7.1	
	석사학위 취득	5.8	8.1	-2.3	
	박사학위취득	4.8	4.7	0.1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면접조사에 비해 온라인 조사에서 5.1% 높게 나타났다.

보론표 14 조사방법/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60.7	65.8	-5.1	9.480***
	없다	39.3	34.2	5.1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 양상이 차이를 보였는데, 두 조사 모두 ‘용돈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 보인 항목은 면접조사에서는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고 온라인 조사에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로 나타났다. 두 조사의 응답을 상위 3개 요인은 동일했다.

보론표 15 조사방법/아르바이트 경험 이유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경험이유	생활비를 벌기위해서	11.8	26.4	-14.6	92.456***
	학비를 벌기 위해서	9.3	8.2	1.1	
	용돈이 부족해서	57.5	42.3	15.2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15.2	17.6	-2.4	
	호기심에	5.0	4.0	1	
	주위의 권유로	1.2	1.3	-0.1	
	기타	0.1	0.1	.	

구직이나 취업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보론표 16 조사방법/구직/취업 여부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차이	χ^2
경험여부	있다	32.6	32.6	.	.000
	없다	67.4	67.4	.	

설문조사 응답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방안 중 하나는 ‘잘 모름’ 응답 행위이다. 이와 같은 응답행위는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행위로, 대표적인 불성실 응답 형태이다(임경은, 2009). 온라인조사는 응답 방식에 대해 현장에서 검토하고 수정요청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면접원이 없기 때문에 불성실 응답이 높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다(이지영·김진교, 2006).

면접조사 응답양상에 비해 온라인조사의 응답양상의 불성실 응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조사의 일본 문항에 대해 ‘그저 그렇다’ 를 선택한 비율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8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온라인조사가 면접조사에 비해 ‘그저 그렇다’ 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4개 항목에서는 낮게 나타나 두 조사 방법 간 응답성실성 차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보론표 17 조사방법/구직 시 경험한 어려움 단위 : %

항목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차이	χ^2
취업정보가 부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7	6.3	-4.6	39.322***
	별로 그렇지 않다	13.2	18.6	-5.4	
	그저 그렇다	28.5	33.5	-5.0	
	대체로 그렇다	49.7	34.3	15.4	
	매우 그렇다	6.9	7.3	-0.4	
항목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차이	χ^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2.1	7.3	-5.2	44.259***
	별로 그렇지 않다	14.3	20.4	-6.1	
	그저 그렇다	36.2	34.1	2.1	
	대체로 그렇다	40.8	27.3	13.5	
	매우 그렇다	6.6	10.8	-4.2	
항목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차이	χ^2
경험이 부족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2	4.5	-3.3	20.824***
	별로 그렇지 않다	9.8	14.3	-4.5	
	그저 그렇다	30.2	28.4	1.8	
	대체로 그렇다	45.6	38.0	7.6	
	매우 그렇다	13.2	14.9	-1.7	
항목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차이	χ^2
여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8.2	10.1	-1.9	13.273**
	별로 그렇지 않다	25.0	23.1	1.9	

	그저 그렇다	37.9	35.0	2.9	
	대체로 그렇다	25.3	21.3	4	
	매우 그렇다	3.5	10.5	-7	
	항목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차이	χ^2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2.3	6.3	-4	23.130***
	별로 그렇지 않다	15.2	13.9	1.3	
	그저 그렇다	31.3	30.8	0.5	
	대체로 그렇다	43.4	35.9	7.5	
	매우 그렇다	7.8	13.1	-5.3	
	항목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차이	χ^2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5.5	20.4	-4.9	15.076**
	별로 그렇지 않다	32.7	30.8	1.9	
	그저 그렇다	27.8	30.2	-2.4	
	대체로 그렇다	20.7	13.5	7.2	
	매우 그렇다	3.4	5.1	-1.7	
	항목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차이	χ^2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2.5	5.9	-3.4	49.824***
	별로 그렇지 않다	9.4	18.0	-8.6	
	그저 그렇다	31.7	38.8	-7.1	
	대체로 그렇다	47.4	30.6	16.8	
	매우 그렇다	9.0	6.7	2.3	
	항목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차이	χ^2
근로환경이 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2.9	6.3	-3.4	42.304***
	별로 그렇지 않다	8.4	14.9	-6.5	
	그저 그렇다	34.0	35.7	-1.7	
	대체로 그렇다	48.5	32.4	16.1	
	매우 그렇다	6.1	10.6	-4.5	

온라인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 데이터 품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하지만 기존의 가구방문 등을 통한 면접조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비용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온라인조사가 대안적인 조사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인데 비해 학교나 학원 등 바쁜 일상으로 인해 면대면 면접방식으로 이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 온라인조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온라인조사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교화 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조사방법 간 데이터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의 데이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한 사회조사의 경우 온라인 조사 사용 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조사에 적합한 표본추출방법의 개발이나 가중치 적용 또는 표본 재추출과 같이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지영·김진교, 2006)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성실 응답에 대해서도 적으로는 온라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이 더 적었다. 온라인조사에서는 불성실 응답으로 여겨지는 응답이 지속되는 패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응답자에게 응답의 수정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응답의 성실성 측면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current conditions of youths of Korea,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career preparation. The main research topics include career guidance experiences, career-related values, work-related attitude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employment experiences and future employment prospect.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19~24 year-old youths of the four countri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The types of career guidance services youths received while they were in high school tend to differ among the four countries. The most common types of career guidance services are career tests for Korean youths and career counseling for Japanese counterparts. Chinese and American youth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ollege and college major information sessions. About the career guidance experience at home, the higher SES(educational level, job status and income level) is, the more frequent the conversation occurs about career between parents and the children, except in Japan. In all four countries, the higher SES is, the more active youths are in preparing for their future career. Korean youths are least likely to experience part-time jobs and youths who have had part-time jobs tend to be better off with their career preparation. About the future employment prospect, Chinese youths are most optimistic while American and Japanese youths tend to be least optimistic.

Some of the finding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career education polic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youths aged 19-24 do not show much progress in their career preparation compared to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Second, the rate

of Korean youths who have participated in job experience programs is lower than those in other three countries. Third, the career guidance at home turns ou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youths' career preparation level. However, Korean parents do not seem to engage actively in the conversation with their children about the career preparation. Fourth, academic achievement level shows correlations with various socio-psychological traits and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Fifth, family economic status has consistent correlations with youths' perspectives on themselves and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recommendations are articulated regarding strengthening career education for youths, developing parents' competency to promote children's career development, providing customized career guidance for youths with low academic achievement or those from low-income families and expand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youths.

key words: life styles and living conditions of youth,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career preparation, career guidance experiences, career-related values, work-related attitudes,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employment experiences, future employment prospect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운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욱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중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익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또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가나다 순) ◆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송민경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교수)

◆ 자문진(ABC 순) ◆

Barbara Newman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교수)

Fuwa Kazuhiko (일본 토호쿠대학 명예교수/ 쇼케이학원대학 아동학과·교수)

Hu Xia (일본청소년연구원·연구원)

Jing Jian Xiao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교수)

Sun Hongyan (중국아동청소년연구센터·연구원)

연구보고 12-R07

청소년의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 진로준비

인 쇄 2012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9. 3. 18. 제385-2009-00005호

인쇄처 나모기획 전화 02)503-545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346-0 93330